

조사통계 2015-02

제7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4년)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PSED)*

민준영 · 김호진 · 김성천 · 최종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머리말

패널조사는 동일한 개인 또는 집단을 추적 조사함으로써 일반적인 횡단면 조사가 제공할 수 없는 심층적이고 다차원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히 패널 데이터는 노동시장 분석에 유용하여 노동시장 진입 및 이동과정, 고용패턴 및 선호의 변화, 생애주기별 경제활동특성 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고용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히 경제활동상태가 현저히 열악하고 생애 근로기간도 짧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특성과 관련 요인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패널조사의 실시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와 관련 요인의 동태적 변화를 파악하고자 등록장애인 5,092명을 매년 추적 조사하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를 2008년부터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하는 보고서에서는 2014년에 실시한 7차년도 장애인고용패널조사의 주요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7차년도 조사의 주요한 특징은 최초 구축 패널 5,092명 중 4,082명을 조사함으로써 패널 유지율 80.2%를 기록하였다는 점으로, 이는 국내외 유수의 패널조사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패널유지율은 패널조사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서, 본 조사의 높은 패널유지율은 본 조사가 성공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패널조사의 진정한 가치는 종단 데이터가 제공하는 동태적 정보를 활용하여, 횡단 데이터로는 불가능한 심층적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본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풍성하고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본 조사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박승규 이사장님, 고용노동부 관계자 여러분, 자문위원 여러분, 특히 여러 가지 개인 사정에도 성심성의껏 조사에 참여해 주신 장애인고용패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 12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원장 이 순 홍

목 차

Abstract	1
일러두기	3
요 약	5
제1장 서론	15
제1절 조사 개관	15
1. 조사개요	15
제2절 조사내용	17
1. 조사표의 구성	17
2. 변경된 조사표	23
제3절 표본설계	25
1. 조사대상	25
2. 표본추출	26
3. 가중치 산출	31
4. 모수추정	42
5. 주요 변수의 추정치 및 상대표준오차	43
제4절 조사실시	44
1. 조사실시 및 결과	44
2. 데이터 검증	47
제5절 품질진단	50
제6절 이용자 주의사항	52

제2장 조사결과 1: 경제활동 특성	55
제1절 경제활동상태	55
제2절 경제활동상태 변동	56
제3절 직업력	73
제3장 조사결과 2: 취업자 특성	75
제1절 공통 특성	75
제2절 임금근로자 특성	87
제3절 자영업주 특성	123
제4절 무급가족종사자 특성	150
제4장 조사결과 3: 미취업자 특성	171
제1절 공통 특성	171
제2절 실업자 특성	176
제3절 비경제활동인구 특성	200
제5장 조사결과 4: 개인 특성	225
제1절 인적 특성 및 장애 특성	225
제2절 직업적 능력	231
제3절 고용서비스	239
제4절 직업능력개발	253
제5절 일상생활과 삶의 질	265
제6절 고령장애인	284
제6장 조사결과 5: 개인 소득 및 가구 특성	289
제1절 개인 소득	289
제2절 가구 특성	294
참고문헌	307
부 록	309

표목차

〈표 1-2- 1〉 부가조사표(직업력)	18
〈표 1-2- 2〉 조사표 구성	19
〈표 1-2- 3〉 조사표 주요항목	20
〈표 1-2- 4〉 직업력 조사표 구성	22
〈표 1-2- 5〉 7차년도 추가된 조사 내용	23
〈표 1-2- 6〉 7차년도 변경된 조사 내용	23
〈표 1-2- 7〉 7차년도 삭제된 조사 내용	24
〈표 1-3- 1〉 지역별 읍면동 수와 표본 읍면동 수	27
〈표 1-3- 2〉 지역별, 연령별 모집단 현황	27
〈표 1-3- 3〉 장애유형별, 연령별 모집단 현황	28
〈표 1-3- 4〉 장애인고용패널 표본배분 현황 - 지역별, 장애유형별, 연령대별	29
〈표 1-3- 5〉 장애인고용패널 현황 - 지역별, 장애유형별, 연령대별	30
〈표 1-3- 6〉 경제활동상태별 표본 수	37
〈표 1-3- 7〉 경제활동상태별 추이확률	37
〈표 1-3- 8〉 7차년도 가중치 -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40
〈표 1-3- 9〉 경제활동상태 변동 비율 추정치와 상대표준오차	43
〈표 1-4- 1〉 장애인고용패널 조사결과	44
〈표 1-4- 2〉 표본유지 현황 -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45
〈표 1-4- 3〉 조사 미완 사유 - 차수별	46
〈표 1-4- 4〉 대리응답 현황 - 차수별	46
〈표 1-5- 1〉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자체품질진단 점수	51
〈표 2-1- 1〉 경제활동상태 - 차수별	55
〈표 2-2- 1〉 조사 응답 패널의 특성 - 인구통계학 변수별	56
〈표 2-2- 2〉 경제활동상태 변동	57
〈표 2-2- 3〉 인구 수 대비 경제활동상태 변동	57
〈표 2-2- 4〉 경제활동상태 변동 - 성별	58
〈표 2-2- 5〉 경제활동상태 변동 - 연령별	59
〈표 2-2- 6〉 경제활동상태 변동 - 장애정도별	60

〈표 2-2- 7〉	경제활동상태 변동 - 장애유형별	61
〈표 2-2- 8〉	인구 대비 경제활동상태 변동 - 인구통계학 변수별	62
〈표 2-2- 9〉	경제활동상태 변동의 특성 - 현재 주업의 산업	63
〈표 2-2-10〉	경제활동상태 변동의 특성 - 현재 주업의 직업	64
〈표 2-2-11〉	경제활동상태 변동의 특성 - 현재 주업의 종사상 지위	64
〈표 2-2-12〉	경제활동상태 변동의 특성 - 6차 조사 시 가구정보	65
〈표 2-2-13〉	경제활동상태 변동의 특성 - 6차 조사 시 미취업자의 향후 취업 희망 여부	65
〈표 2-2-14〉	경제활동상태 변동의 특성 - 6차 조사 시 과거 취업경험	65
〈표 2-2-15〉	경제활동상태 변동의 특성 - 6차 조사 시 주업의 산업	66
〈표 2-2-16〉	경제활동상태 변동의 특성 - 6차 조사 시 주업의 직업	66
〈표 2-2-17〉	경제활동상태 변동의 특성 - 6차 조사 시 주업의 종사상 지위	67
〈표 2-2-18〉	경제활동상태 변동의 특성 - 6차 조사 이후 임금근로자 퇴사 사유	67
〈표 2-2-19〉	경제활동상태 변동의 특성 - 6차 조사 이후 자영업주 폐업 사유	68
〈표 2-2-20〉	경제활동상태 변동의 특성 - 미취업자 향후 취업 희망	68
〈표 2-2-21〉	경제활동상태 변동의 특성 - 미취업자 구직활동 여부	69
〈표 2-2-22〉	경제활동상태 변동의 특성 - 현재 장애상태	69
〈표 2-2-23〉	경제활동상태 변동의 특성 - 현재 건강상태	69
〈표 2-2-24〉	경제활동상태 변동의 특성 - 타인의 도움 필요 여부	70
〈표 2-2-25〉	경제활동상태 변동의 특성 - 차별경험 여부	70
〈표 2-2-26〉	경제활동상태 변동의 특성 - 자아존중감	70
〈표 2-2-27〉	경제활동상태 변동의 특성 - 자격증 취득 및 보유	71
〈표 2-2-28〉	경제활동상태 변동의 특성 - 고용서비스 경험	71
〈표 2-2-29〉	경제활동상태 변동의 특성 - 직업교육훈련 경험	72
〈표 2-2-30〉	경제활동상태 변동의 특성 - 삶의 전반적 만족도	72
〈표 2-3- 1〉	총 일자리의 수 - 인구통계학 변수별	73
〈표 3-1- 1〉	취업자 정의에 따른 판별결과	75
〈표 3-1- 2〉	취업자의 인적구성	76
〈표 3-1- 3〉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 차수별	77
〈표 3-1- 4〉	취업자의 일자리 산업 - 차수별, 종사상 지위별	78
〈표 3-1- 5〉	취업자의 직업 - 차수별, 종사상 지위별	79
〈표 3-1- 6〉	취업자의 부업 여부 및 부업을 하는 사유 - 차수별	79

〈표 3-1- 7〉	취업자의 일자리에 대한 가치관(1순위) - 차수별	80
〈표 3-1- 8〉	취업자의 근무환경 및 배려 - 종사상 지위별	81
〈표 3-1- 9〉	취업자의 일자리 불만족 비율 - 종사상 지위별	82
〈표 3-1-10〉	18(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취업 희망자 - 종사상 지위별	82
〈표 3-1-11〉	취업자 주요 특성 비교 - 성별	83
〈표 3-1-12〉	취업자 주요 특성 비교 - 연령별	84
〈표 3-1-13〉	취업자 주요 특성 비교 - 장애정도별	85
〈표 3-1-14〉	취업자 주요 특성 비교 - 장애유형별	86
〈표 3-2- 1〉	임금근로자의 인적구성	87
〈표 3-2- 2〉	임금근로자의 현재 일자리 근무사유 - 차수별	88
〈표 3-2- 3〉	임금근로자의 현재 일자리 근속기간 - 차수별	88
〈표 3-2- 4〉	임금근로자의 현재 일자리 근속기간(범주) - 차수별	89
〈표 3-2- 5〉	임금근로자의 현재 일자리 취업경로 및 채용방법 - 종사상 지위별	89
〈표 3-2- 6〉	임금근로자의 현재 일자리 취업소요기간 - 종사상 지위별	90
〈표 3-2- 7〉	임금근로자의 현재 일자리 취업에 도움이 되는 항목(1순위) - 종사상 지위별	90
〈표 3-2- 8〉	임금근로자의 현재 사업체 종류 - 차수별	91
〈표 3-2- 9〉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 - 차수별	91
〈표 3-2-10〉	임금근로자의 현재 일자리 사업체 규모	92
〈표 3-2-11〉	임금근로자의 교대제 여부 - 차수별	93
〈표 3-2-12〉	임금근로자의 근무시간 형태 - 차수별	93
〈표 3-2-13〉	임금근로자의 시간제 근로 주된 이유 및 전일제 전환 희망 여부 - 종사상 지위별	94
〈표 3-2-14〉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근무일수, 일평균 근무시간 - 차수별	94
〈표 3-2-15〉	임금근로자의 초과근로 여부 - 차수별	95
〈표 3-2-16〉	임금근로자의 1주 평균 초과근로시간, 한달 평균 초과근로수당 - 차수별	95
〈표 3-2-17〉	임금근로자의 지난 달 본인의 건강으로 인한 결근 유무 - 차수별	96
〈표 3-2-18〉	임금근로자의 임금지급방식 및 주체 - 차수별	96
〈표 3-2-19〉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 차수별, 종사상 지위별	97
〈표 3-2-20〉	임금근로자의 임금 체불 유무 - 차수별	97
〈표 3-2-21〉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제공 복리후생항목(중복응답) - 차수별	98
〈표 3-2-22〉	임금근로자 업무의 전공/적성 부합 여부 - 차수별	99
〈표 3-2-23〉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근무 시 애로사항(1순위) - 차수별	99

〈표 3-2-24〉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이직의사 - 차수별	100
〈표 3-2-25〉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이직사유(1순위) - 차수별	100
〈표 3-2-26〉	임금근로자의 이직을 위한 구직활동 여부 - 차수별	101
〈표 3-2-27〉	임금근로자의 직무조정 관련 배려 필요 여부 및 배려 여부 - 차수별	102
〈표 3-2-28〉	임금근로자의 필요한 직무조정 관련 배려 내용(중복응답) - 차수별	102
〈표 3-2-29〉	임금근로자의 근무시간 조정 관련 배려 필요 여부 및 배려 여부 - 차수별	103
〈표 3-2-30〉	임금근로자의 필요한 근무시간 조정 관련 배려 내용(중복응답) - 차수별	103
〈표 3-2-31〉	임금근로자의 업무 수행 시 타인의 도움 필요 여부 - 차수별	103
〈표 3-2-32〉	임금근로자의 항목별 타인의 도움 필요 여부 및 도움 비율 - 차수별	104
〈표 3-2-33〉	임금근로자의 작업보조기기 필요 여부 - 차수별	105
〈표 3-2-34〉	임금근로자의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되어 있는 편의시설(중복응답) - 차수별 ...	105
〈표 3-2-35〉	임금근로자의 근무환경 안전정도, 지난조사 이후 질병/사고 경험 여부 - 차수별 ..	106
〈표 3-2-36〉	임금근로자의 노동조합 유무 및 가입 비율 - 차수별	106
〈표 3-2-37〉	임금근로자의 지난조사 이후 차별경험 사항(1순위) - 차수별	107
〈표 3-2-38〉	임금근로자가 생각하는 업무수준(교육수준 비교) - 차수별	107
〈표 3-2-39〉	임금근로자가 생각하는 업무수준(기술수준 비교) - 차수별	108
〈표 3-2-40〉	임금근로자가 생각하는 업무의 유용성(다른 일자에서도 유용) - 차수별	108
〈표 3-2-41〉	임금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생각(열정, 즐거움, 만족도 등) - 7차	108
〈표 3-2-42〉	임금근로자의 주관적 만족도 - 차수별	110
〈표 3-2-43〉	임금근로자 주요 특성 비교 - 성별1	111
〈표 3-2-44〉	임금근로자 주요 특성 비교 - 성별2	112
〈표 3-2-45〉	임금근로자 주요 특성 비교 - 성별3	113
〈표 3-2-46〉	임금근로자 주요 특성 비교 - 연령별1	114
〈표 3-2-47〉	임금근로자 주요 특성 비교 - 연령별2	115
〈표 3-2-48〉	임금근로자 주요 특성 비교 - 연령별3	116
〈표 3-2-49〉	임금근로자 주요 특성 비교 - 장애정도별1	117
〈표 3-2-50〉	임금근로자 주요 특성 비교 - 장애정도별2	118
〈표 3-2-51〉	임금근로자 주요 특성 비교 - 장애정도별3	119
〈표 3-2-52〉	임금근로자 주요 특성 비교 - 장애유형별1	120
〈표 3-2-53〉	임금근로자 주요 특성 비교 - 장애유형별2	121
〈표 3-2-54〉	임금근로자 주요 특성 비교 - 장애유형별3	122

〈표 3-3- 1〉 자영업주의 인적구성	123
〈표 3-3- 2〉 자영업주의 사업체 창업동기 - 차수별	124
〈표 3-3- 3〉 자영업주의 사업체 운영기간 - 차수별	124
〈표 3-3- 4〉 자영업주의 사업체 운영기간(범주) - 차수별	125
〈표 3-3- 5〉 자영업주의 사업체 창업방식 및 창업소요기간 - 차수별	125
〈표 3-3- 6〉 자영업주의 초기투자비용 - 차수별	126
〈표 3-3- 7〉 자영업주의 초기투자비용 마련 - 차수별	126
〈표 3-3- 8〉 자영업주의 창업 전 준비활동내용(1순위) - 차수별	127
〈표 3-3- 9〉 자영업주의 사업체 창업 관련 애로사항(1순위) - 차수별	127
〈표 3-3-10〉 자영업주의 창업활동 시 애로사항(1순위) - 차수별	128
〈표 3-3-11〉 자영업주의 사업체 종류 - 차수별	128
〈표 3-3-12〉 자영업주 사업체의 종업원 규모 - 차수별	129
〈표 3-3-13〉 자영업주 사업체의 유급 및 장애인 종업원, 무급가족종사자 유무 - 차수별	129
〈표 3-3-14〉 자영업주 사업체의 연평균 매출액, 연평균 순수익, 부채 - 자영업 종류별	130
〈표 3-3-15〉 자영업주 사업체의 사업장 개수 - 차수별	130
〈표 3-3-16〉 자영업주 사업체의 사업장 형태(중복응답) - 차수별	131
〈표 3-3-17〉 자영업주 동업 여부 - 차수별	131
〈표 3-3-18〉 자영업주의 월평균 근무일수, 일평균 근무시간 - 차수별	132
〈표 3-3-19〉 자영업주의 지난 달 본인의 건강으로 인한 결근 유무 - 차수별	132
〈표 3-3-20〉 자영업주의 손익분기점 도달 여부 - 자영업 종류별	132
〈표 3-3-21〉 자영업주의 사업체 운영 시 애로사항(1순위) - 차수별	133
〈표 3-3-22〉 자영업주의 일자리 근무 시 애로사항(1순위) - 차수별	134
〈표 3-3-23〉 자영업주의 일자리 이직의사 - 차수별	134
〈표 3-3-24〉 자영업주의 일자리 이직사유(1순위) - 차수별	135
〈표 3-3-25〉 자영업주의 이직을 위한 구직활동 여부 - 차수별	135
〈표 3-3-26〉 자영업주의 임금근로 전직 희망 여부 - 자영업 종류별	136
〈표 3-3-27〉 자영업주의 업무 수행 시 타인의 도움 필요 여부 - 차수별	136
〈표 3-3-28〉 자영업주의 항목별 타인의 도움 필요 여부 및 도움 비율 - 차수별	137
〈표 3-3-29〉 자영업주의 작업보조기기 필요 여부 - 차수별	137
〈표 3-3-30〉 자영업주의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되어 있는 편의시설 - 차수별	138
〈표 3-3-31〉 자영업주의 근무환경 안전정도 및 질병/사고 경험 여부 - 차수별	138

〈표 3-3-32〉	자영업주가 생각하는 업무수준(교육수준 비교) - 차수별	139
〈표 3-3-33〉	자영업주가 생각하는 업무수준(기술수준 비교) - 차수별	139
〈표 3-3-34〉	자영업주가 생각하는 업무의 유용성(다른 일자리에서도 유용) - 차수별	139
〈표 3-3-35〉	자영업주의 업무에 대한 생각(열정, 즐거움, 만족도 등) - 7차	140
〈표 3-3-36〉	자영업주의 주관적 만족도 - 차수별	140
〈표 3-3-37〉	자영업주의 사업체 운영에 대한 전반적 평가 - 차수별	141
〈표 3-3-38〉	자영업주 주요 특성 비교 - 성별1	142
〈표 3-3-39〉	자영업주 주요 특성 비교 - 성별2	143
〈표 3-3-40〉	자영업주 주요 특성 비교 - 연령별1	144
〈표 3-3-41〉	자영업주 주요 특성 비교 - 연령별2	145
〈표 3-3-42〉	자영업주 주요 특성 비교 - 장애정도별1	146
〈표 3-3-43〉	자영업주 주요 특성 비교 - 장애정도별2	147
〈표 3-3-44〉	자영업주 주요 특성 비교 - 장애유형별1	148
〈표 3-3-45〉	자영업주 주요 특성 비교 - 장애유형별2	149
〈표 3-4 1〉	무급가족종사자의 인적구성	150
〈표 3-4 2〉	무급가족종사자의 현재 일자리 근무사유 - 차수별	151
〈표 3-4 3〉	무급가족종사자의 현재 일자리 근무기간 - 차수별	151
〈표 3-4 4〉	무급가족종사자의 현재 일자리 근무기간(범주) - 차수별	152
〈표 3-4 5〉	무급가족종사자의 사업주와의 관계 - 차수별	152
〈표 3-4 6〉	무급가족종사자의 일자리의 종류 - 차수별	152
〈표 3-4 7〉	무급가족종사자의 사업체 종사자 수, 무급가족종사자 수 - 차수별	153
〈표 3-4 8〉	무급가족종사자의 근무시간 형태 - 차수별	153
〈표 3-4 9〉	무급가족종사자의 월평균 근무일수, 일평균 근무시간 - 차수별	153
〈표 3-4-10〉	무급가족종사자의 근무 시 애로사항(1순위) - 차수별	154
〈표 3-4-11〉	무급가족종사자의 일자리 이직의사 - 차수별	155
〈표 3-4-12〉	무급가족종사자의 직무조정 관련 배려 필요 여부 및 배려 여부 - 차수별	155
〈표 3-4-13〉	무급가족종사자의 필요한 직무조정 관련 배려 내용(중복응답) - 차수별	155
〈표 3-4-14〉	무급가족종사자의 근무시간 조정 관련 배려 필요 여부 및 배려 여부 - 차수별 ..	156
〈표 3-4-15〉	무급가족종사자의 필요한 근무시간 조정 관련 배려 내용(중복응답) - 차수별 ..	156
〈표 3-4-16〉	무급가족종사자의 업무 수행 시 타인의 도움 필요 여부 - 차수별	157
〈표 3-4-17〉	무급가족종사자의 항목별 타인의 도움 필요 여부 및 도움 비율 - 차수별	157

〈표 3-4-18〉	무급가족종사자의 작업보조기기 필요 여부 - 차수별	158
〈표 3-4-19〉	무급가족종사자의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되어 있는 편의시설 - 차수별	158
〈표 3-4-20〉	무급가족종사자의 근무환경 안전정도 및 질병/사고 경험 여부 - 차수별	159
〈표 3-4-21〉	무급가족종사자가 생각하는 업무수준(교육수준 비교) - 차수별	159
〈표 3-4-22〉	무급가족종사자가 생각하는 업무수준(기술수준 비교) - 차수별	160
〈표 3-4-23〉	무급가족종사자가 생각하는 업무의 유용성(다른 일자리에서도 유용) - 차수별	160
〈표 3-4-24〉	무급가족종사자의 업무에 대한 생각(열정, 즐거움, 만족도 등) - 7차	160
〈표 3-4-25〉	무급가족종사자의 주관적 만족도 - 차수별	161
〈표 3-4-26〉	무급가족종사자의 향후 취업 의향 - 차수별	161
〈표 3-4-27〉	무급가족종사자 주요 특성 비교 - 성별1	162
〈표 3-4-28〉	무급가족종사자 주요 특성 비교 - 성별2	163
〈표 3-4-29〉	무급가족종사자 주요 특성 비교 - 연령별1	164
〈표 3-4-30〉	무급가족종사자 주요 특성 비교 - 연령별2	165
〈표 3-4-31〉	무급가족종사자 주요 특성 비교 - 장애정도별1	166
〈표 3-4-32〉	무급가족종사자 주요 특성 비교 - 장애정도별2	167
〈표 3-4-33〉	무급가족종사자 주요 특성 비교 - 장애유형별1	168
〈표 3-4-34〉	무급가족종사자 주요 특성 비교 - 장애유형별2	169
〈표 4-1- 1〉	실업자 정의에 따른 판별결과	171
〈표 4-1- 2〉	미취업자의 인적구성	172
〈표 4-1- 3〉	미취업자의 과거 취업경험 - 경제활동상태별	173
〈표 4-1- 4〉	미취업자의 향후 취업 희망 여부 - 경제활동상태별, 과거 취업경험별	173
〈표 4-1- 5〉	미취업자 취업 희망 시 원하는 종사상 지위 - 경제활동상태별, 과거 취업경험별	174
〈표 4-1- 6〉	미취업자 지난 주 취업 관련 활동 여부 - 경제활동상태별, 과거 취업경험별	174
〈표 4-1- 7〉	미취업자 지난 주 취업 관련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주로 한 활동	175
〈표 4-2- 1〉	실업자의 인적구성	176
〈표 4-2- 2〉	실업자의 희망하는 종사상 지위 - 차수별	177
〈표 4-2- 3〉	임금근로 실업자의 임금근로 희망 이유 - 차수별	177
〈표 4-2- 4〉	임금근로 실업자의 취업을 희망하는 산업 및 직업 - 차수별	178
〈표 4-2- 5〉	임금근로 실업자의 희망하는 종사상 지위 - 차수별	179
〈표 4-2- 6〉	임금근로 실업자의 월평균 최소 희망임금 - 차수별	179
〈표 4-2- 7〉	자영업 실업자의 자영업 희망 이유 - 차수별	179

〈표 4-2- 8〉	자영업 실업자의 창업 희망 산업 - 차수별	180
〈표 4-2- 9〉	자영업 실업자의 창업 희망 사업장 형태 - 차수별	180
〈표 4-2-10〉	자영업 실업자의 월평균 기대 순수익 - 차수별	181
〈표 4-2-11〉	실업자의 평균 구직기간 - 차수별, 인구통계학 변수별	181
〈표 4-2-11〉	실업자의 평균 구직기간(계속) - 차수별, 인구통계학 변수별	182
〈표 4-2-12〉	임금근로 실업자의 구직활동 시 일자리 정보 수집 경로(1순위) - 차수별	183
〈표 4-2-13〉	임금근로 실업자의 구직활동내역(1순위) - 차수별	183
〈표 4-2-14〉	임금근로 실업자의 구직활동 이후 활동(중복응답) - 차수별	184
〈표 4-2-15〉	임금근로 실업자의 공공 취업알선기관 이용 시 애로사항 - 차수별	184
〈표 4-2-16〉	자영업 실업자의 창업활동내역(중복응답) - 차수별	185
〈표 4-2-17〉	실업자의 구직활동 시 애로사항(1순위) - 차수별	185
〈표 4-2-18〉	실업자의 지난 주 구직활동 시간 - 차수별	186
〈표 4-2-19〉	실업자의 취업/창업 준비활동(1순위) - 차수별	186
〈표 4-2-20〉	실업자의 일자리를 선택하는 기준(가치관)(1순위) - 차수별	187
〈표 4-2-21〉	실업자의 취업/창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 차수별	188
〈표 4-2-22〉	임금근로 실업자의 필요한 채용과정 배려사항(중복응답) - 차수별	189
〈표 4-2-23〉	임금근로 실업자의 필요한 근무일/시간 조정사항 - 차수별	189
〈표 4-2-24〉	실업자의 필요한 타인의 도움 항목(중복응답) - 차수별	190
〈표 4-2-25〉	실업자의 필요한 장애인시설(중복응답) - 차수별	190
〈표 4-2-26〉	실업자의 필요한 작업보조기기(중복응답) - 차수별	191
〈표 4-2-27〉	실업자 주요 특성 비교 - 성별1	192
〈표 4-2-28〉	실업자 주요 특성 비교 - 성별2	193
〈표 4-2-29〉	실업자 주요 특성 비교 - 연령별1	194
〈표 4-2-30〉	실업자 주요 특성 비교 - 연령별2	195
〈표 4-2-31〉	실업자 주요 특성 비교 - 장애정도별1	196
〈표 4-2-32〉	실업자 주요 특성 비교 - 장애정도별2	197
〈표 4-2-33〉	실업자 주요 특성 비교 - 장애유형별1	198
〈표 4-2-34〉	실업자 주요 특성 비교 - 장애유형별2	199
〈표 4-3- 1〉	비경제활동인구의 인적구성	200
〈표 4-3- 2〉	비경제활동인구의 지난 주 일자리 희망 여부 - 차수별	201
〈표 4-3- 3〉	비경제활동인구의 지난 주 일자리 희망 사유 - 차수별	201

〈표 4-3- 4〉 비경제활동인구의 지난 주 일자리를 희망하면서 구직하지 않은 이유 - 차수별	202
〈표 4-3- 5〉 비경제활동인구의 지난 주 일자리를 희망하지 않은 이유 - 차수별	203
〈표 4-3- 6〉 비경제활동인구의 지난조사 이후 구직활동 경험 여부 - 차수별	203
〈표 4-3- 7〉 비경제활동인구의 지난조사 이후 구직활동 기간 - 차수별	204
〈표 4-3- 8〉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직활동 시 일자리 정보 수집 경로(1순위) - 차수별	204
〈표 4-3- 9〉 비경제활동인구의 지난조사 이후 구직활동 내역(1순위) - 차수별	205
〈표 4-3-10〉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직활동 이후 활동(중복응답) - 차수별	205
〈표 4-3-11〉 비경제활동인구의 공공 취업알선기관 이용 시 애로사항 - 차수별	206
〈표 4-3-12〉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직활동 시 애로사항(1순위) - 차수별	206
〈표 4-3-13〉 비경제활동인구의 향후 취업의사 - 차수별	207
〈표 4-3-14〉 비경제활동인구의 희망하는 종사상 지위 - 차수별	207
〈표 4-3-15〉 비경제활동인구의 임금근로 희망 시 희망하는 산업 - 차수별	208
〈표 4-3-16〉 비경제활동인구의 임금근로 희망 시 희망하는 직업 - 차수별	209
〈표 4-3-17〉 비경제활동인구의 임금근로 희망 시 희망하는 일자리 종사상 지위 - 차수별	209
〈표 4-3-18〉 비경제활동인구의 임금근로 희망 시 월평균 최소 희망임금 - 차수별	209
〈표 4-3-19〉 비경제활동인구의 자영업 희망 시 희망하는 일자리 산업 - 차수별	210
〈표 4-3-20〉 비경제활동인구의 자영업 희망 시 희망하는 사업장 형태 - 차수별	210
〈표 4-3-21〉 비경제활동인구의 자영업 희망 시 월평균 기대 순수익 - 차수별	211
〈표 4-3-22〉 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창업 준비활동(1순위) - 차수별	211
〈표 4-3-23〉 비경제활동인구의 일자리를 선택하는 기준(가치관)(1순위) - 차수별	212
〈표 4-3-24〉 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창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 차수별	213
〈표 4-3-25〉 비경제활동인구의 필요한 채용과정 배려사항(중복응답) - 차수별	213
〈표 4-3-26〉 비경제활동인구의 필요한 근무일/시간 조정사항 - 차수별	214
〈표 4-3-27〉 비경제활동인구의 필요한 타인의 도움 항목(중복응답) - 차수별	214
〈표 4-3-28〉 비경제활동인구의 필요한 장애인시설(중복응답) - 차수별	215
〈표 4-3-29〉 비경제활동인구의 필요한 작업보조기기(중복응답) - 차수별	215
〈표 4-3-30〉 비경제활동인구 주요 특성 비교 - 성별1	216
〈표 4-3-31〉 비경제활동인구 주요 특성 비교 - 성별2	217
〈표 4-3-32〉 비경제활동인구 주요 특성 비교 - 연령별1	218
〈표 4-3-33〉 비경제활동인구 주요 특성 비교 - 연령별2	219
〈표 4-3-34〉 비경제활동인구 주요 특성 비교 - 장애정도별1	220

〈표 4-3-35〉 비경제활동인구 주요 특성 비교 - 장애정도별2	221
〈표 4-3-36〉 비경제활동인구 주요 특성 비교 - 장애유형별1	222
〈표 4-3-37〉 비경제활동인구 주요 특성 비교 - 장애유형별2	223
〈표 5-1- 1〉 주요 인적 특성 - 경제활동상태별	225
〈표 5-1- 2〉 주요 장애 특성 - 경제활동상태별	226
〈표 5-1- 3〉 주된 장애의 일자리 발생 여부, 장애발생으로 인한 퇴사(폐업) 여부	227
〈표 5-1- 4〉 현재 장애상태 - 경제활동상태별	227
〈표 5-1- 5〉 사용하고 있는 정보접근/의사소통수단, 보장구(중복응답) - 경제활동상태별	228
〈표 5-1- 6〉 변수별 장애 특성 비교 - 성별	229
〈표 5-1- 7〉 변수별 장애 특성 비교 - 연령별	229
〈표 5-1- 8〉 변수별 장애 특성 비교 - 장애정도별	230
〈표 5-1- 9〉 변수별 장애 특성 비교 - 장애유형별	230
〈표 5-2- 1〉 지난조사 이후 자격증 신규 취득 여부 - 경제활동상태별	231
〈표 5-2- 2〉 현재 자격증 보유 여부(누적) - 경제활동상태별	231
〈표 5-2- 3〉 보유 자격증의 유형	232
〈표 5-2- 4〉 보유 자격증이 취업(또는 취업유지)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232
〈표 5-2- 5〉 컴퓨터, 영어 등의 활용능력 - 경제활동상태별	233
〈표 5-2- 6〉 학교 졸업 후 예상 진로 - 차수별	234
〈표 5-2- 7〉 진로/진학 계획 수립 시 대화정도 여부 - 차수별	234
〈표 5-2- 8〉 변수별 직업적 능력 특성 비교 - 성별	235
〈표 5-2- 9〉 변수별 직업적 능력 특성 비교 - 연령별	236
〈표 5-2-10〉 변수별 직업적 능력 특성 비교 - 장애정도별	237
〈표 5-2-11〉 변수별 직업적 능력 특성 비교 - 장애유형별	238
〈표 5-3- 1〉 지난조사 이후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 - 경제활동상태별	239
〈표 5-3- 2〉 지난조사 이후 고용서비스 종류(이용자 수 기준, 중복응답) - 경제활동상태별	239
〈표 5-3- 3〉 지난조사 이후 고용서비스 기관(이용자 수 기준, 중복응답) - 경제활동상태별	240
〈표 5-3- 4〉 지난조사 이후 고용서비스 종류(서비스 총수 기준) - 경제활동상태별	241
〈표 5-3- 5〉 지난조사 이후 고용서비스 기관(서비스 총수 기준) - 경제활동상태별	241
〈표 5-3- 6〉 지난조사 이후 고용서비스 정보접근방법(서비스 총수 기준) - 경제활동상태별	242
〈표 5-3- 7〉 지난조사 이후 이용한 고용서비스 참여정도(서비스 총수 기준) - 경제활동상태별	242
〈표 5-3- 8〉 지난조사 이후 이용한 고용서비스 도움정도(서비스 총수 기준) - 경제활동상태별	243

〈표 5-3- 9〉	지난조사 이후 이용한 고용서비스 애로사항(서비스 총수 기준) - 경제활동상태별	243
〈표 5-3-10〉	지난조사 이후 고용서비스 이용하지 않은 이유 - 경제활동상태별	244
〈표 5-3-11〉	최근 8년간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 경제활동상태별	245
〈표 5-3-12〉	최근 8년간 고용서비스 종류(서비스 총수 기준, 중복응답) - 경제활동상태별	245
〈표 5-3-13〉	최근 8년간 고용서비스 기관(서비스 총수 기준, 중복응답) - 경제활동상태별	246
〈표 5-3-14〉	최근 8년간 고용서비스 기관(서비스 총수 기준, 중복응답) - 연령별, 장애정도별	246
〈표 5-3-15〉	최근 7년간 고용서비스 도움정도(서비스 총수 기준) - 경제활동상태별	247
〈표 5-3-16〉	향후 1년 내 고용서비스 이용 희망 여부 - 경제활동상태별	247
〈표 5-3-17〉	향후 1년 내 이용을 희망하는 고용서비스 내용(1순위) - 경제활동상태별	248
〈표 5-3-18〉	변수별 고용서비스 특성 비교 - 성별	249
〈표 5-3-19〉	변수별 고용서비스 특성 비교 - 연령별	250
〈표 5-3-20〉	변수별 고용서비스 특성 비교 - 장애정도별	251
〈표 5-3-21〉	변수별 고용서비스 특성 비교 - 장애유형별	252
〈표 5-4 1〉	학창시절 직업능력개발 경험 - 경제활동상태별	253
〈표 5-4 2〉	현장실습이나 인턴십 경험 - 경제활동상태별	253
〈표 5-4 3〉	공공/민간기관 직업능력개발 경험 - 경제활동상태별	254
〈표 5-4 4〉	직업교육훈련 기간 - 경제활동상태별	254
〈표 5-4 5〉	직업교육훈련 분야 - 경제활동상태별	255
〈표 5-4 6〉	직업교육훈련 지원주체 - 경제활동상태별	256
〈표 5-4 7〉	직업교육훈련 실시기관 - 경제활동상태별	256
〈표 5-4 8〉	직업교육훈련 참여목적 - 경제활동상태별	257
〈표 5-4 9〉	직업교육훈련 본인부담액 - 경제활동상태별	257
〈표 5-4-10〉	직업교육훈련 참여정도, 도움정도 - 경제활동상태별	258
〈표 5-4-11〉	첫 번째 직업교육 부족했던 점 - 경제활동상태별	258
〈표 5-4-12〉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 - 경제활동상태별	259
〈표 5-4-13〉	향후 1년 이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 희망 - 경제활동상태별	259
〈표 5-4-14〉	향후 1년 이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 희망 이유 - 경제활동상태별	260
〈표 5-4-15〉	향후 1년 내 희망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종류 - 경제활동상태별	260
〈표 5-4-16〉	변수별 직업능력개발 특성 비교 - 성별	261
〈표 5-4-17〉	변수별 직업능력개발 특성 비교 - 연령별	262
〈표 5-4-18〉	변수별 직업능력개발 특성 비교 - 장애정도별	263

〈표 5-4-19〉	변수별 직업능력개발 특성 비교 - 장애유형별	264
〈표 5-5- 1〉	건강상태 및 일 지장 여부 - 경제활동상태별	265
〈표 5-5- 2〉	만성질환보유 여부 - 경제활동상태별	266
〈표 5-5- 3〉	운동여부 및 하루 평균 운동시간 - 경제활동상태별	266
〈표 5-5- 4〉	하루 평균 수면시간 - 경제활동상태별	267
〈표 5-5- 5〉	일상생활 도움 필요 여부 및 도움제공자 유무 - 경제활동상태별	267
〈표 5-5- 6〉	일상생활 도움 주 제공자(1순위) - 경제활동상태별	268
〈표 5-5- 7〉	하루 평균 도움 받는 시간 - 경제활동상태별	268
〈표 5-5- 8〉	주로 도움 받는 분야(1순위) - 경제활동상태별	269
〈표 5-5- 9〉	외출 시 이동수단(1순위) - 경제활동상태별	269
〈표 5-5-10〉	외출 시 장애로 인해 겪는 어려움(1순위) - 경제활동상태별	270
〈표 5-5-11〉	하루일과 중 주로 하는 활동(1순위) - 경제활동상태별	271
〈표 5-5-12〉	여가시간 활용(1순위) - 경제활동상태별	271
〈표 5-5-13〉	종교 유무 - 경제활동상태별	272
〈표 5-5-14〉	흡연 여부 - 경제활동상태별	272
〈표 5-5-15〉	음주 여부 - 경제활동상태별	273
〈표 5-5-16〉	평균 음주 횟수 - 경제활동상태별	273
〈표 5-5-17〉	양육이 필요한 아이 유무 및 양육 담당 여부 - 경제활동상태별	274
〈표 5-5-18〉	양육의 취업 지장 여부 - 경제활동상태별	274
〈표 5-5-19〉	노후 준비 여부 - 경제활동상태별	275
〈표 5-5-20〉	노후 준비 방법(1순위) - 차수별	275
〈표 5-5-21〉	노후 준비 충분 정도 - 경제활동상태별	276
〈표 5-5-22〉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 - 경제활동상태별	276
〈표 5-5-23〉	일상생활 만족도 - 경제활동상태별	277
〈표 5-5-24〉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 경제활동상태별	278
〈표 5-5-25〉	자아존중감 - 경제활동상태별	279
〈표 5-5-26〉	변수별 일상생활과 삶의 질 특성 비교 - 성별	280
〈표 5-5-27〉	변수별 일상생활과 삶의 질 특성 비교 - 연령별	281
〈표 5-5-28〉	변수별 일상생활과 삶의 질 특성 비교 - 장애정도별	282
〈표 5-5-29〉	변수별 일상생활과 삶의 질 특성 비교 - 장애유형별	283
〈표 5-6- 1〉	고령장애인의 은퇴 여부	284

〈표 5-6- 2〉 은퇴자의 은퇴나이, 은퇴이유 및 은퇴 후 생활만족도	284
〈표 5-6- 3〉 은퇴예정자의 은퇴예상 나이	285
〈표 5-6- 4〉 미은퇴자의 일자리를 얻거나 유지하려는 이유(1순위)	286
〈표 5-6- 5〉 고령장애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1순위) - 경제활동상태별	286
〈표 5-6- 6〉 변수별 고령장애인 특성 비교 - 성별	287
〈표 5-6- 7〉 변수별 고령장애인 특성 비교 - 연령별	287
〈표 5-6- 8〉 변수별 고령장애인 특성 비교 - 장애정도별	287
〈표 5-6- 9〉 변수별 고령장애인 특성 비교 - 장애유형별	287
〈표 6-1- 1〉 개인 근로소득 - 경제활동상태별	289
〈표 6-1- 2〉 개인 근로 외 소득 - 경제활동상태별	290
〈표 6-1- 3〉 개인 총소득 - 경제활동상태별	291
〈표 6-1- 4〉 변수별 개인소득 특성 비교 - 성별	292
〈표 6-1- 5〉 변수별 개인소득 특성 비교 - 연령별	292
〈표 6-1- 6〉 변수별 개인소득 특성 비교 - 장애정도별	293
〈표 6-1- 7〉 변수별 개인소득 특성 비교 - 장애유형별	293
〈표 6-2- 1〉 지난조사 시 가구 현재 지속 거주 여부 및 미거주 사유	294
〈표 6-2- 2〉 가구 규모 - 경제활동상태별	294
〈표 6-2- 3〉 장애인의 가구주 여부 - 경제활동상태별	295
〈표 6-2- 4〉 가구 근로소득 - 경제활동상태별	295
〈표 6-2- 5〉 가구 근로 외 소득 - 경제활동상태별	296
〈표 6-2- 6〉 가구 총소득 - 경제활동상태별	297
〈표 6-2- 7〉 가구 소비 - 경제활동상태별	297
〈표 6-2- 8〉 지난조사 대비 가구 총소득, 가구 소비 변화 - 경제활동상태별	298
〈표 6-2- 9〉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 가구원 수별, 장애인 가구주 여부별	298
〈표 6-2-10〉 기초생활보장 수급 시작 시기, 지원 분야, 탈피의향	299
〈표 6-2-11〉 가구자산 - 경제활동상태별	300
〈표 6-2-12〉 가구부채 - 경제활동상태별	300
〈표 6-2-13〉 주거형태 - 경제활동상태별	301
〈표 6-2-14〉 소유형태 - 경제활동상태별	301
〈표 6-2-15〉 지난조사 이후 이사 경험 및 사유 - 경제활동상태별	302
〈표 6-2-16〉 변수별 가구 특성 비교 - 성별	303

〈표 6-2-17〉 변수별 가구 특성 비교 - 연령별	304
〈표 6-2-18〉 변수별 가구 특성 비교 - 장애정도별	305
〈표 6-2-19〉 변수별 가구 특성 비교 - 장애유형별	306

그림목차

[그림 1-1-1]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진행과정(1~7차년도 조사)	16
[그림 1-2-1] 조사표 구조	17
[그림 1-3-1] 1차년도에서 3차년도까지의 응답과 무응답 형태	39
[그림 1-3-2] 제7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4년) 횡단면 가중치 - 지역별	41
[그림 1-3-3] 제7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4년) 종단면 가중치 - 지역별	41
[그림 1-4-3] 7차년도 조사 4단계 데이터 검증	49
[그림 1-5-1]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014년 자체품질진단 점수	51

Abstract

The Seventh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2014)

Min, Junyoung

(Researcher,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 KEAD)

Kim, Hojin

(Senior Researcher,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 KEAD)

Kim, Seongcheon

(Principal researcher,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 KEAD)

Choi, Jongchul

(Principal researcher,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 KEAD)

While the population with disabilities in Korea keeps growing,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is still difficult in Korean labor market. Employment is recognized to be crucial in the integration of the disabled into the society. Hence we should verify which factors are important in the employme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so as to achieve the goal of policies for the disabled.

This report is a result of the seventh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PSED) carried out during the three months from May to July, 2014 in order to record the consistency and change in economic activities with regard to the selection of respondents with disabilities.

The 5,092 participants who took part in the first survey were interviewed again for the seventh survey. There were 4,082 valid respondents corresponding to an overall response rate of 80.2%, which successfully compares to other panel surveys.

The main data of the survey consists of demographic data(gender, age, education, disability status, disability grade and type), economic participation factors and employed/unemployed/non-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factors. In addition, the individual and environmental factors which influence economic activity are included. The report provides updated information on PSED provisions concerning accountability and disability improvement.

To improve the reliability, accuracy and convenience of the data, Computer-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CAPI) had been used, where interviewers visited each participant to conduct the survey personally with laptop computers.

The survey was performed by 4,082 registered people with disability utilizing data cleaning and statistical estimation. Ratios regarding the disabled population in Korea can be extrapolated based on statistical data collected and analyzed.

The main results of the seventh survey show that 9.5% of the employees in the last survey had become unemployed, and that 3.9% of the unemployed had become employed. The job positions of the newly employed became generally lower compared to those already employed. The general quality of lives for those employed tended to be higher than among the unemployed or the economically inactive.

Key words: employment, panel survey, people with disabilities

일러두기

1. 장애인의 경제활동 및 고용 관련 특성을 매년 추적 조사하는 조사의 특성 상 2008년 1월 1일 기준 만 15~75세의 패널을 구축하였으므로 7차년도(2014년) 현재 패널의 연령은 만 21~81세입니다. 또한 제주 지역은 제외되었으므로 타 통계와 비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보고서의 통계 수치는 각 차수별 횡단면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단, 변동 을 보기 위한 경우에는 종단면 가중치를 부여하였습니다.
 - 패널 구축 시 만 15~60세와 만 61~75세를 9:1의 비율로 할당하였으며 사망, 장애등록 취소 등으로 패널이 탈락하였으므로 전체 장애인을 대표하기 위한 분석 시 가급적 가중치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3. 가중치를 부여하였고 해당 단위에서 반올림하였기 때문에 통계표에서 제시된 총계와 실제 각 행 또는 열의 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또한 교차표의 경우 '전체'의 수치는 별도의 빈도분석 결과를 사용하였으므로 하위 범주 별 합계(예: 남성, 여성별 수치의 합계와 전체의 합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4. 현재 주업 기준 임금근로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의 세부 특성은 '지난조사 시 조사된 기존 일자리' 파트와 '새로 조사된 일자리' 파트로 나누어서 조사됩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두 파트의 데이터를 병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5. 세부적인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표 분기 또는 문항 분기로 인해 개별 문항별로 응답자 수가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유형, 연령 등 교차로 분석된 통계표나 자영업을 원하는 실업자 등 실제 표본 수가 적은 영역의 통계표는 관측된 수가 적거나 비어 있는 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석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비중을 구하는 분석에서는 ‘모름/응답거절’을 포함하였으며, 평균을 구하는 분석에서는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습니다. 따라서 평균을 구하는 분석에서는 ‘응답 수’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7. 본 보고서의 통계표에서 “차수별”이란 표현이 없는 경우 7차년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8. 산업·직업별 분류체계는 2차년도 조사부터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9. 일부 보기 문항이 추가 또는 삭제될 수 있으니 주석을 참조하여 해석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전년 호와 일치하지 않는 통계자료는 이번 호에서 정정한 것입니다.
11. 통계표 중 사용된 부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0: 단위 미만
 - -: 해당 숫자 없음
12.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공개시점(2015년 9월)의 자료로, 추가적인 자료정리 과정을 거쳐 통계수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1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홈페이지(<http://edi.kead.or.kr>)에서 원시자료 및 관련 보고서 등을 다운로드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4. 본 보고서에 수록된 통계수치 및 원시자료에 대한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조사통계부(031-728-7151)로 하시기 바랍니다.

요 약

I. 제7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4년) 개요

1. 조사목적

- 지난조사 이후 장애인고용패널의 경제활동 관련 연속성 및 변화 파악
 -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통계자료를 생산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환경적 요인을 규명하여 장애인고용정책 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정보 제공

2. 조사대상

- 제1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08년)에서 구축한 장애인고용패널 5,092명(제주지역 제외)
 - 7차년도 조사에서 추적 및 조사에 성공한 패널 수는 4,082명으로 사망 등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하고서도 원표본 유지율 80.2% 달성
 - 패널 구축 시 유지 및 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패널의 연령을 2008년 1월 1일 현재 만 15~75세로 한정하였으므로 7차년도 조사의 조사대상 연령은 만 21~81세임

3. 조사내용

- 지난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조사 이후 변화와 경험, 현재의 상태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구성함
 - 기본 구조는 “지난조사 응답값 확인 및 수정” → “지난조사 이후의 변화 확인” → “현재의 상태 최종 확인”의 순으로 구성됨
- 지난조사 이후 1개월 이상 일한 모든 일자리에 대해 파악하는 직업력 조사 병행 실시
- 이용자의 요구 등을 반영하기 위해 영역 및 문항 추가, 불필요한 문항의 제거, 지난조사 시 잘못 조사된 문항에 대한 재조사 실시 등
 - 7차년도 조사에서는 “자아존중감”을 재조사하였고 “업무에 대한생각”문항을 추가하여 조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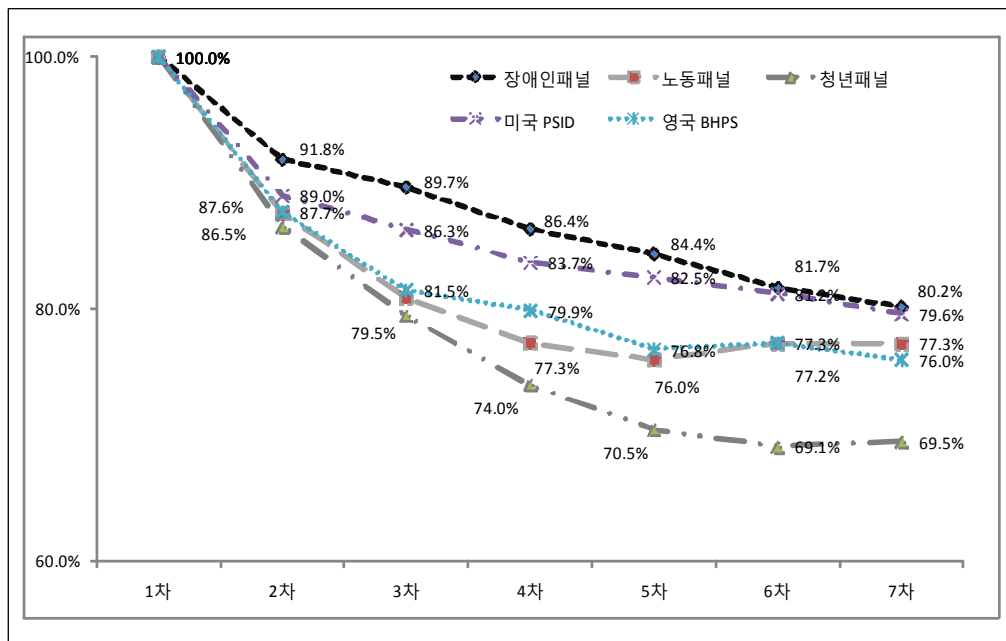
4. 조사방법

- 데이터의 신뢰성과 정확도, 조사 상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CAPI(Computer-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컴퓨터를 이용한 대인면접법)를 활용한 방법으로 실시되었음
- 특히 7차년도 조사 내 횡단면적 논리 검증뿐만 아니라 지난조사 응답결과와의 종단면적 논리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지난조사 시 일자리 주요 정보를 함축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비표본오차 감소를 꾀함

5. 조사실시 및 결과공표

- 조사기간: 2014년 5월 ~ 7월 (3개월)
- 조사주관: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조사실시기관: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 결과공표: 2015년 9월

[그림 1-1] 주요 패널조사 패널유지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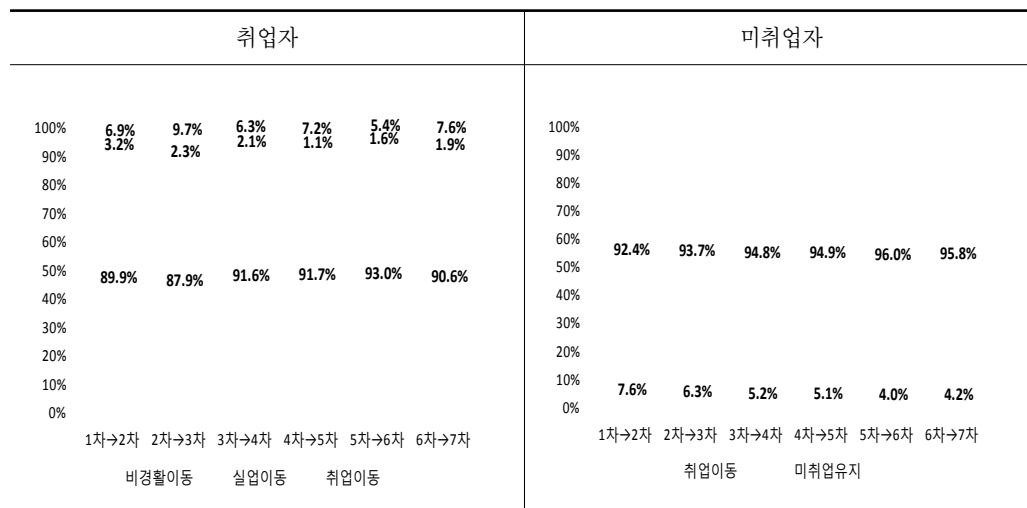


II. 제7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4년) 주요 결과

1. 경제활동상태 변동

- 취업자의 90.6%가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약 9.5% 가량은 실업자나 비경제 활동인구로 이동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 반면 미취업자의 상당수가 계속 미취업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취업으로의 움직임은 약 4%에 불과하고 그 비율 또한 점차 줄어들고 있음

[그림 2-1] 취업자/미취업자의 경제활동상태 변화



- 주 1) 경제활동상태의 판단 기준은 각 차수별 조사 시점의 상태로 판단함. 가령, 6차년도 조사 이후 종사한 일자리가 있었다 해도 7차년도 조사 시점에서 일자리가 없는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함
- 2) 1~7차년도 조사에 모두 참여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종단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함

2. '미취업자 → 취업자' 분석

가. 취업 및 미취업 요인

- 미취업자 중 취업을 한 장애인은 미취업 상태를 유지한 장애인에 비해 장애가 경하고, 비교적 젊은 남성이 많고, 학력이 높으며, 가구원 수가 많고, 건강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며, 취업욕구가 강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과 취업준비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임
- 반면 미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 주로 고령의 여성, 중증, 지체/지체 외 장애인이 많고,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비율이 높으며,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취업준비활동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표 2-1〉 미취업에서 취업을 한 장애인과 미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장애인 간 상대적 비교

구 분		미취업→취업	미취업상태 유지
인구통계학적 변수	·성별	남성	여성
	·연령	60세 미만	60세 이상
	·장애정도	경증	중증
	·장애유형	시각, 시각 외 감각장애, 정신적, 신체내부 장애	지체, 지체 외 장애
	·지역	광역시권, 기타 도시	수도권
	·학력	고졸 이상	중졸 이하
가구원 수	·6차 조사 시 가구원 수 3인 이상 비율(%)	44.9	31.7
가구주 여부	·6차 조사 시 가구주 비율(%)	57.6	61.9
기초수급 여부	·6차 조사 시 기초생활보장 수급 비율(%)	25.4	44.4
취업의사 (미취업자)	·6차 조사 시 향후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	65.4	10.4
과거 취업경험	·6차 조사 시 과거 취업경험 있었던 비율(%)	93.8	67.2
장애상태	·주된 장애가 악화 또는 진행되고 있는 비율(%)	19.5	37.8
건강상태	·좋지 않은 비율(%)	58.3	78.2
도움 필요 여부	·일상생활 도움 필요 비율(%)	26.4	60.3
차별경험 여부	·일상생활 장애로 인한 차별을 경험한 비율(%)	8.3	19.4
자아존중감	·6차 조사 시 자아존중감 척도(점)	2.49	2.08
자격증	·6차 조사 이후 신규 자격증 취득 비율(%)	3.0	0.8
	·현재 자격증 보유 비율(누적)(%)	30.1	9.9
고용서비스	·6차 조사 이후 고용서비스 이용 비율(%)	15.8	0.6
	·최근 8년 고용서비스 이용 비율(%)	41.2	16.1
직업교육훈련	·6차 조사 이후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	2.3	0.1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누적)(%)	13.1	4.9
일상생활 만족도	·전반적 불만족 비율(%)	7.5	30.2

주: 각 항목의 대상, 세부 통계 및 설명, 주석 등에 대해서는 본문을 참조하기 바람

나. 취업한 일자리의 현황

- 신규 취업자의 경우 취업을 유지한 장애인에 비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단순노무, 임시/일용/단시간 근로자 비율이 높음
- 신규 임금근로자의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 창출 일자리, 50인 미만 규모의 사업체, 시간제 근로 종사 비율이 높음
- 신규 자영업주의 경우 개인사업체(노점) 종사 비율이 높고, 연간 순수익이 적음

〈표 2-2〉 미취업에서 취업을 한 장애인과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장애인 간 상대적 비교

구 분		미취업→취업	취업상태 유지	
종사하고 있는 일자리의 찬업	·농업, 임업 및 어업 비율(%)	2.2	23.5	
	·제조업 비율(%)	11.0	14.4	
	·도매 및 소매업 비율(%)	12.0	9.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 비율(%)	9.8	4.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비율(%)	11.9	5.5	
종사하고 있는 직업	·서비스 종사자 비율(%)	8.3	6.4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비율(%)	1.6	22.3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비율(%)	9.8	10.7	
	·단순노무종사자 비율(%)	63.6	32.6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비율(%)	14.3	25.3	
	·임시근로자 비율(%)	41.6	17.7	
	·일용근로자 비율(%)	25.6	14.0	
	·자영업주 비율(%)	11.6	29.5	
1주 일한 시간	·18시간 미만 일한 비율(%)	20.3	4.7	
임금 근로자	일자리 종류	·민간회사/개인사업체 비율(%)	48.9	75.6
		·정부 또는 지자체 창출 일자리 비율(%)	33.8	6.5
	사업체 규모	·50인 미만 사업체 비율(%)	73.7	65.5
	근무시간제	·시간제 근로 비율(%)	38.0	15.0
	월평균 임금	·월평균 임금(만원)	83.7	146.1
	이직의사	·일자리 지속의향 있는 비율(%)	93.7	97.9
	일자리 만족도	·업무에 대한 불만족 비율(%)	3.4	4.0
		·임금에 대한 불만족 비율(%)	44.1	37.2
		·전반적 불만족 비율(%)	8.1	6.4
	자영 업주	일자리 종류	·개인사업체(노점) 비율(%)	55.1
연간 순수익		·연간 순수익(만원)	272.7	1,456.6
이직의사		·임금근로 전직 희망 비율(%)	0.0	6.4
		·일자리 지속의향 있는 비율(%)	100.0	96.6
일자리 만족도		·업무에 대한 불만족 비율(%)	43.3	10.2
		·소득에 대한 불만족 비율(%)	82.0	55.0
	·전반적 불만족 비율(%)	20.0	13.4	

주 1) 각 항목의 대상, 세부 통계 및 설명 주석 등에 대해서는 본문을 참조하기 바람
 2) 일부 요인들에 대해서는 근속기간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

3. '취업자→미취업자' 분석

가. 그만둔 일자리의 정보

- 취업자였으나 현재 미취업상태인 장애인은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장애인에 비해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단순노무종사자, 임시/일용근로자, 단시간, 저임금 등의 일자리에 종사했던 비율이 높은 편임

〈표 2-3〉 일자리를 그만 둔 장애인과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장애인 간 상대적 비교
- 7차 조사 시 일자리 기준

구 분		취업→미취업	취업상태 유지	
종사하였던 일자리의 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비율(%)	13.2	23.0	
	·제조업 비율(%)	18.0	14.3	
	·도매 및 소매업 비율(%)	9.3	10.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비율(%)	16.0	5.3	
	·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서비스 비율(%)	8.4	7.6	
종사하였던 직업	·농림어업 숙련근로자 비율(%)	9.6	21.8	
	·기능원 및 관련종사자 비율(%)	6.7	11.3	
	·단순노무종사자 비율(%)	55.7	32.2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비율(%)	14.9	25.7	
	·임시근로자 비율(%)	38.8	17.7	
	·일용근로자 비율(%)	19.9	14.0	
	·자영업주 비율(%)	20.6	30.8	
1주 일한 시간	·18시간 미만 일한 비율(%)	11.9	4.8	
임금 근로자	일자리 종류	·정부 또는 지자체 창출 일자리 비율(%)	9.2	5.9
	사업체 규모	·300인 이상 사업체 비율(%)	10.0	16.6
	근무시간제	·시간제 근로 비율(%)	25.3	15.3
	이직의사	·일자리 지속의향 없는 비율(%)	5.4	1.9
	장애에 대한 배려	·직무조정 필요 비율(%)	14.7	14.6
		·시간조정 필요 비율(%)	10.8	10.5
		·작업보조기기 필요 비율(%)	2.7	2.0
	차별경험	·장애로 인한 차별경험 비율(%)	3.9	6.2
	월평균 임금	·월평균 임금(만원)	97.3	140.8
	일자리 만족도	·전반적 불만족 비율(%)	6.4	10.4
자영 업주	일자리 종류	·개인사업체(노점) 비율(%)	18.0	8.1
	연간 순수익	·연간 순수익(만원)	981.4	1,402.2
	일자리 만족도	·전반적 만족 비율(%)	4.2	14.4
	이직의사	·임금근로 전직 희망 비율(%)	2.0	3.3
·일자리 지속의향 없는 비율(%)		6.1	5.8	

- 주 1) 각 항목의 대상, 세부 통계 및 설명, 주석 등에 대해서는 본문을 참조하기 바람
2) 일부 요인들에 대해서는 근속기간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나.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

- 취업에서 미취업 상태가 된 장애인은 본인은 계속 근무하고 싶었으나 어쩔 수 없이 그만둔 비율이 높으며, 그 사유로 임금근로자는 파산, 폐업, 정리해고 등의 비율이 높으며, 자영업주는 장애나 건강문제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4〉 일자리를 그만 둔 장애인의 퇴사상황 및 사유

		구 분	취업→미취업
임금 근로자	퇴사 상황	·어쩔 수 없이 그만둔 비율(%)	52.7
		·스스로 원해서 그만둔 비율(%)	47.3
	퇴사 사유	·파산, 폐업, 정리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계약만료 등(%)	31.7
		·일거리가 없거나 적어서(%)	16.3
		·장애나 건강문제(%)	28.7
자영 업주	그만둔 상황	·어쩔 수 없이 그만둔 비율(%)	38.9
		·스스로 원해서 그만둔 비율(%)	61.1
	그만둔 사유	·일거리가 없거나 적어서(%)	16.1
		·만성적인 적자 또는 소득이 적음(%)	8.7
		·장애나 건강문제(%)	36.3
		·개인적 사유 발생(학업, 육아, 가사, 돌봄 등)(%)	10.3

주 1) '지난조사 시 해당 일자리 자체를 근무하지 않았음'을 제외한 분석임

2) 각 항목의 대상, 세부 통계 및 설명, 주석 등에 대해서는 본문을 참조하기 바람

다. 재취업 희망 여부

- 취업에서 미취업 상태가 된 장애인은 미취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장애인에 비해 재취업에 대한 욕구가 높으며 그에 따라 구직활동과 취업준비활동을 실시하는 비율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2-5〉 일자리를 그만 둔 장애인의 재취업 희망

구 분		취업→미취업	미취업상태 유지
일자리 희망	·향후 일자리 희망 비율(%)	61.2	8.5
취업 준비	·지난 주 취업준비활동 비율(%)	18.6	1.1
구직활동	·지난 4주 내 적극적 구직활동 실시 비율(%)	4.6	0.2
	·지난 1년 내 적극적 구직활동 실시 비율(%)	7.7	1.3

주: 각 항목의 대상, 세부 통계 및 설명, 주석 등에 대해서는 본문을 참조하기 바람

4. 차수별 주요 특성 비교

- '08년~'14년,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60%대를 유지
 - 상용직 비율은 44.1%에서 41.1%로 감소하였고, 시간제 비율은 14.7%에서 18.1%로 증가
 - 월평균 명목임금이 소폭 증가하였음
- 1인 규모의 자영업주 비중은 감소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미취업자의 비중은 감소 추세

〈표 2-6〉 1-2-3-4-5-6-7차 주요 특성 비교

구 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취업자	·임금근로자 비율(%)	59.8	60.5	60.8	61.0	61.2	60.4	60.3
	·비임금근로자 비율(%)	40.2	39.5	39.2	39.0	38.8	39.6	39.7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비율(%)	44.1	42.9	42.7	43.5	42.1	41.4	41.1
	·임시근로자 비율(%)	25.4	26.5	29.5	31.3	32.4	34.2	34.0
	·일용근로자 비율(%)	30.5	30.6	27.7	25.3	25.5	24.5	24.9
	·월평균 근무일수(일)	20.0	20.4	20.6	20.6	20.2	20.4	20.3
	·일평균 근무시간(시간)	8.8	9.0	9.1	9.0	9.0	8.7	8.7
	·시간제 근로 비율(%)	14.7	15.1	15.3	15.8	16.1	17.6	18.1
	·월평균 임금	119.1	118.9	122.2	126.0	131.8	135.3	139.2
	·월평균 임금(만원)	57.6	61.0	62.0	63.1	64.9	65.2	68.1
	·복리후생	12.0	5.0	5.2	5.0	3.3	2.3	2.4
	·일자리 지속근무 의향 없는 비율(%)	67.8	70.9	75.0	73.1	72.9	70.8	66.4
비임금근로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율(%)	10.1	7.6	6.0	6.9	7.0	8.2	12.2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비율(%)	22.1	21.5	19.1	19.9	20.1	21.0	21.3
	·무급가족종사자 비율(%)	41.8	40.9	42.1	42.5	42.7	49.0	10.7
	·1인 사업체 비율(%)	22.0	21.6	21.7	21.5	21.7	22.0	21.8
	·월평균 근무일수(일)	8.3	8.2	8.1	8.0	7.9	8.0	8.0
	·일평균 근무시간(시간)	430.4	326.7	310.2	336.4	340.3	371.0	348.3
	·연간 매출액(만원)	3.6	2.7	7.3	8.0	5.3	5.5	3.9
	·일자리 지속근무 의향 없는 비율(%)	9.6	10.4	6.5	0.6	5.4	1.1	3.3
	·향후 다른 일자리 취업의향(%)	27.1	22.0	20.1	16.5	14.4	13.7	12.6
	·향후 일자리 취업의향(%)	-	-	-	-	-	-	4.2
일자리 만족도	·임금근로자 업무에 대한 불만족 비율(%)	20.9	14.5	14.3	12.2	11.8	9.7	6.3
	·자영업주 업무에 대한 불만족 비율(%)	-	-	-	-	-	-	11.5
	·자영업주 전반적 불만족 비율(%)	30.1	24.1	20.4	22.9	22.1	15.5	14.6
	·무급가족종사자 업무에 대한 불만족 비율(%)	-	-	-	-	-	-	9.3
	·무급가족종사자 전반적 불만족 비율(%)	27.3	14.7	21.4	10.7	17.4	8.4	6.5
	·공공기관 이용 비율(%)	24.5	36.1	36.6	30.2	24.2	46.1	28.2
구직활동(1순위) (임금근로 실업자)	·주변지인 의뢰 비율(%)	43.6	39.6	33.6	43.9	32.8	27.4	42.7
	·전반적 불만족 비율(%)	23.6	22.7	21.8	20.4	19.1	20.9	20.2
일상생활 만족도	·개인 소득	1,277.5	1,234.8	1,276.8	1,376.7	1,424.4	1,504.0	1,559.5
	(이전 한해)	739.2	728.8	807.4	816.3	856.1	901.2	901.2
가구 총소득/소비	·가구 총소득(만원)	1,570.0	1,754.2	1,818.9	1,902.9	1,984.4	2,061.2	1,999.8
	(이전 한해)	133.4	138.3	140.0	145.1	150.4	150.9	150.4

주 1) 각 항목의 대상, 세부 통계 및 설명, 주석 등에 대해서는 본문을 참조하기 바람

2) 각 차수별 횡단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하였음

5. 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간 주요 특성 비교

- 일자리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삶의 질이 나은 것으로 나타남
- 실업자는 상당수의 항목에서 비경제활동인구보다는 취업자와 유사한 특성을 보임
- 비경제활동인구는 직업준비도가 취업자나 실업자에 비해 현저히 낮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비율이 매우 높음
- 취업자의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26.9%)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반면, 실업자는 고용센터(29.4%), 비경제활동인구는 지방자치단체(25.8%)의 고용서비스를 많이 이용

〈표 2-7〉 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주요 특성 비교

구 분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주된 장애가 악화 또는 진행되고 있는 비율(%)	18.5	11.8	38.1
·사용하고 있는 정보접근/의사소통수단 있는 비율(%)	2.9	4.1	2.2
·사용하고 있는 보장구가 있는 비율(%)	18.8	13.5	34.3
·지난조사 이후 신규 자격증 취득 비율(%)	3.3	10.3	0.8
·현재 자격증 보유 비율(3개 이상)(누적)(%)	16.8	6.8	9.6
·컴퓨터 활용능력 못하는 편인 비율(%)	65.9	59.1	88.2
·대인관계/조직적응능력 못하는 편인 비율(%)	16.2	16.3	49.1
·지난조사 이후 고용서비스 이용 비율(%)	2.1	17.9	0.6
·최근 9년 고용서비스 이용 비율(%)	21.5	57.6	17.0
·고용서비스 고용센터 이용 비율(고용서비스 이용 시)(%)	24.5	29.4	22.5
·고용서비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용 비율(고용서비스 이용 시)(%)	26.9	19.6	18.3
·고용서비스 지방자치단체 이용 비율(고용서비스 이용 시)(%)	20.9	24.1	25.8
·공공/민간기관 직업능력개발 경험 비율(누적)(%)	12.0	13.7	5.5
·건강이 좋지 않은 비율(%)	49.5	47.0	78.4
·일상생활 도움 필요 비율(%)	19.0	21.3	59.7
·여가 활용 ·TV 시청 비율(%)	59.8	38.4	65.2
·활용 ·컴퓨터 또는 인터넷 활용 비율(%)	5.2	10.3	2.6
·아이 양육의 취업 지장 있는 비율(아이 양육 담당 시)(%)	9.1	14.9	65.4
·노후준비 비율(30세 이상)(%)	35.5	19.1	8.2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차별 경험이 있는 비율(%)	4.6	6.3	18.3
·일상생활 전반적 불만족 비율(%)	6.8	21.7	29.4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층인 비율(%)	39.9	52.6	71.2
·2013년 개인 총소득(만원)	1,634.6	718.0	401.1
·평균 가구원 수(명)	2.84	2.84	2.25
·가구주인 비율(%)	71.4	50.3	61.0
·2013년 가구 총소득(만원)	2,807.9	2,568.3	1,422.3
·2013년 가구 월평균 총소비(만원)	203.2	205.4	112.2

주: 각 항목의 대상, 세부 통계 및 설명, 주석 등에 대해서는 본문을 참조하기 바람

제 1 장 서 론

제1절 조사 개관

1. 조사개요

장애인고용패널조사(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이하 PSED)는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경제활동 및 직업적 능력,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소득, 소비, 일상생활 등에 관하여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longitudinal survey)로서 2008년 첫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2015년 7월에 8차년도 실사까지 완료하였다.

연도별 진행경과를 살펴보면, 장애인고용패널 구축을 위해 2006년부터 기초연구가 수행되었으며, 2007년에는 별도의 패널구축조사를 통해 제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 등록장애인 1만 여명을 본 패널과 예비패널로 구축하였다. 타 패널조사와 달리 패널구축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패널구축이 시간을 두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경제활동상태와 관련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표 개발과 동시에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해 컴퓨터를 활용한 대인면접방법인 CAPI(Computer-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준비가 이루어졌으며, 세 차례 총 1,000여명에 대한 시범조사를 실시하여 2008년의 1차 조사를 치밀하게 준비하였다. 1차년도 조사는 2008년 6월부터 8월까지 실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총 5,092명의 등록장애인이 장애인고용패널로 최종 확정되었다. 1차년도 조사는 비록 패널조사일지라도 여타의 횡단면 조사와 다를 바가 없이 진행되었으며, 조사내용은 패널의 경제활동 관련 현재 상황 및 과거 경력 등이었다. 2차년도 조사부터는 매년 5월부터 7월까지 실시되었으며 동일 패널에 대한 종단면적인 자료 축적에 따른 시계열적 분석이 가능해짐으로써 패널 데이터로서의 가치를 갖게 되고 지난조사 결과와의 비교, 연속성과 변화 등을 동태적으로 분석하게 해준다. 또한 지난조사의 응답결과를 재확인하고 이후의 변

화를 질문하여 이를 통해 현재의 최종 상태를 확인하는 조사표 및 데이터 체계를 구축하여 자료수집의 정확도를 제고하였다.

2008년 당시 만 15~75세 조사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5개 유형의 장애를 지니고 있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등록장애인 중 5,092명을 선정하였고 2014년 7차년도 현재 조사 대상자는 만 21~81세로 구성되어 있다. 7차년도 패널조사는 2014년 5월 20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4,082명이 조사를 완료하였고 사망 등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유효표본의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7차년도 원표본 유지율은 80.2%으로 나타났다.

[그림 1-1-1]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진행과정(1~7차년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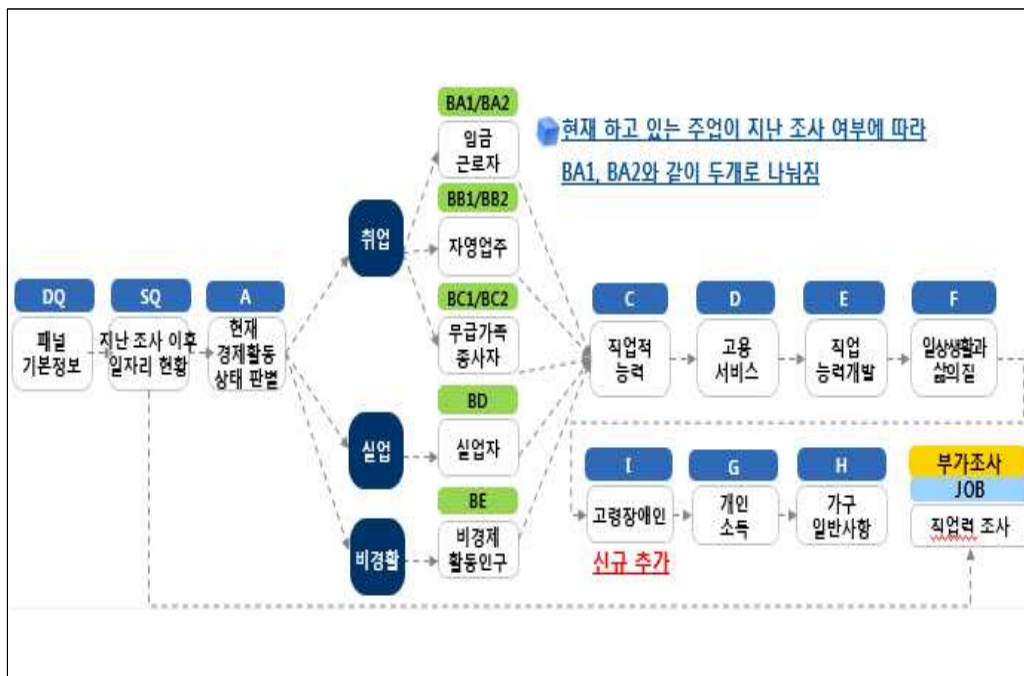
진행단계	진행내용	진행일정
기초연구 수행	· 사례연구, 표본설계 방법론 연구, 기초조사표 설계 등	2006년 7월 ~ 2006년 10월
통계작성승인 확정	· 제 38303호 통계작성승인 확정	2007년 6월
장애인고용패널 구축조사	· 본 패널 5,016명, 예비패널 5,912명 구축	2007년 9월 ~ 2007년 12월
시범조사 실시	· 1차 시범조사 실시(PAPI): 400명 · 2차 시범조사 실시(CAPI): 300명 · 3차 시범조사 실시(CAPI): 300명	2007년 10월 ~ 2008년 3월
장애인고용패널 경제활동조사	· 본 패널 대상 경제활동조사 실시(전화조사)	2008년 4월
1차년도 본조사 실시	· 제1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08년) 실시 - 등록장애인 5,092명 조사 완료	2008년 6월 ~ 2008년 8월
2차년도 본조사 실시	· 제2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09년) 실시 - 등록장애인 4,677명 조사 완료 (원표본 유지율 91.8%)	2009년 5월 ~ 2009년 7월
3차년도 본조사 실시	· 제3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0년) 실시 - 등록장애인 4,566명 조사 완료 (원표본 유지율 89.7%)	2010년 5월 ~ 2010년 7월
4차년도 본조사 실시	· 제4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1년) 실시 - 등록장애인 4,397명 조사 완료 (원표본 유지율 86.4%)	2011년 5월 ~ 2011년 7월
5차년도 본조사 실시	· 제5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2년) 실시 - 등록장애인 4,297명 조사 완료 (원표본 유지율 84.4%)	2012년 5월 ~ 2012년 7월
6차년도 본조사 실시	· 제6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3년) 실시 - 등록장애인 4,161명 조사 완료 (원표본 유지율 81.7%)	2013년 5월 ~ 2013년 7월
7차년도 본조사 실시	· 제7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4년) 실시 - 등록장애인 4,082명 조사 완료 (원표본 유지율 80.2%)	2014년 5월 ~ 2014년 7월

제2절 조사내용

1. 조사표의 구성

PSED 조사표는 크게 개인조사표, 부가조사표로 구성된다. 개인조사표는 지난조사와 유사하게 일자리,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등 주제별 과거 경험력에 대한 정보를 중심으로 지난조사 이후의 변화 상태에 대해 질문하며 조사표의 흐름은 ① 패널 기본정보, ② 지난조사 이후 일자리 현황, ③ 경제활동상태 판별, ④ 취업자(현재 하고 있는 주업),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개별 설문, ⑤ 직업적 능력, ⑥ 고용서비스, ⑦ 직업능력개발, ⑧ 일상생활과 삶의 질, ⑨ 고령장애인, ⑩ 개인소득, ⑪ 가구 일반사항의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④에서 임금근로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현재 주업이 지난조사 시 조사된 일자리인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의 조사표로 각각 응답받는다. 부가조사표는 2차년도 조사부터 포함되었으며, 지난조사 이후 1개월 이상 종사한 모든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12가지의 조사표로 묻게 된다.

[그림 1-2-1] 조사표 구조



〈표 1-2-1〉 부가조사표(직업력)

JOB01. 지난조사 시 조사된 일자리-임금근로자-현재 하고 있음
JOB02. 지난조사 시 조사된 일자리-임금근로자-현재 하고 있지 않음
JOB03. 지난조사 시 조사된 일자리-자영업주-현재 하고 있음
JOB04. 지난조사 시 조사된 일자리-자영업주-현재 하고 있지 않음
JOB05. 지난조사 시 조사된 일자리-무급가족종사자-현재 하고 있음
JOB06. 지난조사 시 조사된 일자리-무급가족종사자-현재 하고 있지 않음
JOB07. 새로 조사된 일자리-임금근로자-현재 하고 있음
JOB08. 새로 조사된 일자리-임금근로자-현재 하고 있지 않음
JOB09. 새로 조사된 일자리-자영업주-현재 하고 있음
JOB10. 새로 조사된 일자리-자영업주-현재 하고 있지 않음
JOB11. 새로 조사된 일자리-무급가족종사자-현재 하고 있음
JOB12. 새로 조사된 일자리-무급가족종사자-현재 하고 있지 않음

‘패널 기본정보’ 파트에서는 성별, 연령 등 인적사항과 장애유형, 등급 등 장애정보에 대해 지난조사 응답값 확인, 지난조사 이후 변화, 현재 최종상태 등의 순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조사 이후 일자리 현황’ 파트에서는 지난조사 이후 1개월 이상 일한 일자리의 유무, 산업, 직업, 현재 지속 여부 등을 파악하며, 이를 통해 현재 주업을 판단하고 부가조사표에서 조사할 일자리의 개수를 결정한다.

‘경제활동상태’ 파트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사용하는 기준으로 패널의 경제활동 상태 즉,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 여부를 판별한다.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설문’ 파트에서 취업자는 현재 주업으로 하고 있는 일자리에 대해, 실업자는 구직활동 및 희망 일자리에 대해, 비경제활동인구는 취업 희망 여부 등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게 된다. 이때 임금근로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지난조사 시 조사한 일자리를 현재에도 주업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일자리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지에 따라 조사표의 종류가 다시 나뉘어지게 된다.

‘직업적 능력’, ‘고용서비스’, ‘직업능력개발’ 파트는 지난조사 이후 자격증 취득, 고용서비스 경험, 직업능력개발 경험 등을 묻게 된다. ‘일상생활과 삶의 질’은 고용과 관련된 건강, 여가, 만족도 등을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묻게 된다. ‘고령장애인’은 60세 이상 고령장애인의 은퇴 여부와 사유, 은퇴 이후 만족도 및 은퇴하지 않은 이유 등을 묻고 있다. ‘개인소득’과 ‘가구 일반사항’은 개인과 가구의 소득, 소비, 가구원 구성, 자산, 부채 등을 묻고 있다.

〈표 1-2-2〉 조사표 구성

구 분	내 용	조사차수						
		7차	6차	5차	4차	3차	2차	1차
개 인 조 사 표	패널 기본정보 (DQ)	- 패널의 인적사항 및 장애정보의 재확인(지난조사 시점), 지난조사 이후의 변화내역 파악	○	○	○	○	○	○
		- 인적특성, 장애정보, 등록여부, 장애상태, 보장구 등						
	지난조사 이후 일자리 현황 (SQ)	- 지난조사 이후 계속 하고 있는 일자리, 새로 시작한 일자 리, 그만둔 일자리 등의 현황을 총체적으로 파악, 주업 및 부가조사(직업력)에서 조사할 조사표의 수와 종류 결정함	○	○	○	○	○	-
		- 지난조사 시 일자리의 지속 여부, 변화내역, 지난조사 이 후 새로 시작한 일자리 유무 및 지속여부, 주업/부업 등						
	경제활동상태 판별(A)	- 조사시점의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를 구분함						
		- 지난 주 일자리 유무, 지난 주 또는 지난 한달 구직 여 부, 일할 능력 유무, 취업자의 일 관련 희망내역 등	○	○	○	○	○	○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 구 (BA~BE)	- 현재 취업자(임금근로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실 업자, 비경제활동인구의 주요 특성을 파악함						
		- 일자리 종류 및 특성, 근로조건, 이직의사, 배려사항, 일 자리 희망/불원 이유, 구직/창업활동 관련사항, 희망 일 자리, 취업/창업 지원사항 등	○	○	○	○	○	○
	직업적 능력 (C)	- 자격증, 업무수행능력, 전공 및 진학 등 직업능력에 영향 을 주는 요소의 지난조사 이후 경험 및 변동사항 파악	○	○	○	○	○	○
	고용서비스 (D)	- 지난조사 이후 국가/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고용서비 스의 이용현황 및 참여, 도움정도 등 파악	○	○	○	○	○	○
	직업능력개발 (E)	- 지난조사 이후 직업훈련 및 교육 등 직업능력을 개발하 기 위해 참여한 내역 파악	○	○	○	○	○	○
	일상생활과 삶의 질(F)	- 일상생활 및 삶의 질의 내용						
		- 건강, 운동/수면, 일상생활도움, 하루일과, 여가, 일상생 활 만족도 등	○	○	○	○	○	○
부 가 조 사 표 (JOB01~JOB12)	고령장애인(I)	- 은퇴여부, 은퇴사유, 은퇴 이후 생활만족도	○	○	-	-	-	-
		- 은퇴를 하지 않으려는 이유						
	개인소득(G)	- 패널개인의 근로소득, 근로 외 소득 현황 파악	○	○	○	○	○	○
	가구 일반사항 (H)	- 패널 가구의 가구원 변화 및 소득/소비, 주거환경 등 파악						
		- 가구구성, 가구원 특성, 소득 및 지출, 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자산, 주거형태 등	○	○	○	○	○	○
	여성(A01W)	- 여성의 결혼, 출산, 육아, 일자리, 가사노동 등	-	-	-	-	-	○
	고령자(A01O)	- 은퇴 여부, 일자리 희망 여부, 노후준비 상황 등	-	-	-	-	-	○
부가조사표(직업력) (JOB01~JOB12)		- 지난조사 이후 1개월 이상 일한 모든 일자리 경험에 대 해 개별적으로 파악함	○	○	○	○	○	-

〈표 1-2-3〉 조사표 주요항목

구 분		세부 영역 및 세부 항목
패널 기본정보 (DQ)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생년월, 혼인상태, 최종학력 - 장애유형, 장애등급, 장애부위, 중복장애 정보 - 장애발생시기, 질환, 사고 발생여부, 산업재해 인정여부 - 장애상태, 정보접근/의사소통수단, 보장구 - ICF ‘활동과 참여’(1, 2차년도만 적용)
지난조사 이후 일자리 현황 (SQ)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조사 일자리 정보(사업내용, 업무내용, 종사상 지위, 지속여부) - 지난조사 이후 변경 사항 - 새로 시작한 일자리 정보(사업내용, 업무내용, 종사상 지위, 지속여부) - 주업/부업 선택, 부업 하는 이유
경제활동상태 판별(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여부, 일시휴직 여부 및 이유, 지난 주 활동상태 - 구직활동여부, 취업가능성, 취업희망여부, 비구직사유 - 취업시간, 36시간 미만 일하는 이유, 추가취업 희망여부 및 가능성, 일자리 선택 기준, 월별 주된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BA~BC)	임금 근로자 (B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체명, 소재지, 근무사유, 근무시기, 취업경로, 채용방법, 취업소요 기간, 취업결정요인 - 일자리 종류, 사업체 규모, 근무장소, 고용형태, 일자리 성격, 고용계약, 계속근로가능, 정규직 여부, 직책, 교대제, 업무성격, 근로시간제 - 근무일수/시간, 초과근무, 임금, 복리후생, 어려움, 이직의사, 배려, 도움, 보조기기, 편의시설, 안전상황, 노동조합, 장애차별, 만족도, 업무만족도(7차)
	자영업주 (B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체명, 소재지, 창업동기, 창업시기, 창업방법, 창업기간, 초기투자 비용/경로, 창업준비활동, 창업활동 시 어려운 점 - 사업체 종류, 규모, 매출 및 수익규모, 사업장 수, 사업장 형태, 동업 여부, 근무장소, 업무성격, 일자리 성격, 근무일수/시간 - 어려움, 이직의사, 배려, 도움, 보조기기, 편의시설, 안전상황, 만족도, 업무만족도(7차)
	무급가족종사자 (B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체명, 소재지, 근무사유, 근무시기, 사업주와의 관계, 일자리 종류, 사업체 규모, 근무장소, 일자리 성격, 업무성격, 근로시간제 - 근무일수/시간, 어려움, 이직의사, 배려, 도움, 보조기기, 편의시설, 안전상황, 만족도, 원하는 일자리, 업무만족도(7차)
실업자 (B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구해본 종사상 지위, 일자리 원하는 이유, 구직활동내용, 어려움, 구직활동시간 - 희망 일자리 정보(사업내용, 업무내용, 임금), 희망 창업 정보(업종, 기대 순수익, 사업장 형태, 예상시기, 예상자금), 일자리 선택 기준, 배려
비경제활동인구 (B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희망/불원 이유, 구직활동내용, 어려움, 구직활동시간 - 1년 내 취업의사, 원하는 일자리 종류 및 희망내용, 언제가 일할 의향, 일자리 선택 기준, 배려

〈표 1-2-3〉 조사표 주요항목(계속)

구 분	세부 영역 및 세부 항목
직업적 능력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 보유 현황(자격증 이름, 유형, 취득년월, 도움) - 컴퓨터, 영어, 대인관계/조직적응 능력 - 선호업무 및 장소(1, 2차년도만 조사), 육체활동 능력(1차년도만 조사) - 고등학교, 대학교 전공, 특별전형, 졸업 후 예상 진로, 상담자
고용서비스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종류, 제공기관, 회수/금액/기간/개수, 시기, 주된 정보접근 방법, 참여정도, 도움, 애로사항 - 고용서비스 이용하지 않는 이유, 향후 희망 고용서비스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1차년도만 조사)
직업능력개발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창시절 직업훈련/교육, 재학 중 인턴십 프로그램, 아르바이트 - 현장실습/인턴십 프로그램 경험 여부 및 횟수 - 직업교육훈련(이름, 시기, 기간, 분야, 지원주체, 방식, 실시기관 등), 참여하지 않은 이유, 향후 희망 훈련분야
일상생활과 삶의 질(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상태, 직업 지장 여부, 만성질환, 운동, 수면, 타인의 도움, 이동 수단, 어려움, 여가활동, 종교, 양육, 노후준비 - 부모의 학력 및 직업력(4차년도까지 조사), 장애차별, 일상생활 만족, 장애수용도(3, 4차년도 조사), 흡연, 음주, 자아존중감(5,7차년도 조사)
고령장애인(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퇴 여부, 시기 및 예상시기, 은퇴 이유, 은퇴 후 생활 만족도 - 은퇴를 하지 않은 이유,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
개인소득(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근로소득(임금소득, 사업소득) - 개인 근로 외 소득(사회보험급여,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기타소득)
가구 일반사항 (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원 정보(성별, 생년월, 최종학력, 장애정보, 혼인상태, 취업상태) - 가구 근로소득(임금소득, 사업소득) - 가구 근로 외 소득(사회보험급여,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기타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여부 및 지원내용, 탈피 의향 - 생활비(식비, 교육비, 차량유지비, 주거비, 경조사비, 보건의료비, 교양 오락비, 내구재 구입비, 통신비, 용돈, 피복비, 기부금,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생필품 구입비, 저축, 각종 이자비용, 세금, 기타) - 가구 자산 및 부채, 주거형태, 소유형태

2차년도 조사부터 지난조사 이후 1개월 이상 일한 다수개의 일자리에 대해 부가조사 즉, 직업력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재 일자리가 주업, 부업 여부에 관계없이 지난조사 일자리 여부 및 종사상 지위, 계속 여부 등에 따라 JOB01~JOB12 조사표 유형이 결정되며 개인조사표 BA~BC 조사항목의 일부를 포함하여 아래의 형식에 따라 일자리 특성을 파악하였다.

〈표 1-2-4〉 직업력 조사표 구성

구 분		내 용	기 준
지난조사 시 조사된 일자리	임금근로자 - 현재 하고 있음 (JOB01)	지난조사 이후 변화, 일자리 정보, 고용형태 및 업무정보, 근로조건 및 직장생활, 근무환경	현재 시점
	임금근로자 - 현재 하고 있지 않음 (JOB02)	그만둔 상황, 지난조사 이후 변화, 일자리 정보, 고용형태 및 업무정보, 근로조건 및 직장생활, 근무환경	그만둔 시점
	자영업주 - 현재 하고 있음 (JOB03)	지난조사 이후 변화, 사업체 정보, 근로실태, 업무환경, 사업체 평가	현재 시점
	자영업주 - 현재 하고 있지 않음 (JOB04)	그만둔 상황, 지난조사 이후 변화, 사업체 정보, 근로실태, 업무환경, 사업체 평가	그만둔 시점
	무급가족종사자 - 현재 하고 있음 (JOB05)	지난조사 이후 변화, 일자리 정보, 업무정보, 근로조건 및 직장생활, 근무환경, 취업 희망	현재 시점
	무급가족종사자 - 현재 하고 있지 않음 (JOB06)	그만둔 상황, 지난조사 이후 변화, 일자리 정보, 업무정보, 근로조건 및 직장생활, 근무환경	그만둔 시점
새로 조사된 일자리	임금근로자 - 현재 하고 있음 (JOB07)	입사정보, 일자리 정보, 고용형태 및 업무정보, 근로조건 및 직장생활, 근무환경	현재 시점
	임금근로자 - 현재 하고 있지 않음 (JOB08)	입사정보, 그만둔 상황, 일자리 정보, 고용형태 및 업무정보, 근로조건 및 직장생활, 근무환경	그만둔 시점
	자영업주 - 현재 하고 있음 (JOB09)	창업정보, 사업체 정보, 근로실태, 업무환경, 사업체 평가	현재 시점
	자영업주 - 현재 하고 있지 않음 (JOB10)	창업정보, 그만둔 상황, 사업체 정보, 근로실태, 업무환경, 사업체 평가	그만둔 시점
	무급가족종사자 - 현재 하고 있음 (JOB11)	근무시작 정보, 일자리 정보, 업무정보, 근로조건 및 직장생활, 근무환경, 취업 희망	현재 시점
	무급가족종사자 - 현재 하고 있지 않음 (JOB12)	근무시작 정보, 그만둔 상황, 일자리 정보, 업무정보, 근로조건 및 직장생활, 근무환경	그만둔 시점

2. 변경된 조사표

가. 7차년도 변경된 조사 내용

PSED은 패널의 응답부담과 거부감 줄이고 연구 및 정책 활용에 적합한 조사를 실시하고 매년 패널조사마다 자문회의와 문항연구를 통해 조사 내용을 변경하였다. 이번 조사도 일상 생활과 삶의 질부분에서 “자아존중감” 8개 문항이 추가되었고 5차 조사 시 10개 문항이었지만 응답자 부담으로 2개 문항이 삭제되었고 일부분항은 긍정적인 내용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현재하고 있는 일부분에서는 “업무에 대한 만족도” 5개 문항이 추가되었다.

〈표 1-2-7〉 7차년도 추가된 조사 내용

조사표	영역	조사 항목
G	자아존중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할 수가 있다. - 나는 자랑할 것이 있다. -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 나는 내 자신이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 나는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A1, A3, A5, A7, A9, A11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현재 하고(맡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있다. - 나는 현재 하고(맡고) 있는 일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 - 나는 현재 하고(맡고) 있는 일을 즐겁게 하고 있다. - 나는 현재 하고(맡고) 있는 일을 보람을 느끼면서 하고 있다. - 별다른 일이 없는 한 현재 하고(맡고) 있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

〈표 1-2-6〉 7차년도 변경된 조사 내용

조사표	변경 전 내용	변경 후 내용
A3, A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님은 지난조사 이후 창업이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컨설팅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 그렇다면, ○○○님은 어떠한 내용의 컨설팅을 받으셨습니까?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님은 향후 창업이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에 의한 컨설팅을 받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그렇다면, ○○○님은 어떠한 내용의 컨설팅을 받고 싶으십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님은 다음의 각 항목별로 본인의 장애로 인한 차별을 어느 정도나 받아왔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장애가 발생한 이후의 모든 기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님은 다음의 각 항목별로 본인의 장애로 인한 차별을 어느 정도나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7차 조사에서 응답자의 부담 경감과 응답 난이도에 비해 활용도가 낮은 항목, 다른 문항과 복잡하게 연계되어 응답오류를 발생 할 가능성이 높은 문항은 자문회의와 패널조사연구를 거쳐서 삭제되었다.

〈표 1-2-5〉 7차년도 삭제된 조사 내용

조사표	영역	조사 항목
A1, A3, A5, A7, A9, A11	지난 1년간 15일 이상 못한 달	- 2013년 6월부터 지난 1년간 ○○○님이 현재 일자리(직장)에서 한 달 평균 15일 이상 일하지 못한 달을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현재 주업만)
A2, A8	그만둔 일자리 초과근로	- 그만두실 당시 ○○○님은 일자리(직장)에서 정규근로시간 이외에 초과근무를 하셨습니까? - 그럼 그만두실 당시 ○○○님의 평소 초과근로시간은 1주 평균 몇 시간이었습니까? 또 한 달 평균 초과근로 수당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 ○○○님의 초과근로 여부 및 초과근로시간(휴일근로 포함)은 주로 누가 결정하였습니까?
A1, A2, A7, A8	노동조합 의무가입 여부, 권익 대변 여부, 가입하지 않은 이유	- 노동조합에 가입하셨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신 것입니까? - ○○○님은 노동조합이 장애인 근로자의 권익(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의 근로환경 개선, 근로조건 등)을 충분히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님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A5, A11,	무급가족종사자 창업 희망 시 소요자금, 조달가능 자금	- 창업 예상 소요 자금은 어떻게 되십니까? - 그중에서 본인이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되십니까?
B	월별 경제활동 상태	- 다음은 2013년 6월부터 월별로 ○○○님의 주된 경제활동상태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해당 월의 주된 상태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G	종교의 종류	- ○○○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G	자아존중감	-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제3절 표본설계

1. 조사대상

PSED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조사에 참여하는 패널이 우리나라 장애인의 전체 집단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하며, 조사 특성 상 장기간 안정적으로 본 조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모집단을 정의하고 그 명단을 확보해야 하며, 확보된 명단을 통해 확률적으로 표집해야 하는데, 불행히도 구축 당시(2007년 말) 우리나라에는 목표 모집단의 표집틀을 확보할 수 없어 최적의 표집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야 했다. 또한 많은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가 타인에게 밝혀지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상당기간 동안 면밀한 준비와 친밀감 형성을 통해 조사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을 패널로 유도하고자 노력하였다.

여타 패널조사의 경우에는 1차년도 조사 응답자를 패널로 구축하지만 PSED는 적합한 조사 대상을 찾는 부분, 장애 유무를 확인하는 부분, 패널 참여를 약속받고 관계를 유지하는 부분 등에 있어 면접원과 응답자의 부담을 줄이고, 조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별도로 패널구축조사 실시 후 1차년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2007년 패널구축조사로 패널 11,043명을 구축하였고 이 중 지역, 장애유형, 연령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패널이 PSED의 조사대상이다. 경제활동 파악과 관련된 PSED의 조사 취지 상 만 76세 이상의 고령장애인은 제외하였다.

구체적으로 모집단을 다시 정의하면 목표 모집단은 전국(제주 및 도서 제외)의 2008년 1월 1일 기준 만 15세 이상 75세 이하인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5가지 장애유형을 지니고 있는 장애인으로, 조사 모집단은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조사의 육체적·정신적 활동제약자 가구 리스트와 읍면동(현 주민센터) 등록장애인 명부를 사용하여 구축하였다. 활동제약자 명부에는 등록장애인이, 등록장애인 명부에는 미등록장애인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두 명부를 추출틀로 활용하여 상호보완, 조사모집단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PSED는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등록장애인을 핵심 조사모집단으로 정의한다. 미등록장애인의 경우 특성 및 경향성을 파악하여 정책수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별조사 대상으로 삼고자 구축하였으나 전체 현황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모집단 추론이 불가능함에 따라 4차년도 조사부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표본추출

가. 표본크기

표본크기는 통계생산단위와 추정치의 정도(precision)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15개 장애유형별로 장애인 규모에서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장애유형별 추정치의 정도를 관리할 수 없어서 전국단위 통계의 목표정도를 95% 신뢰수준에서 1.4%p 수준으로 선정하여 전체 표본규모를 5,000명의 장애인으로 정하였다.

최소 장애유형에 대해서는 과다배분법을 적용하였으며,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활동제약자 자료를 이용하여 읍면동을 확률 추출하였는데 이 때, 조사를 연차적으로 진행하면서 패널의 이탈률을 최소화하고자 표본 관리를 위한 방편으로 전체적으로 500개 읍면동을 1차 추출단위의 크기로 정하였다.

나. 모집단 층화

등록장애인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고 지역별로도 정책수립에 필요한 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역별, 장애유형별, 연령별(15~60세, 61~75세)로 층화하였으며, 등록장애인 명부에는 장애인 연령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를 보완적으로 이용하였다.

표본배분과 추출에서 효율성을 고려하여 15개 지역별로 층화한 후에 연령별로 층화하였고 다음에는 장애유형을 결합하여 층화하였다.

다. 모집단 분석

15개 지역별로 1차 추출단위인 읍면동의 규모와 표본 읍면동 수를 <표 1-2-1>에 정리하였다. 표본 읍면동의 추출은 확률추출법을 적용하였다.

〈표 1-3-1〉 지역별 읍면동 수와 표본 읍면동 수

(단위: 개)

구 분	모집단 읍면동 수(N_h)	표본 읍면동 수(n_h)
서 울	522	77
부 산	227	41
대 구	144	27
인 천	140	26
광 주	91	15
대 전	80	13
울 산	68	9
경 기	524	81
강 원	188	24
충 북	153	19
충 남	209	23
전 북	244	32
전 남	299	34
경 북	338	40
경 남	314	39
전 체	3,541	500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중 제주 지역을 제외하고 2008년 1월 1일 기준 만 15~75세의 등록장애인의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3-2〉 지역별, 연령별 모집단 현황

(단위: 명, %)

구 분	전체(15~75세)	15~60세	61~75세
서 울	722(19.2)	522(20.2)	200(17.1)
부 산	285(7.6)	194(7.5)	91(7.8)
대 구	229(6.1)	158(6.1)	71(6.1)
인 천	207(5.5)	154(6.0)	53(4.5)
광 주	64(1.7)	41(1.6)	23(2.0)
대 전	98(2.6)	69(2.7)	29(2.5)
울 산	46(1.2)	33(1.3)	13(1.1)
경 기	680(18.1)	479(18.5)	201(17.1)
강 원	170(4.5)	113(4.4)	57(4.9)
충 북	100(2.7)	74(2.9)	26(2.2)
충 남	196(5.2)	119(4.6)	77(6.6)
전 북	226(6.0)	145(5.6)	81(6.9)
전 남	222(5.9)	136(5.3)	86(7.3)
경 북	234(6.2)	152(5.9)	82(7.0)
경 남	278(7.4)	195(7.5)	83(7.1)
전 체	3,757(100.0)	2,584(100.0)	1,173(100.0)

〈표 1-3-3〉 장애유형별, 연령별 모집단 현황

(단위: 명, %)

구 분	전체(15~75세)	15~60세	61~75세
지체장애	2,162(57.5)	1,536(59.4)	626(53.4)
뇌병변장애	324(8.6)	148(5.7)	176(15.0)
시각장애	386(10.3)	249(9.6)	137(11.7)
청각장애	299(8.0)	172(6.7)	127(10.8)
언어장애	17(0.5)	12(0.5)	5(0.4)
지적장애	227(6.0)	215(8.3)	12(1.0)
자폐성장애	7(0.2)	7(0.3)	0(0.0)
정신장애	130(3.5)	124(4.8)	6(0.5)
신장장애	88(2.3)	56(2.2)	32(2.7)
심장장애	33(0.9)	14(0.5)	19(1.6)
호흡기장애	32(0.9)	14(0.5)	18(1.5)
간장애	11(0.3)	8(0.3)	3(0.3)
안면장애	4(0.1)	4(0.2)	0(0.0)
장루·요루장애	21(0.6)	10(0.4)	11(0.9)
뇌전증장애	16(0.4)	15(0.6)	1(0.1)
전 체	3,757(100.0)	2,584(100.0)	1,173(100.0)

라. 표본배분

장애인의 경제활동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연령대를 구분하여 표본배분을 진행하였다. 연령 비율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고령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될 것이므로 장애인 고용정책의 주요 대상인 60세 이하의 결과 분석을 풍부하게 하기 위하여 15~60세와 61~75세로 연령대를 구분하고, 15~60세와 61~75세 연령대를 9:1의 비율로 배분하여 15~60세에는 4,500명, 61~75세에는 500명을 배분하였다.

다음에는 연령별과 15개 장애유형별 배분을 모집단의 지역별, 연령대별, 장애유형별 분포를 기준으로 비례배분으로 계산하였으며 표본배분 결과는 〈표 1-2-4〉와 같다.

마. 표본추출

등록장애인 명부를 조사 모집단으로 이용하지만 이 자료에는 읍면동 현황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활동제약자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비례확률추출 방식으로 표본 읍면동을 추출하고, 추출된 표본 읍면동에서 등록장애인 명부 및 활동제약자 리스트를 이용하여 장애유형별 할당 후 계통추출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표 1-3-4〉 장애인고용패널 표본배분 현황 - 지역별, 장애유형별, 연령대별
(단위: 명, %)

변수	구분	15~60세		61~75세		합 계	
		표본배분 수	비율	표본배분 수	비율	표본배분 수	비율
지 역	서 울	877	19.5	85	17.0	962	19.2
	부 산	332	7.4	39	7.8	371	7.4
	대 구	263	5.8	29	5.8	292	5.8
	인 천	238	5.3	23	4.6	261	5.2
	광 주	82	1.8	10	2.0	92	1.8
	대 전	108	2.4	12	2.4	120	2.4
	울 산	63	1.4	6	1.2	69	1.4
	경 기	808	18.0	86	17.2	894	17.9
	강 원	218	4.8	24	4.8	242	4.8
	충 북	132	2.9	12	2.4	144	2.9
	충 남	209	4.6	33	6.6	242	4.8
	전 북	275	6.1	31	6.2	306	6.1
	전 남	272	6.0	37	7.4	309	6.2
	경 북	278	6.2	36	7.2	314	6.3
	경 남	345	7.7	37	7.4	382	7.6
장 애 유 형	지체장애	2,312	51.4	238	47.6	2,550	51.0
	뇌병변장애	402	8.9	72	14.4	474	9.5
	시각장애	509	11.3	73	14.6	582	11.6
	청각장애	530	11.8	63	12.6	593	11.9
	언어장애	44	1.0	6	1.2	50	1.0
	지적장애	211	4.7	9	1.8	220	4.4
	자폐성장애	14	0.3	0	0.0	14	0.3
	정신장애	143	3.2	2	0.4	145	2.9
	신장장애	100	2.2	8	1.6	108	2.2
	심장장애	65	1.4	9	1.8	74	1.5
	호흡기장애	51	1.1	12	2.4	63	1.3
	간장애	29	0.6	0	0.0	29	0.6
	안면장애	28	0.6	1	0.2	29	0.6
	장루·요루장애	31	0.7	6	1.2	37	0.7
	뇌전증장애	31	0.7	1	0.2	32	0.6
	전 체	4,500	100.0	500	100.0	5,000	100.0

PSED 1차년도에 구축된 장애인고용패널을 지역별, 장애유형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1-3-5〉와 같다.

〈표 1-3-5〉 장애인고용패널 현황 - 지역별, 장애유형별, 연령대별

(단위: 명, %)

변수	구분	15~60세		61~75세		합 계	
		표본 수	비율	표본 수	비율	표본 수	비율
지 역	서 울	865	19.4	102	15.9	967	19.0
	부 산	343	7.7	49	7.6	392	7.7
	대 구	245	5.5	33	5.1	278	5.5
	인 천	228	5.1	40	6.2	268	5.3
	광 주	92	2.1	11	1.7	103	2.0
	대 전	102	2.3	17	2.7	119	2.3
	울 산	63	1.4	8	1.2	71	1.4
	경 기	800	18.0	97	15.1	897	17.6
	강 원	215	4.8	33	5.1	248	4.9
	충 북	141	3.2	13	2.0	154	3.0
	충 남	206	4.6	39	6.1	245	4.8
	전 북	279	6.3	33	5.1	312	6.1
	전 남	275	6.2	47	7.3	322	6.3
	경 북	275	6.2	52	8.1	327	6.4
	경 남	322	7.2	67	10.5	389	7.6
장 애 유 형	지체장애	2,243	50.4	308	48.0	2,551	50.1
	뇌병변장애	425	9.5	86	13.4	511	10.0
	시각장애	499	11.2	91	14.2	590	11.6
	청각장애	496	11.1	86	13.4	582	11.4
	언어장애	38	0.9	6	0.9	44	0.9
	지적장애	213	4.8	8	1.2	221	4.3
	자폐성장애	30	0.7	0	0.0	30	0.6
	정신장애	153	3.4	4	0.6	157	3.1
	신장장애	111	2.5	8	1.2	119	2.3
	심장장애	72	1.6	15	2.3	87	1.7
	호흡기장애	53	1.2	14	2.2	67	1.3
	간장애	29	0.7	1	0.2	30	0.6
	안면장애	27	0.6	4	0.6	31	0.6
	장루·요루장애	29	0.7	9	1.4	38	0.7
	뇌전증장애	33	0.7	1	0.2	34	0.7
전 체		4,451	100.0	641	100.0	5,092	100.0

3. 가중치 산출

가. 1차년도 가중치 산출

1차년도 조사는 횡단면 조사로서 표본 추출률과 응답률을 기준으로 설계 가중치를 산출한 후 사후 층화보정 가중치를 계산하였다.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설계 가중치 계산

2008년 1월 1일 기준 등록장애인을 조사 모집단으로 사용하여 지역별, 연령대별, 성별 구성비와 지역별, 연령대별, 성별 표본할당 분포를 사용하여 설계 가중치를 계산한다. 즉, 지역별, 연령대별, 성별 모집단 빈도수에 대한 유효표본의 빈도수 비율로 설계 가중치를 계산하며 동일한 층에 있는 장애인은 동일한 가중치를 지닌다.

$$N_{jks}: j\text{지역 } k\text{연령대의 } s\text{성별의 모집단 빈도 수}$$

$$n_{jks}: j\text{지역 } k\text{연령대의 } s\text{성별의 유효표본 빈도 수}$$

$$W_{1jks} = \frac{N_{jks}}{n_{jks}} : j=1, \dots, 15, k=1, 2, s=1, 2$$

2) 장애유형별에 대한 가중치 보정

장애유형별 모집단 빈도수에 대한 장애유형별 설계 가중치 합계의 비율을 이용하여 장애유형별 가중치 보정인자를 계산한다.

$$S_g = \sum_{j=1}^{15} \sum_{k=1}^2 \sum_{s=1}^2 W_{1jks} : \text{설계 가중치를 장애유형별로 합계}$$

$$T_g: g \text{ 유형별 모집단 빈도 수}$$

$$W_{2jks} = W_{1jks} \times \left(\frac{T_g}{S_g} \right) : j=1, \dots, 15, k=1, 2, s=1, 2, g=1, \dots, 15$$

3) 경제활동상태 보정 가중치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함에 있어 1차년도 PSED는 약 3개월간에 걸쳐 조사가 진행되므로, 월 단위로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다음 1주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와는 달리 조사일 전 1주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조사기준시점을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이유는 패널조사가 한 단면만을 파악하고자 하는 조사가 아니라 다년간 패널의 경제활동 관련 삶을 추적 조사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므로 세밀하게 움직이는 경제활동과 같은 항목을 기억에 의존해서 질문하지 않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정에서 오는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기 위해 1차년도 본 조사 직전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최대한 동일한 조건과 기준으로 ‘장애인고용패널 경제활동조사’를 실시하고 여기서 파악된 횡단면적 경제활동상태 정보를 본 조사 자료 추정 시 활용하였다. 또한 본 조사 진행과정에서 취업자의 단위 무응답이 비경제활동인구 등의 단위 무응답보다 많이 발생하여 이를 보완하는 측면에서도 활용하였다. ‘장애인고용패널 경제활동조사’는 2008년 4월 15일을 기준으로 실시되었고 PSED 1차년도 조사는 2008년 6월에 실시되었으므로 이 두 조사 사이의 경제활동상태 변동을 반영하여 경제활동상태별 구조를 추정해야 한다. 모집단에서 경제활동상태의 변동을 추정하기 위해서 먼저 응답자(두 조사에 모두 응답)와 무응답자(본 조사에만 응답)간의 특성이 상이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모집단을 응답자층과 무응답자층으로 구분하고, 경제활동상태가 연령층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표본 설계 시 반영된 연령 구분으로 고려하여 각 층별로 본 조사 시점에서 경제활동상태별 구성비를 다음의 과정을 통해 계산하였다.

① 응답자층에서 추정

본 자료에서 응답자층은 장애인고용패널 경제활동조사에서 응답한 패널 중 본 조사에서 응답한 패널들과 동일한 특성을 갖는 모집단의 부분집합을 의미한다. 응답자층 내에서 본 조사의 경제활동상태가 변화된 비율을 계산한 후에 이를 이용하여 본 조사 시점의 취업자,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산출하였다. 응답자층의 경우 본 조사에서 응답한 내용이 최신정보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경제활동상태 비율을 추정하였다. 이때 표본설계를 반영하여 15~60세, 61~75세의 연령층별 경제활동상태 비율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수를 추정하였다.

② 무응답자층에서 추정

무응답자층 즉, 장애인고용패널 경제활동조사에는 응답하였으나 본 조사에 무응답한 사람들을 대체하여 본 조사에만 응답한 사람들의 경제활동상태 비율은 장애인고용패널 경제활동조사에만 응답한 취업자,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성비를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이는 경제활동조사가 본 조사에 비해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총괄 비율을 좀 더 현실적으로 반영하였을 가능성이 크며, 무응답자층의 특성을 반영하여 경제활동조사에만 응답한 층의 구성비를

무응답층에 반영하기 위해서였다. 응답자층과 마찬가지로 무응답자층도 연령층을 구분해서 경제활동상태를 추정하였다.

③ 경제활동상태, 연령 보정 가중치 적용

장애인고용패널 경제활동조사와 본 조사의 응답자층, 무응답자층 비율과 연령층을 고려한 기준을 바탕으로 벤치마킹 보정 가중치를 계산하였다. 벤치마킹 보정 가중치는 경제활동상태 별 추정 인구수와 경제활동상태별 가중치 합계의 비로 계산하였다.

$$W_3 = W_2 \times \text{벤치마킹 보정 가중치(취업/실업/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며 연령층별로 계산)}$$

경제활동상태를 보정한 가중치로 나타난 결과가 모집단의 연령별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연령층을 세분화하여 모수와의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반복적으로 가중치를 보정하였다. 일차적으로 경제활동상태를 보정하고, 다음으로 연령층을 4개층(15-34세, 35-49세, 50-64세, 6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반복적인 보정을 통해서 최종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나. 2차년도 가중치 산출

1) 가중치

패널조사는 1차년도에 구축한 조사대상자들을 매년 추적하여 동일한 내용을 계속 조사하는데, 조사차수가 거듭될수록 이민, 질병 등과 같은 신상 변동이나 기타 다른 이유로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발생한 무응답은 모수추정에 편향이 생기게 하므로 무응답자에 대한 가중치를 보정하여야 한다. 종단 가중치(Longitudinal weight)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조사차수별로 발생하는 무응답자에 대해서 무응답 보정 가중치를 연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차수 간의 비교분석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또한 패널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모집단의 구조가 변동되므로 해당 시점의 모집단과 표본의 분포가 같아지도록 보정함으로써 조사시점에서의 특성을 추정해야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가중치를 횡단 가중치(Cross-sectional weight)라고 한다. 패널조사에서 가중치의 산출절차는 먼저 종단 가중치를 계산하고 각 차수별 모집단의 분포와 가중치를 적용하여 표본 분포와 일치시키는 보정계수를 종단 가중치에 곱해서 횡단 가중치를 계산한다.

① 종단 가중치

무응답 보정 가중치를 산출하는 방법들 중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방법은 무응답 조정그룹(Non-response adjustment class)을 구성하여 해당 조정그룹 내에서 무응답자와 응답자의 특성이 같다는 가정 하에 응답자의 가중치를 확대하여 무응답에 따른 결손을 보상함으로써 무응답에 의한 편향을 보완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로지스틱 모형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들의 다양한 속성에 따른 응답확률의 영향을 추정하고 추정된 모형으로 조사대상자의 응답확률을 계산한 후 그의 역수를 무응답 조정 상수로 사용하여 기준 가중치를 조정함으로써 무응답에 따른 편향을 줄이는 것이다. PSED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의 응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설명변수를 선정한 후에 응답여부를 반응변수로 사용한 로지스틱 모형을 적합하고, 적합된 회귀계수의 값을 사용하여 각 조사대상자들의 응답확률을 구하였다. 2차년도 조사에서 응답한 사람들의 응답확률의 역수를 1차년도 원가중치에 곱해서 종단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② 횡단 가중치

2차년도 조사에서 발생한 무응답자의 가중치를 보정하였더라도 모집단의 분포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모집단 특성을 추정하는데 사용할 횡단 가중치의 산출이 필요하다. 우선 2차년도 조사시점인 2009년의 모집단 상황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레이킹 비(raking ratio) 방법을 이용하여 지역별, 연령대별, 성별, 장애유형별로 가중치를 보정하였다. 이렇게 보정된 가중치를 2차년도 경제활동상태별로 다시 벤치마킹 보정하여 횡단 가중치를 얻을 수 있다.

2) 가중치 산출절차

가) 종단 가중치 산출절차

무응답 보정 가중치는 Duncan(1995)이 소개한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한 가중치 보정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는 2차년도의 조사대상자 각각의 응답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다른 조사항목을 독립변수로 적합된 로지스틱 모형을 이용하여 2차년도 조사대상인 4,677명의 응답확률을 추산하는 방법이다. 로지스틱 모형에 사용된 독립변수는 각 조사대상자의 응답에 실제 영향을 미치는 지역, 성, 연령, 장애유형, 장애등급, 경제활동상태, 집 소유상태, 주거형태 등의 조사항목이며, 후속조사에서도 계속 사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시계열 유지와 가중치 산출의 일관성 유지를 도모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y_i \sim \text{Bernoulli}(p_i), \quad \ln\left(\frac{p_i}{1-p_i}\right) = x_i\beta$$

y_i : i 조사대상자 응답여부, $x_i = (x_{i1}, \dots, x_{ip})$: 독립변수
 $p_i = [1 + \exp(-x_i\beta)]^{-1}$: 응답확률

추산된 응답확률($\widehat{R_{08jksm}}$: 로짓모형으로 추정된 j 지역, k 연령대, s 성별의 표본조사구 내 m 번째 조사대상자의 응답확률)의 역수는 개인별 무응답 보정계수로서, 이를 1차년도 가중치에 곱하여 종단 가중치(W_{09jksm}^*)를 계산한다.

$$W_{09jksm}^* = W_{08jksm} \cdot \frac{1}{\widehat{R_{08jksm}}}$$

나) 횡단 가중치 산출절차

횡단 가중치는 2차년도 조사시점에서 지역별, 성별, 연령대별, 장애유형별 모집단의 분포와 응답한 표본의 분포가 같아지도록 조정하는 계수로, 위에서 산출된 종단 가중치에 곱함으로써 계산할 수 있다. 횡단 가중치를 구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지역별, 성별, 연령대별 벤치마킹 보정

2009년 6월 30일 기준 등록장애인을 모집단으로 사용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대별 벤치마킹 보정인자(ADF_1 : Adjustment factor)를 구한 후, 종단 가중치(W_{09jksm}^*)에 곱한다. ADF_1 은 지역별, 성별, 연령대별 모집단의 수와 종단 가중치의 합의 비율로 구할 수 있다.

$$ADF_1 = \frac{N_{jks}}{t_{jks}}, \quad j = 1, \dots, 15, k = 1, 2, 3, s = 1, 2$$

$$t_{jks} = \sum_j \sum_k \sum_s W_{09jks}^*$$

N_{jks} : j 지역, k 연령대, s 성별의 모집단 수

$$W_{1jks} = ADF_1 \cdot W_{09jks}^*$$

② 장애유형별 벤치마킹 보정

2009년 6월 30일 기준 등록장애인 현황을 모집단 자료로 사용하여, 장애유형별로 벤치마킹 보정인자(ADF_2 : Adjustment factor)를 추정한 후, 위에서 구한 지역별, 성별, 연령대별 벤치마킹 보정된 가중치에 반영한다. ADF_2 는 장애유형별 모집단 수와 장애유형별 가중치의 합을의 비율로 구할 수 있다.

$$ADF_2 = \frac{T_g}{S_g}, \quad g = 1, \dots, 15$$

$$S_g = \sum_j \sum_k \sum_s W_{1jks_g}$$

N_g : g 장애유형별 모집단의 수

$$W_{2jks_g} = ADF_2 \cdot W_{1jks_g}$$

③ 레이킹 비(raking ratio) 방법에 의한 가중치 보정 - ①과 ②의 과정을 반복

장애유형별로 벤치마킹 보정 시, 그 이전에 보정한 지역별, 성별, 연령대별 모집단 구성비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①의 과정을 다시 반복한다. 즉, 지역별, 성별, 연령대별과 장애유형별 가중치 합이 모집단의 층별 합으로 수렴할 때까지 ①과 ②의 과정을 반복하였다. 이를 레이킹 비(raking ratio) 가중치 보정이라 한다.

④ 경제활동상태 벤치마킹 보정

경제활동상태별 가중치 보정 인자는 다음의 두 값, T_i : 경제활동상태별 모집단 합계와 S_i : 경제활동상태별 가중치 합계를 이용하여 구한다. 하지만 경제활동상태별 모집단 합계 T_i 은 2009년 6월 30일 기준 등록장애인 현황자료로부터 구해야 하나 관련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따라서 패널자료로부터 추이확률행렬을 계산하여 경제활동상태별 모집단 합계를 추정하였다. 추이확률을 계산하기 위한 상태는 취업상태, 실업상태 그리고 비경제활동상태 등의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1차년도 조사결과 취업자 비율은 0.4093, 실업자 비율은 0.0485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0.5423이었다. 따라서 초기확률 π_0 는 다음과 같다.

$$\pi_0 = (\pi_0^0, \pi_1^0, \pi_2^0) = (0.4093, 0.0485, 0.5423)$$

추이확률을 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조사한 후 이를 표로 만들었다.

T_{00} : 1차 조사에서 취업자였고 2차 조사에서도 취업자인 사람의 수
 T_{01} : 1차 조사에서 취업자였고 2차 조사에서는 실업자인 사람의 수
 T_{02} : 1차 조사에서 취업자였고 2차 조사에서는 비경제활동인구인 사람의 수
 T_{10} : 1차 조사에서 실업자였고 2차 조사에서는 취업자인 사람의 수
 T_{11} : 1차 조사에서 실업자였고 2차 조사에서도 실업자인 사람의 수
 T_{12} : 1차 조사에서 실업자였고 2차 조사에서는 비경제활동인구인 사람의 수
 T_{20} : 1차 조사에서 비경제활동인구였고 2차 조사에서는 취업자인 사람의 수
 T_{21} : 1차 조사에서 비경제활동인구였고 2차 조사에서는 실업자인 사람의 수
 T_{22} : 1차 조사에서 비경제활동인구였고 2차 조사에서도 비경제활동인구인 사람의 수

이를 표로 구성하면 다음 〈표 1-2-6〉과 같다.

〈표 1-3-6〉 경제활동상태별 표본 수

(단위: 명)

구 분	2차년도			전 체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1차년도	취업자	1,630	52	1,791
	실업자	57	52	202
	비경제활동인구	189	78	2,684
전 체	1,876	182	2,619	4,677

〈표 1-2-6〉 결과와 $p_{ij} = \frac{T_{ij}}{T_{i.}}$, $T_{i.} = \sum_{j=0}^2 T_{ij}$ 을 이용하여 구한 추이확률행렬은 다음과 같다.

〈표 1-3-7〉 경제활동상태별 추이확률

(단위: %)

구분	2차년도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1차년도	취업자	0.910106	0.029034
	실업자	0.282178	0.257426
	비경제활동인구	0.070417	0.029061

1차년도 자료에서 얻어진 초기확률 $\pi_0 = (\pi_0^0, \pi_1^0, \pi_2^0) = (0.4093, 0.0485, 0.5423)$ 을 추이확률행렬

$P = \begin{pmatrix} 0.9101 & 0.0290 & 0.0609 \\ 0.2822 & 0.2574 & 0.4604 \\ 0.0704 & 0.0291 & 0.9005 \end{pmatrix}$ 에 곱하여 2차년도 경제활동상태별 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

$$\begin{aligned}\pi_1 &= (0.4093, 0.0485, 0.5423) \times P \\ &= (0.4243, 0.0401, 0.5354)\end{aligned}$$

2차년도 경제활동상태별 비율을 이용하여 얻은 취업자 수 T_1 , 실업자 수 T_2 ,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 수 T_3 의 모집단 합계는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T_1 &= 0.4243 \times 2,105,891 = 893,611 \\ T_2 &= 0.0401 \times 2,105,891 = 84,492 \\ T_3 &= 0.5354 \times 2,105,891 = 1,127,788\end{aligned}$$

경제활동상태별 가중치 보정인자는 위에서 추정된 경제활동상태별 모집단 합계에 대하여 레이킹 비(ranking ratio) 방법에 의한 가중치 보정과정을 통해 구한 가중치의 경제활동상태별 합계의 비율로 계산된다.

$$\begin{aligned}ADF_{3l} &= \frac{T_l}{S_l}, \quad l: \text{경제활동상태(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S_l &= \sum_{j=1}^{15} \sum_{k=1}^3 \sum_{s=1}^2 \sum_{g=1}^{15} W_{2jksgl}, \quad W_{2jksgl}: \text{레이킹 비(ranking ratio) 방법에 의해 구한 가중치}\end{aligned}$$

최종 가중치 W_{3jksgl} 는 W_{2jksgl} 에 경제활동상태 가중치 보정인자 ADF_3 을 해당 경제활동상태별로 곱하여 얻어진다.

$$W_{3jksgl} = W_{2jksgl} \times ADF_{3l} = W_{2jksgl} \times \left(\frac{T_g}{S_l} \right)$$

j : 지역, k : 연령, s : 성별, g : 장애유형, l : 경제활동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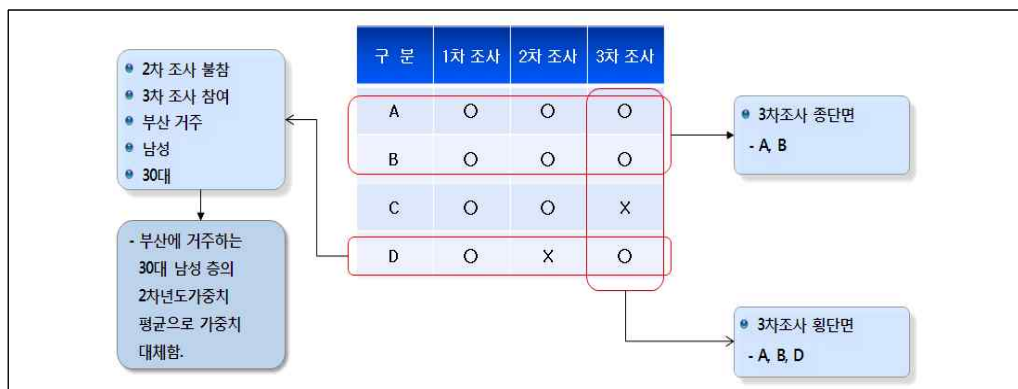
다. 3차년도 이후 가중치 산출

3차년도 이후 횡단 및 종단 가중치 산출방법은 원칙적으로 2차년도 가중치 산출절차와 동일하다. 그러나 3차년도 조사부터는 이전 조사에서는 응답하지 않았다가 다시 조사에 참여하는 패널들이 존재한다. 종단 가중치는 1차년도 조사부터 계속적으로 조사에 참여한 패널들(이를 종단면이라 한다)에게 차수별로 무응답을 보정해 주는 가중치로, 종단면에만 주어진다. 반면, 횡단 가중치는 해당 차수에 응답한 패널의 분포를 모집단의 분포에 일치시키기 위한 가중치이므로 조사에 참여한 모든 패널들(이를 횡단면이라 함)에게 주어진다. 그러므로 조사에 다시 참여한 패널의 경우, 이전 조사에서의 종단 가중치가 없기 때문에 적절한 가중치 대체를 통해 횡단 가중치를 구해야 한다.

1) 조사 재참여 패널들의 기준 가중치 대체 방법

1차년도 조사부터 3차년도 조사까지 응답과 무응답 형태를 예시한 [그림 1-2-1]을 보면, 패널 A, B, C, D 중에서 3차년도 조사까지 모두 참여한 패널은 A, B이다. 따라서 A, B는 3차년도 종단 가중치를 갖는다. 반면, 횡단 가중치는 그 차수에 참여한 모든 패널에게 주어져야 하므로 A, B, D는 3차년도 횡단 가중치를 가지게 된다. 횡단 가중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종단 가중치를 기준 가중치로 가져야 하는데, 패널 D의 경우 2차년도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가 3차년도 조사에 다시 참여하였고, 종단 가중치는 이전 조사에 참여한 패널들을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D의 기준 가중치는 별도의 방법으로 산출해야 한다. PSED는 이러한 패널에 대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동일한 층의 기준 가중치 평균으로 이를 대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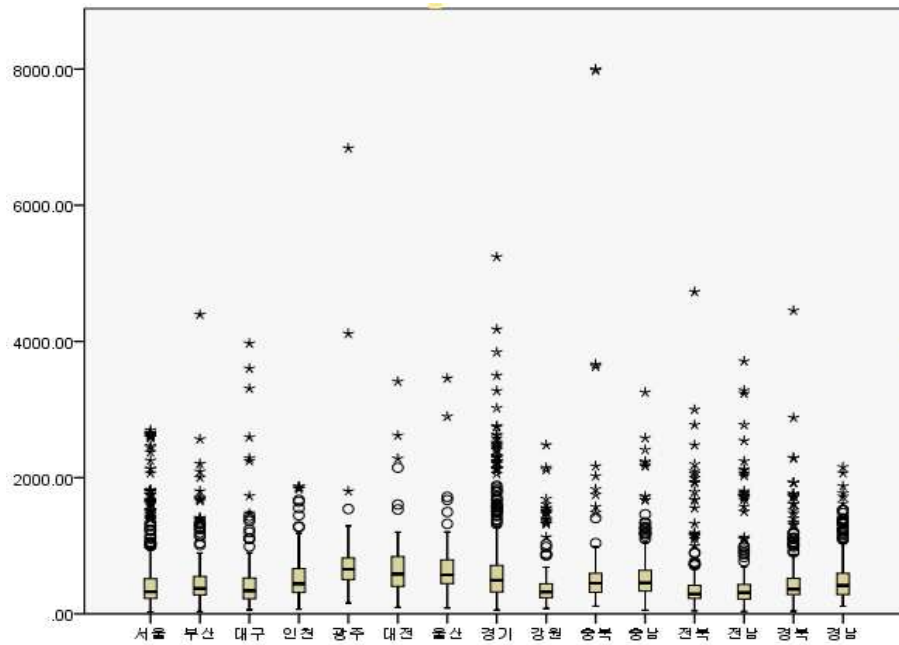
[그림 1-3-1] 1차년도에서 3차년도까지의 응답과 무응답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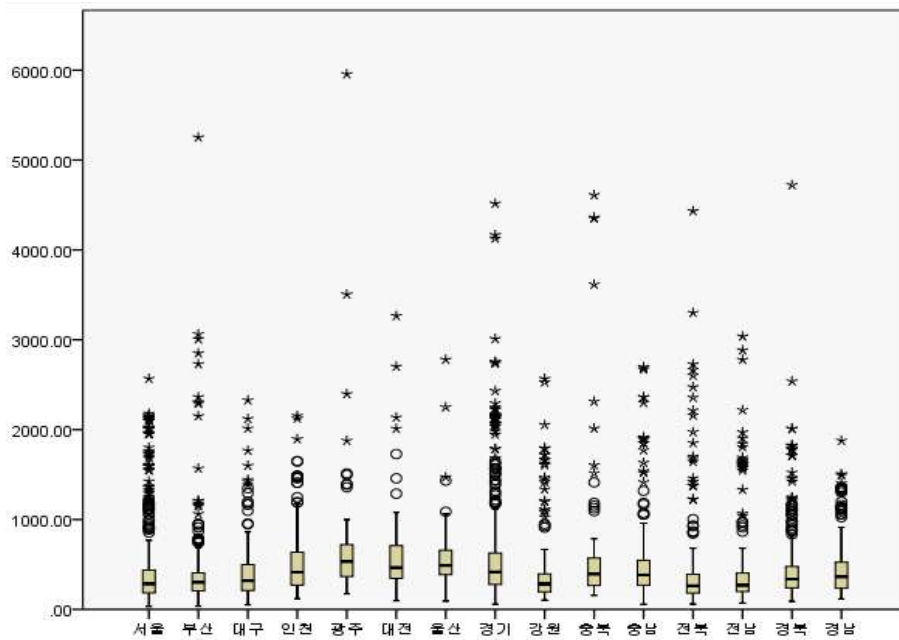
〈표 1-3-8〉 7차년도 가중치 -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구분		횡단면 가중치				종단면 가중치			
		표본 수		평균	s.d.	표본 수		평균	s.d.
성별	남성	2,526	61.9	520.72	419.45	2,336	61.6	508.26	452.56
	여성	1,556	38.1	573.89	665.56	1,456	38.4	453.33	565.65
연령	21~29세	110	2.7	576.16	356.42	103	2.7	519.78	312.34
	30~39세	240	5.9	646.07	327.50	218	5.7	591.69	300.32
	40~49세	643	15.8	492.35	221.34	587	15.5	421.49	191.58
	50~59세	1,340	32.8	391.80	178.70	1,251	33.0	331.55	150.12
	60세이상	1,749	42.8	656.54	742.86	1,633	43.1	613.98	702.63
장애유형	지체	2,085	51.1	579.07	565.88	1,929	50.9	529.47	524.66
	뇌병변	412	10.1	519.83	517.45	384	10.1	430.25	459.15
	시각	489	12.0	461.16	406.84	453	11.9	423.38	416.58
	청각	472	11.6	419.49	406.09	445	11.7	354.97	378.74
	언어	38	0.9	413.11	324.17	36	0.9	397.36	318.45
	지적	185	4.5	715.15	502.43	172	4.5	730.11	559.92
	자폐성	24	0.6	222.58	87.89	24	0.6	186.26	57.37
	정신	107	2.6	890.61	651.90	103	2.7	743.04	660.42
	신장	81	2.0	828.94	646.32	72	1.9	616.10	682.57
	심장	46	1.1	118.41	126.75	40	1.1	245.48	306.07
	호흡기	46	1.1	251.85	233.21	44	1.2	280.05	298.98
	간	16	0.4	568.19	205.31	14	0.4	335.46	170.28
	안면	24	0.6	105.50	85.77	23	0.6	100.05	83.54
	장루·요루	27	0.7	450.19	436.66	24	0.6	409.65	462.06
	뇌전증	30	0.7	222.60	119.08	29	0.8	234.52	101.61
장애정도	중증	1,738	42.6	521.63	515.93	1,622	42.8	475.14	506.36
	경증	2,344	57.4	555.34	535.66	2,170	57.2	496.16	494.53
지역	서울	762	18.7	470.51	463.25	708	18.7	419.16	432.34
	부산	316	7.7	489.48	420.88	295	7.8	422.96	512.87
	대구	218	5.3	481.24	514.96	204	5.4	429.19	361.53
	인천	224	5.5	540.41	331.06	197	5.2	528.30	389.29
	광주	76	1.9	791.34	856.34	69	1.8	735.81	830.94
	대전	88	2.2	716.87	517.93	80	2.1	640.39	533.45
	울산	59	1.4	753.88	573.60	59	1.6	631.41	454.11
	경기	703	17.2	648.12	567.86	647	17.1	567.68	538.18
	강원	196	4.8	453.87	401.07	192	5.1	425.07	446.27
	충북	119	2.9	702.87	1100.33	109	2.9	616.79	798.35
	충남	198	4.9	596.97	475.64	184	4.9	563.29	536.54
	전북	262	6.4	441.29	516.91	234	6.2	439.01	579.68
	전남	267	6.5	475.36	548.97	253	6.7	432.46	487.22
	경북	287	7.0	526.00	486.96	267	7.0	495.68	486.19
	경남	307	7.5	526.11	368.93	294	7.8	444.38	315.44
전체		4,082	100.0	540.99	527.55	3,792	100.0	487.17	499.67

[그림 1-3-2] 제7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4년) 횡단면 가중치 - 지역별



[그림 1-3-3] 제7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4년) 종단면 가중치 - 지역별



4. 모수추정

층화변수로 사용한 지역(j), 연령대(k)와 성별(s) 외에도 장애유형(g)이 가중치 산출에 반영되었으므로 관찰값과 가중치는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W_{jksgl} 는 지역 j , 연령대 k , 성별 s 이고, 장애유형 g 인 l 번째 응답자의 가중치이다.
- Y_{jksgl} 는 지역 j , 연령대 k , 성별 s 이고, 장애유형 g 인 l 번째 응답자의 관찰값이다.

전체 모평균에 대한 추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hat{\mu} = \frac{\sum_{j=1}^{15} \sum_{k=1}^2 \sum_{s=1}^2 \sum_{l=1}^{n_{jks}} W_{jksgl} Y_{jksgl}}{\sum_{j=1}^{15} \sum_{k=1}^2 \sum_{s=1}^2 \sum_{l=1}^{n_{jks}} W_{jksgl}}$$

성별 평균에 대한 추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hat{\mu}_s = \frac{\sum_{j=1}^{15} \sum_{k=1}^2 \sum_{l=1}^{n_{jks}} W_{jksgl} \cdot Y_{jksgl}}{\sum_{j=1}^{15} \sum_{k=1}^2 \sum_{l=1}^{n_{jks}} W_{jksgl}}$$

장애유형별 평균에 대한 추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hat{\mu}_g = \frac{\sum_{i \in S_g} W_{jksgl} \cdot Y_{jksgl}}{\sum_{i \in S_g} W_{jksgl}}, \quad S_g: \text{장애유형 } g \text{에 해당되는 장애인들의 집합, } i: \text{첨자 } (j, k, s, l)$$

모수추정량에 대한 분산 추정식은 통계생산단위별로 모두 유사하기 때문에 성별 평균 추정량에 대한 분산 추정식만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hat{V}(\hat{\mu}_s) = \sum_{j=1}^{15} \sum_{k=1}^2 \frac{n_{jks}(1-f_{jks})}{n_{jks}-1} \sum_{l=1}^{n_{jks}} (e_{jksgl} - \bar{e}_{jks \cdot \cdot})^2$$

$$e_{jksgl} = \frac{W_{jksgl}(Y_{jksgl} - \bar{Y}_{s \cdot})}{W_{\cdot \cdot \cdot}}, \quad \bar{e}_{jks \cdot \cdot} = \frac{\sum_{l=1}^{n_{jks}} e_{jksgl}}{n_{jks}}$$

통계분석단위별 평균 추정값과 분산 추정값의 계산은 층화집락추출법의 자료 분석에 많이 이용되는 SAS의 proc surveymeans를 적용하여 신뢰성과 타당성을 갖도록 할 것이다.

5. 주요 변수의 추정치 및 상대표준오차

본 보고서에서는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변동 비율(6차→7차)에 대한 추정치와 그에 따른 상대표준오차를 제시하였다. 기본적으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의 표본규모가 큰 차이가 있고 각 상태별 변동 비율 역시 표본규모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추정치를 산정하거나 해석할 때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표 1-3-9〉 경제활동상태 변동 비율 추정치와 상대표준오차

구분		6차년도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추정치	표준 오차	상대 표준 오차	추정치	표준 오차	상대 표준 오차	추정치	표준 오차	상대 표준 오차
7차년도	취업자	0.9121	0.0084	0.0092	0.4248	0.0625	0.1471	0.0360	0.0047	0.1309
	실업자	0.0215	0.0050	0.2324	0.2969	0.0607	0.2045	0.0074	0.0016	0.2213
	비경제활동인구	0.0664	0.0069	0.1045	0.2783	0.0566	0.2034	0.9565	0.0050	0.0052

주: 6차, 7차 조사에 모두 참여한 패널을 대상으로 7차년도 횡단면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하였음

제4절 조사실시

1. 조사실시 및 결과

2008년 1차 조사에서 응답한 등록장애인 5,092명을 대상으로 2014년 5월 20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4,082명의 조사를 완료하였다. 사망 등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유효표본의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7차년도 원표본 유지율은 80.2%로 국내·외 패널조사 가운데 최고 수준¹⁾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1〉 장애인고용패널 조사결과

(단위: 명, %)

조사차수	원표본	유효표본	조사성공	원표본 유지율	유효표본 유지율
1차년도(2008년)	5,092	5,092	5,092	100.0	100.0
2차년도(2009년)	5,092	5,035	4,677	91.8	92.9
3차년도(2010년)	5,092	4,975	4,566	89.7	91.8
4차년도(2011년)	5,092	4,930	4,397	86.4	89.2
5차년도(2012년)	5,092	4,836	4,297	84.4	88.9
6차년도(2013년)	5,092	4,750	4,161	81.7	87.6
7차년도(2014년)	5,092	4,683	4,082	80.2	87.2

주 1) 유효표본이란 원표본 중 사망, 장애등록 취소로 조사 대상에서 영구 탈락되는 패널을 제외한 표본을 말하며, 접근이 불가능한 수용시설 입소자, 이민, 연수 등 장기출타자 등은 포함하고 있음

2) 원표본 유지율(%)=(조사성공/원표본)×100

3) 유효표본 유지율(%)=(조사성공/유효표본)×100

성별로 원표본 유지율을 살펴보면, 남성(78.5%)보다는 여성(83.1%)의 유지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81세의 유지율이 가장 낮았다. 장애유형별로는 뇌전증 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등이 높게 나타난 반면에 심장장애인, 간장애인, 신장장애인의 유지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장애정도별로는 중증장애인 79.1%, 경증장애인 81.0%이며, 지역별로는 경북, 전북, 울산 등이 높은 반면, 대구, 광주, 대전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1) 한국노동패널조사 77.3%, 청년패널조사 69.5%, 미국PSID 79.6%, 영국BHPS 76.0%

〈표 1-4-2〉 표본유지 현황 -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단위: 명, %)

구분		1차년도		1~7차년도		7차년도 비성공자				원표본 유지율
		원표본		계속응답자		사망	장애등록 취소	시설 입소		
성별	남성	3,219	63.2	2,336	61.6	693	252	32	31	78.5
	여성	1,873	36.8	1,456	38.4	317	110	15	21	83.1
연령	21~29세	286	3.2	103	2.7	26	0	4	1	68.3
	30~39세	573	6.6	218	5.7	72	8	4	0	71.2
	40~49세	1,319	16.9	587	15.5	149	23	7	15	74.9
	50~59세	2,074	33.2	1,251	33.0	333	99	11	11	79.1
	60~81세	840	40.1	1,633	43.1	430	232	21	25	85.7
장애유형	지체	2,551	50.1	1,929	50.9	457	160	9	12	81.7
	뇌병변	511	10.0	384	10.1	107	52	4	11	80.6
	시각	590	11.6	453	11.9	101	32	2	3	82.9
	청각	582	11.4	445	11.7	112	35	4	6	81.1
	언어	44	0.9	36	0.9	5	1	0	0	86.4
	지적	221	4.3	172	4.5	34	7	1	5	83.7
	자폐성	30	0.6	24	0.6	5	0	0	0	80.0
	정신	157	3.1	103	2.7	51	12	3	12	68.2
	신장	119	2.3	72	1.9	42	24	0	2	68.1
	심장	87	1.7	40	1.1	38	14	17	0	52.9
	호흡기	67	1.3	44	1.2	21	11	2	1	68.7
	간	30	0.6	14	0.4	14	7	0	0	53.3
	안면	31	0.6	23	0.6	7	1	0	0	77.4
	장루·요루	38	0.7	24	0.6	11	4	3	0	71.1
	뇌전증	34	0.7	29	0.8	5	2	2	0	88.2
장애정도	중증	2,198	43.2	1,622	42.8	498	199	29	38	79.1
	경증	2,894	56.8	2,170	57.2	512	163	18	14	81.0
지역	서울	967	19.0	708	18.7	204	70	5	7	78.8
	부산	392	7.7	295	7.8	76	30	2	7	80.6
	대구	278	5.5	204	5.4	59	23	6	1	78.4
	인천	268	5.3	197	5.2	43	16	0	0	83.6
	광주	103	2.0	69	1.8	31	4	1	2	73.8
	대전	119	2.3	80	2.1	32	9	2	4	73.9
	울산	71	1.4	59	1.6	12	8	0	0	83.1
	경기	897	17.6	647	17.1	192	59	11	10	78.4
	강원	248	4.9	192	5.1	53	21	0	2	79.0
	충북	154	3.0	109	2.9	35	13	1	1	77.3
	충남	245	4.8	184	4.9	45	20	4	1	80.8
	전북	312	6.1	234	6.2	51	11	1	5	84.0
	전남	322	6.3	253	6.7	54	27	2	5	82.9
	경북	327	6.4	267	7.0	40	21	3	3	87.8
	경남	389	7.6	294	7.8	83	30	9	4	78.9
전체		5,092	100.0	3,792	100.0	1,010	362	47	52	80.2

주: 1차년도(2008년) 조사 당시 응답을 기준으로 함

등록장애인 5,092명 중 1,010명에 대해 조사가 완료되지 못했는데, 조사실패사유로는 사망이 35.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조사거절·부재(32.8%), 주소불명(8.7%)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가 미완된 패널 1,010명 중에는 사망한 패널은 362명, 장애등록이 취소된 패널은 47명이며 이들은 이후 조사에서 패널 복귀가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패널의 영구 탈락으로 봐야한다. 그 외의 경우는 이후 지속적인 패널관리를 통해 추적하면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사망, 장애등록 취소 등 영구 탈락한 패널을 제외할 경우 유효표본 유지율은 87.2%까지 상승한다.

〈표 1-4-3〉 조사 미완 사유 - 차수별

(단위: 명, %)

구분	전 체	조사거절 및 부재	사망	이사	주소 불명	수용시설 입소	장기 출타	장애등록 취소	기타
2차년도(2009년)	415(100.0)	248(59.8)	57(13.7)	39(9.4)	2(0.5)	4(1.0)	17(4.1)	0(0.0)	48(11.6)
3차년도(2010년)	526(100.0)	253(48.1)	117(22.2)	53(10.1)	15(2.9)	12(2.3)	44(8.4)	0(0.0)	32(6.1)
4차년도(2011년)	695(100.0)	376(54.1)	162(23.3)	43(6.2)	38(5.5)	13(1.9)	25(3.6)	0(0.0)	38(5.5)
5차년도(2012년)	795(100.0)	388(48.8)	227(28.6)	41(5.2)	39(4.9)	32(4.0)	21(2.6)	29(3.6)	18(2.3)
6차년도(2013년)	931(100.0)	328(35.2)	301(32.3)	94(10.1)	86(9.2)	42(4.5)	9(1.0)	41(4.4)	30(3.2)
7차년도(2014년)	1,010(100.0)	331(32.8)	362(35.8)	63(6.2)	88(8.7)	52(5.1)	12(1.2)	47(4.7)	55(5.4)

PSED는 개인 패널조사로 개인에게 직접 응답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장애인 본인과 접촉이 불가능하여 끝내 대리응답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주요한 응답결과에 대해 당사자 본인에게 반드시 확인을 받도록 하였다. 다만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등 장애 유형에 따라 직접 응답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구주 또는 가장 가까운 보호자에 의한 대리응답을 허용하였다. 7차년도 조사에서 전체 대리응답자는 201명으로 대리응답률은 4.9%로 나타났다.

〈표 1-4-4〉 대리응답 현황 - 차수별

(단위: 명, %)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본 인	4,453	87.5	4,422	94.5	4,302	94.2	4,034	91.7	3,980	92.6	3,862	92.8	3,881	95.1
대리인	639	12.5	255	5.5	264	5.8	363	8.3	317	7.4	299	7.2	201	4.9
전체 응답자 수	5,092	100.0	4,677	100.0	4,566	100.0	4,397	100.0	4,297	100.0	4,161	100.0	4,082	100.0

2. 데이터 검증

가. 검증방법

1) 사전검증

조사표 및 면접원 지침서 작성 이후 CAPI 논리 설계서를 작성하고 CAPI 프로그램에 적용하였다. 문항분기 설정의 경우 단순 문항분기뿐만 아니라 영역 간 이동분기, 응답자 특성별 분기 등 복잡한 조사흐름 및 조건을 정확하게 준수하도록 설정하였다. 또한 사전 논리설정을 통해 응답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극히 드물어 재확인이 필요한 항목의 경우 조사 진행 중 수정/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모든 문항에는 파악할 수 없는 결측치는 존재하지 않도록 하였다. 즉, 모든 개별 문항은 응답값이 아니면 기타/모름/응답거절/비해당으로 처리하였으며, 분기문항 등 특정 문항에서는 모름/응답거절을 선택할 수 없도록 사전에 설정하였다. 또한 텍스트를 제외한 모든 숫자 입력칸에는 0과 양의 정수만 기입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응답 가능한 값의 범위를 사전에 정의하여 응답값의 범위를 넘어선 응답이 이뤄질 경우 경고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하였다.

2) 사후검증

① 응답시간 검토

조사시작시간과 조사종료시간을 이용하여 응답자가 조사에 응한 시간이 전체 응답자의 응답시간 분포에서 양극단에 위치하고 있지 않은가를 검토한 후 그 사유를 해당 면접원에게 질의, 확인하고, 불성실 응답자로 확인된 경우 면접원 주의를 통해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② 대리응답 검토

사전에 대리응답이 허용된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이외에도 타 장애유형의 대리응답률 및 대리응답 사유를 검토하여 적정수준 이상 대리응답이 이뤄진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③ 무응답 분석

항목 무응답 분석을 통해 무응답의 경향성을 파악하였으며, 통계적인 방법으로 무응답 대체를 실시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④ 개방형 응답 검토

개방형 응답 특히 텍스트 응답의 경우 해당 텍스트에 오타나 부적절한 응답, 정확하지 않은 응답, 불성실한 응답이 이뤄졌는지 검토하였다.

⑤ 전체 문항 빈도분석

응답범위를 벗어난 값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가령 월평균 임금 등 개방형 응답의 경우에도 빈도분석을 통해 양극단에 있는 수치를 확인하여 조치하였으며, 응답되어야 할 모든 셀에 응답값이 채워져 있는지 확인하고 각 문항별 전체 응답 수가 문항 분기 등을 고려하여 일관되게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⑥ 관련 문항 및 차수 간 교차분석

문항 간 논리 분석을 위해 인구통계학 변수, 경제활동 관련 변수 등과 개별 문항들을 일괄적으로 교차분석을 통해 '남성-임신/출산'과 같이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였는지 검토하였다. 특히 경제활동과 관련된 주요 변수들을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또한 지난조사 응답값과 7차년도 응답값 간 비교검토를 통해 불가능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또는 변화의 폭이 큰 경우 재조사 등의 방법으로 보완하였다.

⑦ Eyecheck

응답자 전체에 대해 eyecheck를 실시하였다. 세 단계(1차 실사실 에디터, 2차 중앙 전담 에디터, 3차 연구진)에 걸쳐 CAPI로 개발한 검증시스템을 이용 4,082명 전원에 대해 모든 문항을 직접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많은 기초적인 오류를 찾아낼 수 있었다.

나. 오류 처리 방안

1) 면접원 확인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후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면접원에게 직접 재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특히 면접원의 면접노트, CAPI 메모 등을 확인하여 수정하였다.

2) 논리를 이용한 수정

다른 문항의 응답내용에 따라 해당 문항의 응답값을 수정하였다. 가령,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구직활동내역, 시간,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응답한 경우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수정하였다.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판단되는 경우에만 수정을 실시하였다.

3) 재조사 수행

전면적인 재조사는 패널의 반발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재확인이 필요한 문항에 대해 패널관리 차 면접원이 가구를 방문했을 시 자연스럽게 재확인하였다.

4) 차기 조사 시 확인/수정

동일 대상을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패널조사의 특성 상 이전 조사 오류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기 조사 시 재확인하여 이전 조사 데이터를 수정할 예정이며, 매년 차기 조사표에 반영한다.

[그림 1-4-3] 7차년도 조사 4단계 데이터 검증

진행단계	진행내용
1단계	·CAPI 논리 프로그램을 통한 조사 실시간 검증
2단계	·실사실 에디터, 중앙 전담 에디터에 의한 100% eyecheck
3단계	·실사업체, 공단 연구진에 의한 추출 eyecheck
4단계	·문항 간, 지난조사-7차년도 조사 응답값 간 교차분석을 통한 검증

제5절 품질진단

통계법 제11조와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하여 PSED는 자체품질진단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자체품질진단이란 통계작성기관이 담당하는 통계에 대해 스스로 품질진단을 함으로써 해당기관의 통계 품질수준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자체통계품질진단은 진단서의 해당 문항에 순서대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그 결과는 5가지 품질측정 지표에 의해 평가된다.

1) 관련성(relevance)

통계자료가 포괄범위와 개념, 내용 등에 있어서 이용자 요구사항을 얼마나 충족하는지를 말한다. 통계 이용자에게 얼마나 의미 있고 유용한 통계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며 통계작성 목적을 명확히 하고 전문가 자문회의,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반영하는지를 평가한다.

2) 정확성(accuracy)

측정하고자 하는 모집단의 특성이나 크기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했는가를 말하며 표본 오차의 크기, 비표본오차의 정도 및 잠정치/확정치 간의 차이 등을 평가한다. 참값과 추정된 값의 차이인 오차가 작을수록 정확성이 높은 통계가 된다.

3) 시의성(timeless)과 정시성(punctuality)

시의성이란 통계작성기준시점과 결과발표시점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정도를 말하며, 정시성은 예고된 공표시기를 정확히 준수했는지를 나타내는 정도를 말한다. 작성기준시점과 결과발표시점이 근접할수록 시의성이 높은 통계가 되며, 사전 공표일정을 정확히 준수할수록 정시성이 높은 통계로 본다.

4) 비교성(comparability)

시간 또는 공간이 달라도 동일한 개념, 분류, 측정도구 및 기초자료 등을 기준으로 집계되어 얼마나 비교가 가능한지를 나타내는 정도를 말한다. 포괄범위가 다르더라도 작성방법과 기준 등이 동일하다면 통계의 비교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5) 일관성(coher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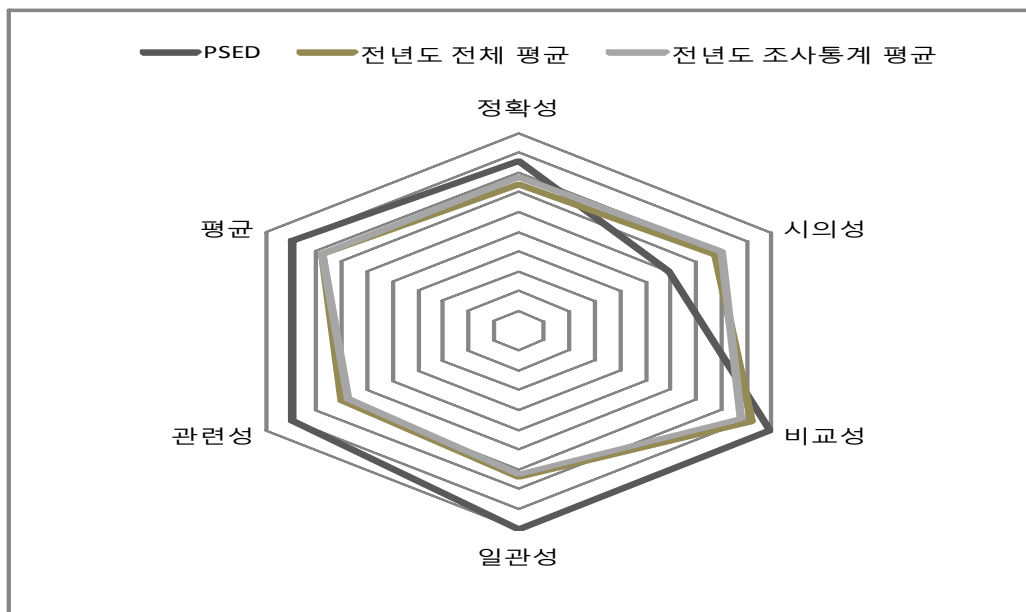
동일한 경제·사회현상에 대해 작성된 서로 다른 통계들의 결과가 얼마나 유사한가를 나타내는 정도를 말한다. 서로 다른 기관에서 작성하나 동일한 현상을 반영하는 통계라면, 서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낼수록 일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PSED는 2014년 자체품질진단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전체 평균 품질점수는 5점 만점 중 4.5점이며, 비교성과 일관성은 5.0점, 관련성은 4.5점, 정확성은 4.3점, 시의성은 3.0점으로 평가되었다.

〈표 1-5-1〉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자체품질진단 점수

구 분	정확성	시의성	비교성	일관성	관련성	평균
PSED	4.3	3.0	5.0	5.0	4.5	4.5
전년도 전체 평균	3.7	3.9	4.6	3.7	3.5	3.9
전년도 조사통계 평균	3.9	4.0	4.4	3.6	3.4	3.9

〔그림 1-5-1〕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014년 자체품질진단 점수



제6절 이용자 주의사항

다음은 제7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4년) 결과 활용에 대한 주의사항이다.

첫째, 본 조사는 패널조사이므로 횡단면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 가령 경제활동특성과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는 본 조사의 특성 상 패널 구축 시 연령과 지역 등을 제한하였으며, 그 결과 7차년도 조사 현재 패널의 연령은 만 21~81세이고 제주 지역은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만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분석과 타 통계와의 비교에는 제약이 있다. 또한 조사 분량이 방대하여 최소 3개월간 조사가 진행되므로 조사기준 시점을 엄격히 준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둘째, 데이터 분석 시 가급적 가중치 부여를 권장한다. 패널구축 당시 만 15세~60세와 61세~75세를 9:1로 할당하였으며, 차수가 진행되면서 패널이 탈락하기 때문에 대표성 확보를 위해 차수별 횡단/종단 가중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연구 목적에 적합한 가중치를 선택하여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주요 문항은 '지난조사 응답값 확인 및 수정→지난조사 이후의 변화→현재 최종 상태 확인'의 순으로 설문이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지난조사의 데이터와 가중치가 일부 수정되었다. 따라서 지난조사의 내용을 분석에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근에 제공된 데이터와 가중치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넷째, 취업자(임금근로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해당 일자리가 지난조사 시 조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각각 다른 조사표로 응답받았다. 따라서 분석 시 필요에 따라 두 조사표의 데이터를 병합해야 하며, 병합된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급적 통합데이터의 활용을 권장한다.

다섯째, 신규 조사된 일자리의 경우 지난조사 이후 새로 시작한 일자리와 지난조사 이전에도 하고 있었지만 지난조사 시 파악되지 않은 일자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경제활동의 다양한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문항을 분기한 경우 문항별로 응답대상이 다를 수 있다. 가령 노후준비 부문은 만 30세 이상의 패널에게만 질문하였으며, 일상생활 만족도에서 일에 대한 만족도,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각각 취업자, 유배우인 경우에만 응답받았다. 따라서 각 문항별로 어떠한 응답자가 응답을 했는지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은 제7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4년) 보고서 해석 시 주의사항이다.

첫째, 세부적인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표 또는 문항 분기로 인해 개별 문항별로 응답자 수가 적을 수 있다. 따라서 장애유형, 연령 등 교차로 분석된 통계표나 자영업 실업자 등 실제 표본 수가 적은 영역의 통계표는 관측된 수가 적거나 비어있는 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석 시 유의해야 한다.

둘째, 차수별 통계표의 경우 각 차수의 횡단 가중치를 부여하였으며, 그 외 통계표는 7차년도 횡단 가중치를 부여하였다(변동을 보기 위한 경우에는 종단 가중치를 적용함). 가중치 부여와 반올림 등으로 인해 통계표에서 제시된 총계와 실제 각 행 또는 열의 합이 다를 수 있다. 또한 교차표의 경우 '전체'의 수치는 별도의 빈도분석 결과를 사용하였으므로 하위 범주별 합계와 다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수록하고 있다. 미등록장애인은 그 특성 및 경향성을 파악하여 정책수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별조사대상으로 구축하였으나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하기 어려움에 따라 4차년도부터 제외하였다.

제 2 장

조사결과 1: 경제활동 특성

제1절 경제활동상태

PSDE는 1차년도(2008년)부터 매년 등록장애인의 경제활동, 구직활동 등과 관련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총 5,092명의 장애인고용패널 중 7차년도 조사(2014년)에 참여한 4,082명을 대상으로 4주 구직 기준 경제활동상태를 추정한 결과, 2014년 현재 제주 지역을 제외한 우리나라 만 21~81세의 등록장애인 2,208,315명 가운데 취업자는 888,578명, 실업자는 38,465명, 비경제활동인구는 1,281,272명으로 나타났다. 이때 취업자란 조사시점에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를 미취업자로 분류하며, 미취업자 중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고 일자리가 주어진다면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을 실업자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한다. 조사대상기간을 고려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는 달리 종단적으로 바뀌는 모든 일자리의 변동상황을 기록해야하는 PSED 특성 상 취업자와 미취업자를 구분하는 의미로서 현재 일하고 있는 일자리가 있느냐 없느냐의 분류법을 적용하고 있다.

〈표 2-1-1〉 경제활동상태 - 차수별

(단위: 명, %)

구 분	전 체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1차년도(2008년)	1,849,539(100.0)	755,365(40.8)	89,646(4.8)	1,004,528(54.3)
2차년도(2009년)	2,105,891(100.0)	893,611(42.4)	84,492(4.0)	1,127,788(53.6)
3차년도(2010년)	2,188,434(100.0)	928,646(42.4)	64,352(2.9)	1,195,436(54.6)
4차년도(2011년)	2,202,333(100.0)	924,968(42.0)	61,595(2.8)	1,215,770(55.2)
5차년도(2012년)	2,205,517(100.0)	923,369(41.9)	38,068(1.7)	1,244,080(56.4)
6차년도(2013년)	2,206,303(100.0)	918,355(41.6)	36,756(1.7)	1,251,192(56.7)
7차년도(2014년)	2,208,315(100.0)	888,578(40.2)	38,465(1.7)	1,281,272(58.0)

- 주 1) 패널 자료는 경제활동인구 규모의 추정이 목적이 아니므로 최적 추정치가 아닐 수 있음
 2) '08년 1월 1일 기준 만 15~75세 패널을 구축하였으므로 차수별 패널 연령대는 아래와 같음
 - 1차년도 15~75세, 2차년도 16~76세, 3차년도 17~77세, 4차년도 18~78세, 5차년도 19~79세, 6차년도 20~80세, 7차년도 21~81세
 3) 각 연도별 횡단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함

제2절 경제활동상태 변동

1.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변동 - 총괄

패널 자료는 기본적으로 동일 표본에 대해 매년 추적조사를 통해 집계되므로 시간의 추이에 따른 경제활동상태의 변동 등 다양한 동태적 흐름을 고찰할 수 있다. PSED는 2014년 현재 7차례의 추적조사를 통해 데이터가 축적됨에 따라 이러한 동태적 분석이 가능해졌다. 이때, PSED에서는 1~7차년도 조사에 모두 응답한 3,792명에 대하여 종단 가중치를 부여하였고, 이하 본 절에서의 분석결과는 종단 가중치를 부여받은 1,847,33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2-2-1〉 조사 응답 패널의 특성 - 인구통계학 변수별

(단위: 명, %)

변 수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별	남성	1,187,290	64.3	
	여성	660,048	35.7	
연령별	21~29세	53,538	2.9	
	30~39세	128,989	7.0	
	40~49세	247,414	13.4	
	50~59세	414,769	22.5	
	60~81세	1,002,629	54.3	
장애정도별	중증	770,672	41.7	
	경증	1,076,667	58.3	
장애유형별	신체외부장애	지체장애	1,021,348	55.3
		지체 외	167,517	9.1
	감각장애	시각장애	191,793	10.4
		시각 외	172,268	9.3
	정신적 장애		206,582	11.2
	신체내부장애		87,830	4.8
지역	수도권	768,131	41.6	
	광역시권	351,583	19.0	
	기타 시도	727,624	39.4	
학력	중졸 이하	1,201,800	65.1	
	고졸	510,555	27.6	
	대졸 이상	134,983	7.3	
전 체		1,847,339	100.0	

주: 1~7차년도 조사에 모두 참여한 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종단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함(이하 동일)

지난조사 이후 경제활동상태의 변동을 살펴보면, 6차년도 취업자의 90.6%가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9.5%는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하였다. 또한 6차년도 실업자의 45.7%는 취업자로, 30.5%는 비경제활동인구로 각각 이동하여 실업자의 경우 다른 경제활동상태로의 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비경제활동인구로의 이동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6차년도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3.9%만이 경제활동인구, 즉 취업자나 실업자로 이동한 반면에 96.1%는 비경제활동인구에 머물러 있다.

〈표 2-2-2〉 경제활동상태 변동

(단위: %)

이전상태	이후상태	1차→2차	2차→3차	3차→4차	4차→5차	5차→6차	6차→7차
취업자	취업자	89.9	87.9	91.6	91.7	93.0	90.6
	실업자	3.2	2.3	2.1	1.1	1.6	1.9
	비경제활동인구	6.9	9.7	6.3	7.2	5.4	7.6
실업자	취업자	26.7	25.2	31.0	21.7	35.1	45.7
	실업자	31.9	26.5	29.8	18.1	18.9	23.8
	비경제활동인구	41.4	48.4	39.2	60.3	46.0	30.5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	6.1	4.9	4.0	4.3	3.2	3.3
	실업자	2.3	1.4	2.2	0.9	0.6	0.6
	비경제활동인구	91.6	93.7	93.8	94.8	96.2	96.1

주: 경제활동상태의 판단 기준은 각 차수별 조사 시점의 상태로 판단함. 가령, 6차년도 조사 이후 종사한 일자리가 있었다 해도 7차년도 조사 시점에서 일자리가 없는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함(이하 동일)

인구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취업-실업-비경제활동인구 간 이동이 있었던 인구는 전체의 7.0%이며, 취업이나 비경제활동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업자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2-3〉 인구 수 대비 경제활동상태 변동

(단위: %)

구 분	1차→2차	2차→3차	3차→4차	4차→5차	5차→6차	6차→7차
취업상태 유지	36.9	36.4	36.7	36.5	36.8	35.6
취업 → 실업	1.3	1.0	0.9	0.4	0.6	0.7
취업 → 비경제활동인구	2.8	4.0	2.5	2.9	2.1	3.0
실업 → 취업	1.2	1.0	0.9	0.6	0.5	0.6
실업상태 유지	1.4	1.0	0.8	0.5	0.3	0.3
실업 → 비경제활동인구	1.8	1.9	1.1	1.8	0.7	0.4
비경제활동인구 → 취업	3.3	2.7	2.3	2.5	1.9	2.0
비경제활동인구 → 실업	1.3	0.8	1.3	0.5	0.4	0.3
비경제활동상태 유지	50.1	51.3	53.6	54.3	56.6	57.2

2.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변동 - 인구통계학 변수별

성별 경제활동상태 변동을 살펴보면, 여성 취업자의 15.3%가 미취업자로 이동한 반면, 남성은 7.8%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비경제활동인구에 머무는 비율 또한 여성(97.5%)이 남성(95.0%)에 비해 다소 높아 여성 장애인이 일자리를 얻거나 유지하기가 어려움을 보여준다.

〈표 2-2-4〉 경제활동상태 변동 - 성별

(단위: %)

구 분	이전상태	이후상태	1차→2차	2차→3차	3차→4차	4차→5차	5차→6차	6차→7차
남성	취업자	취업자	90.5	89.5	93.0	93.6	93.5	92.2
		실업자	3.4	2.4	2.6	0.8	1.5	1.6
		비경제활동인구	6.0	8.1	4.4	5.6	5.0	6.2
	실업자	취업자	25.1	24.7	31.9	24.8	35.9	43.3
		실업자	34.4	26.4	27.7	18.3	22.1	22.0
		비경제활동인구	40.5	48.9	40.3	57.0	42	34.8
	비경제 활동인구	취업자	7.8	6.0	4.4	4.9	3.7	4.1
		실업자	3.7	1.9	3.0	1.2	1.0	0.9
		비경제활동인구	88.5	92	92.6	93.9	95.3	95.0
여성	취업자	취업자	87.7	82.3	86.4	85.1	91.2	84.7
		실업자	2.4	2.1	0.7	2.1	1.8	2.8
		비경제활동인구	9.9	15.5	13.0	12.8	7.0	12.5
	실업자	취업자	32.3	27.6	27.6	9.9	33.3	55.2
		실업자	23.4	27.0	37.7	17.4	11.4	31.0
		비경제활동인구	44.3	45.4	34.7	72.7	55.4	13.8
	비경제 활동인구	취업자	4.2	3.6	3.5	3.6	2.6	2.3
		실업자	0.8	0.8	1.3	0.6	0.2	0.2
		비경제활동인구	95.0	95.6	95.2	95.8	97.2	97.5

연령별 경제활동상태 변동을 살펴보면, 중년층 취업자의 7.4%가 미취업자로 이동하는 반면, 고령층은 10.6%, 청년층은 16.6%로 나타나 취업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중년층이 가장 높음을 보여준다. 또한 고령층의 경우 실업자의 24.1%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하고, 비경제활동인구에 머무는 비율 또한 97.3%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노동시장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청년층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에 머무는 비율은 92.2%이며, 실업자의 0.0%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하였다.

〈표 2-2-5〉 경제활동상태 변동 - 연령별

(단위: %)

구 분	이전상태	이후상태	1차→2차	2차→3차	3차→4차	4차→5차	5차→6차	6차→7차
청년층 (21~29세)	취업자	취업자	88.4	82.6	95.4	90.5	89.2	83.4
		실업자	3.3	0.0	1.5	0.0	0.0	9.7
		비경제활동인구	8.2	17.4	3.2	9.5	10.8	6.9
	실업자	취업자	35.7	52.1	45.2	44.9	10.3	0.0
		실업자	30.3	32.1	54.8	26.1	9.8	100.0
		비경제활동인구	34	15.8	0.0	29.0	79.9	0.0
	비경제 활동인구	취업자	5.7	7.7	11.0	12.3	8.6	7.8
		실업자	2.0	1.7	2.6	6.4	0.0	0.0
		비경제활동인구	92.2	90.6	86.4	81.4	91.4	92.2
중년층 (30~55세)	취업자	취업자	90.9	90.6	92.7	94.6	94.7	92.6
		실업자	4.2	3.0	3.5	0.5	1.5	1.9
		비경제활동인구	4.9	6.4	3.9	4.9	3.7	5.5
	실업자	취업자	19.6	31.6	40.3	22.7	36.9	32.9
		실업자	31.3	26.8	32.2	27.1	23.8	30.4
		비경제활동인구	49.1	41.6	27.5	50.2	39.3	36.7
	비경제 활동인구	취업자	7.7	7.9	4.9	6.4	6.1	6.6
		실업자	4.3	1.7	3.2	1.7	1.7	0.5
		비경제활동인구	88	90.5	91.9	91.8	92.1	92.9
고령층 (56~81세)	취업자	취업자	89.3	86.3	90.6	89.7	91.9	89.4
		실업자	2.5	2.0	1.2	1.6	1.7	1.3
		비경제활동인구	8.2	11.7	8.2	8.7	6.4	9.3
	실업자	취업자	33.3	17.0	22.5	18.9	38.2	61.2
		실업자	32.8	25.7	26.5	8.5	15.3	14.6
		비경제활동인구	33.9	57.3	51.0	72.6	46.6	24.1
	비경제 활동인구	취업자	5.6	3.7	3.3	3.3	2.0	2.1
		실업자	1.6	1.2	1.9	0.4	0.3	0.6
		비경제활동인구	92.7	95.0	94.8	96.3	97.6	97.3

장애정도별 경제활동상태 변동을 살펴보면, 중증장애인 취업자의 10.8%가 미취업자로 이동한 반면, 경증장애인 취업자는 8.9%가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의 2.8%가 취업자로 이동한 반면, 경증장애인의 경우 3.8%가 취업자로 이동하였다.

〈표 2-2-6〉 경제활동상태 변동 - 장애정도별

(단위: %)

구 분	이전상태	이후상태	1차→2차	2차→3차	3차→4차	4차→5차	5차→6차	6차→7차
중증	취업자	취업자	87.3	87.7	88.8	86.4	93.5	89.2
		실업자	4.2	1.5	3.4	1.0	0.3	2.0
		비경제활동인구	8.5	10.7	7.9	12.6	6.2	8.8
	실업자	취업자	9.9	19.0	39.9	17.7	28.8	32.7
		실업자	34.2	32.6	23.5	22.8	31.5	34.8
		비경제활동인구	55.8	48.5	36.6	59.5	39.7	32.5
	비경제 활동인구	취업자	3.5	3.5	2.7	2.4	2.9	2.8
		실업자	1.9	1.1	1.3	0.6	0.5	0.2
		비경제활동인구	94.6	95.4	96	97	96.5	96.9
경증	취업자	취업자	90.9	88	92.6	93.8	92.8	91.1
		실업자	2.9	2.6	1.7	1.2	2.0	1.8
		비경제활동인구	6.3	9.3	5.7	5.1	5.1	7.1
	실업자	취업자	37.9	29.5	25.9	23.6	38.5	50.7
		실업자	30.4	22.2	33.4	15.7	12.1	19.6
		비경제활동인구	31.6	48.3	40.7	60.6	49.4	29.7
	비경제 활동인구	취업자	9.0	6.5	5.3	6.3	3.5	3.8
		실업자	2.7	1.7	3.3	1.2	0.8	0.9
		비경제활동인구	88.2	91.8	91.4	92.4	95.7	95.3

주: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중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3급도 포함

장애유형별 경제활동상태 변동을 살펴보면, 정신적 장애인 취업자 중 12.8%가 미취업자로 이동하여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신체내부장애가 5.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자로 이동한 경우는 신체내부장애가 5.7%로 가장 높았으며, 정신적 장애 5.2%, 감각장애 4.0%, 신체외부장애 2.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경제활동을 지속하는 비율이 신체외부장애 96.9%, 감각장애 95.3%, 정신적 장애 94.6%, 신체내부장애 94.3%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신체외부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가 상대적으로 열악함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 2-2-7〉 경제활동상태 변동 - 장애유형별

(단위: %)

구 분	이전상태	이후상태	1차→2차	2차→3차	3차→4차	4차→5차	5차→6차	6차→7차
신체외부 장애	취업자	취업자	90.6	89.3	91.7	93.3	93.5	91.5
		실업자	2.5	1.7	1.9	1.1	1.3	1.7
		비경제활동인구	6.9	9.0	6.5	5.6	5.2	6.8
	실업자	취업자	28.6	22.8	21.4	21.8	37.8	36.6
		실업자	36.9	29.4	34.8	17.4	27.3	28.9
		비경제활동인구	34.5	47.8	43.7	60.8	34.9	34.5
	비경제 활동인구	취업자	7.1	4.7	3.7	4.3	2.3	2.4
		실업자	2.4	1.2	2.8	1.0	0.7	0.7
		비경제활동인구	90.5	94.1	93.5	94.7	97.1	96.9
감각장애	취업자	취업자	90.2	86.6	93.9	90.2	93.7	88.4
		실업자	4.2	3.9	1.2	1.6	3.0	1.4
		비경제활동인구	5.6	9.5	5.0	8.3	3.4	10.1
	실업자	취업자	36.5	33.8	31.6	19.5	46.2	69.4
		실업자	10.4	33.8	31.4	18.0	3.9	16.8
		비경제활동인구	53.2	32.4	37.1	62.5	49.8	13.7
	비경제 활동인구	취업자	5.6	6.0	6.0	4.5	5.2	4.0
		실업자	2.2	1.5	2.1	0.9	0.4	0.7
		비경제활동인구	92.2	92.5	91.9	94.6	94.4	95.3
정신적 장애	취업자	취업자	85.4	77.3	86.7	83.8	86.2	87.2
		실업자	4.3	3.3	4.8	0.0	0.0	6.0
		비경제활동인구	10.3	19.3	8.6	16.2	13.8	6.8
	실업자	취업자	0.0	30.4	74.7	37.9	0.0	0.0
		실업자	31.9	7.9	0.0	44.6	0.0	0.0
		비경제활동인구	68.1	61.7	25.3	17.5	100.0	100
	비경제 활동인구	취업자	4.1	4.7	2.9	4.1	5.6	5.2
		실업자	2.8	2.5	0.6	0.9	0.3	0.1
		비경제활동인구	93.2	92.8	96.5	95	94.1	94.6
신체내부 장애	취업자	취업자	83.2	89.8	83.3	86.8	93.3	94.5
		실업자	7.2	2.8	9.8	0.0	0.8	0.0
		비경제활동인구	9.7	7.4	6.9	13.2	5.8	5.5
	실업자	취업자	0.0	13.2	64.4	10.2	0.0	66.9
		실업자	30.5	0.0	35.6	0.0	0.0	0.0
		비경제활동인구	69.5	86.8	0.0	89.8	100.0	33.1
	비경제 활동인구	취업자	2.0	4.2	2.9	3.8	1.6	5.7
		실업자	0.8	0.0	0.8	0.8	1.5	0.0
		비경제활동인구	97.1	95.8	96.4	95.4	96.9	94.3

주: 신체외부장애는 지체, 뇌병변, 안면장애를, 감각장애는 시각, 청각, 언어장애를, 정신적 장애는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를, 신체내부장애는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장애, 뇌전증 장애를 의미함

인구 수를 기준으로 인구통계학 변수별 취업-미취업 간 이동 비율을 살펴보면, 우선 성별로는 남성의 이동 비율은 6.6%로 여성(5.7%)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이동 비율은 21~29세 11.6%, 30~39세 10.7%, 40~49세 7.9%, 50~59세 6.1%, 60~81세 5.0%로, 고령장애인의 경우 그 비율이 가장 낮았다. 장애정도별로는 중증장애인의 이동 비율은 5.2%인 반면에 경증장애인은 7.1%로 나타났으며,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 5.7%, 지체 제외 신체외부장애 3.2%, 시각장애 6.3%, 시각 제외 감각장애 11.2%, 정신적 장애 7.0%, 신체내부장애 6.4%로 뇌병변, 안면장애 등 지체 제외 신체외부장애에서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6.4%, 광역시권 5.0%, 기타 시도 6.7%로 나타났으며,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 5.3%, 고졸 8.6%, 대졸 이상 5.5%로 나타났다.

〈표 2-2-8〉 인구 대비 경제활동상태 변동 - 인구통계학 변수별

(단위: %)

변 수	구 분	취업 유지	취업 →미취업	미취업 →취업	미취업 유지	전 체	
성별	남성	44.2	3.8	2.8	49.3	100.0	
	여성	20.0	3.6	2.1	74.3	100.0	
연령별	21~29세	36.9	7.3	4.3	51.5	100.0	
	30~39세	42.5	4.3	6.4	46.8	100.0	
	40~49세	50.2	3.6	4.3	42.0	100.0	
	50~59세	50.4	4.2	1.9	43.5	100.0	
	60~81세	24.8	3.2	1.8	70.1	100.0	
장애정도별	중증	22.9	2.8	2.4	71.9	100.0	
	경증	44.6	4.4	2.7	48.4	100.0	
장애유형별	신체외부장애	지체장애	40.8	3.7	2.0	53.5	100.0
		지체 외	15.4	2.0	1.2	81.5	100.0
	감각장애	시각장애	38.1	3.7	2.6	55.6	100.0
		시각 외	44.8	7.3	3.9	44.0	100.0
	정신적 장애		21.5	3.1	3.9	71.5	100.0
	신체내부장애		23.0	1.3	5.1	70.6	100.0
지역	수도권	30.1	3.9	2.5	63.5	100.0	
	광역시권	29.0	2.0	3.0	66.0	100.0	
	기타 시도	44.5	4.3	2.4	48.8	100.0	
학력	중졸 이하	29.6	3.2	2.1	65.0	100.0	
	고졸	42.1	5.1	3.5	49.4	100.0	
	대졸 이상	63.5	2.8	2.7	31.0	100.0	

주: 6차년도→7차년도 기준임

3. 경제활동상태 변동 - 세부 특성

가. 취업상태로의 이동

취업상태인 경우는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와 미취업에서 취업으로 이동한 경우로 나누어진다. 이들을 비교하기 위해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자리의 특성을 살펴보면, 취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 농업, 임업 및 어업(23.5%), 제조업(14.4%), 도매 및 소매업(9.7%)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미취업상태에서 취업이 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22.0%), 도매 및 소매업(12.0%) 등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2-2-9〉 경제활동상태 변동의 특성 - 현재 주업의 산업

(단위: %, 명)

구 분	취업 유지	미취업→취업
농업, 임업 및 어업	23.5	2.2
제조업	14.4	11.0
도매 및 소매업	9.7	12.0
건설업	8.0	8.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7.4	22.0
운수업	5.2	2.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5.5	11.9
숙박 및 음식점업	4.7	3.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4.7	9.8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4	7.3
전 체	100.0	100.0
추정 수	656,780	46,979

주 1)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사용하였음

2) 산업들 중 일부는 생략하였으며 따라서 각 비율의 합계는 100.0이 되지 않음

3) 6차년도→7차년도 기준이며, 종단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함(이하 동일 적용)

취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 단순노무종사자(32.6%), 농림어업 숙련종사자(22.3%),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10.7%)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미취업상태에서 취업이 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단순노무종사자(63.6%),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9.8%)로 종사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율은 약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표 2-2-10〉 경제활동상태 변동의 특성 - 현재 주업의 직업

(단위: %, 명)

구 분	취업 유지	미취업→취업
관리자	1.7	0.0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8	1.4
사무종사자	6.4	3.7
서비스종사자	6.4	8.3
판매종사자	8.4	5.8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22.3	1.6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10.7	9.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7.7	5.9
단순노무종사자	32.6	63.6
전 체	100.0	100.0
추정 수	656,780	46,979

주: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사용하였음

미취업상태에서 취업이 된 경우에는 취업상태를 유지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임시근로자(41.6%), 일용근로자(25.6%)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2-2-11〉 경제활동상태 변동의 특성 - 현재 주업의 종사상 지위

(단위: %, 명)

구 분	취업 유지	미취업→취업
상용근로자	25.3	14.3
임시근로자	17.7	41.6
일용근로자	14.0	25.6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9.5	11.6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5.0	0.0
무급가족종사자	8.5	6.8
전 체	100.0	100.0
추정 수	656,780	46,979

취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6차년도 조사 시 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인 비율(56.3%)이 높았으며, 가구의 가구주인 비율(73.3%)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인 비율은 9.6%로 가장 낮게 나타나 취업상태 유지의 이유를 살펴볼 수 있다. 미취업상태에서 취업을 한 장애인의 경우에도 미취업상태를 유지한 장애인에 비해 가구원 수도 많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인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표 2-2-12〉 경제활동상태 변동의 특성 - 6차 조사 시 가구정보

(단위: %, 명)

변 수	구 분	취업 유지	취업→미취업	미취업→취업	미취업 유지
가구원 수	2인 이하	43.7	49.4	55.1	68.3
	3인 이상	56.3	50.6	44.9	31.7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656,780	68,363	46,980	1,075,217
가구주 여부	가구주	73.3	66.3	57.6	61.9
	가구주 아님	26.7	33.7	42.4	38.1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656,780	68,363	46,980	1,075,217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미수급가구	9.6	16.7	25.4	44.4
	수급가구	90.4	83.3	74.6	55.6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656,780	68,363	46,980	1,075,217

미취업자에서 취업자로 이동한 경우에는 6차년도 조사 시 향후 취업을 희망하고 있었던 비율은 65.4%로 높았던 반면에 미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향후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10.4%로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13〉 경제활동상태 변동의 특성 - 6차 조사 시 미취업자의 향후 취업 희망 여부

(단위: %, 명)

구 분	미취업→취업	미취업 유지
취업 희망	65.4	10.4
취업 희망하지 않음	34.6	89.6
전 체	100.0	100.0
추정 수	46,980	1,075,217

주 1)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1년 이내 취업 희망 + 1년은 아니더라도 향후 취업 희망'으로 산정함
2) 실업자의 경우 모두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산정함

미취업자에서 취업자로 이동한 경우에는 6차년도 조사 시 취업경험이 있었던 비율이 93.8%인 반면, 미취업상태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67.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2-2-14〉 경제활동상태 변동의 특성 - 6차 조사 시 과거 취업경험

(단위: %, 명)

구 분	미취업→취업	미취업 유지
과거 취업경험 있음	93.8	67.2
과거 취업경험 없음	6.2	32.8
전 체	100.0	100.0
추정 수	46,980	1,075,217

주: 1차 조사 시 과거 취업경험 + 1차 조사 이후 1개월 이상 취업한 일자리 유무로 산정함

나. 미취업상태로의 이동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와 미취업으로 이동한 경우를 비교하기 위해 6차년도 조사 시 종사하고 있던 일자리의 특성을 살펴보면, 농업, 임업 및 어업에 종사한 경우 94.4%가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한 경우 미취업으로 이동한 비율이 18.7%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15〉 경제활동상태 변동의 특성 - 6차 조사 시 주업의 산업

(단위: %)

구 분	취업 유지	취업→미취업	합 계
농업, 임업 및 어업	94.4	5.6	100.0
제조업	88.4	11.6	100.0
건설업	94.6	5.4	100.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89.7	10.3	100.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89.5	10.5	100.0
운수업	93.3	6.7	100.0
숙박 및 음식점업	88.3	11.7	100.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4.2	15.8	100.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81.3	18.7	100.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89.7	10.3	100.0

주 1)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사용하였음

2) 산업들 중 일부는 생략하였음

6차년도 조사 시 농림어업 숙련종사자인 경우 미취업상태로 이동한 비율이 4.4%인 반면, 단순노무종사자의 15.2%가 미취업상태로 이동하여 대조를 보였다.

〈표 2-2-16〉 경제활동상태 변동의 특성 - 6차 조사 시 주업의 직업

(단위: %)

구 분	취업 유지	취업→미취업	합 계
관리자	93.7	6.3	100.0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94.1	5.9	100.0
사무종사자	93.7	6.3	100.0
서비스종사자	86.2	13.8	100.0
판매종사자	95.2	4.8	100.0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95.6	4.4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94.2	5.8	100.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92.9	7.1	100.0
단순노무종사자	84.8	15.2	100.0

주: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사용하였음

6차년도 조사 시 상용근로자의 5.7%가 미취업상태로 이동한 반면,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각각 18.6%, 12.9%가 미취업상태로 이동하였다.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미취업상태로의 이동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2-2-17〉 경제활동상태 변동의 특성 - 6차 조사 시 주업의 종사상 지위 (단위: %)

구 분	취업 유지	취업→미취업	합 계
상용근로자	94.3	5.7	100.0
임시근로자	81.4	18.6	100.0
일용근로자	87.1	12.9	100.0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93.5	6.5	100.0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94.9	5.1	100.0
무급가족종사자	95.2	4.8	100.0

취업상태에서 미취업상태로 이동한 장애인에게 6차년도 조사 당시 종사하던 일자리를 그만둔 상황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임금근로자의 경우 계속 종사하기를 원했으나 어쩔 수 없이 그만둔 비율이 52.7%였으며, 구체적인 사유로는 '파산, 폐업, 정리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계약만료 등'의 비율이 31.7%로 나타났다. 퇴사 사유가 장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28.7%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표 2-2-18〉 경제활동상태 변동의 특성 - 6차 조사 이후 임금근로자 퇴사 사유 (단위: %, 명)

변 수	구 분	취업→미취업
퇴사 상황	계속 하고 싶었으나 어쩔 수 없이 그만두었음	52.7
	스스로 원해서 그만두었음	47.3
	전 체	100.0
	추정 수	49,082
퇴사 사유	파산, 폐업, 정리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계약만료 등	31.7
	일거리가 없거나 적어서	16.3
	장애나 건강문제	28.7
	기타	23.3
	전 체	100.0
	추정 수	49,082
퇴사 사유의 장애 기인 여부	장애로 인한 것임	14.4
	장애로 인한 것이 아님	85.6
	전 체	100.0
	추정 수	49,082

주: '지난조사 시 해당 일자리 자체를 근무하지 않았음'을 제외한 분석임

자영업주의 경우에는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기를 원했으나 어쩔 수 없이 그만둔 비율이 38.9%로 임금근로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장애나 건강문제'(36.3%)가 가장 높았다. 퇴사 사유가 장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24.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표 2-2-19〉 경제활동상태 변동의 특성 - 6차 조사 이후 자영업주 폐업 사유
(단위: %, 명)

변 수	구 분	취업→미취업
그만둔 상황	계속 하고 싶었으나 어쩔 수 없이 그만두었음	38.9
	스스로 원해서 그만두었음	61.1
	전 체	100.0
	추정 수	14,641
그만둔 사유	일거리가 없거나 적어서	16.1
	만성적인 적자 또는 소득이 적음/사업체 파산, 도산 등으로 인해	19.1
	장애나 건강문제	36.3
	개인적 사유 발생(학업, 육아, 가사, 돌봄 등)	18.2
	기타	10.3
	전 체	100.0
	추정 수	14,641
그만둔 사유의 장애 기인 여부	장애로 인한 것임	24.2
	장애로 인한 것이 아님	75.8
	전 체	100.0
	추정 수	14,641

주: '지난조사 시 해당 일자리 자체를 근무하지 않았음'을 제외한 분석임

취업상태에서 미취업상태로 이동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향후 재취업에 대해 희망하는 비율이 61.2%로, 미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장애인(8.5%)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2-20〉 경제활동상태 변동의 특성 - 미취업자 향후 취업 희망
(단위: %, 명)

구 분	취업→미취업	미취업 유지
취업 희망함	61.2	8.5
취업 희망하지 않음	38.8	91.5
전 체	100.0	100.0
추정 수	68,363	1,075,217

주 1)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1년 이내 취업 희망 + 1년은 아니더라도 향후 취업 희망'으로 산정함

2) 실업자의 경우 모두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산정함

미취업상태로 이동한 장애인이 재취업을 위해 지난 4주 또는 지난 1년 내 적극적 구직활동을 실시한 비율은 미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장애인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2-21〉 경제활동상태 변동의 특성 - 미취업자 구직활동 여부

(단위: %, 명)

변 수	구 분	취업→미취업	미취업 유지
지난 4주 내 구직활동 여부	있었음	19.9	1.1
	없었음	80.1	98.9
	전 체	100.0	100.0
	추정 수	68,363	1,075,217
지난 1년 내 구직활동 여부	있었음	26.1	2.5
	없었음	73.9	97.5
	전 체	100.0	100.0
	추정 수	68,363	1,075,217

주: '구직활동'이란 취업/창업을 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활동 가령, 구직등록,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시험 응시, 일자리 상담 및 의뢰, 사업체 방문 등을 의미함

다. 경제활동상태의 이동과 관련 요인 - 장애관련 요인

미취업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 주된 장애가 악화 또는 진행되고 있는 비율은 37.8%로 다른 경우들에 비해 높은 반면,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2-2-22〉 경제활동상태 변동의 특성 - 현재 장애상태

(단위: %, 명)

구 분	취업 유지	취업→미취업	미취업→취업	미취업 유지
호전(개선)되고 있음	1.0	1.6	2.5	0.7
고착상태임	80.8	78.1	78.0	61.5
악화 또는 진행 중임	18.3	20.3	19.5	37.8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656,780	68,363	46,980	1,075,217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 또한 미취업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78.2%로 가장 높았다.

〈표 2-2-23〉 경제활동상태 변동의 특성 - 현재 건강상태

(단위: %, 명)

구 분	취업 유지	취업→미취업	미취업→취업	미취업 유지
좋지 않음	50.3	67.9	58.3	78.2
좋음	49.7	32.1	41.7	21.8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656,780	68,363	46,980	1,075,217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미취업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60.3%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2-24〉 경제활동상태 변동의 특성 - 타인의 도움 필요 여부

(단위: %, 명)

구 분	취업 유지	취업→미취업	미취업→취업	미취업 유지
필요함	18.8	25.7	26.4	60.3
필요하지 않음	81.2	74.3	73.6	39.7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656,780	68,363	46,980	1,075,217

일상생활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미취업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19.4%)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취업상태에서 미취업상태로 이동한 경우(5.9%)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 여부가 취업상태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표 2-2-25〉 경제활동상태 변동의 특성 - 차별경험 여부

(단위: %, 명)

구 분	취업 유지	취업→미취업	미취업→취업	미취업 유지
차별 경험함	4.6	5.9	8.3	19.4
차별 경험하지 않음	95.4	94.1	91.7	80.6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656,780	68,363	46,980	1,075,217

경제활동상태 변동에 따른 자아존중감 정도를 살펴보면, 취업을 유지하는 경우가 2.54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미취업에서 취업 이동(2.49점), 취업에서 미취업 이동(2.36점), 미취업상태를 그대로 유지(2.08점) 순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과 취업상태 변동 간에 연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2-2-26〉 경제활동상태 변동의 특성 - 자아존중감

(단위: 점)

구 분	취업 유지	취업→미취업	미취업→취업	미취업 유지
자아존중감(5점 척도)	2.54	2.36	2.49	2.08
표준오차	0.001	0.002	0.003	0.000
응답 수	656,780	68,363	46,980	1,074,377

주 1) 모름/응답거절은 분석에서 제외함

2) 자아존중감은 5차년도 조사 시 조사되었음

라. 경제활동상태의 이동과 관련 요인 - 인적자본 요인

취업상태에서 미취업을 한 경우에 신규 자격증을 취득한 비율이 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미취업상태를 유지하는 경우에 3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2-27〉 경제활동상태 변동의 특성 - 자격증 취득 및 보유

(단위: %, 명)

변 수	구 분	취업 유지	취업→미취업	미취업→취업	미취업 유지
6차 조사 이후 신규 자격증 취득 여부	있음	3.2	5.8	3.0	0.8
	없음	96.8	94.2	97.0	99.2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656,780	68,363	46,980	1,075,217
현재 자격증 보유 여부	있음	29.8	22.4	30.1	9.9
	없음	70.2	77.6	69.9	90.1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656,780	68,363	46,980	1,075,217

주: '현재 자격증 보유 여부'는 1차 조사 시 파악한 자격증과 지난조사 이후 취득한 신규 자격증을 모두 고려하여 7차 조사 시 장애인 개인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의미함

신규 고용서비스를 받은 비율은 미취업상태에서 취업상태로 이동한 경우에 15.8%로 가장 높았으며, 최근 9년간 고용서비스 경험 비율을 살펴보면, 미취업상태에서 취업상태로 이동한 경우가 41.2%로 가장 높고, 취업상태에서 미취업상태로 이동한 장애인도 32.5%로 높아 경제활동상태의 이동이 빈번한 층에서 고용서비스 이용 비율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표 2-2-28〉 경제활동상태 변동의 특성 - 고용서비스 경험

(단위: %, 명)

변 수	구 분	취업 유지	취업→미취업	미취업→취업	미취업 유지
6차 조사 이후 고용서비스 경험 여부	있음	1.1	6.8	15.8	0.6
	없음	98.9	93.2	84.2	99.4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656,780	68,363	46,980	1,075,217
최근 8년 고용서비스 경험 여부	있음	19.4	32.5	41.2	16.1
	없음	80.6	67.5	58.8	83.9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656,780	68,363	46,980	1,075,217

주: '최근 8년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은 1차 조사 시 파악한 과거 3년간의 고용서비스 경험과 지난조사 이후 새로 경험한 고용서비스를 모두 고려하여 최근 9년간 고용서비스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의미함

미취업상태에서 취업상태로 이동한 경우에 신규 직업교육훈련을 경험한 비율이 2.3%로 가장 높았다. 평생의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을 살펴보면, 미취업상태에서 취업상태로 이동한 경우가 13.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11.5%)이며, 미취업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는 4.9%로 다른 경우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2-2-29〉 경제활동상태 변동의 특성 - 직업교육훈련 경험

(단위: %, 명)

변 수	구 분	취업 유지	취업→미취업	미취업→취업	미취업 유지
6차 조사 이후 직업교육훈련 경험 여부	있음	0.1	0.8	2.3	0.1
	없음	99.9	99.2	97.7	99.9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656,780	68,363	46,980	1,075,217
직업교육훈련 경험 여부 (누적)	있음	11.5	11.9	13.1	4.9
	없음	88.5	88.1	86.9	95.1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656,780	68,363	46,980	1,075,217

주: '직업능력개발 경험(누적)'은 1차 조사 시 파악한 과거 직업교육훈련 경험과 이후 새로 경험한 직업교육훈련을 모두 고려하여 장애인 개인이 직업교육훈련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의미함

마. 경제활동상태의 이동과 관련 요인 - 일상생활 만족도

일상생활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살펴보면, 취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만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일상생활 전반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표 2-2-30〉 경제활동상태 변동의 특성 - 삶의 전반적 만족도

(단위: %, 명)

구 분	취업 유지	취업→미취업	미취업→취업	미취업 유지
불만족	6.4	13.8	7.5	30.2
보통	67.3	70.3	72.9	59.6
만족	26.2	15.8	19.5	10.3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656,780	68,363	46,980	1,075,217

주: 5점 Likert 척도로 질문하였으며 만족 비율은 '매우 만족'과 '만족'으로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임

제3절 직업력

PSED는 2차년도 조사부터 1개월 이상 일한 다수개의 일자리에 대해 부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때 수집한 주업을 포함한 모든 일자리 정보에 1차년도 조사에서 파악된 당시 주업에 대한 일자리 정보를 덧붙여 직업력(job history) 자료를 구성하였다. 직업력 자료에는 일자리 시작시기와 종료시기, 종사자 수, 월평균 소득, 일자리 그만둔 사유 등을 담고 있다.

조사시점 2014년을 기준으로 현재 하고 있거나 이미 그만두었던 간에 주업, 부업을 모두 통틀어 최근 6년간 1개월 이상 종사한 일자리의 수는 평균 0.92개²⁾이며, 1개 이상의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전체의 54.6%였다.

〈표 2-3-1〉 총 일자리의 수 - 인구통계학 변수별

(단위: %, 개)

변 수	구 분	총 일자리 수								평균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이상	전체		
성별	남성	37.2	38.4	15.2	5.6	2.0	0.8	0.7	100.0	1.03	
	여성	62.0	23.3	8.7	2.9	1.8	1.0	0.1	100.0	0.63	
연령별	21~29세	40.8	40.9	8.4	4.4	3.6	2.0	0.0	100.0	0.95	
	30~39세	37.6	30.8	15.4	10.0	4.5	1.4	0.3	100.0	1.18	
	40~49세	33.5	36.3	17.2	7.8	3.5	1.3	0.5	100.0	1.19	
	50~59세	33.4	41.0	15.1	6.3	2.5	0.9	0.8	100.0	1.10	
	60~81세	55.9	28.8	10.8	2.5	1.0	0.7	0.4	100.0	0.68	
장애정도별	중증	62.0	24.4	8.3	3.5	1.1	0.4	0.3	100.0	0.60	
	경증	34.7	39.2	16.1	5.5	2.6	1.2	0.7	100.0	1.09	
장애유형별	신체외부장애	지체장애	41.2	36.5	13.8	4.9	2.1	1.0	0.5	100.0	0.96
		지체 외	70.0	19.9	5.6	2.7	0.7	0.6	0.5	100.0	0.48
	감각장애	시각장애	44.5	34.0	11.2	5.5	1.9	1.1	1.8	100.0	0.97
		시각 외	29.5	38.9	19.8	6.7	3.9	1.1	0.2	100.0	1.21
	정신적 장애		60.5	23.9	10.8	3.0	1.1	0.7	0.0	100.0	0.62
	신체내부장애		59.4	25.7	10.8	2.4	1.6	0.0	0.0	100.0	0.61
	학력	중졸 이하	51.4	31.7	11.5	3.4	1.2	0.6	0.2	100.0	0.74
		고졸	39.0	33.9	14.9	7.0	2.7	1.4	1.1	100.0	1.10
대졸 이상		25.4	41.4	17.9	7.1	5.8	1.3	1.1	100.0	1.36	
전 체		45.4	32.7	12.9	5.1	2.4	1.0	0.5	100.0	0.92	

주: 1~7차년도 조사에 모두 참여한 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중단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함

- 2) 지난조사 이후 일자리상황(SQ파트)에서 파악된 일자리 수는 1개월 미만인 부업 정보 또는 1개월 미만인 새로 시작했다가 그만 둔 일자리 등을 포함하고 있어 직업력(JOB)과는 수치가 상이할 수 있음

제 3 장

조사결과 2: 취업자 특성

제1절 공통 특성

1. 취업자 판별³⁾

본인의 수입을 위해 1주 1시간 이상 일하였거나 또는 18시간 이상 가족의 수입을 위해 무급으로 일을 도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의 추정 수는 전체의 40.2%인 887,051명으로 취업자의 기준에 일차적으로 부합하였다. 지난 주 일은 하지 않았지만 해오던 일자리가 있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527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판단된 취업자의 수는 888,578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40.2%를 차지하고 있다.

〈표 3-1-1〉 취업자 정의에 따른 판별결과

(단위: 명, %)			
변 수	구 분	추정 수	비 율
지난 주 본인의 수입을 위해 1시간 이상 일하였거나 18시간 이상 무급가족종사 경험	있었음	887,051	40.2
	없었음	1,321,264	59.8
↓			
지난 주 일자리 유무(일시휴직 유무)	있었음	1,527	0.1
	없었음	1,319,737	59.8
↓			
판별결과	취업자	888,578	40.2
	미취업자	1,319,737	59.8
전 체		2,208,315	100.0

주 1) 각 차수별 횡단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하였음(이하 동일 적용)

2) 비율은 만 21~81세 전체 장애인(2,208,315명) 대비 비율임

3) PSED는 조사시점에 노동을 제공하고 있으면 취업자로 보며, 그렇지 않은 사람 중 조사시점의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실업자로 구분한다. 종단적으로 바뀌는 모든 일자리 변동 상황을 기록해야 하는 조사 특성상 미취업자와 구분되는 의미로서 취업자를 정의할 때 현재 일하고 있는 일자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의이기 때문이다.

2. 취업자 인적구성

임금근로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로 구성된 전체 취업자의 인적구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 74.8%, 여성 25.2%, 연령별로는 21~29세 3.1%, 30~39세 8.7%, 40~49세 20.0%, 50~59세 31.6%, 60~81세 36.6%로 나타났다. 장애정도별로는 중증장애인 26.9%, 경증장애인 73.1%이며,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이 61.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신체내부장애인이 3.7%로 가장 적다. 지역별로는 기타 시도(46.7%), 수도권(36.9%), 광역시권(16.5%)의 순이며,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12.9%, 고졸 33.9%, 중졸 이하 53.8%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 인구분포와 비교해보면, 성별에서는 남성, 연령별로는 60세 미만, 장애정도별로는 경증,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 감각장애, 지역별로는 기타 시도, 학력별로는 고졸 이상의 비중이 실제 인구에서의 비중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2〉 취업자의 인적구성

(단위: %, 명)

변 수	구 분	비 율	장애인 인구분포
성별	남성	74.8	59.6
	여성	25.2	40.4
연령별	21~29세	3.1	2.9
	30~39세	8.7	7.0
	40~49세	20.0	14.3
	50~59세	31.6	23.8
	60~81세	36.6	52.0
장애정도별	중증	26.9	41.1
	경증	73.1	58.9
장애유형별	신체외부장애	지체장애	54.7
		지체 외	9.8
	감각장애	시각장애	10.2
		시각 외	9.7
	정신적 장애		10.5
	신체내부장애		5.1
지역별	수도권		42.3
	광역시권		19.3
	기타 시도		38.3
학력별	중졸 이하		64.2
	고졸		28.0
	대졸 이상		7.8
전 체		100.0	100.0
추정 수		888,578	2,208,315

3. 취업자 주요특성

취업자의 전체 규모가 결정된 후 취업자 영역에서 주업의 특성에 대해 파악하였다. 복수의 일자리 중 주업을 결정하는 것은 본인의 판단을 우선시켰고 본인이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시간, 임금, 4대 보험 가입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였다. 최종적으로 파악된 취업자의 주업으로 살펴본 종사상 지위는 전체 취업자 888,578명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6.4%, 상용근로자 24.8%, 임시근로자 20.5%, 일용근로자 15.0%, 무급가족종사자 8.5%,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4.9%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취업자의 60.3%가 임금근로자(상용, 임시, 일용근로자)이며, 비임금근로자(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는 39.8%를 차지하고 있어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3-1-3〉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취업자 중 비중							임금/비임금 내 비중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임금 근로자	상용근로자	26.4	26.0	26.0	26.5	25.8	25.0	24.8	44.1	42.9	42.7	43.5	42.1	41.4	41.1
	임시근로자	15.2	16.0	18.0	19.1	19.8	20.6	20.5	25.4	26.5	29.5	31.3	32.4	34.2	34.0
	일용근로자	18.3	18.5	16.8	15.4	15.6	14.8	15.0	30.5	30.6	27.7	25.3	25.5	24.5	24.9
비임금 근로자	자영업자	27.3	28.0	29.4	28.5	28.3	28.0	26.4	67.8	70.9	75.0	73.1	72.9	70.8	66.5
	고용주	4.0	3.0	2.3	2.7	2.7	3.2	4.9	10.1	7.6	6.0	6.9	7.0	8.2	12.2
	무급가족 종사자	8.9	8.5	7.5	7.8	7.8	8.3	8.5	22.1	21.5	19.1	19.9	20.1	21.0	21.3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	-	-	-	-
추정 수		755,365	883,611	928,646	924,968	923,369	918,355	888,578	-	-	-	-	-	-	-

전체 취업자가 종사하고 있는 일자리의 사업내용을 파악한 결과, 농업, 임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장애인이 전체 취업자의 20.7%이며, 제조업 14.4%, 도매 및 소매업 9.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8.6%, 건설업 8.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사상 지위별 현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영업주의 45.0%, 무급가족종사자의 65.3%가 농업, 임업 및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데서 기인한다. 이에 반해 임금근로자는 제조업(20.9%), 건설업(11.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9.7%)의 순으로 종사하고 있다.

〈표 3-1-4〉 취업자의 일자리 산업 - 차수별, 종사상 지위별

(단위: %, 명)

구 분	차수별						종사상 지위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임금 근로자	자영 업주	무급가족 종사자
농업, 임업 및 어업	21.8	20.9	20.2	20.6	20.7	20.7	1.9	45.0	65.3
광업	0.0	0.0	0.0	0.0	0.0	0.0	0.0	0.0	0.0
제조업	15.5	15.5	16.8	16.5	14.9	14.4	20.9	5.2	2.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0.6	0.5	0.6	0.5	1.0	0.8	1.0	0.7	0.0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0.2	1.9	2.5	1.9	1.7	1.5	1.1	1.8	2.9
건설업	7.7	8.0	7.7	7.8	7.7	8.2	11.9	3.3	0.0
도매 및 소매업	9.5	10.5	10.2	10.6	10.0	9.6	6.8	14.4	12.0
운수업	5.1	6.3	5.5	6.0	5.3	5.2	5.0	7.1	0.0
숙박 및 음식점업	4.0	3.8	4.3	4.8	4.8	4.8	4.5	4.1	9.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8	1.7	1.8	1.4	1.3	1.2	1.7	0.4	0.0
금융 및 보험업	1.2	1.2	1.2	1.2	1.3	1.3	1.9	0.6	0.0
부동산 및 임대업	1.3	2.9	2.9	2.5	2.3	2.1	3.1	0.8	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7	0.4	0.5	0.5	0.7	0.6	0.7	0.7	0.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2.1	3.8	3.7	4.8	4.8	5.1	8.1	0.9	0.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6.7	7.0	6.4	5.6	5.5	5.8	9.7	0.0	0.0
교육 서비스업	1.9	2.2	2.6	2.7	2.9	3.3	5.0	1.0	0.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1	4.3	3.7	3.2	4.3	4.0	6.4	0.0	1.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6	1.8	1.9	1.9	1.9	1.5	1.6	1.9	0.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2.3	7.4	7.6	7.1	8.1	8.6	7.3	11.9	6.1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0.0	0.0	0.2	0.3	0.9	0.9	1.4	0.1	0.0
모름/응답거절	0.1	0.0	0.0	0.0	0.0	0.0	0.0	0.0	0.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883,611	928,646	924,968	923,369	918,355	888,578	535,500	277,797	75,282

주 1)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사용하였음

2) 1차년도에의 경우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사용하여 차수별 비교 제외

취업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단순노무종사자가 34.6%로 가장 많았으며, 농림어업 숙련근로자(19.4%),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10.8%)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51.2%가 단순노무종사자로 나타났으며,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13.2%, 사무종사자 9.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자영업주(44.6%)와 무급가족종사자(60.3%)는 농림어업 숙련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5〉 취업자의 직업 - 차수별, 종사상 지위별

(단위: %, 명)

구 분	차수별						종사상 지위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임금 근로자	자영 업주	무급가족 종사자
관리자	2.6	2.2	1.8	1.6	2.0	1.8	0.9	4.0	0.0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4.4	3.9	4.2	4.1	3.7	4.1	4.9	3.6	0.0
사무종사자	6.4	6.8	7.5	6.6	6.3	6.4	9.8	1.3	0.7
서비스종사자	9.2	5.7	6.0	6.1	8.1	7.1	7.0	7.3	7.0
판매종사자	8.6	9.4	9.5	9.0	8.3	8.1	4.0	14.8	12.8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8.1	20.6	19.6	19.8	19.1	19.4	0.6	44.6	60.3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12.6	11.6	11.9	11.6	11.2	10.8	13.2	8.4	2.4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5.0	9.0	8.0	9.3	6.9	7.7	8.4	8.4	0.0
단순노무종사자	33.1	30.7	31.4	31.9	34.4	34.6	51.2	7.5	16.7
모름/응답거절	0.1	0.0	0.0	0.0	0.0	0.0	0.0	0.0	0.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893,611	928,646	924,968	923,369	918,355	888,578	535,500	277,797	75,282

주 1)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사용하였음

2) 1차년도외의 경우 제5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사용하여 차수별 비교 제외

취업자 중 부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총 3.7%이며, 부업을 하는 사유로는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85.7%, '여가를 활용하기 위해' 8.7%, '퇴직할 경우를 대비하여' 3.7%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6〉 취업자의 부업 여부 및 부업을 하는 사유 - 차수별

(단위: %, 명)

변 수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부업 유무	부업이 있음	2.9	3.4	3.3	3.7	3.7	4.3	3.7
	부업이 없음	97.1	96.6	96.7	96.3	96.3	95.7	96.3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755,365	893,611	928,646	924,968	923,369	918,355	888,578
부업 사유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64.1	74.5	74.3	80.2	85.3	87.6	85.7
	여가활용	13.6	6.5	9.1	3.8	5.4	4.7	8.7
	해보고 싶은 일이어서	2.4	7.0	7.1	1.1	2.6	2.3	0.9
	사회나 타인을 돕기 위해서	1.1	1.8	2.4	6.4	0.9	2.1	1.0
	퇴직할 경우를 대비하여	9.8	2.6	6.0	8.5	4.4	2.5	3.7
	기타	8.1	4.4	1.0	0.0	1.4	0.8	0.0
	모름/응답거절	1.1	3.3	0.0	0.0	0.0	0.0	0.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2,010	30,323	30,560	34,149	34,502	39,049	33,276

주: '부업 사유'는 부업이 있는 사람에게만 질문함

취업자가 일자리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 1순위로 응답한 내용을 살펴보면, 취업자의 43.5%가 '임금이나 소득수준'을 최우선적으로 선택하였다. 다음으로는 '능력에 맞는 일(32.2%)', '일의 양(10.2%)', 오래 일할 수 있는 정도(6.1%) 등의 순으로 선택하였다.

〈표 3-1-7〉 취업자의 일자리에 대한 가치관(1순위)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임금이나 소득수준	50.3	44.0	42.4	47.8	47.5	45.4	43.5
일의 양(노동 강도)	7.5	8.6	10.2	10.2	11.5	11.5	10.2
일하는 시간(대)	2.4	1.8	1.7	1.5	2.3	2.5	2.3
능력에 맞는 일	21.9	28.0	26.5	26.8	26.5	27.1	32.2
정규직 여부	1.3	2.5	1.8	1.2	1.2	1.4	1.5
오래 일할 수 있는 정도	7.3	8.2	9.1	6.9	5.2	6.8	6.1
장애편의시설 설치 여부	0.3	0.2	0.2	0.1	0.1	0.2	0.1
장애인에 대한 이해 여부	1.3	0.8	1.3	1.1	1.1	1.1	0.8
대인관계	0.2	0.3	0.4	0.5	0.1	0.2	0.0
복리후생 지원 정도	0.1	0.1	0.0	0.1	0.2	0.0	0.2
이동거리(출퇴근 거리)	1.1	0.6	0.7	0.4	0.3	0.5	0.7
적성이나 흥미	1.9	2.0	1.8	0.9	1.7	1.1	0.9
시간적 여유	0.6	0.6	0.9	0.8	0.9	0.5	0.2
삶의 비전이나 꿈	1.5	1.3	1.2	1.2	0.8	0.6	0.8
일자리의 발전 가능성	1.1	0.8	0.9	0.4	0.4	0.9	0.3
일자리의 사회적 인지도	0.3	0.2	0.3	0.0	0.1	0.1	0.1
일자리의 규모	0.1	0.1	0.4	0.0	0.1	0.0	0.0
기타	0.9	0.1	0.1	0.1	0.0	0.0	0.1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755,365	893,611	928,646	924,968	923,369	918,355	888,578

취업자의 장애와 관련된 배려 여부를 살펴보면, 업무내용, 업무량, 업무기한, 작업순서 등 장애로 인해 직무조정과 관련하여 일자리에서 배려를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임금근로자의 경우 배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12.9%인데 반해 무급가족종사자는 31.8%에 달하고 있다. 시간제 근로, 출퇴근 시간의 조정, 근무일수(요일) 조정 등 장애로 인해 근무시간 조정과 관련하여 일자리에서 배려를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임금근로자의 경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9.7%인데 반해 무급가족종사자는 28.8%로 나타나고 있다. 업무를 수행할 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경우⁴⁾는 임금근로자 11.3%, 자영업주

4) '필요하나 도움 받지 못함'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나 출퇴근 지원, 사무보조 지원, 작업지원, 의사소통 지원, 일자리 내 이동지원, 일자리 내 일상생활 지원 등의 분야 중 타인으로부터 어느 하나도 도움 받지 못하는 인원으로 한정함

20.8%, 무급가족종사자 0.0%로 나타났으며, 업무 수행 시 작업보조기기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비율은 임금근로자 59.7%, 자영업주 57.6%, 무급가족종사자 100.0%이며, 사업장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하나라도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임금근로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8〉 취업자의 근무환경 및 배려 - 종사상 지위별

(단위: %, 명)

구 분		임금근로자				자영업주			무급가족 종사자
		상용	임시	일용	소계	자영업자	고용주	소계	
직무 조정	필요하고 배려받음	6.0	7.3	5.3	6.3	-	-	-	17.5
	필요하나 배려없음	4.8	6.7	9.4	6.6	-	-	-	14.3
	필요하지 않음	89.2	86.0	85.3	87.1	-	-	-	68.2
	전 체	100.0	100.0	100.0	100.0	-	-	-	100.0
	추정 수	220,171	182,216	133,113	535,500	-	-	-	75,282
근무 시간 조정	필요하고 배려받음	3.1	6.8	2.8	4.3	-	-	-	19.8
	필요하나 배려없음	3.4	4.9	9.3	5.4	-	-	-	9.0
	필요하지 않음	93.5	88.3	87.9	90.3	-	-	-	71.2
	전 체	100.0	100.0	100.0	100.0	-	-	-	100.0
	추정 수	220,171	182,217	133,112	535,500	-	-	-	75,282
타인의 도움	필요함	4.9	2.8	4.2	4.0	4.3	5.9	4.6	18.2
	필요하나 도움없음	11.6	0.0	20.8	11.3	22.7	13.2	20.8	0.0
	필요하지 않음	95.1	97.2	95.8	96.0	95.7	94.1	95.4	81.8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20,171	182,217	133,112	535,500	234,650	43,147	277,797	75,282
작업 보조 기기	필요함	3.6	1.2	1.5	2.2	2.1	3.1	2.3	4.8
	필요하나 사용못함	59.1	49.8	73.1	59.7	55.2	66.4	57.6	100.0
	필요하지 않음	96.4	98.8	98.5	97.8	97.9	96.9	97.7	95.2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20,171	182,217	133,112	535,500	234,650	43,147	277,797	75,282
편의 시설	필요 비율	22.9	14.8	7.6	16.3	3.9	9.6	4.8	8.3
	설치 비율	30.5	26.4	8.0	23.5	2.5	4.9	2.8	3.1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20,171	182,216	133,113	535,500	234,650	43,147	277,797	75,282

주: 모름/응답거절 제외한 분석임

일자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불만족하고 있는 비율은 임금근로자가 6.3%로 가장 낮은 반면에 무급가족종사자 6.5%, 자영업주 14.6%로 높아지고 있다. 임금/소득 불만족 비율이 임금근로자 33.5%, 자영업주 55.8%로 매우 높은 반면에 무급가족종사자는 15.6%로 낮은 편이며, 전반적으로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표 3-1-9〉 취업자의 일자리 불만족 비율 - 종사상 지위별

(단위: %, 명, 5점 척도)

구 분	임금근로자				자영업주			무급가족 종사자
	상용	임시	일용	소계	자영업자	고용주	소계	
임금/소득/무급상황	26.1	34.7	44.1	33.5	56.8	50.2	55.8	15.6
취업/사업의 안정성	8.0	16.7	32.4	17.0	22.0	16.6	21.1	8.3
일의 내용	4.1	5.4	14.9	7.2	14.0	11.9	13.7	9.7
근로환경	11.0	12.6	23.9	14.8	19.8	17.0	19.3	16.0
근로시간	9.9	10.8	14.3	11.3	13.6	40.0	17.7	23.7
개인의 발전가능성	8.1	14.2	20.8	13.3	20.0	15.8	19.4	14.2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4.3	4.7	7.3	5.2	7.5	5.8	7.2	5.5
인사고과의 공정성	4.0	5.7	11.8	6.5	-	-	-	-
복리후생	12.3	25.4	48.5	25.7	-	-	-	-
교육훈련 기회	9.5	14.9	22.4	14.5	-	-	-	-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수용정도	4.7	7.1	14.4	7.9	-	-	-	-
전반적 불만족 비율	2.7	5.9	12.7	6.3	14.6	15.1	14.6	6.5
추정 수	220,171	182,217	133,113	535,500	234,650	43,147	277,797	75,282
전반적 만족도 점수	3.35	3.25	2.97	3.22	3.01	3.04	3.02	3.07

주 1)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질문하였으며 불만족 비율은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으로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임

2) '인사고과의 공정성', '복리후생', '교육훈련 기회',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수용정도'에 대한 만족도는 임금근로자에게만 질문하였음

추가취업 희망자는 18(36)시간 미만 취업자(일시휴직자 제외) 중 경제적 이유(일거리가 없거나 사업부진 등)로 18(36)시간 일하였으면서 추가취업을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18시간 미만 추가취업 희망자의 비율은 10.4%, 36시간 미만 추가취업 희망자는 8.1%로 나타났다.

〈표 3-1-10〉 18(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취업 희망자 - 종사상 지위별

(단위: %, 명)

구 분	전 체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18시간 미만 취업자	추가취업 희망	10.4	9.2	15.9
	추가취업 비희망	89.6	90.8	84.1
	전 체	100.0	100.0	100.0
	추정 수	51,528	38,745	11,257
36시간 미만 취업자	추가취업 희망	8.1	11.3	6.7
	추가취업 비희망	91.9	88.7	93.3
	전 체	100.0	100.0	100.0
	추정 수	174,066	92,693	52,310

주: '추가취업 희망자'는 18(36)시간 미만 취업자(일시휴직자 제외) 중 경제적 이유(일거리가 없거나 사업부진 등)로 18(36)시간 미만 일하였으면서 추가취업을 희망하는 자임

〈표 3-1-11〉 취업자 주요 특성 비교 - 성별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남성	여성	전 체
종사상 지위 - 임금근로자 비율(%)	60.8	58.6	60.3
응답 수(명)	664,217	224,361	888,578
종사상 지위 - 자영업주 비율(%)	34.8	20.7	31.3
응답 수(명)	664,217	224,361	888,578
종사상 지위 - 무급가족종사자 비율(%)	4.3	20.7	8.5
응답 수(명)	664,217	224,361	888,578
산업 - 농업, 임업 및 어업 종사 비율(%)	19.6	24.2	20.7
응답 수(명)	664,217	224,361	888,578
산업 - 제조업 종사 비율(%)	15.2	12.1	14.4
응답 수(명)	664,217	224,361	888,578
직업 - 농림어업 숙련근로자 종사 비율(%)	18.6	21.7	19.4
응답 수(명)	664,217	224,361	888,578
직업 - 단순노무종사자 종사 비율(%)	33.1	39.2	34.6
응답 수(명)	664,217	224,361	888,578
부업 - 보유 비율(%)	3.6	4.1	3.7
응답 수(명)	664,217	224,361	888,578
36시간 추가취업 희망자 비율(%)	11.9	2.5	8.1
응답 수(명)	103,136	70,930	174,066

주 1)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사용하였음

2)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사용하였음

3) '36시간 추가취업 희망자'는 36시간 미만 취업자(일시휴직자 제외) 중 경제적 이유(일거리가 없거나 사업부진 등)로 36시간 미만 일하였으면서 추가취업을 희망하는 자임

〈표 3-1-12〉 취업자 주요 특성 비교 - 연령별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21~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81세	전 체
종사상 지위 - 임금근로자 비율(%)	89.4	81.6	73.4	63.6	42.6	60.3
응답 수(명)	27,535	77,680	177,577	280,848	324,937	888,578
종사상 지위 - 자영업주 비율(%)	0.0	11.6	19.9	30.4	45.6	31.3
응답 수(명)	27,535	77,680	177,577	280,848	324,937	888,578
종사상 지위 - 무급가족종사자 비율(%)	10.6	6.7	6.7	5.9	11.9	8.5
응답 수(명)	27,535	77,680	177,577	280,848	324,937	888,578
산업 - 농업, 임업 및 어업 종사 비율(%)	6.3	4.2	7.5	13.1	39.7	20.7
응답 수(명)	27,535	77,680	177,577	280,848	324,937	888,578
산업 - 제조업 종사 비율(%)	28.3	21.2	21.8	16.6	5.7	14.4
응답 수(명)	27,535	77,680	177,577	280,848	324,937	888,578
직업 - 농림어업 숙련근로자 종사 비율(%)	1.8	3.4	5.6	12.0	38.7	19.4
응답 수(명)	27,535	77,680	177,577	280,848	324,937	888,578
직업 - 단순노무종사자 종사 비율(%)	52.0	34.8	30.7	35.1	34.9	34.6
응답 수(명)	27,535	77,680	177,577	280,848	324,937	888,578
부업 - 보유 비율(%)	0.0	0.0	2.6	3.8	5.5	3.7
응답 수(명)	27,535	77,680	177,577	280,848	324,937	888,578
36시간 추가취업 희망자 비율(%)	0.0	17.9	9.0	11.7	5.7	8.1
응답 수(명)	7,363	7,268	21,560	48,595	89,280	174,066

주 1)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사용하였음

2)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사용하였음

3) '36시간 추가취업 희망자'는 36시간 미만 취업자(일시휴직자 제외) 중 경제적 이유(일거리가 없거나 사업부진 등)로 36시간 미만 일하였으면서 추가취업을 희망하는 자임

〈표 3-1-13〉 취업자 주요 특성 비교 - 장애정도별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중증	경증	전 체
종사상 지위 - 임금근로자 비율(%)	63.8	58.9	60.3
응답 수(명)	239,434	649,143	888,578
종사상 지위 - 자영업주 비율(%)	24.5	33.8	31.3
응답 수(명)	239,434	649,143	888,578
종사상 지위 - 무급가족종사자 비율(%)	11.7	7.3	8.5
응답 수(명)	239,434	649,143	888,578
산업 - 농업, 임업 및 어업 종사 비율(%)	18.5	21.6	20.7
응답 수(명)	239,434	649,143	888,578
산업 - 제조업 종사 비율(%)	16.0	13.9	14.4
응답 수(명)	239,434	649,143	888,578
직업 - 농림어업 숙련근로자 종사 비율(%)	15.6	20.8	19.4
응답 수(명)	239,434	649,143	888,578
직업 - 단순노무종사자 종사 비율(%)	40.7	32.4	34.6
응답 수(명)	239,434	649,143	888,578
부업 - 보유 비율(%)	2.5	4.2	3.7
응답 수(명)	239,434	649,143	888,578
36시간 추가취업 희망자 비율(%)	5.8	9.3	8.1
응답 수(명)	62,747	111,318	174,066

주 1)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사용하였음

2)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사용하였음

3) '36시간 추가취업 희망자'는 36시간 미만 취업자(일시휴직자 제외) 중 경제적 이유(일거리가 없거나 사업부진 등)로 36시간 미만 일하였으면서 추가취업을 희망하는 자임

〈표 3-1-14〉 취업자 주요 특성 비교 - 장애유형별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신체외부장애		감각장애		정신적	신체 내부	전 체
	지체	지체 제외	시각	시각 제외			
종사상 지위 - 임금근로자 비율(%)	58.3	61.7	58.9	59.9	80.0	59.8	60.3
응답 수(명)	548,962	40,183	95,453	110,271	61,091	32,619	888,578
종사상 지위 - 자영업주 비율(%)	34.0	31.4	35.2	28.6	3.4	34.1	31.3
응답 수(명)	548,962	40,183	95,453	110,271	61,091	32,619	888,578
종사상 지위 - 무급가족종사자 비율(%)	7.7	7.0	5.9	11.5	16.5	6.2	8.5
응답 수(명)	548,962	40,183	95,453	110,271	61,091	32,619	888,578
산업 - 농업, 임업 및 어업 종사 비율(%)	21.1	14.8	20.9	25.3	16.7	14.1	20.7
응답 수(명)	548,962	40,183	95,453	110,271	61,091	32,619	888,578
산업 - 제조업 종사 비율(%)	13.5	10.4	10.9	16.6	32.9	4.3	14.4
응답 수(명)	548,962	40,183	95,453	110,271	61,091	32,619	888,578
직업 - 농림어업 숙련근로자 종사 비율(%)	20.3	13.5	20.3	22.8	10.9	14.1	19.4
응답 수(명)	548,962	40,183	95,453	110,271	61,091	32,619	888,578
직업 - 단순노무종사자 종사 비율(%)	29.8	42.0	29.5	43.8	75.0	15.2	34.6
응답 수(명)	548,962	40,183	95,453	110,271	61,091	32,619	888,578
부업 - 보유 비율(%)	4.1	3.2	5.2	3.3	0.0	3.4	3.7
응답 수(명)	548,962	40,183	95,453	110,271	61,091	32,619	888,578
36시간 추가취업 희망자 비율(%)	9.9	0.7	7.3	14.4	0.0	0.0	8.1
응답 수(명)	93,401	12,364	16,666	24,303	20,540	6,792	174,066

주 1)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사용하였음

2)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사용하였음

3) '36시간 추가취업 희망자'는 36시간 미만 취업자(일시휴직자 제외) 중 경제적 이유(일거리가 없거나 사업부진 등)로 36시간 미만 일하였으면서 추가취업을 희망하는 자임

제2절 임금근로자 특성

1. 임금근로자 인적구성

임금근로자의 인적구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 75.4%, 여성 24.6%, 연령별로는 21~29세 4.6%, 30~39세 11.8%, 40~49세 24.3%, 50~59세 33.4%, 60~81세 25.8%로 나타났다. 장애정도별로는 중증장애인 28.5%, 경증장애인 71.5%이며,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59.8%)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신체내부장애인(4.6%)이 가장 적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46.5%, 기타 시도 33.9%, 광역시권 19.6% 순이며,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17.0%), 고졸(38.5%), 중졸 이하(44.6%)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 인구분포와 비교해보면, 성별에서는 남성, 연령별로는 60세 미만, 장애정도별로는 경증,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 감각장애, 지역별로는 수도권, 학력별로는 고졸 이상의 비중이 전체 인구에서의 비중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1〉 임금근로자의 인적구성

		(단위: %, 명)	
변 수	구 분	비 율	장애인 인구분포
성별	남성	75.4	59.6
	여성	24.6	40.4
연령별	21~29세	4.6	2.9
	30~39세	11.8	7.0
	40~49세	24.3	14.3
	50~59세	33.4	23.8
	60~81세	25.8	52.0
장애정도별	중증	28.5	41.1
	경증	71.5	58.9
장애유형별	신체외부장애	지체장애	59.8
		지체 외	4.6
	감각장애	시각장애	10.5
		시각 외	12.3
	정신적 장애		9.1
	신체내부장애		3.6
	수도권		46.5
지역별	광역시권		19.6
	기타 시도		33.9
	중졸 이하		44.6
학력별	고졸		38.5
	대졸 이상		17.0
전 체		100.0	100.0
추정 수		535,500	2,208,315

2. 취업과정

현재의 일자리에 근무하게 된 주된 이유로 64.2%가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이 일자리 말고는 대안이 없어서(9.5%)', '본인의 장애정도에 부합하는 일이라서(8.1%)'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3-2-2〉 임금근로자의 현재 일자리 근무사유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	66.4	65.6	66.5	65.0	65.2	64.3	64.2
본인의 장애정도에 부합하는 일이라서	5.7	5.4	6.0	6.6	7.6	7.9	8.1
지식, 기술, 전공 등을 활용하기 위해	2.4	2.2	2.5	2.6	2.3	2.4	2.5
근로조건이 좋아서	1.6	2.1	2.5	3.8	4.4	3.6	4.3
근무환경이 좋아서	0.6	0.7	0.6	0.8	0.8	0.5	0.6
장애에 대한 차별, 선입견 없어서	1.0	1.3	1.0	1.2	1.1	1.3	1.3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0.9	0.9	1.0	1.1	0.9	1.0	1.3
국가, 사회에 보탬이 되기 위해	0.4	0.2	0.4	0.2	0.1	0.2	0.2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1.4	1.6	1.3	1.8	1.8	2.1	2.0
가족 친지, 지인들의 권유로	4.8	5.2	4.8	4.5	4.4	4.3	4.6
창업할 능력과 상황이 안돼서	0.2	0.3	0.3	0.6	0.7	0.9	0.6
이 일자리 말고는 대안이 없어서	12.3	12.2	11.3	10.3	9.6	10.5	9.5
기타	1.1	1.1	0.6	0.6	0.5	0.6	0.5
모름/응답거절	0.0	0.0	0.0	0.0	0.0	0.0	0.0
특별히 없음	1.1	1.1	1.1	0.9	0.0	0.5	0.5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451,708	540,499	564,546	564,380	564,919	554,884	535,500

근속기간은 입사연월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는데 이 때 정확한 월을 기억하지 못해 계절로 대신 응답한 경우 봄 4월, 여름 7월, 가을 10월, 겨울 12월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83.2개월로 나타났다.

〈표 3-2-3〉 임금근로자의 현재 일자리 근속기간 - 차수별

(단위: 개월,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근속기간	73.0	68.6	66.9	70.4	74.3	79.3	83.2
표준오차	0.139	0.118	0.111	0.112	0.112	0.116	0.121
응답 수	448,486	537,144	563,782	563,616	564,080	554,884	535,500

주: '근속기간'은 봄=4월, 여름=7월, 가을=10월, 겨울=12월로 처리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름/응답거절 제외한 분석임

근속기간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1년 미만 근속비율은 13.7%, 3년 이상 근속비율 64.4%, 10년 이상 근속비율은 21.7%로 나타났다.

〈표 3-2-4〉 임금근로자의 현재 일자리 근속기간(범주)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1년 미만	24.5	19.6	22.2	18.5	16.7	13.3	13.7
1년 이상 3년 미만	26.3	31.7	27.2	24.6	25.2	26.1	21.9
3년 이상 10년 미만	27.9	29.9	32.6	37.5	37.7	39.3	42.7
10년 이상	20.7	18.2	17.8	19.2	20.3	21.2	21.7
모름/응답거절	0.7	0.6	0.1	0.1	0.1	0.0	0.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451,708	540,499	564,546	564,380	564,919	554,884	535,500

주: '근속기간'은 봄=4월, 여름=7월, 가을=10월, 겨울=12월로 처리하여 분석하였음

〈표 3-2-5〉 임금근로자의 현재 일자리 취업경로 및 채용방법 - 종사상 지위별

(단위: %, 명)

구 분		전 체	종사상 지위		
			상용	임시	일용
취업경로	공공기관의 취업알선	14.1	9.8	21.5	11.1
	민간기관의 취업알선	3.9	3.9	3.8	4.2
	학교의 소개 및 추천	1.7	3.0	1.4	0.0
	직업훈련기관의 소개 및 추천	0.9	1.4	0.5	0.8
	취업박람회 등의 행사 참여	0.0	0.0	0.0	0.0
	가족, 친구, 선후배 등 지인의 소개나 추천	49.2	45.9	48.2	55.9
	TV, 신문, 취업정보지 등 구직광고를 통해	6.1	9.4	5.6	1.1
	직접 사업체 방문	6.2	6.9	6.3	5.1
	전 일자리에서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을 통해	13.1	11.9	9.9	19.4
	기타	4.7	7.7	2.8	2.4
	모름/응답거절	0.0	0.0	0.0	0.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535,500	220,171	182,216	133,112
채용방법	공개채용	23.3	14.8	4.2	15.7
	특별채용	5.6	4.2	1.1	4.0
	장애인 구분모집	9.7	16.6	4.5	10.7
	별도의 채용과정 없음	60.8	63.7	89.4	68.9
	기타	0.6	0.8	0.9	0.7
	모름/응답거절	0.0	0.0	0.0	0.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20,171	182,216	133,112	535,500

현재 일자리에 근무하게 된 취업경로에 대해 '가족, 친구, 선후배 등 지인의 소개나 추천' 49.2%, '공공기관의 취업알선' 14.1%, '전 일자리에 근무상 알게 된 사람을 통해' 13.1% 순으로 나타났으며 채용방법에 있어서 별도의 채용과정이 없었던 경우가 60.8%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이 일자리(직장)에 입사하기 위해 정보수집이나 훈련, 기술습득, 자격증 취득 등의 취업준비와 이력서 작성, 면접 등 구직에 소요된 기간을 모두 합친 취업소요기간을 질문하였다. 즉시 취업한 경우나 취업한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0개월로 간주하였을 때 전체 임금근로자의 평균 취업소요기간은 1.9개월로 나타났으며, 상용근로자(2.5개월), 임시근로자(1.5개월), 일용근로자(1.4개월)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6〉 임금근로자의 현재 일자리 취업소요기간 - 종사상 지위별

(단위: 개월, 명)

구 분	전 체	종사상 지위		
		상용	임시	일용
취업소요기간	1.9	2.5	1.5	1.4
표준오차	0.006	0.011	0.007	0.009
응답 수	527,952	216,677	179,244	132,031

주: 모름/응답거절 제외한 분석임

〈표 3-2-7〉 임금근로자의 현재 일자리 취업에 도움이 되는 항목(1순위) - 종사상 지위별

(단위: %, 명)

구 분	전 체	종사상 지위		
		상용	임시	일용
전문지식이나 기술	12.6	18.0	9.3	8.2
경력	21.2	20.5	19.2	24.9
친분이나 추천	40.8	38.3	44.1	40.3
신체적 능력(힘)	16.1	9.0	19.6	23.1
최종학력, 성적	2.9	6.2	1.1	0.0
직업훈련이나 인턴경험	0.9	1.6	0.3	0.4
잠재능력(발전가능성)	2.1	2.1	2.8	1.3
외국어능력	0.0	0.0	0.0	0.0
기타	3.4	4.3	3.7	1.6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528,937	217,106	179,801	132,030

주 1) 1순위에 대해서는 '없음'을 허용하지 않음

2) 모름/응답거절 제외한 분석임

현재 일자리에 취업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된 항목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40.8%가 '친분(인적 네트워크)이나 추천'으로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력(21.2%)', '신체적 능력(16.1%)', '전문지식이나 기술(12.6%)' 순으로 나타났다.

3. 일자리 특성

임금근로자의 72.9%는 민간회사나 개인사업체에 종사하고 있으며, 8.5%는 정부 또는 지자체 창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8〉 임금근로자의 현재 사업체 종류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72.8	71.3	72.6	75.0	73.0	72.9
외국인회사	0.4	0.3	0.1	0.5	0.6	0.0
정부 외 공공기관	4.6	4.3	3.7	4.9	6.2	5.5
(재단, 사단)법인단체	3.2	5.4	5.0	4.5	5.2	5.2
정부기관(공무원 등)	5.5	7.0	5.8	4.4	4.6	4.2
특정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	1.9	2.1	2.2	2.1	2.9	2.2
시민단체, 종교단체	1.5	1.5	1.7	1.3	1.6	1.4
정부 또는 지자체 창출 일자리	8.3	7.1	8.5	6.4	5.9	8.5
기타	1.7	0.9	0.5	0.8	0.0	0.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540,499	564,546	564,380	564,919	554,884	535,500

주: 2차년도부터 조사되었음

〈표 3-2-9〉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직접고용	81.8	82.4	81.9	80.8	80.7	82.7
간접고용(파견, 용역 등)	13.6	14.0	13.8	14.9	15.4	13.8
특수고용(일용대기, 독립도급, 재택 등)	4.6	3.6	4.3	4.3	4.0	3.5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540,499	564,546	564,380	564,919	554,884	535,500

주: 2차년도부터 조사되었음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직접고용은 82.7%이며, 파견, 용역 등의 간접고용 13.8%,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등 개인적으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한만큼 소득을 얻는 특수직종 종사자⁵⁾로 고용된 비율은 3.5%로 나타났다.

재직 중인 일자리의 규모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사업체는 하나의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 또는 수 개의 장소에서 수 개의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을 때 본사를 포함한 사업장 전체를 의미한다. 사업장은 당해 사업체에 속한 본사, 지점, 공장, 영업소 등과 같이 하나의 경영조직으로 유기적으로 서로 관련해 일체의 경영활동이 행해지는 개별적인 시설, 장소 등을 의미한다. 사업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의 63.6%가 50인 미만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0인 미만 사업체에 근무하는 비율은 73.7%에 이르고 있다.

〈표 3-2-10〉 임금근로자의 현재 일자리 사업체 규모

(단위: %, 명)

구 분	사업체	사업장
1~4인 이하	16.4	19.9
5~49인	47.2	57.5
50~99인	10.1	8.9
100~199인	6.6	5.5
200~299인	2.5	2.0
300~999인	4.9	3.5
1,000인 이상	10.5	1.3
모름/응답거절	1.8	1.5
전 체	100.0	100.0
추정 수	535,500	535,500

5) 특수직종 종사자는 일반적으로 고용관계법 상 자영업주의 지위를 갖지만 본 조사에서는 해당 직종의 특성이 임금근로의 특성과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임금근로자의 영역에 포함시켰다.

4. 근로조건 및 실태

임금근로자의 교대제 여부를 살펴보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87.5%는 교대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11〉 임금근로자의 교대제 여부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교대제 하지 않음	87.2	89.9	87.3	87.4	87.4	88.1	87.5
2조 2교대제	9.6	8.1	11.1	10.5	10.5	9.9	10.1
3조 3교대제	1.3	0.9	1.3	1.7	1.0	1.2	1.4
3조 2교대제	0.1	0.2	0.1	0.1	0.0	0.0	0.2
4조 3교대제	0.4	0.2	0.1	0.3	0.6	0.4	0.4
4조 2교대제	0.3	0.1	0.0	0.0	0.2	0.0	0.1
기타	0.9	0.6	0.0	0.0	0.4	0.5	0.3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451,708	540,499	564,546	564,380	564,919	554,884	535,500

전체 임금근로자의 81.7%는 전일제 근로를 하고 있으며, 18.1%는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12〉 임금근로자의 근무시간 형태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전일제 근로	85.3	84.7	84.5	84.0	83.7	82.2	81.7
시간제 근로	14.7	15.1	15.3	15.8	16.1	17.6	18.1
모름/응답거절	0.1	0.2	0.2	0.2	0.2	0.2	0.1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451,708	540,499	564,546	564,380	564,919	554,884	535,500

현재 일자리에서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는 임금근로자 97,012명을 대상으로 시간제 근로를 하는 주된 이유를 질문한 결과, '돈이 급해서'가 3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전일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31.7%)',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서(13.6%)'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근로자 가운데 54.7%가 전일제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임시근로자(60.0%)의 비율이 일용근로자(50.3%), 상용근로자(37.4%)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3-2-13〉 임금근로자의 시간제 근로 주된 이유 및 전일제 전환 희망 여부 - 종사상 지위별
(단위: %, 명)

변 수	구 분	전 체	종사상 지위		
			상용	임시	일용
시간제 근로 이유	지금 직장에서 퇴직(정리해고) 후 재취업되었기 때문	1.8	15.1	0.7	1.2
	전일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	31.7	7.0	35	31.3
	이 직장에서의 전일제로의 전환 가능성이 있기 때문	0.0	0.0	0.0	0.0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서	13.6	18.4	14.5	11.7
	가사	1.2	0.0	1.8	0.5
	육아, 자녀 돌봄	0.5	0.0	1.0	0.0
	많은 임금을 보장하므로	0.4	0.0	0.8	0.0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1.1	0.0	2.1	0.0
	단기간만 일하길 원했기 때문	0.5	0.0	0.9	0.0
	돈이 급해서	35.7	28.8	33.5	39.7
	장애로 인해 이런 일 말고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5.0	0.0	4.4	6.7
	장애 이외의 건강문제로 이런 일 말고는 할 수 없었기 때문	0.5	0.0	0.0	1.2
	일의 성격 상 계절적이어서	5.6	7.1	4.4	6.9
	기타	2.3	23.6	0.9	0.7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97,012	6,281	52,009	38,722
전일제 전환 희망 여부	매우 희망함	16.0	21.8	20.5	9.0
	희망함	38.7	15.6	39.5	41.3
	희망하지 않음	40.9	47.6	35.6	46.8
	전혀 희망하지 않음	4.5	15	4.4	2.9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97,012	6,281	52,009	38,722

주: 시간제 근로인 경우에만 질문함

〈표 3-2-14〉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근무일수, 일평균 근무시간 - 차수별
(단위: 개별단위,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월평균 근무일수(일)	20.0	20.4	20.6	20.6	20.2	20.4	20.3
표준오차	0.009	0.007	0.007	0.006	0.007	0.007	0.007
응답 수	450,760	540,499	564,546	560,055	564,919	554,414	535,084
일평균 근무시간(시간)	8.8	9.0	9.1	9.0	9.0	8.7	8.7
표준오차	0.004	0.005	0.005	0.005	0.005	0.005	0.005
응답 수	451,240	540,499	564,546	564,380	564,919	554,884	535,500

주: 모름/응답거절 제외한 분석임

초과근로일이나 초과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한 전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근무일수는 20.3일이며, 일평균 근무시간은 8.7시간으로 나타났다

초과근로란 소정근로 이외의 근로시간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로시간이나, 회사와 문서상 또는 암묵적으로 계약한 근로시간, 관습에 의해 정해진 근로시간 등으로 규정하였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소정근로 외 초과근로를 하는 비율은 7.2%로 나타났다.

〈표 3-2-15〉 임금근로자의 초과근로 여부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초과근로 함	19.2	13.8	10.8	9.8	9.1	7.3	7.2
초과근로 하지 않음	80.7	86.2	89.2	90.2	90.9	92.7	92.8
모름/응답거절	0.1	0.0	0.0	0.0	0.0	0.0	0.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451,708	540,499	564,546	564,380	564,919	554,884	535,500

초과근로를 한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1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7.9시간, 한달 평균 초과근로수당은 20.2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3-2-16〉 임금근로자의 1주 평균 초과근로시간, 한달 평균 초과근로수당 - 차수별

(단위: 개별단위,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1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시간)	8.2	9.2	9.2	8.8	9.1	8.7	7.9
표준오차	0.026	0.032	0.029	0.030	0.031	0.027	0.025
응답 수	85,720	73,655	60,914	55,320	51,607	40,470	38,394
한달 평균 초과근로수당(만원)	18.0	13.9	16.8	18.4	17.3	18.3	20.2
표준오차	0.107	0.069	0.086	0.090	0.093	0.121	0.114
응답 수	81,063	73,039	57,870	54,322	49,932	40,271	35,025

주: 초과근로를 한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하였으며 모름/응답거절 제외한 분석임

본 조사에서 파악한 결근일수는 근무하기로 되어 있으나 근무하지 못한 날을 의미하는데 오전 근무나 오후 근무만 한 경우 0.5일로 산정하였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조사일 전월 결근이 있었던 경우는 3.1%로 나타났다.

〈표 3-2-17〉 임금근로자의 지난 달 본인의 건강으로 인한 결근 유무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결근 없음	87.0	89.2	94.1	93.2	95.3	96.3	96.9
결근 있음	12.9	10.7	5.8	6.6	4.7	3.7	3.1
모름/응답거절	0.1	0.1	0.0	0.2	0.0	0.0	0.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451,708	540,499	564,546	564,380	564,919	554,884	535,500

전체 임금근로자 중 62.2%가 월급제(호봉제)로 임금을 지급받는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일당제(19.3%), 시간급제(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금지급주체는 현재 일하는 직장에서 지급받는 경우가 전체 임금근로자의 84.9%로 가장 많았으며 파견이나 용역업체로부터 받는 경우는 11.9%로 나타났다.

〈표 3-2-18〉 임금근로자의 임금지급방식 및 주체 - 차수별
(단위: %, 명)

변 수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지급방식	연봉제	6.5	6.0	5.4	5.1	5.7	5.6	5.1
	월급제(호봉제)	53.6	60.9	62.1	62.5	63.8	63.5	62.2
	주급제/격주제	0.7	0.4	0.1	0.1	0.1	0.1	0.1
	일당제	26.8	22.7	22.3	19.2	19.3	19.3	19.3
	시간급제	3.9	3.8	4.9	7.2	5.8	6.3	8.0
	도급제	1.6	1.2	0.8	1.5	0.7	1.0	0.7
	기본급 없이 능력이나 실적에 따라	4.3	4.2	4.1	4.1	4.5	4.3	4.5
	기타	2.6	0.9	0.4	0.3	0.1	0.0	0.2
지급주체	현재 일하는 직장	79.4	83.4	85.9	86.1	84.8	84.3	84.9
	파견업체	2.3	2.0	1.9	2.7	2.5	2.6	1.7
	용역업체	14.0	12.4	10.7	10.3	11.5	12.7	11.9
	기타	4.3	2.2	1.5	0.9	1.2	0.3	1.5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451,708	540,499	564,546	564,380	564,919	554,884	535,500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 임금은 139.2만원(세후 기준)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 192.5만원, 임시근로자 94.2만원, 일용근로자 112.3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3-2-19〉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 차수별, 종사상 지위별

(단위: 만원,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상용근로자	171.6	166.7	168.6	171.6	182.6	186.8	192.5
임시근로자	74.9	82.1	85.5	89.3	90.6	92.0	94.2
일용근로자	80.0	83.1	89.8	91.9	100.3	108.4	112.3
월평균 임금	119.1	118.9	122.2	126.0	131.8	135.3	139.2
표준오차	0.135	0.119	0.115	0.116	0.119	0.126	0.129
응답 수	445,369	534,521	563,586	559,310	564,919	553,825	534,778

주: 모름/응답거절 제외된 분석임

일자리에서 임금을 체불한 경험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 임금근로자의 0.3%가 체불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3-2-20〉 임금근로자의 임금 체불 유무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현재 임금체불 있음	2.6	2.5	2.5	2.1	0.7	0.8	0.3
현재 임금체불 없음	97.3	97.5	97.5	97.9	99.3	99.2	99.7
모름/응답거절	0.1	0.0	0.0	0.0	0.0	0.0	0.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451,708	540,499	564,546	564,380	564,919	554,884	535,500

현 일자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리후생 항목들에 대해 하나도 제공되는 것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31.9%로 나타났다. 일자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리후생 항목들을 살펴보면, 4대 보험인 국민건강보험 57.8%, 고용보험 53.2%, 산재보험 51.7%, 국민연금은 47.3%이며, 법정퇴직금 31.3%, 식사비용보조가 26.5%, 상여금 21.5%, 유급휴일·휴가 18.8%로 나타났다.

〈표 3-2-21〉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제공 복리후생항목(중복응답)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국민연금	39.9	40.9	44.9	46.3	46.2	45.8	47.3
특수직역연금	2.1	2.3	1.9	2.4	2.0	2.6	2.0
국민건강보험	45.9	50.8	53.4	54.6	55.3	55.0	57.8
고용보험	42.3	45.7	49.4	50.1	50.2	51.1	53.2
산재보험	38.4	42.9	47.4	47.9	48.2	49.2	51.7
법정퇴직금	22.2	23.1	26.2	28.4	28.8	28.7	31.3
상여금	20.4	20.3	21.2	21.8	21.2	19.8	21.5
유급휴일, 휴가	15.8	16.0	16.4	17.9	17.8	18.4	18.8
병가	11.4	10.7	11.2	10.8	10.1	10.2	10.5
생리휴가	5.8	6.3	5.2	4.0	3.7	3.9	4.3
출산휴가	6.3	6.7	5.3	4.9	4.6	5.2	5.8
육아휴직	5.6	5.7	4.0	3.5	3.4	4.2	5.0
휴업보상	3.1	2.8	0.9	1.4	0.6	0.9	1.3
식사비용보조	24.3	26.4	23.7	23.9	26.4	25.3	26.5
학비보조	8.2	7.9	5.5	5.6	5.1	5.8	5.8
주택마련 지원	2.5	2.3	1.1	1.2	1.0	0.9	0.7
경조사 지원	8.2	8.8	5.8	6.2	5.7	6.5	6.6
휴양비용 지원	6.3	6.2	3.2	4.1	4.3	4.2	4.0
모름/응답거절	0.0	0.3	0.1	0.0	0.0	0.0	0.0
제공되는 것이 없음	42.4	38.7	37.9	36.9	35.1	34.8	31.9
전 체	-	-	-	-	-	-	-
추정 수	451,708	540,499	564,546	564,380	564,919	554,884	535,500

5. 직장생활 및 이직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전공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대학교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임금근로자에게 응답받은 결과, 부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6.5%로 나타났다. 모든 임금근로자에게 질문한 적성 부합 여부에서는 75.1%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적성에 부합한다고 응답하였다.

일자리에서 근무하면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신체기능의 제한(22.4%)', '근로조건의 문제(21.7%)',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움(19.3%)'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애로사항의 장애 기인 여부에 대해 35.8%가 장애로 인한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3-2-22〉 임금근로자 업무의 전공/적성 부합 여부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전공 부합 여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13.3	11.8	13.5	11.8	12.1	12.5	11.5
	부합하지 않는 편이다	17.3	15.3	15.2	14.9	17.3	20.1	21.2
	부합하는 편이다	50.2	53.4	48.5	52.8	52.8	50.2	49.4
	매우 부합한다	19.2	19.5	22.8	20.5	17.8	17.2	17.9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73,843	85,748	98,906	104,020	97,030	102,020	99,550
적성 부합 여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4.7	4.5	4.1	3.9	3.4	3.7	3.0
	부합하지 않는 편이다	29.5	26.0	23.6	22.0	23.3	23.2	21.8
	부합하는 편이다	58.2	61.3	63.9	65.0	64.9	65.1	66.5
	매우 부합한다	7.4	7.8	8.0	8.8	8.1	8.0	8.6
	모름/응답거절	0.2	0.4	0.3	0.3	0.3	0.1	0.1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451,708	540,499	564,546	564,380	564,919	554,884	535,500

주: '전공 부합 여부'는 최종학력이 대학교 재학 이상인 경우에만 질문함

〈표 3-2-23〉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근무 시 애로사항(1순위)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신체기능의 제한	23.5	21.6	22.1	22.1	24.2	23.5	22.4
이동능력의 제한	2.0	3.1	2.0	1.8	2.3	1.1	1.7
의사소통의 제한	5.2	3.8	3.2	3.5	4.1	3.0	4.3
심리적 불안감이나 초조함	2.3	2.6	2.1	1.9	2.0	2.3	2.0
장애 이외의 질병이나 사고	2.9	2.1	2.2	1.0	1.0	2.0	1.5
근로조건의 문제	12.4	17.2	18.9	18.9	19.4	20.6	21.7
근무환경의 문제	4.8	3.6	3.1	2.9	2.7	2.8	2.7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움	15.8	18.0	17.8	19.0	19.6	18.2	19.3
출퇴근의 어려움	7.3	6.6	7.4	8.0	7.0	9.3	9.5
대인관계 문제	1.8	1.9	3.5	4.3	2.3	3.2	2.8
장애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	1.5	1.3	1.0	1.0	0.4	0.6	0.5
적성, 흥미, 전공에 부합하지 않음	2.0	0.9	0.8	0.4	0.8	0.8	0.4
고용계약기간이 다 되어옴	3.7	2.9	3.7	4.0	3.8	5.0	3.4
회사의 경영 악화	2.4	3.9	3.2	3.1	1.5	2.2	1.8
지속적 근무의 어려움	3.8	4.0	4.9	3.3	4.3	2.1	2.6
개인적 사유 발생	1.4	2.1	1.6	1.2	1.0	0.6	1.1
기타	7.3	4.5	2.5	3.6	3.5	2.7	2.4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451,708	540,499	564,546	564,380	564,919	554,884	535,500
장애로 인함	46.0	41.0	36.9	37.2	37.0	36.3	35.8
장애로 인한 것이 아님	54.0	59.0	63.1	62.8	63.0	63.7	64.2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451,708	540,499	564,546	564,380	564,919	554,884	535,500

주: 1순위에 대해서는 '없음'을 허용하지 않음

현 일자리(직장)에서 폐업이나 구조조정의 위기가 없어도 지속적으로 근무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2.4%로 나타났다.

〈표 3-2-24〉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이직의사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지속근무 의향 있음	87.9	94.9	94.8	95.0	96.7	97.7	97.6
지속근무 의향 없음	12.0	5.0	5.2	5.0	3.3	2.3	2.4
모름/응답거절	0.1	0.0	0.0	0.0	0.0	0.0	0.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451,708	540,499	564,546	564,380	564,919	554,884	535,500

〈표 3-2-25〉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이직사유(1순위)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장애로 인해 업무를 수행 못함	14.8	20.6	14.8	6.1	21.0	5.5	8.9
장애 이외의 질병이나 사고	4.3	1.0	10.5	0.0	0.0	7.0	10.5
근로조건의 문제	20.3	13.8	7.8	10.4	10.6	11.4	19.1
근무환경의 문제	0.8	0.0	0.0	5.3	0.0	0.0	19.2
더 나은 일자리로 이직하기 위해	11.7	12.9	4.9	7.6	17.5	8.6	0.0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움	13.6	15.2	17.8	22.2	5.5	19.6	0.0
출퇴근의 어려움	2.5	1.6	3.3	2.9	4.5	0.0	5.1
대인관계 문제	2.4	5.0	0.0	0.3	4.4	6.1	10.8
장애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	0.4	0.0	0.0	0.0	0.0	0.0	5.9
적성, 흥미, 전공에 부합하지 않음	2.4	0.0	7.7	7.0	0.0	3.3	0.0
고용계약기간이 다 되었음	8.4	10.0	21.0	23.0	34.0	31.8	10.2
회사의 경영 악화	6.2	2.6	0.0	0.0	2.6	4.0	8.2
개인적 사유 발생	0.0	0.0	2.0	8.0	0.0	2.7	2.2
지속적인 근무의 어려움	7.7	3.1	3.2	7.1	0.0	0.0	0.0
창업을 위해	3.0	1.7	3.3	0.0	0.0	0.0	0.0
기타	1.6	12.6	3.6	0.0	0.0	0.0	0.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54,419	27,251	29,611	28,495	18,423	12,952	12,673
장애로 인함	41.3	29.0	27.3	16.8	23.5	11.6	14.7
장애로 인한 것이 아님	58.7	71.0	72.7	83.2	76.5	88.4	85.3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54,419	27,251	29,611	28,495	18,423	12,952	12,673

주 1) 지속근무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2) 1순위에 대해서는 '없음'을 허용하지 않음

일자리에서 지속 근무할 의향이 없다고 한 응답자에게 그 사유를 질문하였다. 1순위로 선택한 사유에 대해 이직의사가 있는 사람 중 19.2%가 '근무환경의 문제'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근로조건의 문제(19.1%)', '대인관계 문제(10.8%)', '장애 이외의 질병이나 사고(10.5%)'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1순위로 선택한 이직사유가 장애로 인한 것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14.7%로 나타났다.

일자리에서 지속 근무할 의향이 없다고 한 응답자에게 다른 일자리를 얻기 위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여기서 구직활동이란 취업/창업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활동 가령, 구직등록,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시험 응시, 일자리 상담 및 의뢰, 사업체 방문 등을 의미한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2.5%로 나타났다.

〈표 3-2-26〉 임금근로자의 이직을 위한 구직활동 여부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구직활동 하고 있음	24.9	15.0	24.2	12.7	25.5	2.3	12.5
구직활동 하고 있지 않음	75.1	85.0	75.8	87.3	74.5	97.7	87.5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54,419	27,251	29,611	28,495	18,423	12,952	12,673

주: 지속근무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6. 근무환경 - 장애

일자리에서 직무조정과 관련하여 배려가 필요한지를 질문한 결과, 전체 임금근로자의 12.9%가 직무조정 관련 배려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 중 51.2%가 필요하지만 배려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27〉 임금근로자의 직무조정 관련 배려 필요 여부 및 배려 여부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필요함	34.5	22.3	20.0	17.9	15.4	14.6	12.9
배려 받음	36.6	36.5	39.9	36.2	43.1	44.5	48.8
필요하지만 배려 받지 못함	63.4	63.5	60.1	63.8	56.9	55.5	51.2
소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필요하지 않음	65.3	77.7	80.0	82.1	84.6	85.4	87.1
모름/응답거절	0.3	0.1	0.0	0.0	0.0	0.0	0.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451,708	540,499	564,546	564,380	564,919	554,884	535,500

현재 일자리에서 직무조정과 관련하여 배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에게 필요한 배려 내용을 중복으로 응답받은 결과, 전체 응답자의 49.6%가 '업무내용의 조정', 34.5%는 '업무량의 조정'을 선택하였다.

〈표 3-2-28〉 임금근로자의 필요한 직무조정 관련 배려 내용(중복응답)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업무내용의 조정	50.7	54.2	62.5	52.7	60.1	50.9	49.6
업무량의 조정	34.1	40.3	42.1	43.5	42.3	51.1	34.5
업무기한의 연장	9.8	9.9	7.9	4.8	3.5	5.2	7.8
작업순서 조정	4.8	4.0	4.3	1.9	1.9	2.2	2.2
작업장 위치 변경	9.7	5.5	6.2	7.9	4.9	2.7	2.0
기타	6.7	3.9	1.4	3.8	2.4	2.2	1.7
전 체	-	-	-	-	-	-	-
추정 수	155,733	120,322	112,780	101,262	87,038	80,787	68,918

주: 직무조정 관련 배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일자리에서 근무시간 조정과 관련하여 배려가 필요한지를 질문한 결과, 전체 임금근로자의 9.7%가 근무시간 조정 관련 배려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 중 55.4%가 필요하지만 배려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29〉 임금근로자의 근무시간 조정 관련 배려 필요 여부 및 배려 여부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필요함	26.3	18.1	14.5	14.1	11.7	10.8	9.7
배려 받음	33.5	28.2	32.1	32.1	38.6	36.2	44.6
필요하지만 배려 받지 못함	66.5	71.8	67.9	67.9	61.4	63.8	55.4
소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필요하지 않음	73.7	81.8	85.5	85.9	88.3	89.1	90.3
모름/응답거절	0.0	0.1	0.0	0.0	0.0	0.0	0.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451,708	540,499	564,546	564,380	564,919	554,884	535,500

현재 일자리에서 근무시간 조정과 관련하여 배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에게 필요한 배려내용을 중복으로 응답받은 결과, 전체 응답자의 37.1%가 '업무시간 중 별도의 휴식시간 제공', 27.9%는 '근무일수, 근무요일 조정', 16.1%는 '출퇴근 시간의 조정'을 선택하였다.

〈표 3-2-30〉 임금근로자의 필요한 근무시간 조정 관련 배려 내용(중복응답)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시간제 근로	16.8	22.9	17.0	16.6	15.0	15.9	9.7
출퇴근 시간의 조정	15.2	16.5	18.7	15.3	19.2	17.9	16.1
근무일수, 근무요일 조정	23.0	30.9	32.3	28.0	30.5	32.1	27.9
별도의 휴식시간 제공	40.4	39.5	53.1	53.2	47.5	49.9	37.1
기타	11.5	4.5	0.5	1.7	2.3	0.8	5.9
전 체	-	-	-	-	-	-	-
추정 수	118,606	97,927	81,642	79,346	65,859	60,228	51,755

주: 근무시간 조정 관련 배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표 3-2-31〉 임금근로자의 업무 수행 시 타인의 도움 필요 여부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타인의 도움 필요	10.0	7.5	6.2	5.7	5.8	5.1	4.0
타인의 도움 불필요	90.0	92.4	93.8	94.3	94.2	94.9	96.0
모름/응답거절	0.0	0.1	0.0	0.0	0.0	0.0	0.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451,708	540,499	564,546	564,380	564,919	554,884	535,500
필요하나 도움 받지 못하는 비율(%)	34.8	33.2	10.6	11.2	18.8	22.6	11.3

주: 필요하나 도움 받지 못하는 비율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나 출퇴근 지원, 사무보조 지원, 작업지원, 의사소통 지원, 일자리 내 이동지원, 일자리 내 일상생활 지원 등의 분야 중 타인으로부터 어느 하나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인원으로 산정함

일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 전체 임금근로자의 4.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중 11.3%가 필요하지만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 개별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움이 가장 많이 필요한 분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51.0%가 ‘출퇴근 지원’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작업지원’ 38.7%, ‘사무보조 지원’ 23.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32〉 임금근로자의 항목별 타인의 도움 필요 여부 및 도움 비율 - 차수별
(단위: %, 명)

변 수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출퇴근 지원	필요비율	20.4	37.9	39.7	53.5	51.9	44.8	51.0
	추정 수	45,144	40,614	35,147	31,897	32,791	28,310	21,601
	필요하나 도움 받지 못하는 비율	30.7	47.0	26.3	28.1	40.9	39.2	41.2
사무보조 지원	필요비율	18.7	18.1	19.1	22.9	17.7	26.2	23.2
	추정 수	45,144	40,614	35,147	31,897	32,791	28,310	21,601
	필요하나 도움 받지 못하는 비율	16.6	28.9	18.5	19.4	13.5	33.2	17.9
작업지원	필요비율	54.6	60.4	55.8	43.6	49.6	49.4	38.7
	추정 수	45,144	40,614	35,147	31,897	32,791	28,310	21,601
	필요하나 도움 받지 못하는 비율	27.2	33.7	5.9	28.9	16.4	30.8	13.9
의사소통 지원	필요비율	17.0	17.8	15.1	25.3	28.5	23.3	18.3
	추정 수	45,144	40,614	35,147	31,897	32,791	28,310	21,601
	필요하나 도움 받지 못하는 비율	14.9	39.3	15.9	31.8	22.5	51.0	20.6
일자리 내 이동지원	필요비율	17.7	27.8	28.2	36.1	15.3	37.3	15.3
	추정 수	45,144	40,614	35,147	31,897	32,791	28,310	21,601
	필요하나 도움 받지 못하는 비율	40.3	19.0	33.8	12.1	28.8	39.2	25.7
일자리 내 일상생활 지원	필요비율	6.5	12.3	5.2	21.3	2.3	23.8	4.0
	추정 수	45,144	40,614	35,147	31,897	32,791	28,310	21,601
	필요하나 도움 받지 못하는 비율	21.7	29.4	20.8	7.6	44.1	25.8	49.1

주: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일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장애로 인한 기능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작업보조기기가 필요한지에 대해 전체 임금근로자의 2.2%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 중 59.7%가 필요하지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33〉 임금근로자의 작업보조기기 필요 여부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필요	5.7	2.6	2.0	1.4	1.4	2.1	2.2
불필요	94.3	97.3	98.0	98.6	98.6	97.9	97.8
모름/응답거절	0.0	0.1	0.0	0.0	0.0	0.0	0.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451,708	540,499	564,546	564,380	564,919	554,884	535,500
필요하나 사용하지 못하는 비율(%)	79.4	73.1	70.6	53.2	57.8	49.0	59.7

일자리에 필요한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 전체 임금근로자의 19.3%가 필요한 것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주출입구 경사로 설치’ 10.2%,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설치’ 9.6% 순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에 하나 이상의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6.0%이며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설치’ 16.2%, ‘주출입구 경사로 설치’ 14.9%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34〉 임금근로자의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되어 있는 편의시설(중복응답)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필요 시설	주출입구 경사로 설치	5.9	5.9	6.4	6.2	8.3	10.2
	핸드레일 설치	5.4	5.3	6.5	5.7	6.9	9.0
	엘리베이터, 리프트 설치	4.3	4.9	5.8	5.9	5.7	6.2
	점자유도블럭, 점자표지판 설치	0.2	0.4	0.7	0.6	1.0	1.2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설치	4.2	4.6	5.3	5.7	8.5	9.6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4.0	3.8	3.9	4.1	7.1	7.3
	장애인용 작업대 설치	2.0	1.5	1.5	1.3	1.9	2.3
	기타	0.3	0.0	0.0	0.2	0.0	0.0
	필요한 것이 없음	87.7	89.1	88.3	87.7	84.3	80.7
	전 체	-	-	-	-	-	-
설치 시설	추정 수	451,708	540,499	564,546	564,380	564,919	554,884
	주출입구 경사로 설치	13.0	13.1	16.0	14.3	16.8	15.9
	핸드레일 설치	11.9	12.7	14.7	13.6	15.4	14.3
	엘리베이터, 리프트 설치	9.2	10.0	12.9	11.5	10.6	10.1
	점자유도블럭, 점자표지판 설치	4.8	5.6	7.7	7.1	7.1	5.7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설치	12.3	14.0	16.4	15.2	17.5	17.6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9.9	11.3	13.7	12.5	14.3	14.5
	장애인용 작업대 설치	3.1	2.4	2.7	2.2	3.0	2.7
	기타	0.0	0.0	0.0	0.0	0.0	0.0
	설치되어 있는 것이 없음	79.3	79.1	76.0	77.3	74.1	75.5
전 체	추정 수	451,708	540,499	564,546	564,380	564,919	554,884
	535,500						

7. 근무환경 - 기타

근무하는 일자리의 안전정도에 대해 전체 임금근로자의 19.9%가 위험한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지난조사 이후 이 일자리에서 질병, 사고 등을 경험한 비율은 1.2%로 나타났다.

〈표 3-2-35〉 임금근로자의 근무환경 안전정도, 지난조사 이후 질병/사고 경험 여부 - 차수별
(단위: %, 명)

변 수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근무 환경 안전 정도	매우 위험한 편	3.2	1.9	2.7	1.9	1.6	1.1	0.8
	위험한 편	27.1	24.4	26.7	21.2	24.4	21.5	19.1
	안전한 편	56.1	61.9	58.9	63.1	62.8	65.0	68.1
	매우 안전한 편	13.6	11.7	11.7	13.9	11.2	12.4	12.1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451,708	540,499	564,546	564,380	564,919	554,884	535,500
질병 사고 경험 여부	경험 있음	8.1	2.2	2.0	1.9	2.1	1.7	1.2
	장애등급 부여받음	36.8	3.7	3.6	7.6	0.0	7.4	0.0
	장애등급 부여받지 않음	63.2	96.3	96.4	92.4	100.0	92.6	100.0
	소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경험 없음	91.9	97.8	98.0	98.1	97.9	98.3	98.8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451,708	540,499	564,546	564,380	564,919	554,884	535,500

주: '질병, 사고 경험 여부'는 2차년도부터 지난조사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질문함

전체 임금근로자의 9.1%가 현재 근무하는 일자리에 노동조합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노동조합이 있을 때 노동조합에 가입한 비율은 65.5%로 나타났다.

〈표 3-2-36〉 임금근로자의 노동조합 유무 및 가입 비율 - 차수별
(단위: %)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사업체에 노동조합이 있는 비율	12.0	9.7	9.8	9.6	10.4	9.8	9.1
노동조합 가입 비율	57.8	60.9	62.8	60.6	62.6	61.6	65.5

주: '노동조합 가입 비율'은 사업체에 노동조합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지난조사 이후 현재 일자리에서 장애로 인해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전체 임금근로자의 4.7%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장애로 인해 차별 받은 사항을 살펴보면, 차별경험자의 0.8%가 채용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응시자격 제한' 0.8%, '합당하지 못한 임금' 0.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37〉 임금근로자의 지난조사 이후 차별경험 사항(1순위)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응시자격 제한	1.1	0.8	1.3	1.3	1.3	1.1	0.8
채용과정에서의 불이익	1.0	0.6	0.9	0.7	1.1	1.3	0.8
합당하지 못한 임금	2.4	0.8	1.6	1.7	0.3	1.2	0.7
객관적 평가 없이 상여금 미지급	0.3	0.1	0.5	0.6	0.1	0.5	0.4
업무량(시간)에 있어서의 차별	1.0	0.5	0.7	0.7	0.5	0.5	0.6
능력에 맞지 않는 직무, 부서 배치	0.5	0.4	0.2	0.1	0.2	0.0	0.5
낮은 직급 부여	0.1	0.0	0.1	0.3	0.0	0.2	0.2
승진 누락, 제한	0.3	0.2	0.3	0.4	0.1	0.2	0.1
교육훈련, 연수 기회 제한	0.3	0.1	0.1	0.2	0.0	0.0	0.0
복리후생 제공하지 않음	0.7	0.3	0.3	0.4	0.2	0.3	0.4
기타	0.2	0.8	2.0	0.7	0.1	0.2	0.2
특별히 없음	92.1	95.4	92.0	92.9	95.9	94.5	95.3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451,708	540,499	564,546	564,380	564,919	554,884	535,500

8. 주관적 만족도, 가치관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수준이 본인의 교육수준보다 낮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13.5%였으며 본인의 교육수준보다 높다고 응답한 사람은 39.8%였다.

〈표 3-2-38〉 임금근로자가 생각하는 업무수준(교육수준 비교)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교육수준보다 낮음	23.5	21.4	17.4	15.4	12.9	14.4	13.5
교육수준 정도	49.8	53.9	48.1	52.1	51.1	55.8	46.6
교육수준보다 높음	26.7	24.6	34.6	32.4	36.0	29.8	39.8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451,708	540,169	564,546	564,380	564,919	554,884	535,500

주 1) 5점 Likert 척도로 질문하였으며 하위 두 개, 상위 두 개의 범주를 합한 분석 결과임

2) 모름/응답거절 제외한 분석임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수준이 본인의 기술수준보다 낮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12.6%였으며 본인의 기술수준보다 높다고 응답한 사람은 42.8%였다.

〈표 3-2-39〉 임금근로자가 생각하는 업무수준(기술수준 비교)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기술수준보다 낮음	21.3	19.1	14.5	12.9	12.8	12.7	12.6
기술수준 정도	51.4	56.0	48.4	53.4	50.9	55.2	44.6
기술수준보다 높음	27.3	24.9	37.1	33.6	36.3	32.0	42.8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451,708	540,169	564,546	564,380	564,919	554,884	535,500

주 1) 5점 Likert 척도로 질문하였으며 하위 두 개, 상위 두 개의 범주를 합한 분석 결과임
2) 모름/응답거절 제외한 분석임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전체 임금근로자의 20.7%가 다른 일자리에서도 유용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유용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32.3%였다.

〈표 3-2-40〉 임금근로자가 생각하는 업무의 유용성(다른 일자리에서도 유용)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유용하지 않음	28.4	20.4	18.1	19.2	15.6	29.1	32.3
보통	38.3	49.2	44.7	46.8	48.8	52.2	47.0
유용함	33.3	30.4	37.2	34.0	35.6	18.7	20.7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451,708	540,169	564,546	564,380	564,919	554,884	535,500

주 1) 5점 Likert 척도로 질문하였으며 하위 두 개, 상위 두 개의 범주를 합한 분석 결과임
2) 모름/응답거절 제외한 분석임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전체 임금근로자의 66.6%가 이 업무를 계속하고 싶다고 응답하였고 즐겁게 일을 하고 있다가 45.3% 응답하였다.

〈표 3-2-41〉 임금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생각(열정, 즐거움, 만족도 등) - 7차

(단위: %, 명)

구 분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	즐겁게 하고 있다	보람을 느낀다	이 업무를 계속하고 싶다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그렇지 않다	4.8	5.2	6.1	2.6	4.2
보통이다	51.1	49.5	51.3	30.8	55.9
그렇다	44.1	45.3	42.6	66.6	39.9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535,500	535,500	535,500	535,500	535,500

주 1) 5점 Likert 척도로 질문하였으며 하위 두 개, 상위 두 개의 범주를 합한 분석 결과임
2) 모름/응답거절 제외한 분석임

임금근로자의 주관적 만족도를 응답받은 결과, 일자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불만족하는 비율은 6.3%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임금/소득'에 불만족하는 비율이 33.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복리후생' 25.7%, '취업의 안정성' 17.0%, '교육훈련 기회' 14.5%, '개인의 발전가능성' 13.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근로시간 (11.3%)', '일의 내용 (7.2%)',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5.2%)'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불만족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5점 Likert 척도로 질문한 각 항목의 평균 점수를 구한 결과, 전반적 만족도 점수는 3.22점으로 나타났으며, 앞에서의 불만족 비율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3-2-42〉 임금근로자의 주관적 만족도 - 차수별

(단위: %, 명, 5점 척도)

변 수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임금/소득	불만족 비율	48.1	43.5	39.6	39.8	35.5	37.2	33.5
	만족도 점수	2.63	2.69	2.72	2.70	2.76	2.75	2.83
	응답 수	451,708	540,499	564,171	564,380	564,919	554,884	535,500
취업의 안정성	불만족 비율	33.7	26.9	24.7	22.8	19.3	21.6	17.0
	만족도 점수	2.92	2.98	3.02	3.03	3.05	2.99	3.11
	응답 수	451,708	540,499	564,546	564,380	564,919	554,884	535,500
일의 내용	불만족 비율	23.2	16.0	14.7	11.2	12.9	12.7	7.2
	만족도 점수	3.08	3.15	3.16	3.22	3.16	3.13	3.28
	응답 수	451,708	540,499	564,546	564,380	564,919	554,884	535,500
근로환경	불만족 비율	29.4	19.4	18.9	16.0	17.5	16.7	14.8
	만족도 점수	2.99	3.09	3.09	3.12	3.10	3.06	3.16
	응답 수	451,708	540,499	564,546	564,380	564,919	554,884	535,500
근로시간	불만족 비율	23.7	17.9	20.6	17.2	17.2	16.2	11.3
	만족도 점수	3.09	3.16	3.14	3.17	3.15	3.13	3.23
	응답 수	451,708	540,499	564,546	564,380	564,919	554,884	535,500
개인의 발전가능성	불만족 비율	34.0	27.0	24.9	21.0	19.0	19.7	13.3
	만족도 점수	2.78	2.88	2.87	2.97	2.96	2.93	3.06
	응답 수	451,708	540,499	564,546	564,380	564,919	554,884	535,500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불만족 비율	10.5	8.7	7.9	7.0	6.4	6.1	5.2
	만족도 점수	3.34	3.33	3.37	3.36	3.35	3.29	3.34
	응답 수	451,708	540,499	564,546	564,380	564,919	554,884	535,500
인사고과의 공정성	불만족 비율	14.3	10.6	11.2	7.9	8.9	7.6	6.5
	만족도 점수	3.08	3.14	3.08	3.14	3.11	3.09	3.14
	응답 수	447,500	533,156	564,141	563,577	563,142	554,884	535,500
복리후생	불만족 비율	42.3	34.3	33.7	29.9	31.2	30.6	25.7
	만족도 점수	2.72	2.82	2.84	2.90	2.85	2.83	2.94
	응답 수	450,693	540,499	564,546	564,380	564,919	554,884	535,500
교육훈련 기회	불만족 비율	-	-	-	-	19.9	18.0	14.5
	만족도 점수	-	-	-	-	2.86	2.90	2.97
	응답 수	-	-	-	-	563,805	554,884	535,500
장애인 이해와 수용정도	불만족 비율	-	-	-	-	12.2	10.7	7.9
	만족도 점수	-	-	-	-	3.08	3.05	3.14
	응답 수	-	-	-	-	564,919	554,884	535,500
전반적 만족도	불만족 비율	20.9	14.5	14.3	12.2	11.8	9.7	6.3
	만족도 점수	3.02	3.10	3.15	3.18	3.12	3.12	3.22
	응답 수	451,708	540,499	564,546	564,380	564,919	554,884	535,500

주 1) 5점 Likert 척도로 질문하였으며 불만족 비율은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으로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임

2) '교육훈련 기회'와 '장애인 이해와 수용정도'는 5차년도부터 조사되었음

3) 모름/응답거절 제외한 분석임

4) 크론바흐 알파값(α)=0.909

9. 주요 변수별 임금근로자 특성 비교

〈표 3-2-43〉 임금근로자 주요 특성 비교 - 성별1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남성	여성	전 체
근속기간(개월)	90.9	59.5	83.2
응답 수(명)	403,998	131,502	535,500
공공기관 취업알선을 통해 취업한 비율(%)	11.3	22.9	14.1
응답 수(명)	403,998	131,502	535,500
취업소요기간(개월)	2.1	1.2	1.9
응답 수(명)	398,429	129,523	527,952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 재직 비율(%)	16.8	12.4	15.8
응답 수(명)	396,637	126,991	523,628
시간제 근로 비율(%)	14.3	30.0	18.1
응답 수(명)	403,245	131,502	534,747
월평균 근무일수(일)	20.2	20.7	20.32
응답 수(명)	403,582	131,502	535,084
일평균 근무시간(시간)	9.1	7.3	8.7
응답 수(명)	403,998	131,502	535,500
초과근로하고 있는 비율(%)	8.4	3.5	7.2
응답 수(명)	403,998	131,502	535,500
월평균 임금(만원)	154.2	93.2	139.2
응답 수(명)	403,276	131,502	534,778
임금 체불 비율(%)	0.4	0.0	0.3
응답 수(명)	403,998	131,502	535,500

주 1) '근속기간'은 봄=4월, 여름=7월, 가을=10월, 겨울=12월로 처리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름/응답거절 제외한 분석임

2) '취업소요기간'은 모름/응답거절 제외한 분석임

3) '월평균 임금'은 모름/응답거절 제외한 분석임

〈표 3-2-44〉 임금근로자 주요 특성 비교 - 성별2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남성	여성	전 체
복리후생항목 한 가지라도 제공하는 비율(%)	70.3	61.2	68.1
응답 수(명)	403,998	131,502	535,500
근무 시 애로사항이 장애로 인한 것인 비율(%)	34.2	40.8	35.8
응답 수(명)	403,998	131,502	535,500
지속근무 의향이 없는 비율(%)	2.3	2.4	2.4
응답 수(명)	403,998	131,502	535,500
직무조정 필요 비율(%)	18.9	13.6	17.7
응답 수(명)	403,998	131,502	535,500
직무조정 필요하지만 배려 받지 못한 비율(%)	11.4	17.2	12.9
응답 수(명)	403,998	131,502	535,500
근무시간 조정 필요 비율(%)	44.9	64.2	51.2
응답 수(명)	46,289	22,630	68,919
근무시간 조정 필요하지만 배려 받지 못한 비율(%)	8.8	12.1	9.7
응답 수(명)	403,998	131,502	535,500
타인의 도움 필요 비율(%)	50.0	67.6	55.4
응답 수(명)	35,719	16,035	51,754
작업보조기기 사용 비율(%)	3.7	5.0	4.0
응답 수(명)	403,998	131,502	535,500
장애편의시설 필요 비율(%)	1.3	0.0	0.9
응답 수(명)	403,998	131,502	535,500
장애편의시설 설치 비율(%)	14.7	21.5	16.3
응답 수(명)	403,998	131,502	535,500
지난조사 이후 질병/사고 경험 비율(%)	20.9	31.7	23.5
응답 수(명)	403,998	131,502	535,500
노동조합 존재 비율(%)	1.4	0.4	1.2
응답 수(명)	403,998	131,502	535,500
노동조합 가입 비율(%)	10.9	3.5	9.1
응답 수(명)	403,998	131,002	535,000

주 1) '직무조정 필요하지만 배려 받지 못한 비율', '근무시간 조정 필요하지만 배려 받지 못한 비율'은 각각 직무조정과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2) '노동조합 가입 비율'은 노동조합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표 3-2-45〉 임금근로자 주요 특성 비교 - 성별3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남성	여성	전 체
지난조사 이후 일자리 내 차별 경험 비율(%)	5.1	3.4	4.7
응답 수(명)	403,998	131,502	535,500
업무에 대한 전반적 불만족 비율(%)	4.0	4.8	4.2
응답 수(명)	403,998	131,502	535,500
임금/소득 불만족 비율(%)	32.7	36	33.5
응답 수(명)	403,998	131,502	535,500
취업의 안정성 불만족 비율(%)	18	14.0	17.0
응답 수(명)	403,998	131,502	535,500
일의 내용 불만족 비율(%)	7.0	7.8	7.2
응답 수(명)	403,998	131,502	535,500
근로환경 불만족 비율(%)	15.4	12.9	14.8
응답 수(명)	403,998	131,502	535,500
근로시간 불만족 비율(%)	12.2	8.6	11.3
응답 수(명)	403,998	131,502	535,500
개인의 발전 가능성 불만족 비율(%)	13.8	11.8	13.3
응답 수(명)	403,998	131,502	535,500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불만족 비율(%)	5.0	5.6	5.2
응답 수(명)	403,998	131,502	535,500
인사고과의 공정성 불만족 비율(%)	7.1	4.9	6.5
응답 수(명)	403,998	131,502	535,500
복리후생 불만족 비율(%)	26.1	24.6	25.7
응답 수(명)	403,998	131,502	535,500
교육훈련 기회 불만족 비율(%)	15.4	11.8	14.5
응답 수(명)	403,998	131,502	535,500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수용정도 불만족 비율(%)	8.2	7.1	7.9
응답 수(명)	403,998	131,502	535,500
전반적 불만족 비율(%)	6.0	7.0	6.3
응답 수(명)	403,998	131,502	535,500

주: 불만족 비율은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으로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임

〈표 3-2-46〉 임금근로자 주요 특성 비교 - 연령별1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21~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81세	전 체
근속기간(개월)	34.0	65.8	84.3	103.3	73.0	83.2
응답 수(명)	24,622	63,418	130,369	178,711	138,379	535,500
공공기관 취업알선을 통해 취업한 비율(%)	53.2	19.7	10.6	8.3	15.5	14.1
응답 수(명)	24,622	63,418	130,369	178,711	138,379	535,500
취업소요기간(개월)	2.4	1.9	2.1	1.9	1.5	1.9
응답 수(명)	24,622	62,537	129,522	174,638	136,632	527,952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 재직 비율(%)	17.4	24.8	15.4	16.4	10.8	15.8
응답 수(명)	22,978	62,879	128,771	176,550	132,451	523,629
시간제 근로 비율(%)	27.5	9.6	11.9	17.2	27.5	18.1
응답 수(명)	24,622	63,418	130,369	177,959	138,380	534,749
월평균 근무일수(일)	21.2	21.3	21.3	20.4	18.6	20.3
응답 수(명)	24,622	63,418	130,369	178,295	138,379	535,084
일평균 근무시간(시간)	7.81	8.1	8.54	8.43	9.54	8.68
응답 수(명)	24,622	63,418	130,369	178,711	138,379	535,500
초과근로하고 있는 비율(%)	12.2	13.0	11.6	6.4	0.4	7.2
응답 수(명)	24,622	63,418	130,369	178,711	138,379	535,500
월평균 임금(만원)	94.0	148.3	169.9	153.4	95.8	139.2
응답 수(명)	24,622	63,418	130,069	178,295	138,379	534,778
임금 체불 비율(%)	1.4	0.0	0.0	0.8	0.0	0.3
응답 수(명)	24,622	63,418	130,369	178,711	138,379	535,500

주 1) '근속기간'은 봄=4월, 여름=7월, 가을=10월, 겨울=12월로 처리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름/응답거절 제외한 분석임

2) '취업소요기간'은 모름/응답거절 제외한 분석임

3) '월평균 임금'은 모름/응답거절 제외한 분석임

〈표 3-2-47〉 임금근로자 주요 특성 비교 - 연령별2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21~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81세	전 체
복리후생항목 한 가지라도 제공하는 비율(%)	77.9	79.4	75.9	63.8	59.3	68.1
응답 수(명)	24,622	63,418	130,370	178,711	138,379	535,500
근무 시 애로사항이 장애로 인한 것인 비율(%)	43.0	38.3	30.7	36.9	36.7	35.8
응답 수(명)	24,622	63,418	130,370	178,711	138,379	535,500
지속근무 의향이 없는 비율(%)	0.0	2.7	1.4	2.2	3.8	2.4
응답 수(명)	24,622	63,418	130,370	178,711	138,379	535,500
직무조정 필요 비율(%)	26.1	14.0	6.8	13.8	14.4	12.9
응답 수(명)	24,622	63,418	130,370	178,711	138,379	535,500
직무조정 필요하지만 배려 받지 못한 비율(%)	36.8	28.7	52.9	59.5	54.8	51.2
응답 수(명)	6,429	8,927	8,947	24,719	19,897	68,919
근무시간 조정 필요 비율(%)	15.3	5.0	6.5	11.7	11.0	9.7
응답 수(명)	24,622	63,418	130,370	178,711	138,379	535,500
근무시간 조정 필요하지만 배려 받지 못한 비율(%)	44.3	69.3	70.9	52.3	51.0	55.4
응답 수(명)	3,780	3,179	8,515	20,993	15,288	51,755
타인의 도움 필요 비율(%)	8.6	3.3	3.0	4.3	4.2	4.0
응답 수(명)	24,622	63,418	130,370	178,711	138,379	535,500
작업보조기기 사용 비율(%)	1.7	0.0	1.2	1.0	0.9	0.9
응답 수(명)	24,622	63,418	130,370	178,711	138,379	535,500
장애편의시설 필요 비율(%)	17.7	17.4	14.1	18.1	15.5	16.3
응답 수(명)	24,622	63,418	130,370	178,711	138,379	535,500
장애편의시설 설치 비율(%)	36.4	31.8	22.8	21.3	21.0	23.5
응답 수(명)	24,622	63,418	130,370	178,711	138,379	535,500
지난조사 이후 질병/사고 경험 비율(%)	3.1	1.0	0.5	2.4	0.0	1.2
응답 수(명)	24,622	63,418	130,370	178,711	138,379	535,500
노동조합 존재 비율(%)	1.4	9.4	11.2	11.9	4.8	9.1
응답 수(명)	24,623	63,418	129,872	178,711	138,379	535,003
노동조합 가입 비율(%)	100.0	39.6	78.8	61.0	71.7	65.5
응답 수(명)	333	5,949	14,583	21,187	6,667	48,719

주 1) '직무조정 필요하지만 배려 받지 못한 비율', '근무시간 조정 필요하지만 배려 받지 못한 비율'은 각각 직무조정과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2) '노동조합 가입 비율'은 노동조합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표 3-2-48〉 임금근로자 주요 특성 비교 - 연령별3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21~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81세	전 체
지난조사 이후 일자리 내 차별 경험 비율(%)	1.8	4.9	5.3	5.5	3.7	4.7
응답 수(명)	24,622	63,418	130,369	178,711	138,379	535,500
업무에 대한 전반적 불만족 비율(%)	0.0	1.4	5.3	3.9	5.7	4.2
응답 수(명)	24,622	63,418	130,369	178,711	138,379	535,500
임금/소득 불만족 비율(%)	30.9	23.7	28.9	35.2	40.6	33.5
응답 수(명)	24,622	63,418	130,369	178,711	138,379	535,500
취업의 안정성 불만족 비율(%)	9.5	14.9	14.9	15.1	23.8	17.0
응답 수(명)	24,622	63,418	130,369	178,711	138,379	535,500
일의 내용 불만족 비율(%)	6.6	3.0	8.9	6.4	8.5	7.2
응답 수(명)	24,622	63,418	130,369	178,711	138,379	535,500
근로환경 불만족 비율(%)	9.2	7.9	16.5	14.6	17.6	14.8
응답 수(명)	24,622	63,418	130,369	178,711	138,379	535,500
근로시간 불만족 비율(%)	6.2	6.3	13.4	10.5	13.5	11.3
응답 수(명)	24,622	63,418	130,369	178,711	138,379	535,500
개인의 발전 가능성 불만족 비율(%)	5.2	6.9	12.0	15.7	15.9	13.3
응답 수(명)	24,622	63,418	130,369	178,711	138,379	535,500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불만족 비율(%)	8.7	6.6	5.3	5.0	4.0	5.2
응답 수(명)	24,622	63,418	130,369	178,711	138,379	535,500
인사고과의 공정성 불만족 비율(%)	11.6	5.3	6.4	7.1	5.6	6.5
응답 수(명)	24,622	63,418	130,369	178,711	138,379	535,500
복리후생 불만족 비율(%)	13.6	11.2	26.2	28.4	30.7	25.7
응답 수(명)	24,622	63,418	130,369	178,711	138,379	535,500
교육훈련 기회 불만족 비율(%)	14.5	4.5	16.5	18.7	11.9	14.5
응답 수(명)	24,622	63,418	130,369	178,711	138,379	535,500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수용정도 불만족 비율(%)	6.1	1.6	6.6	9.0	11.1	7.9
응답 수(명)	24,622	63,418	130,369	178,711	138,379	535,500
전반적 불만족 비율(%)	3.5	0.8	8.6	6.3	7.1	6.3
응답 수(명)	24,622	63,418	130,369	178,711	138,379	535,500

주: 불만족 비율은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으로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임

〈표 3-2-49〉 임금근로자 주요 특성 비교 - 장애정도별1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중증	경증	전 체
근속기간(개월)	68.6	89.1	83.2
응답 수(명)	152,852	382,648	535,500
공공기관 취업알선을 통해 취업한 비율(%)	18.9	12.2	14.1
응답 수(명)	152,852	382,648	535,500
취업소요기간(개월)	1.7	2.0	1.9
응답 수(명)	151,730	376,222	527,952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 재직 비율(%)	13.1	16.8	15.8
응답 수(명)	149,349	374,279	523,628
시간제 근로 비율(%)	19.6	17.6	18.1
응답 수(명)	152,852	381,895	534,746
월평균 근무일수(일)	20.3	20.3	20.3
응답 수(명)	152,852	382,232	535,084
일평균 근무시간(시간)	8.4	8.8	8.7
응답 수(명)	152,852	382,648	535,500
초과근로하고 있는 비율(%)	8.2	6.8	7.2
응답 수(명)	152,852	382,648	535,500
월평균 임금(만원)	108.7	151.3	139.2
응답 수(명)	152,546	382,232	534,778
임금 체불 비율(%)	0.2	0.4	0.3
응답 수(명)	152,852	382,648	535,500

주 1) '근속기간'은 봄=4월, 여름=7월, 가을=10월, 겨울=12월로 처리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름/응답거절 제외한 분석임

2) '취업소요기간'은 모름/응답거절 제외한 분석임

3) '월평균 임금'은 모름/응답거절 제외한 분석임

〈표 3-2-50〉 임금근로자 주요 특성 비교 - 장애정도별2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중증	경증	전 체
복리후생항목 한 가지라도 제공하는 비율(%)	70.5	67.1	68.1
응답 수(명)	152,852	382,648	535,500
근무 시 애로사항이 장애로 인한 것인 비율(%)	51.6	29.5	35.8
응답 수(명)	152,852	382,648	535,500
지속근무 의향이 없는 비율(%)	1.5	2.7	2.4
응답 수(명)	152,852	382,648	535,500
직무조정 필요 비율(%)	18.6	10.5	12.9
응답 수(명)	152,852	382,648	535,500
직무조정 필요하지만 배려 받지 못한 비율(%)	40.2	58.9	51.2
응답 수(명)	28,455	40,463	68,918
근무시간 조정 필요 비율(%)	13.5	8.1	9.7
응답 수(명)	152,852	382,648	535,500
근무시간 조정 필요하지만 배려 받지 못한 비율(%)	44.0	63.0	55.4
응답 수(명)	20,648	31,106	51,754
타인의 도움 필요 비율(%)	10.0	1.7	4.0
응답 수(명)	152,852	382,648	535,500
작업보조기기 사용 비율(%)	2.0	0.5	0.9
응답 수(명)	152,852	382,648	535,500
장애편의시설 필요 비율(%)	20.0	14.9	16.3
응답 수(명)	152,852	382,648	535,500
장애편의시설 설치 비율(%)	28.4	21.6	23.5
응답 수(명)	152,852	382,648	535,500
지난조사 이후 질병/사고 경험 비율(%)	0.8	1.3	1.2
응답 수(명)	152,852	382,648	535,500
노동조합 존재 비율(%)	6.2	10.3	9.1
응답 수(명)	152,852	382,151	535,003
노동조합 가입 비율(%)	74.7	63.2	65.5
응답 수(명)	9,422	39,297	48,719

주 1) '직무조정 필요하지만 배려 받지 못한 비율', '근무시간 조정 필요하지만 배려 받지 못한 비율'은 각각 직무조정과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2) '노동조합 가입 비율'은 노동조합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표 3-2-51〉 임금근로자 주요 특성 비교 - 장애정도별3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중증	경증	전 체
지난조사 이후 일자리 내 차별 경험 비율(%)	6.4	4.0	4.7
응답 수(명)	152,852	382,648	535,500
업무에 대한 전반적 불만족 비율(%)	3.4	4.5	4.2
응답 수(명)	152,852	382,648	535,500
임금/소득 불만족 비율(%)	30.8	34.6	33.5
응답 수(명)	152,852	382,648	535,500
취업의 안정성 불만족 비율(%)	14.0	18.2	17.0
응답 수(명)	152,852	382,648	535,500
일의 내용 불만족 비율(%)	5.7	7.8	7.2
응답 수(명)	152,852	382,648	535,500
근로환경 불만족 비율(%)	8.9	17.1	14.8
응답 수(명)	152,852	382,648	535,500
근로시간 불만족 비율(%)	8.2	12.5	11.3
응답 수(명)	152,852	382,648	535,500
개인의 발전 가능성 불만족 비율(%)	10.1	14.6	13.3
응답 수(명)	152,852	382,648	535,499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불만족 비율(%)	4.9	5.3	5.2
응답 수(명)	152,852	382,648	535,500
인사고과의 공정성 불만족 비율(%)	7.3	6.2	6.5
응답 수(명)	152,852	382,648	535,500
복리후생 불만족 비율(%)	21.1	27.6	25.7
응답 수(명)	152,852	382,648	535,500
교육훈련 기회 불만족 비율(%)	17.0	13.5	14.5
응답 수(명)	152,852	382,648	535,500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수용정도 불만족 비율(%)	7.7	8.0	7.9
응답 수(명)	152,852	382,648	535,500
전반적 불만족 비율(%)	6.3	6.3	6.3
응답 수(명)	152,852	382,648	535,500

주: 불만족 비율은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으로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임

〈표 3-2-52〉 임금근로자 주요 특성 비교 - 장애유형별1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신체외부장애		감각장애		정신적	신체 내부	전 체
	지체	지체 제외	시각	시각 제외			
근속기간(개월)	91.8	65.6	87.4	82.6	40.7	62.3	83.2
응답 수(명)	320,055	24,775	56,260	66,021	48,894	19,495	535,500
공공기관 취업알선을 통해 취업한 비율(%)	13.0	21.7	9.4	12.0	29.1	5.7	14.1
응답 수(명)	320,055	24,775	56,260	66,021	48,894	19,495	535,500
취업소요기간(개월)	1.9	2.0	2.3	1.5	1.2	2.5	1.9
응답 수(명)	315,035	24,339	55,590	64,785	48,894	19,308	527,952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 재직 비율(%)	18.7	29.2	8.4	10.8	6.7	12.0	15.8
응답 수(명)	311,940	24,314	55,289	65,542	47,046	19,495	523,625
시간제 근로 비율(%)	16.6	23.8	16.2	19.1	23.1	26.7	18.1
응답 수(명)	319,302	24,775	56,260	66,021	48,894	19,495	534,748
월평균 근무일수(일)	20.3	21.0	20.5	19.6	20.8	21.0	20.3
응답 수(명)	319,638	24,775	56,260	66,021	48,894	19,495	535,084
일평균 근무시간(시간)	8.8	7.9	8.5	9.2	8.06	7.8	8.7
응답 수(명)	320,055	24,775	56,260	66,021	48,894	19,495	535,500
초과근로하고 있는 비율(%)	7.8	4.0	7.1	6.7	7.8	1.8	7.2
응답 수(명)	320,055	24,775	56,260	66,021	48,894	19,495	535,500
월평균 임금(만원)	149.5	132.4	150.3	120.1	72.75	176.5	139.2
응답 수(명)	319,638	24,775	56,260	65,716	48,894	19,495	534,778
임금 체불 비율(%)	0.4	0.0	0.0	0.0	0.7	0.0	0.3
응답 수(명)	320,055	24,775	56,260	66,021	48,894	19,495	535,500

주 1) '근속기간'은 봄=4월, 여름=7월, 가을=10월, 겨울=12월로 처리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름/응답거절 제외한 분석임

2) '취업소요기간'은 모름/응답거절 제외한 분석임

3) '월평균 임금'은 모름/응답거절 제외한 분석임

〈표 3-2-53〉 임금근로자 주요 특성 비교 - 장애유형별2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신체외부장애		감각장애		정신적	신체 내부	전 체
	지체	지체 제외	시각	시각 제외			
복리후생항목 한 가지라도 제공하는 비율(%)	65.8	80.9	70.9	66.9	74.8	68.5	68.1
응답 수(명)	320,055	24,775	56,260	66,021	48,894	19,495	535,500
근무 시 애로사항이 장애로 인한 것인 비율(%)	34.2	46.2	20.1	39.2	49.3	49.3	35.8
응답 수(명)	320,055	24,775	56,260	66,021	48,894	19,495	535,500
지속근무 의향이 없는 비율(%)	1.5	4.4	3.7	7.0	0.0	0.0	2.4
응답 수(명)	320,055	24,775	56,260	66,021	48,894	19,495	535,500
직무조정 필요 비율(%)	11.3	23.0	10.8	11.3	20.9	17.2	12.9
응답 수(명)	320,055	24,775	56,260	66,021	48,894	19,495	535,500
직무조정 필요하지만 배려 받지 못한 비율(%)	57.8	56.9	42.6	68.1	26.8	22.5	51.2
응답 수(명)	36,166	5,688	6,027	7,467	10,221	3,349	68,918
근무시간 조정 필요 비율(%)	8.5	21.5	12.3	4.2	10.5	22.5	9.7
응답 수(명)	320,055	24,775	56,260	66,021	48,894	19,495	535,500
근무시간 조정 필요하지만 배려 받지 못한 비율(%)	63.4	55.3	37.7	86.3	42.6	30.1	55.4
응답 수(명)	27,219	5,329	6,933	2,761	5,142	4,371	51,755
타인의 도움 필요 비율(%)	2.8	4.9	8.2	5.5	6.7	0.0	4.0
응답 수(명)	320,055	24,775	56,261	66,021	48,894	19,495	535,500
작업보조기기 사용 비율(%)	1.0	0.0	2.9	0.3	0.0	0.0	0.9
응답 수(명)	320,055	24,775	56,260	66,021	48,894	19,495	535,500
장애편의시설 필요 비율(%)	18.4	24.5	16.2	9.3	10.5	11.1	16.3
응답 수(명)	320,055	24,775	56,260	66,021	48,894	19,495	535,500
장애편의시설 설치 비율(%)	24.3	38.8	22.0	15.0	25.5	20.1	23.5
응답 수(명)	320,055	24,775	56,260	66,021	48,894	19,495	535,500
지난조사 이후 질병/사고 경험 비율(%)	1.1	0.0	2.1	0.8	1.6	2.0	1.2
응답 수(명)	320,055	24,775	56,260	66,021	48,894	19,495	535,500
노동조합 존재 비율(%)	12.2	7.9	4.9	4.0	0.0	11.8	9.1
응답 수(명)	319,557	24,775	56,260	66,021	48,894	19,495	535,003
노동조합 가입 비율(%)	64.7	76.6	85.0	77.1	0.0	32.5	65.5
응답 수(명)	39,034	1,964	2,777	2,648	0.0	2,295	48,718

주 1) '직무조정 필요하지만 배려 받지 못한 비율', '근무시간 조정 필요하지만 배려 받지 못한 비율'은 각각 직무조정과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2) '노동조합 가입 비율'은 노동조합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표 3-2-54〉 임금근로자 주요 특성 비교 - 장애유형별3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신체외부장애		감각장애		정신적	신체 내부	전 체
	지체	지체 제외	시각	시각 제외			
지난조사 이후 일자리 내 차별 경험 비율(%)	4.0	9.6	5.5	8.6	2.4	0.3	4.7
응답 수(명)	320,055	24,775	56,260	66,021	48,894	19,495	535,500
업무에 대한 전반적 불만족 비율(%)	4.7	2.5	6.7	3.5	1.1	1.6	4.2
응답 수(명)	320,055	24,775	56,260	66,021	48,894	19,495	535,500
임금/소득 불만족 비율(%)	34.9	25.7	29.1	37.4	36.0	13.3	33.5
응답 수(명)	320,055	24,775	56,260	66,021	48,894	19,495	535,500
취업의 안정성 불만족 비율(%)	17.7	15.9	15.9	24.6	6.6	10.9	17.0
응답 수(명)	320,055	24,775	56,260	66,021	48,894	19,495	535,500
일의 내용 불만족 비율(%)	6.4	5.4	10.2	9.0	9.8	1.6	7.2
응답 수(명)	320,055	24,775	56,260	66,021	48,894	19,495	535,500
근로환경 불만족 비율(%)	15.8	11.2	17.2	19.2	5.6	3.6	14.8
응답 수(명)	320,055	24,775	56,260	66,021	48,894	19,495	535,500
근로시간 불만족 비율(%)	12.6	7.4	11.9	10.5	7.0	6.5	11.3
응답 수(명)	320,055	24,775	56,260	66,021	48,894	19,495	535,500
개인의 발전 가능성 불만족 비율(%)	14.4	7.0	13.1	17.2	4.5	12.6	13.3
응답 수(명)	320,055	24,775	56,260	66,021	48,894	19,495	535,500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불만족 비율(%)	4.4	5.3	5.9	11.3	3.0	0.0	5.2
응답 수(명)	320,055	24,775	56,260	66,021	48,894	19,495	535,500
인사고과의 공정성 불만족 비율(%)	6.2	6.6	8.2	7.3	7.9	1.1	6.5
응답 수(명)	320,055	24,775	56,260	66,021	48,894	19,495	535,500
복리후생 불만족 비율(%)	28.3	18.1	31.8	25.9	9.9	14.3	25.7
응답 수(명)	320,055	24,775	56,260	66,021	48,894	19,495	535,500
교육훈련 기회 불만족 비율(%)	15.6	14.0	12.7	18.9	7.7	5.0	14.5
응답 수(명)	320,055	24,775	56,260	66,021	48,894	19,495	535,500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수용정도 불만족 비율(%)	7.7	9.6	7.7	13.9	3.2	2.7	7.9
응답 수(명)	320,055	24,775	56,260	66,021	48,894	19,495	535,500
전반적 불만족 비율(%)	6.4	2.5	8.0	6.1	7.1	1.6	6.3
응답 수(명)	320,055	24,775	56,260	66,021	48,894	19,495	535,500

주: 불만족 비율은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으로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임

제3절 자영업주 특성

1. 자영업주 인적구성

자영업주의 인적구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 83.3%, 여성 16.7%, 연령별로는 21~29세 0.0%, 30~39세 3.3%, 40~49세 12.7%, 50~59세 30.8%, 60~81세 53.3%로 나타났다. 장애정도별로는 중증장애인 21.1%, 경증장애인 78.9%이며,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67.2%)이 가장 많고, 정신적 장애인(0.8%)이 가장 적다. 지역별로는 기타 시도(63.1%)의 비중이 가장 많고, 수도권(23.6%), 광역시권(13.3%)의 순이며,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66.7%), 고졸(26.1%), 대졸 이상(7.2%)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 인구분포와 비교해보면, 성별에서는 남성, 연령별로는 40대, 50대, 장애정도별로는 경증,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 감각장애, 지역별로는 기타 시도,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의 비중이 전체의 비중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1〉 자영업주의 인적구성

(단위: %, 명)

변 수	구 분	비 율	장애인 인구분포	
성별	남성	83.3	59.6	
	여성	16.7	40.4	
연령별	21~29세	0.0	2.9	
	30~39세	3.3	7.0	
	40~49세	12.7	14.3	
	50~59세	30.8	23.8	
	60~81세	53.3	52.0	
장애정도별	중증	21.1	41.1	
	경증	78.9	58.9	
장애유형별	신체외부장애	지체장애	67.2	54.7
		지체 외	4.5	9.8
	감각장애	시각장애	12.1	10.2
		시각 외	11.4	9.7
	정신적 장애	0.8	10.5	
	신체내부장애	4.0	5.1	
지역	수도권	23.6	42.3	
	광역시권	13.3	19.3	
	기타 시도	63.1	38.3	
학력	중졸 이하	66.7	64.2	
	고졸	26.1	28.0	
	대졸 이상	7.2	7.8	
전 체		100.0	100.0	
추정 수		277,796	2,208,315	

2. 창업과정

자영업주의 31.2%가 창업을 하게 된 동기로 '이 사업 말고는 대안이 없어서'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사업을 물려받아서(14.0%)', '기술이나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서(10.7%)', '가족, 친지, 지인들의 권유로(10.4%)'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3-3-2〉 자영업주의 사업체 창업동기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기술이나 자격 보유	12.6	13.2	13.2	13.3	12.5	11.5	10.7
업무시간, 환경 조절 가능	5.1	5.5	5.6	6.0	6.7	6.7	7.5
사업을 물려받아서	13.3	13.9	13.3	12.5	13.7	14.0	14.0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서	4.4	5.3	4.7	4.4	5.0	6.1	5.9
가족이나 친인척 등과 함께 일하고 싶어서	3.1	3.9	3.8	3.7	3.7	3.3	3.2
회사에 취업하기 어려워서	8.1	5.3	6.7	5.7	5.8	5.2	5.1
이 사업 말고는 대안이 없어서	33.5	32.9	34.0	34.2	31.8	31.4	31.2
가족, 친지, 지인들의 권유로	7.8	8.5	8.6	9.1	9.4	9.8	10.4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1.1	2.0	2.0	2.2	1.9	2.2	2.4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0.9	0.7	1.0	1.3	1.8	1.8	1.7
장애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이 없어서	0.9	0.8	0.9	0.9	1.2	1.2	1.2
기타	4.0	3.4	2.9	3.4	3.2	3.4	3.2
모름/응답거절	0.0	0.2	0.2	0.0	0.0	0.0	0.0
특별히 없음	5.1	4.4	3.2	3.2	3.3	3.4	3.6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36,441	277,166	294,727	288,756	286,355	287,055	277,796

근무기간은 근무 시작연월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는데 이 때 정확한 월을 기억하지 못해 계절로 대신 응답한 경우 봄 4월, 여름 7월, 가을 10월, 겨울 12월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현재 자영업주의 사업체 평균 운영기간은 251.4개월로 나타났다.

〈표 3-3-3〉 자영업주의 사업체 운영기간 - 차수별

(단위: 개월,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운영기간	242.0	233.5	241.5	239.4	244.8	246.8	251.4
표준오차	0.420	0.371	0.364	0.366	0.377	0.373	0.394
응답 수	235,231	275,972	293,401	287,480	284,963	285,639	276,421

주: '운영기간'은 봄=4월, 여름=7월, 가을=10월, 겨울=12월로 처리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름/응답거절 제외한 분석임

사업체 운영기간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1년 미만 운영비율은 6.9%, 3년 이상 운영비율 86.6%, 10년 이상 운영비율 65.1%로 나타났다.

〈표 3-3-4〉 자영업주의 사업체 운영기간(범주)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1년 미만	5.2	4.8	2.8	5.0	3.8	3.9	6.9
1년 이상 3년 미만	10.3	8.7	10.0	7.7	9.3	9.4	6.1
3년 이상 10년 미만	23.2	25.5	22.8	23.1	21.7	21.4	21.5
10년 이상	60.8	60.5	63.9	63.8	64.6	64.7	65.1
모름/응답거절	0.5	0.4	0.4	0.4	0.5	0.5	0.5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36,441	277,166	294,727	288,756	286,355	287,055	277,796

주: '운영기간'은 봄=4월, 여름=7월, 가을=10월, 겨울=12월로 처리하여 분석하였음

자영업주가 현재의 사업체를 창업한 방식으로 '새로운 사업을 창업(동업 포함)' 42.4%, '가족, 친지, 지인으로부터 물려받음' 37.2%, '기존에 운영되던 것을 인수' 12.7%의 순으로 나타났다. 창업을 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59.0%가 3개월 미만 소요되었다고 응답하여 단기간에 창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5〉 자영업주의 사업체 창업방식 및 창업소요기간 - 차수별

(단위: %, 명)

변 수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창업 방식	가족, 친지, 지인으로부터 물려받음	35.9	38.6	37.7	35.8	38.1	38.3	37.2
	기존에 운영되던 것을 인수	12.2	12.4	12.6	12.9	12.6	12.1	12.7
	새로운 사업을 창업(동업 포함)	42.2	40.6	41.6	42.0	41.0	41.7	42.4
	기존 사업에 동업으로 참여	2.6	2.5	2.2	2.4	2.7	2.6	2.3
	기타	7.1	5.8	5.8	6.8	5.3	5.0	5.1
	모름/응답거절	0.0	0.2	0.2	0.2	0.2	0.3	0.3
창업 소요 기간	3개월 미만	53.7	55.7	57.0	58.7	57.9	57.4	59.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0.9	8.9	8.5	9.1	8.6	8.6	8.5
	6개월 이상 1년 미만	7.2	7.3	6.4	6.3	6.2	6.8	6.3
	1년 이상 2년 미만	8.4	8.0	8.1	7.2	8.1	7.7	8.0
	2년 이상 3년 미만	3.3	3.3	3.1	2.9	3.0	3.3	3.3
	3년 이상	16.5	16.6	16.8	15.5	15.8	15.9	14.5
	모름/응답거절	0.0	0.2	0.2	0.3	0.3	0.3	0.3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36,441	277,166	294,727	288,756	286,355	287,055	277,796

사업체를 창업하기 위한 초기투자비용은 '100만원 미만' 36.2%, '1,000~4,999만원' 27.4%, '100~299만원' 8.7%, '5,000~9,999만원' 8.4%로 나타났다.

〈표 3-3-6〉 자영업주의 초기투자비용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100만원 미만	38.9	34.2	33.1	33.2	34.9	33.4	36.2
100~299만원	8.8	9.8	10.1	10.6	8.8	9.2	8.7
300~499만원	3.2	4.0	4.6	4.3	4.6	4.5	4.4
500~999만원	7.7	7.8	7.6	7.8	7.0	7.4	7.1
1,000~4,999만원	26.8	27.9	28.4	28.2	28.5	29.0	27.4
5,000~9,999만원	7.9	9.6	8.6	8.5	9.0	9.4	8.4
1억원~2억 9,999만원	3.3	3.6	3.9	4.0	4.1	3.9	4.3
3억원 이상	2.5	2.0	2.0	1.7	1.3	1.2	1.4
모름/응답거절	0.9	1.1	1.7	1.8	1.7	1.9	2.2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36,441	277,166	294,727	288,756	286,355	287,055	277,796

주: 초기투자비용은 창업 시기에 따라 현재가치가 다를 수 있음

사업체를 창업하기 위한 총 투자비용에 대해 개별 출처별로 마련한 비용의 비율을 질문한 결과, 전체 투자비용 중 '본인'으로부터 약 57.5%의 비용이 마련되었으며, '가족 및 친지' 31.6%, '금융권 대출 및 용자' 7.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7〉 자영업주의 초기투자비용 마련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본인	50.8	52.6	53.0	55.0	55.7	56.7	57.5
가족 및 친지	36.3	35.7	35.3	33.2	33.2	32.3	31.6
정부지원금 및 용자	3.3	1.9	2.5	1.8	1.9	1.9	1.4
금융권 대출 및 용자	6.9	7.4	6.6	7.4	7.1	6.9	7.3
사채	1.2	1.1	1.1	0.9	0.5	0.6	0.5
기타	1.4	1.3	1.5	1.7	1.6	1.6	1.5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35,767	276,653	294,166	288,254	285,818	286,077	277,796

주: 초기투자비용 총액에 대한 비율이며, 모름/응답거절 제외한 분석임

창업 전에 교육, 훈련 등 창업을 위한 준비를 했는지, 했다면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질문하였다. 전체 자영업주 중 창업준비활동을 한 사람은 31.8%로 나타났으며, 1순위로 응답한 창업준비활동을 살펴보면 '부모 및 친지로부터 기술전수' 11.3%, '선배, 지인 등으로부터 기술전수' 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8〉 자영업주의 창업 전 준비활동내용(1순위)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공공기관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	1.1	1.2	1.2	1.2	1.7	2.1	2.1
민간기관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	0.7	0.7	0.7	0.6	0.7	0.7	0.4
학교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	0.5	0.5	0.6	0.7	0.7	0.5	0.5
사설학원 이용	1.2	1.5	1.0	0.9	0.8	0.6	0.8
부모 및 친지로부터 기술전수	10.9	12.9	12.8	12.8	12.9	11.8	11.3
선배, 지인 등으로부터 기술전수	9.0	7.7	8.7	7.3	6.8	6.8	6.4
회사로부터 직접 기술전수	1.9	1.5	1.2	1.9	1.6	1.5	1.5
독학	0.6	0.6	0.6	0.7	1.1	0.9	1.1
창업을 위한 정보수집	5.0	5.1	5.7	5.1	5.4	5.2	5.3
기타	2.1	2.2	2.2	2.5	2.3	2.4	2.4
특별히 준비한 것 없음	66.9	66.1	65.2	66.4	66.0	67.3	68.2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36,441	277,166	294,727	288,756	286,355	287,055	277,796

사업체 창업과 관련하여 겪었던 어려운 점 1순위로, '창업자금 확보' 29.6%, '기술확보' 14.7%, '인력확보' 1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9〉 자영업주의 사업체 창업 관련 애로사항(1순위)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창업정보 확보	6.5	7.0	6.8	7.3	6.6	6.7	7.4
창업자금 확보	34.5	31.4	32.6	31.2	30.7	29.9	29.6
기술확보	19.0	18.7	19.6	18.2	17.0	15.7	14.7
인력확보	11.1	13.4	12.2	12.3	12.0	12.7	12.4
창업지원기관 및 서비스 접근	2.3	1.7	2.0	1.5	1.4	1.5	1.3
행정적인 절차	0.6	0.7	0.6	0.6	0.5	0.7	0.8
업종선정	10.7	9.8	10.5	11.0	10.4	10.0	9.2
사업장 위치 선정	8.3	8.5	8.0	9.3	9.5	8.9	8.9
기타	2.9	2.6	2.6	2.6	2.7	3.0	3.3
특별히 없음	4.0	6.2	5.0	5.9	9.2	11.0	12.4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36,441	277,166	294,727	288,756	286,355	287,055	277,796

창업 활동 시 개인적으로 겪었던 어려운 점 1순위로, '신체기능의 제한' 30.5%, '심리적 불안감이나 초조함' 22.1%,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음' 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10〉 자영업주의 창업활동 시 애로사항(1순위)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신체기능의 제한	37.2	34.0	35.2	35.1	31.1	30.2	30.5
이동능력의 제한	4.4	3.6	3.0	3.1	3.4	3.5	3.0
의사소통의 제한	3.7	3.3	3.4	3.1	3.3	3.7	3.7
심리적 불안감이나 초조함	25.9	23.6	24.1	24.3	23.2	22.4	22.1
창업활동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음	4.2	3.7	4.1	4.2	5.0	5.0	4.7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	1.7	1.6	1.7	1.2	1.1	1.1	1.2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음	7.0	7.9	7.6	6.6	6.3	5.8	5.8
장애 이외의 질병이나 사고(건강문제)	5.5	4.8	4.1	4.6	4.5	4.5	4.9
기타	4.2	3.9	3.7	4.1	4.1	3.7	3.6
특별히 없었음	6.3	13.7	13.1	13.7	18.1	20.1	20.4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36,441	277,166	294,727	288,756	286,355	287,055	277,796

3. 일자리 및 업무특성

자영업주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 종류를 살펴보면, '개인사업체(농림어업)'이 44.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개인사업체(노점 제외)'가 44.4%, '개인사업체(노점)' 8.7%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11〉 자영업주의 사업체 종류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개인사업체(노점)	9.4	17.2	9.1	10.4	9.4	9.2	8.7
개인사업체(노점 제외)	42.4	34.1	42.6	42.9	42.6	43.9	44.4
개인사업체(농림어업)	46.0	46.0	46.1	44.5	45.4	45.1	44.7
회사법인	1.1	1.4	1.2	1.4	1.7	0.9	1.2
비영리법인/회사이외법인	0.4	0.1	0.1	0.2	0.3	0.6	0.4
비법인단체	0.6	0.5	0.8	0.5	0.3	0.2	0.2
기타	0.1	0.8	0.1	0.0	0.1	0.0	0.4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36,441	277,166	294,727	288,756	286,355	287,055	277,796

혼자 운영하는 1인 사업체는 83.3%로 가장 많고, 사업체의 전체 종업원이 1명인 경우는 10.7%로 나타났다.

〈표 3-3-12〉 자영업주 사업체의 종업원 규모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없음	41.8	40.9	42.1	42.5	42.7	43.0	83.3
1명	48.6	50.1	49.2	49.6	49.6	49.0	10.7
2명	5.2	4.7	5.0	4.5	4.0	3.6	2.1
3~9명	3.4	3.7	3.7	3.1	3.2	3.7	3.5
10명 이상	1.0	0.4	0.0	0.2	0.5	0.6	0.3
모름/응답거절	0.0	0.1	0.1	0.0	0.0	0.0	0.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36,441	277,166	294,727	288,756	286,355	287,055	277,796

주: 종업원 수에는 운영자 본인이 제외됨

무급가족종사자 등을 제외한 유급 종업원만을 고려했을 때, 1명 이상의 유급 종업원을 둔 자영업주는 9.1%이며, 본인 이외 장애인 종업원을 두고 있는 자영업주는 1.4%, 무급가족종사자를 두고 있는 비율은 9.4%로 나타났다.

〈표 3-3-13〉 자영업주 사업체의 유급 및 장애인 종업원, 무급가족종사자 유무 - 차수별

(단위: %, 명)

변 수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유급 종업원	없음	-	88.2	89.4	91.1	91.2	89.6	90.9
	있음	-	11.6	10.5	8.9	8.8	10.4	9.1
	모름/응답거절	-	0.1	0.1	0.0	0.0	0.0	0.0
장애인 종업원	없음	95.1	93.8	90.4	90.0	92.5	93.6	98.6
	있음	4.9	6.1	9.5	10.0	7.5	6.4	1.4
	모름/응답거절	0.0	0.1	0.1	0.0	0.0	0.0	0.0
무급가족종사자	없음	51.5	50.5	49.8	49.6	49.6	50.9	90.6
	있음	48.5	49.3	50.1	50.4	50.4	49.1	9.4
	모름/응답거절	0.0	0.1	0.1	0.0	0.0	0.0	0.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36,441	277,166	294,727	288,756	286,355	287,055	277,796

주: 유급종업원 수는 2차년도부터 조사되었음

사업체의 매출 및 수익규모를 살펴보면, 연평균 매출액은 3,486.3만원, 연평균 순수익은 1,453.7만원(세후 기준), 부채는 1,841.9만원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종류별로 살펴보면, 연평균 매출액은 고용주 11,286.9만원, 자영업자(노점 제외) 2,253.1만원, 자영업자(노점) 1,019.2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순수익은 고용주 2,974.9만원, 자영업자(노점 제외) 1,272.0만원, 자영업자(노점) 547.0만원이며, 부채는 고용주 3,296.3만원, 자영업자(노점 제외) 1,745.5만원, 자영업자(노점) 86.3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14〉 자영업주 사업체의 연평균 매출액, 연평균 순수익, 부채 - 자영업 종류별
(단위: 만원, 명)

구 분	전 체	자영업 종류		
		자영업자 (노점 제외)	자영업자 (노점)	고용주
연평균 매출액	3,486.3	2,253.1	1,019.2	11,286.9
표준오차	19.9	6.0	9.3	122.9
응답 수	272,611	207,296	24,726	40,589
연평균 순수익	1,453.7	1,272.0	547.0	2,974.9
표준오차	3.3	2.4	3.6	16.2
응답 수	265,688	202,078	24,726	38,884
부채	1,841.9	1,754.5	86.3	3,296.3
표준오차	10.2	10.59	2.5	39.3
응답 수	277,658	209,439	25,210	43,009

주: 모름/응답거절 제외한 분석임

사업체에서 운영하는 사무실, 공장, 노점, 차량, 점포 등 사업장 개수를 파악한 결과, 1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주는 94.1%이며,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5.9%로 나타났다.

〈표 3-3-15〉 자영업주 사업체의 사업장 개수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없음	20.9	13.1	5.6	5.9	4.9	5.7	5.9
1개	65.4	75.4	84.8	83.1	81.5	82.2	83.4
2개	9.2	7.4	6.3	7.2	9.0	7.9	6.1
3개 이상	4.4	4.0	3.2	3.8	4.6	4.2	4.5
모름/응답거절	0.1	0.1	0.1	0.0	0.0	0.0	0.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36,441	277,166	294,727	288,756	286,355	287,055	277,796

자영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 형태를 파악한 결과, '농지, 임야' 44.6%, '점포' 23.4%, '차량' 13.8%, '노점(가판 포함)' 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16〉 자영업주 사업체의 사업장 형태(중복응답)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노점(가판 포함)	3.9	7.0	5.4	4.6	4.5	4.9	5.5
차량	7.9	10.5	10.8	11.3	12.6	12.5	13.8
점포	23.8	21.5	22.9	25.2	22.8	22.2	23.4
사무실	6.5	6.4	5.7	6.0	5.5	5.5	4.5
공장	2.5	1.4	2.5	2.0	2.8	3.2	2.8
창고	1.3	0.6	1.1	0.9	1.4	1.1	0.9
인터넷	0.1	0.2	0.0	0.2	0.5	0.7	0.5
무점포	0.1	0.7	0.2	0.4	0.6	0.7	1.1
농지, 임야	49.1	48.0	46.8	45.0	45.8	45.9	44.6
어선	0.7	1.1	0.9	0.8	0.6	0.6	0.8
축사나 목장	6.2	3.3	3.8	4.6	4.4	3.7	3.3
양식업장	0.1	0.3	0.1	0.3	0.3	0.1	0.3
기타	4.1	2.7	3.5	2.9	2.0	2.6	1.9
모름/응답거절	0.0	0.1	0.1	0.0	0.0	0.0	0.0
전 체	-	-	-	-	-	-	-
추정 수	186,965	240,760	278,342	271,796	272,331	270,796	261,377

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1.4%의 자영업주가 다른 사람과 동업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3-3-17〉 자영업주 동업 여부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동업을 하고 있음	1.3	2.3	1.3	0.9	0.9	1.4	1.4
동업 하지 않음	98.7	97.7	98.6	99.1	99.1	98.6	98.6
모름/응답거절	0.0	0.0	0.1	0.0	0.0	0.0	0.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36,441	277,166	294,727	288,756	286,355	287,055	277,796

4. 근로조건 및 실태

월평균 근무일수와 일평균 근무시간을 응답받은 결과, 전체 자영업주의 월평균 근무일수는 21.8일이며, 일평균 근무시간은 8.0시간으로 나타났다.

〈표 3-3-18〉 자영업주의 월평균 근무일수, 일평균 근무시간 - 차수별

(단위: 개별단위,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월평균 근무일수(일)	22.0	21.6	21.7	21.5	21.7	22.0	21.8
표준오차	0.012	0.011	0.010	0.011	0.010	0.010	0.010
응답 수	235,114	277,166	294,129	288,756	286,355	287,055	277,796
일평균 근무시간(시간)	8.3	8.2	8.1	8.0	7.9	8.0	8.0
표준오차	0.007	0.006	0.006	0.006	0.005	0.005	0.005
응답 수	235,114	277,166	294,085	288,756	285,700	287,055	277,796

주: 모름/응답거절 제외한 분석임

본 조사에서 파악한 결근일수는 근무하기로 되어 있으나 장애, 질병, 치료 등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날을 의미하는데 오전 근무나 오후 근무만 한 경우 0.5일로 산정하여 조사하였다. 전체 자영업주 중 조사일 전월 결근이 있었던 경우는 4.8%로 나타났다.

〈표 3-3-19〉 자영업주의 지난 달 본인의 건강으로 인한 결근 유무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결근 없음	84.2	82.9	91.1	91.2	95.0	96.3	95.2
결근 있음	15.7	16.5	8.6	8.8	5.0	3.7	4.8
모름/응답거절	0.1	0.7	0.3	0.0	0.0	0.0	0.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36,441	277,166	294,727	288,756	286,355	287,055	277,796

사업체를 시작한 후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였는지 응답받은 결과, 전체 자영업주의 19.1%가 아직 도달하지 못했으며, 이러한 비율은 고용주(12.6%)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3-20〉 자영업주의 손익분기점 도달 여부 - 자영업 종류별

(단위: %, 명)

구 분	전 체	자영업 종류		
		자영업자 (노점 제외)	자영업자 (노점)	고용주
도달함	80.5	79.5	76.7	87.4
도달하지 못함	19.1	19.9	23.3	12.6
모름/응답거절	0.5	0.6	0.0	0.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77,796	209,439	25,210	43,147

주: 2차년도부터 조사되었음

5. 직장생활 및 이직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을 질문하였다. 전체 자영업주의 78.1%가 '만성적인 적자 또는 적은 소득'을 애로사항 1순위로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고객과의 관계형성(7.0%)', '인력관리의 어려움(5.9%)'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3-3-21〉 자영업주의 사업체 운영 시 애로사항(1순위)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만성적인 적자 또는 적은 소득	75.2	78.4	80.8	77.5	85.0	79.9	78.1
창업 시 부채	7.0	3.8	4.4	3.0	3.4	5.9	3.3
인력관리의 어려움	1.7	6.1	5.1	8.2	2.4	6.7	5.9
기술개발의 어려움	1.6	0.8	2.1	0.5	0.8	0.7	1.8
컨설팅 및 자문의 부족	1.0	0.3	0.1	0.6	0.9	0.6	0.6
행정적인 절차상의 어려움	0.9	0.0	0.3	0.0	0.0	0.2	0.1
협력업체와의 업무협력	0.9	1.1	0.4	0.8	0.7	0.5	1.0
고객과의 관계형성	5.2	4.9	2.3	5.7	4.6	5.0	7.0
기타	6.4	4.6	4.4	3.6	2.2	0.6	2.3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36,441	277,166	294,727	288,756	286,355	287,055	277,796

주: 1순위에 대해서는 '없음'을 허용하지 않음

사업운영과 관련된 어려운 점을 제외하고 일자리 근무 시 애로사항에 대해 1, 2순위로 질문하였다. 1순위로 선택한 애로사항에 대해 전체 자영업주의 32.5%가 '신체기능의 제한'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움(32.1%)', '지속적 근무의 어려움(10.4%)'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1순위의 애로사항의 장애 기인 여부에 대해 전체의 44.4%가 장애로 인한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3-3-22〉 자영업주의 일자리 근무 시 애로사항(1순위)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신체기능의 제한	44.4	35.3	27.6	34.4	32.0	33.3	32.5
이동능력의 제한	3.7	2.8	3.5	2.0	3.1	2.7	2.2
의사소통의 제한	2.9	3.5	3.6	3.9	4.3	3.6	3.9
심리적 불안감이나 초조함	7.0	3.7	3.7	4.0	3.0	5.0	5.7
장애이외의 질병이나 사고	3.3	3.1	8.1	5.9	4.4	3.9	4.7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움	23.2	29.2	33.4	31.9	35.7	34.7	32.1
근무환경의 문제	1.8	2.0	2.4	4.4	3.1	3.8	1.9
장애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	0.7	0.7	0.5	0.3	0.3	0.3	0.0
적성, 흥미, 전공에 부합하지 않음	0.2	0.4	1.0	0.3	0.7	0.2	1.1
지속적 근무의 어려움	7.4	9.3	12.3	9.8	6.4	8.9	10.4
개인적 사유 발생	1.0	1.4	0.4	0.2	1.9	1.3	1.1
기타	4.4	8.7	3.5	3.1	5.2	2.3	4.3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36,441	277,166	294,727	288,756	286,355	287,055	277,796
장애로 인함	63.6	57.9	49.5	52.2	52.6	48.1	44.4
장애로 인한 것이 아님	36.4	42.1	50.3	47.8	47.4	51.9	55.6
모름/응답거절	0.0	0.0	0.1	0.0	0.0	0.0	0.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36,441	277,166	294,727	288,756	286,355	287,055	277,796

주: 1순위에 대해서는 '없음'을 허용하지 않음

사업체를 계속 운영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자영업주의 3.9%로 나타났다.

〈표 3-3-23〉 자영업주의 일자리 이직의사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일자리 지속근무 의향 있음	96.4	97.2	92.6	92.0	94.7	94.5	96.1
일자리 지속근무 의향 없음	3.6	2.7	7.3	8.0	5.3	5.5	3.9
모름/응답거절	0.0	0.2	0.1	0.0	0.0	0.0	0.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36,441	277,166	294,727	288,756	286,355	287,055	277,796

사업체를 계속 운영할 의향이 없다고 한 응답자에게 그 사유를 질문하였다. 이직사유로 65.9%가 '만성적인 적자 또는 소득이 적음'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움(11.6%)', '장애상태의 악화(9.9%)'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3-3-24〉 자영업주의 일자리 이직사유(1순위)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장애상태의 악화	8.6	10.1	19.7	9.8	18.8	20.6	9.9
장애 이외의 질병이나 사고	28.9	35.0	8.5	14.6	2.6	20.1	6.7
만성적인 적자 또는 소득이 적음	22.1	42.9	44.4	40.7	53.9	53.0	65.9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움	7.6	8.6	19.5	20.9	22.0	3.5	11.6
임금근로로 취업 위함	6.8	0.0	0.0	0.0	0.0	1.7	3.0
다른 사업하기 위함	3.4	0.0	0.0	0.0	0.0	0.0	0.0
개인적 사유 발생	1.8	0.0	7.9	11.2	0.0	1.1	0.0
기타	14.6	3.3	0.0	2.8	2.7	0.0	2.9
특별히 없음	6.3	-	-	-	-	-	-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8,522	7,382	21,511	23,223	15,125	15,803	10,723
장애로 인함	10.0	18.0	37.3	24.8	20.1	24.2	11.0
장애로 인한 것이 아님	90.0	82.0	62.7	75.2	79.9	75.8	89.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7,986	7,382	21,511	23,223	15,125	15,803	10,723

주 1) 계속 운영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2) 1순위에 대해서는 '없음'을 허용하지 않음(1차년도 제외)

사업체를 계속 운영할 의향이 없다고 한 응답자에게 다른 일자리를 얻기 위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사업체를 계속 운영할 의향이 없는 응답자의 13.9%로 나타났다.

〈표 3-3-25〉 자영업주의 이직을 위한 구직활동 여부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구직활동 하고 있음	5.4	14.9	6.5	4.1	6.0	5.5	13.9
구직활동 하고 있지 않음	94.6	85.1	93.5	95.9	94.0	94.5	86.1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8,522	7,382	21,511	23,223	15,125	15,803	10,723

주: 계속 운영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전체 자영업주의 6.6%는 현재 하는 일을 그만두고 향후 임금근로로 전직하고 싶다고 응답하였으며, '고용주'의 임금근로 전직 희망 비율이 1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3-26〉 자영업주의 임금근로 전직 희망 여부 - 자영업 종류별

(단위: %, 명)

구 분	전 체	자영업 종류		
		자영업자 (노점 제외)	자영업자 (노점)	고용주
전혀 희망하지 않음	54.0	55.7	44.3	50.9
희망하지 않음	39.4	38.7	47.4	38.6
보통	0.0	0.0	0.0	0.0
희망하고 있음	5.5	5.1	6.4	6.8
매우 희망하고 있음	1.1	0.5	1.8	3.6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77,795	209,439	25,210	43,146

주: 3차년도부터 조사되었음

6. 근무환경 - 장애

일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 전체 자영업주의 4.6%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중 20.8%가 필요하지만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27〉 자영업주의 업무 수행 시 타인의 도움 필요 여부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타인의 도움 필요	19.0	14.6	8.9	7.6	6.5	5.6	4.6
타인의 도움 불필요	81.0	85.4	90.9	92.4	93.5	94.4	95.4
모름/응답거절	0.0	0.0	0.1	0.0	0.0	0.0	0.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36,441	277,166	294,727	288,756	286,355	287,055	277,796
필요하나 도움 받지 못하는 비율(%)	35.8	32.6	19.7	14.9	14.2	16.9	20.8

주: 필요하나 도움 받지 못하는 비율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나 출퇴근 지원, 사무보조 지원, 작업지원, 의사소통 지원, 일자리 내 이동지원, 일자리 내 일상생활 지원 등의 분야 중 타인으로부터 어느 하나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인원으로 산정함

일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 개별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움이 가장 많이 필요한 분야는 '작업지원' 74.0%, '출퇴근 지원' 27.6%, '사무보조 지원' 24.8%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28〉 자영업주의 항목별 타인의 도움 필요 여부 및 도움 비율 - 차수별

(단위: %, 명)

변 수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출퇴근 지원	필요비율	17.1	4.7	10.9	7.8	6.0	16.9	27.6
	추정 수	44,838	40,585	26,314	21,806	18,510	16,020	12,676
	필요하나 도움 받지 못하는 비율	63.9	36.2	79.6	82.7	71.5	34.5	64.6
사무보조 지원	필요비율	6.8	11.4	13.7	10.4	12.0	22.3	24.8
	추정 수	44,838	40,585	26,314	21,806	18,510	16,020	12,676
	필요하나 도움 받지 못하는 비율	51.3	14.7	40.3	29.4	0.0	17.5	0.0
작업지원	필요비율	63.3	76.7	79.2	87.6	82.1	80.5	74.0
	추정 수	44,838	40,585	26,314	21,806	18,510	16,020	12,676
	필요하나 도움 받지 못하는 비율	14.5	27.3	22.8	17.0	10.7	12.5	17.1
의사소통 지원	필요비율	10.9	5.2	14.4	15.5	7.2	11.6	23.5
	추정 수	44,838	40,585	26,314	21,806	18,510	16,020	12,676
	필요하나 도움 받지 못하는 비율	77.4	0.0	45.5	5.9	0.0	0.0	22.6
일자리 내 이동지원	필요비율	21.2	3.0	8.2	11.0	11.3	21.8	10.7
	추정 수	44,838	40,585	26,314	21,806	18,510	16,020	12,676
	필요하나 도움 받지 못하는 비율	11.7	69.0	53.3	60.1	63.9	35.6	26.2
일자리 내 일상생활 지원	필요비율	7.0	0.5	12.3	6.4	23.4	28.3	23.0
	추정 수	44,838	40,585	26,314	21,806	18,510	16,020	12,676
	필요하나 도움 받지 못하는 비율	40.9	100.0	9.1	69.9	23.4	27.4	0.0

주: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일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장애로 인한 기능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작업보조기기가 필요한지에 대해 전체 자영업주의 2.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 중 57.6%가 필요하지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29〉 자영업주의 작업보조기기 필요 여부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필요	5.9	4.6	4.2	2.7	2.4	2.6	2.3
불필요	94.1	95.4	95.6	97.3	97.6	97.4	97.7
모름/응답거절	0.0	0.0	0.1	0.0	0.0	0.0	0.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36,441	277,166	294,727	288,756	286,355	287,055	277,796
필요하나 사용하지 못하는 비율(%)	75.6	82.8	90.1	71.3	70.9	72.0	57.6

일자리에 필요한 장애편의시설에 대해 전체 자영업주의 4.8%가 필요한 것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하나 이상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8%로 나타났다.

〈표 3-3-30〉 자영업주의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되어 있는 편의시설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필요시설	필요한 것이 있음	11.6	7.8	6.7	7.0	5.8	6.8	4.8
	필요한 것이 없음	88.4	92.2	93.3	93.0	94.2	93.2	95.2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36,441	277,166	294,727	288,756	286,355	287,055	277,796
설치시설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음	3.7	3.6	3.2	2.8	2.2	2.9	2.8
	설치되어 있는 것이 없음	96.3	96.4	96.8	97.2	97.8	97.1	97.2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36,441	277,166	294,727	288,756	286,355	287,055	277,796

7. 근무환경 - 기타

근무하는 일자리의 안전정도에 대해 전체 자영업주의 23.2%가 위험한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지난조사 이후 이 일자리에서 질병, 사고 등을 경험한 비율은 1.8%로 나타났다.

〈표 3-3-31〉 자영업주의 근무환경 안전정도 및 질병/사고 경험 여부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근무 환경 안전 정도	매우 위험한 편	4.2	1.9	2.8	1.7	1.9	0.5	0.9
	위험한 편	27.5	27.4	28.6	21.0	20.6	21.9	22.3
	안전한 편	57.0	61.2	57.2	66.5	68.4	67.4	67.8
	매우 안전한 편	11.3	9.5	11.3	10.8	9.1	10.1	9.1
	모름/응답거절	0.0	0.0	0.1	0.0	0.0	0.0	0.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36,441	277,166	294,727	288,756	286,355	287,055	277,796
질병 사고 경험 여부	경험 있음	14.5	3.3	3.2	1.6	3.1	2.0	1.8
	장해등급 부여받음	3.0	0.0	0.0	0.0	0.0	0.0	0.0
	장해등급 부여받지 않음	97.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소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경험 없음	85.5	96.7	96.7	98.4	96.9	98.0	98.2
	모름/응답거절	0.0	0.0	0.1	0.0	0.0	0.0	0.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36,441	277,166	294,727	288,756	286,355	287,055	277,796

주: '질병, 사고 경험 여부'는 2차년도부터 지난조사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질문함

8. 주관적 만족도, 가치관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수준이 본인의 교육수준보다 낮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자영업주의 9.3%였으며 본인의 교육수준보다 높다고 응답한 사람은 43.6%였다.

〈표 3-3-32〉 자영업주가 생각하는 업무수준(교육수준 비교)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교육수준보다 낮음	19.2	18.5	15.0	8.0	8.5	8.9	9.3
교육수준 정도	47.4	53.1	46.4	52.6	52.9	53.4	47.2
교육수준보다 높음	33.4	28.4	38.5	39.4	38.6	37.6	43.6
모름/응답거절	0.0	0.0	0.1	0.0	0.0	0.0	0.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36,441	277,166	294,727	288,756	286,355	287,055	277,796

주: 5점 Likert 척도로 질문하였으며 하위 두 개, 상위 두 개의 범주를 합한 분석 결과임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수준이 본인의 기술수준보다 낮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자영업주의 6.6%였으며 본인의 기술수준보다 높다고 응답한 사람은 45.8%였다.

〈표 3-3-33〉 자영업주가 생각하는 업무수준(기술수준 비교)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기술수준보다 낮음	17.2	18.1	12.8	7.4	8.4	6.7	6.6
기술수준 정도	51.0	51.8	42.5	53.7	50.5	52.7	47.6
기술수준보다 높음	31.8	30.1	44.6	38.9	41.2	40.6	45.8
모름/응답거절	0.0	0.0	0.1	0.0	0.0	0.0	0.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36,441	277,166	294,727	288,756	286,355	287,055	277,796

주: 5점 Likert 척도로 질문하였으며 하위 두 개, 상위 두 개의 범주를 합한 분석 결과임

〈표 3-3-34〉 자영업주가 생각하는 업무의 유용성(다른 일자리에서도 유용)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유용하지 않음	32.5	27.5	33.9	22.4	22.2	24.2	25.7
보통	44.0	46.0	38.3	50.8	57.6	56.2	56.6
유용함	23.5	26.4	27.7	26.9	20.1	19.6	17.7
모름/응답거절	0.0	0.0	0.1	0.0	0.0	0.0	0.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36,441	277,166	294,727	288,756	286,355	287,055	277,796

주: 5점 Likert 척도로 질문하였으며 하위 두 개, 상위 두 개의 범주를 합한 분석 결과임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다른 일자리에서도 유용할지에 대해 전체 자영업주의 17.7%가 유용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유용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5.7%였다. 또한 담당하는 업무를 계속하고 싶다가 56.9%로 높게 나타났다.

〈표 3-3-35〉 자영업주의 업무에 대한 생각(열정, 즐거움, 만족도 등) - 7차
(단위: %, 명)

구 분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	즐겁게 하고 있다	보람을 느낀다	이 업무를 계속하고 싶다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그렇지 않다	17.6	17.4	16.1	6.9	11.5
보통이다	47.7	54.4	56.2	36.2	68.9
그렇다	34.7	28.2	27.7	56.9	19.7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77,796	277,796	277,796	277,796	277,796

주 1) 5점 Likert 척도로 질문하였으며 하위 두 개, 상위 두 개의 범주를 합한 분석 결과임

〈표 3-3-36〉 자영업주의 주관적 만족도 - 차수별
(단위: %, 5점 척도, 명)

변 수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소득	불만족 비율	6.52	62.7	62.9	60.1	61.4	54.6	55.8
	만족도 점수	2.20	2.25	2.28	2.29	2.28	2.44	2.45
	응답 수	236,441	277,166	294,353	288,756	286,355	287,055	277,796
사업의 안정성	불만족 비율	37.4	34.2	33.6	26.5	23.2	24.6	21.1
	만족도 점수	2.71	2.79	2.79	2.91	2.92	2.89	2.99
	응답 수	236,441	277,166	294,353	288,756	286,355	287,055	277,796
일의 내용	불만족 비율	35.7	28.5	26.0	19.9	16.5	14.4	13.7
	만족도 점수	2.77	2.88	2.95	2.98	3.04	3.05	3.09
	응답 수	236,441	277,166	294,353	288,756	286,355	287,055	277,796
근로환경	불만족 비율	38.6	29.9	30.5	24.9	22.5	20.0	19.3
	만족도 점수	2.72	2.86	2.85	2.95	2.91	2.97	2.99
	응답 수	236,441	277,166	294,353	288,756	286,355	287,055	277,796
근로시간	불만족 비율	32.8	27.4	23.2	20.6	20.8	19.9	17.7
	만족도 점수	2.86	2.96	2.99	3.06	3.05	3.01	3.06
	응답 수	236,441	277,166	294,353	288,756	286,355	287,055	277,796
개인의 발전가능성	불만족 비율	46.2	40.7	39.1	37.2	31.3	27.1	19.4
	만족도 점수	2.52	2.60	2.61	2.70	2.73	2.80	2.89
	응답 수	236,441	277,166	294,353	288,756	286,355	287,055	277,796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불만족 비율	13.4	10.8	7.8	9.2	7.1	6.9	7.2
	만족도 점수	3.27	3.25	3.33	3.27	3.26	3.24	3.25
	응답 수	236,441	277,166	294,353	288,756	286,355	287,055	277,796
전반적 만족도	불만족 비율	30.1	24.1	20.4	22.9	22.1	15.5	14.6
	만족도 점수	2.87	2.90	2.94	2.95	2.94	2.97	3.02
	응답 수	236,441	277,166	294,353	288,756	286,355	287,055	277,796

주 1) 5점 Likert 척도로 질문하였으며 불만족 비율은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으로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임

2) 모름/응답거절 제외한 분석임

3) 크론바흐 알파값(α)=0.871

자영업주의 주관적 만족도를 응답받은 결과, 전반적으로 사업체에 대해 불만족하는 비율은 14.6%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에 불만족하는 비율이 55.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사업의 안정성' 21.1%, '개인의 발전가능성' 19.4%, '근로환경' 19.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7.2%)'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불만족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5점 Likert 척도로 질문한 각 항목의 평균 점수를 구한 결과, 전반적 만족도 점수는 3.02점이며,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3.25점, '일의 내용' 3.09점, '근로시간' 3.06점으로 나타난 반면, '개인의 발전가능성'은 2.89점, '소득'은 2.45점으로 상대적으로 만족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사업체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7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전체 자영업주 중 31.5%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36.8%가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표 3-3-37〉 자영업주의 사업체 운영에 대한 전반적 평가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긍정적	33.4	30.7	29.5	31.2	27.1	31.5
그저 그렇다	31.3	29.7	31.5	31.0	36.6	31.7
부정적	35.3	39.5	39.0	37.8	36.3	36.8
모름/응답거절	0.0	0.1	0.0	0.0	0.0	0.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77,166	294,727	288,756	286,355	287,055	277,796

주 1) 하위 세 개, 상위 세 개의 범주를 합한 분석 결과임

2) 2차년도부터 조사되었음

9. 주요 변수별 자영업주 특성 비교

〈표 3-3-38〉 자영업주 주요 특성 비교 - 성별1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남 성	여 성	전 체
사업체 운영기간(개월)	263.8	189.1	251.4
응답 수(명)	230,572	45,849	276,421
사업체 종류 - 개인사업체(노점)(%)	6.9	17.9	8.7
응답 수(명)	231,378	46,418	277,796
사업체 종류 - 개인사업체(노점 제외)(%)	43.4	49.5	44.4
응답 수(명)	231,378	46,418	277,796
사업체 종류 - 개인(농림어업)(%)	47.4	31.3	44.7
응답 수(명)	231,378	46,418	277,796
연간 매출액(만원)	3,897	1,356	3,486
응답 수(명)	228,581	44,030	272,611
연간 순수익(만원)	1,600.2	703.2	1,453.7
응답 수(명)	222,302	43,386	265,688
월평균 근무일수(일)	21.7	22.2	21.8
응답 수(명)	231,378	46,418	277,796
일평균 근무시간(시간)	8.10	7.61	8.02
응답 수(명)	231,378	46,418	277,796
근무 시 애로사항이 장애로 인한 것인 비율(%)	45.5	38.6	44.4
응답 수(명)	231,378	46,418	277,796
사업체 지속 운영 의향이 없는 비율(%)	3.6	5.1	3.9
응답 수(명)	231,378	46,418	277,796
임금근로 전직 희망 비율(%)	6.6	6.3	6.6
응답 수(명)	231,378	46,418	277,796

주 1) '사업체 운영기간'은 봄=4월, 여름=7월, 가을=10월, 겨울=12월로 처리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름/응답거절 제외한 분석임

2) '연간 매출액', '연간 순수익', '월평균 근무일수', '일평균 근무시간'은 모름/응답거절 제외한 분석임

3) '임금근로 전직 희망 비율'은 '그렇음'과 '매우 그렇음'으로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임

〈표 3-3-39〉 자영업주 주요 특성 비교 - 성별2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남 성	여 성	전 체
타인의 도움 필요 비율(%)	3.6	9.1	4.6
응답 수(명)	231,378	46,418	277,796
작업보조기기 사용 비율(%)	1.6	0.0	1.3
응답 수(명)	231,378	46,418	277,796
장애편의시설 필요 비율(%)	4.4	7.0	4.8
응답 수(명)	231,378	46,418	277,796
장애편의시설 설치 비율(%)	3.2	1.1	2.8
응답 수(명)	231,378	46,418	277,796
지난조사 이후 질병/사고 경험 비율(%)	1.7	2.0	1.8
응답 수(명)	231,378	46,418	277,796
업무에 대한 전반적 불만족 비율(%)	9.6	20.6	11.5
응답 수(명)	231,378	46,418	277,796
소득 불만족 비율(%)	52.7	71.1	55.8
응답 수(명)	231,378	46,418	277,796
사업의 안정성 불만족 비율(%)	18.0	36.6	21.1
응답 수(명)	231,378	46,418	277,796
일의 내용 불만족 비율(%)	11.0	27.1	13.7
응답 수(명)	231,378	46,418	277,796
근로환경 불만족 비율(%)	18.1	25.6	19.3
응답 수(명)	231,378	46,418	277,796
근로시간 불만족 비율(%)	17.7	17.7	17.7
응답 수(명)	231,378	46,418	277,796
개인의 발전 가능성 불만족 비율(%)	18.9	21.6	19.4
응답 수(명)	231,378	46,418	277,796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불만족 비율(%)	7.8	4.1	7.2
응답 수(명)	231,378	46,418	277,796
전반적 불만족 비율(%)	13.7	19.6	14.6
응답 수(명)	231,378	46,418	277,796

주: 불만족 비율은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으로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임

〈표 3-3-40〉 자영업주 주요 특성 비교 - 연령별¹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30~39세	40~49세	50~59세	60~81세	전 체
사업체 운영기간(개월)	75.6	110.5	172.8	341.4	251.4
응답 수(명)	9,041	35,267	85,034	147,079	276,421
사업체 종류 - 개인사업체(노점)(%)	0.0	11.8	8.6	8.6	8.7
응답 수(명)	9,041	35,267	85,451	148,037	277,796
사업체 종류 - 개인사업체(노점 제외)(%)	96.4	70.8	63.1	24.2	44.4
응답 수(명)	9,041	35,267	85,451	148,037	277,796
사업체 종류 - 개인(농림어업)(%)	3.6	11.9	25.4	66.1	44.7
응답 수(명)	9,041	35,267	85,451	148,037	277,796
연간 매출액(만원)	9,043.5	6,361.1	4,883.9	1,689.3	3,486.3
응답 수(명)	9,041	33,609	83,379	146,583	272,611
연간 순수익(만원)	3,212.7	2,077.4	1,763.6	1,032.8	1,453.7
응답 수(명)	9,041	32,805	79,165	144,676	265,688
월평균 근무일수(일)	24.6	23.5	21.8	21.1	21.8
응답 수(명)	9,041	35,267	85,451	148,037	277,796
일평균 근무시간(시간)	10.1	9.6	8.5	7.2	8.0
응답 수(명)	9,041	35,267	85,451	148,037	277,796
근무 시 애로사항이 장애로 인한 것인 비율(%)	31.8	37.5	39.3	49.7	44.4
응답 수(명)	9,041	35,267	85,451	148,037	277,796
사업체 지속 운영 의향이 없는 비율(%)	3.9	6.7	2.4	4.0	3.9
응답 수(명)	9,041	35,267	85,451	148,037	277,796
임금근로 전직 희망 비율(%)	3.9	8.6	8.0	5.5	6.6
응답 수(명)	9,041	35,267	85,451	148,037	277,796

주 1) '사업체 운영기간'은 봄=4월, 여름=7월, 가을=10월, 겨울=12월로 처리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름/응답거절 제외한 분석임

2) '연간 매출액', '연간 순수익', '월평균 근무일수', '일평균 근무시간'은 모름/응답거절 제외한 분석임

3) '임금근로 전직 희망 비율'은 '그렇음'과 '매우 그렇음'으로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임

〈표 3-3-41〉 자영업주 주요 특성 비교 - 연령별2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30~39세	40~49세	50~59세	60~81세	전 체
타인의 도움 필요 비율(%)	0.0	5.8	2.6	5.7	4.6
응답 수(명)	9,041	35,267	85,451	148,037	277,796
작업보조기기 사용 비율(%)	0.0	1.9	0.5	1.8	1.3
응답 수(명)	9,041	35,267	85,451	148,037	277,796
장애편의시설 필요 비율(%)	10.5	7.5	5.7	3.3	4.8
응답 수(명)	9,041	35,267	85,451	148,037	277,796
장애편의시설 설치 비율(%)	10.5	1.3	2.6	2.9	2.8
응답 수(명)	9,041	35,267	85,451	148,037	277,796
지난조사 이후 질병/사고 경험 비율(%)	0.0	1.8	3.2	1.1	1.8
응답 수(명)	9,041	35,267	85,451	148,037	277,796
업무에 대한 전반적 불만족 비율(%)	3.9	4.8	12.6	12.9	11.5
응답 수(명)	9,041	35,267	85,451	148,037	277,796
소득 불만족 비율(%)	52.5	43.4	52.4	60.9	55.8
응답 수(명)	9,041	35,267	85,451	148,037	277,796
사업의 안정성 불만족 비율(%)	28.8	11.4	22.8	22.0	21.1
응답 수(명)	9,041	35,267	85,451	148,037	277,796
일의 내용 불만족 비율(%)	10.5	7.3	12.8	16.0	13.7
응답 수(명)	9,041	35,267	85,451	148,037	277,796
근로환경 불만족 비율(%)	28.8	21.5	22.1	16.6	19.3
응답 수(명)	9,041	35,267	85,451	148,037	277,796
근로시간 불만족 비율(%)	36.3	13.9	17.6	17.5	17.7
응답 수(명)	9,041	35,267	85,451	148,037	277,796
개인의 발전 가능성 불만족 비율(%)	14.4	11.6	21.4	20.3	19.4
응답 수(명)	9,041	35,267	85,451	148,036	277,796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불만족 비율(%)	18.1	3.4	5.8	8.3	7.2
응답 수(명)	9,041	35,267	85,451	148,037	277,796
전반적 불만족 비율(%)	0.0	10.6	14.5	16.6	14.6
응답 수(명)	9,041	35,267	85,451	148,037	277,796

주: 불만족 비율은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으로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임

〈표 3-3-42〉 자영업주 주요 특성 비교 - 장애정도별¹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중증	경증	전 체
사업체 운영기간(개월)	234.9	255.8	251.4
응답 수(명)	58,040	218,381	276,421
사업체 종류 - 개인사업체(노점)(%)	11.8	7.9	8.7
응답 수(명)	58,608	219,188	277,796
사업체 종류 - 개인사업체(노점 제외)(%)	45.5	44.1	44.4
응답 수(명)	58,608	219,188	277,796
사업체 종류 - 개인(농림어업)(%)	40.3	45.9	44.7
응답 수(명)	58,608	219,188	277,796
연간 매출액(만원)	2,970.4	3,622.1	3,486.3
응답 수(명)	56,813	215,798	272,611
연간 순수익(만원)	1,183.0	1,526.1	1,453.7
응답 수(명)	56,042	209,646	265,688
월평균 근무일수(일)	22.0	21.7	21.8
응답 수(명)	58,608	219,188	277,796
일평균 근무시간(시간)	8.1	8.0	8.0
응답 수(명)	58,608	219,188	277,796
근무 시 애로사항이 장애로 인한 것인 비율(%)	65.6	38.7	44.4
응답 수(명)	58,608	219,188	277,796
사업체 지속 운영 의향이 없는 비율(%)	3.1	4.1	3.9
응답 수(명)	58,608	219,188	277,796
임금근로 전직 희망 비율(%)	5.8	6.8	6.6
응답 수(명)	58,608	219,188	277,796

주 1) '사업체 운영기간'은 봄=4월, 여름=7월, 가을=10월, 겨울=12월로 처리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름/응답거절 제외한 분석임

2) '연간 매출액', '연간 순수익', '월평균 근무일수', '일평균 근무시간'은 모름/응답거절 제외한 분석임

3) '임금근로 전직 희망 비율'은 '그렇음'과 '매우 그렇음'으로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임

〈표 3-3-43〉 자영업주 주요 특성 비교 - 장애정도별2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중증	경증	전 체
타인의 도움 필요 비율(%)	9.8	3.2	4.6
응답 수(명)	58,608	219,188	277,796
작업보조기기 사용 비율(%)	1.9	1.2	1.3
응답 수(명)	58,608	219,188	277,796
장애편의시설 필요 비율(%)	6.7	4.3	4.8
응답 수(명)	58,608	219,188	277,796
장애편의시설 설치 비율(%)	2.6	2.9	2.8
응답 수(명)	58,608	219,188	277,796
지난조사 이후 질병/사고 경험 비율(%)	1.5	1.9	1.8
응답 수(명)	58,608	219,188	277,796
업무에 대한 전반적 불만족 비율(%)	8.2	12.3	11.5
응답 수(명)	58,608	219,188	277,796
소득 불만족 비율(%)	53.4	56.4	55.8
응답 수(명)	58,608	219,188	277,796
사업의 안정성 불만족 비율(%)	21.9	21.0	21.1
응답 수(명)	58,608	219,188	277,796
일의 내용 불만족 비율(%)	10.2	14.700	13.7
응답 수(명)	58,608	219,188	277,796
근로환경 불만족 비율(%)	22.7	18.5	19.3
응답 수(명)	58,608	219,188	277,796
근로시간 불만족 비율(%)	25.1	15.7	17.7
응답 수(명)	58,608	219,188	277,796
개인의 발전 가능성 불만족 비율(%)	26.6	17.5	19.4
응답 수(명)	58,608	219,188	277,796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불만족 비율(%)	8.6	6.8	7.2
응답 수(명)	58,608	219,188	277,796
전반적 불만족 비율(%)	15.4	14.5	14.6
응답 수(명)	58,608	219,188	277,796

주: 불만족 비율은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으로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임

〈표 3-3-44〉 자영업주 주요 특성 비교 - 장애유형별¹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신체외부장애		감각장애		정신적	신체 내부	전 체
	지체	지체 제외	시각	시각 제외			
사업체 운영기간(개월)	241.4	229.2	312.8	262.2	152.4	248.1	251.4
응답 수(명)	185,811	12,600	33,201	31,587	2,106	11,115	276,421
사업체 종류 - 개인사업체(노점)(%)	6.2	12.1	14.1	16.5	31.1	4.1	8.7
응답 수(명)	186,796	12,600	33,591	31,587	2,106	11,115	277,796
사업체 종류 - 개인사업체(노점 제외)(%)	47.8	43.2	35.0	36.5	0.0	48.2	44.4
응답 수(명)	186,796	12,600	33,591	31,587	2,106	11,115	277,796
사업체 종류 - 개인(농림어업)(%)	44.5	39.9	48.3	46.1	41.7	39.8	44.7
응답 수(명)	186,796	12,600	33,591	31,587	2,106	11,115	277,796
연간 매출액(만원)	3,323.9	1,863.1	3,015.5	2,795.1	299.2	11,956.9	3,486.3
응답 수(명)	181,940	12,600	33,453	31,396	2,106	11,115	272,611
연간 순수익(만원)	1,536.8	1,071.0	1,406.3	1,046.0	213.5	2,010.1	1,453.7
응답 수(명)	178,443	12,282	32,597	29,414	2,106	10,845	265,688
월평균 근무일수(일)	21.6	20.8	22.8	21.5	19.9	22.9	21.8
응답 수(명)	186,796	12,600	33,591	31,587	2,106	11,115	277,796
일평균 근무시간(시간)	8.2	7.5	7.9	7.6	4.9	8.4	8.0
응답 수(명)	186,796	12,600	33,591	31,587	2,106	11,115	277,796
근무 시 애로사항이 장애로 인한 것인 비율(%)	44.8	58.7	29.9	46.0	68.9	54.7	44.4
응답 수(명)	186,796	12,600	33,591	31,587	2,106	11,115	277,796
사업체 지속 운영 의향이 없는 비율(%)	3.4	7.5	1.9	5.4	0.0	10.1	3.9
응답 수(명)	186,796	12,600	33,591	31,587	2,106	11,115	277,796
임금근로 전직 희망 비율(%)	7.2	11.1	2.6	7.5	0.0	2.3	6.6
응답 수(명)	186,796	12,600	33,591	31,587	2,106	11,115	277,796

주 1) '사업체 운영기간'은 봄=4월, 여름=7월, 가을=10월, 겨울=12월로 처리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름/응답거절 제외한 분석임

2) '연간 매출액', '연간 순수익', '월평균 근무일수', '일평균 근무시간'은 모름/응답거절 제외한 분석임

3) '임금근로 전직 희망 비율'은 '그렇음'과 '매우 그렇음'으로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임

〈표 3-3-45〉 자영업주 주요 특성 비교 - 장애유형별2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신체외부장애		감각장애		정신적	신체 내부	전 체
	지체	지체 제외	시각	시각 제외			
타인의 도움 필요 비율(%)	5.0	8.4	0.9	6.1	0.0	0.0	4.6
응답 수(명)	186,796	12,600	33,590	31,587	2,106	11,115	277,796
작업보조기기 사용 비율(%)	1.3	0.0	0.9	3.3	0.0	0.0	1.3
응답 수(명)	186,796	12,600	33,590	31,587	2,106	11,115	277,796
장애편의시설 필요 비율(%)	5.7	6.6	1.8	3.2	0.0	2.2	4.8
응답 수(명)	186,796	12,600	33,591	31,587	2,106	11,115	277,796
장애편의시설 설치 비율(%)	3.8	0.0	0.0	1.6	0.0	2.2	2.8
응답 수(명)	186,796	12,600	33,590	31,587	2,106	11,115	277,796
지난조사 이후 질병/사고 경험 비율(%)	1.8	4.3	1.1	2.0	0.0	0.0	1.8
응답 수(명)	186,796	12,600	33,590	31,587	2,106	11,115	277,796
업무에 대한 전반적 불만족 비율(%)	10.3	5.7	8.9	21.9	0.0	18.0	11.5
응답 수(명)	186,796	12,600	33,590	31,587	2,106	11,115	277,796
소득 불만족 비율(%)	56.6	33.3	55.2	54.6	42.7	75.2	55.8
응답 수(명)	186,796	12,600	33,590	31,587	2,106	11,115	277,796
사업의 안정성 불만족 비율(%)	22.0	14.8	12.7	29.4	0.0	20.6	21.1
응답 수(명)	186,796	12,600	33,590	31,587	2,106	11,115	277,796
일의 내용 불만족 비율(%)	14.4	6.6	4.5	26.0	0.0	6.1	13.7
응답 수(명)	186,796	12,600	33,590	31,587	2,106	11,115	277,796
근로환경 불만족 비율(%)	19.6	20.1	12.0	21.7	0.0	33.8	19.3
응답 수(명)	186,796	12,600	33,590	31,587	2,106	11,115	277,796
근로시간 불만족 비율(%)	17.7	12.5	10.0	13.7	0.0	62.2	17.7
응답 수(명)	186,796	12,600	33,590	31,587	2,106	11,115	277,796
개인의 발전 가능성 불만족 비율(%)	21.0	15.6	9.6	20.5	0.0	26.2	19.4
응답 수(명)	186,796	12,600	33,590	31,587	2,106	11,115	277,796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불만족 비율(%)	6.9	6.9	5.5	9.0	15.5	11.7	7.2
응답 수(명)	186,796	12,600	33,590	31,587	2,106	11,115	277,796
전반적 불만족 비율(%)	15.7	16.8	6.4	20.2	0.0	6.3	14.6
응답 수(명)	186,796	12,600	33,590	31,587	2,106	11,115	277,796

주: 불만족 비율은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으로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임

제4절 무급가족종사자 특성

1. 무급가족종사자 인적구성

무급가족종사자의 인적구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 38.3%, 여성 61.7%, 연령별로는 21~29세 3.9%, 30~39세 6.9%, 40~49세 15.9%, 50~59세 22.2%, 60~81세 51.2%로 나타났다. 장애정도별로는 중증장애인 37.2%, 경증장애인 62.8%이며,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이 5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기타 시도(77.1%), 수도권(17.1%), 광역시권(5.8%)의 순으로 많으며,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5.0%, 고졸 22.4%, 중졸 이하 72.5%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 인구분포와 비교해보면, 성별에서는 여성,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장애정도별로는 경증,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 시각 제외 감각장애인, 정신적 장애인, 지역별로는 기타 시도,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의 비중이 전체의 비중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1〉 무급가족종사자의 인적구성

(단위: %, 명)

변 수	구 분		비 율	장애인 인구분포
성별	남성		38.3	59.6
	여성		61.7	40.4
연령별	21~29세		3.9	2.9
	30~39세		6.9	7.0
	40~49세		15.9	14.3
	50~59세		22.2	23.8
	60~81세		51.2	52.0
장애정도별	중증		37.2	41.1
	경증		62.8	58.9
장애유형별	신체외부장애	지체장애	55.9	54.7
		지체 외	3.7	9.8
	감각장애	시각장애	7.4	10.2
		시각 외	16.8	9.7
	정신적 장애		13.4	10.5
	신체내부장애		2.7	5.1
지역별	수도권		17.1	42.3
	광역시권		5.8	19.3
	기타 시도		77.1	38.3
학력별	중졸 이하		72.5	64.2
	고졸		22.4	28.0
	대졸 이상		5.0	7.8
전 체			100.0	100.0
추정 수			75,282	2,208,315

2. 취업과정

무급가족종사자의 51.5%가 현재 일자리에 근무하게 된 주된 이유로 '가구원이 도움을 필요로 해서'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이 일자리 말고는 대안이 없어서(28.3%)', '가업을 잇기 위해서(6.4%)'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3-4-2〉 무급가족종사자의 현재 일자리 근무사유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가구원이 도움을 필요로 해서	57.4	53.6	51.2	48.1	45.7	52.4	51.5
내 장애정도에 따른 기능수준에 부합해서	6.5	7.7	5.0	4.9	5.0	1.2	1.3
지식이나 기술 등과 같은 능력수준에 맞아서	2.1	2.4	1.9	2.1	2.1	1.9	2.0
개인 시간 조절이 용이해서	0.0	0.3	0.0	0.0	0.5	0.5	0.5
가업을 잇기 위해서	3.2	2.5	1.9	4.1	4.2	3.9	6.4
이 일자리 말고는 대안이 없어서	22.7	25.0	30.5	31.4	33.3	31.5	28.3
기타	1.0	1.2	1.2	0.9	0.0	0.0	1.0
특별히 없음	7.1	7.3	8.3	8.6	9.2	8.6	9.1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67,216	75,946	69,373	71,833	72,095	76,415	75,282

근무기간은 근무 시작연월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는데 이 때 정확한 월을 기억하지 못해 계절로 대신 응답한 경우 봄 4월, 여름 7월, 가을 10월, 겨울 12월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무급가족종사자의 평균 근무기간은 269.1개월로 나타났다.

〈표 3-4-3〉 무급가족종사자의 현재 일자리 근무기간 - 차수별

(단위: 개월,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근무기간	237.7	241.7	260.7	268.5	266.4	261.0	269.1
표준오차	0.657	0.627	0.637	0.648	0.674	0.691	0.718
응답 수	67,216	75,558	68,982	71,833	72,095	76,415	75,282

주: '근무기간'은 봄=4월, 여름=7월, 가을=10월, 겨울=12월로 처리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름/응답거절 제외한 분석임

근무기간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1년 미만 근무비율은 7.1%, 3년 이상 근무비율 83.7%, 10년 이상 근무비율은 70.5%로 나타났다.

〈표 3-4-4〉 무급가족종사자의 현재 일자리 근무기간(범주)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1년 미만	3.7	5.2	1.3	5.0	4.0	4.4	7.1
1년 이상 3년 미만	8.3	7.9	9.3	7.7	8.3	12.9	9.2
3년 이상 10년 미만	19.6	16.7	12.3	11.7	15.3	14.6	13.2
10년 이상	68.5	70.2	77.1	75.7	72.3	68.1	70.5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67,216	75,558	68,982	71,833	72,095	76,415	75,282

주 1) '근무기간'은 봄=4월, 여름=7월, 가을=10월, 겨울=12월로 처리하여 분석하였음

2) 모름/응답거절 제외한 분석임

무급가족종사자가 근무하는 일자리의 사업주는 배우자가 69.8%로 가장 많고, 부모 17.9%, 기타 9.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4-5〉 무급가족종사자의 사업주와의 관계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부모	13.0	7.4	6.5	10.5	9.6	12.9	17.9
자녀	7.7	3.5	2.5	2.1	3.3	3.0	2.6
배우자	70.0	76.4	80.4	75.9	77.0	73.6	69.8
기타	9.3	12.7	10.6	11.5	10.2	10.4	9.7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67,216	75,946	69,373	71,833	72,095	76,415	75,282

3. 일자리 특성

무급가족종사자가 근무 중인 일자리의 종류를 살펴보면, 개인사업체(농림어업) 64.6%, 개인사업체(노점 제외) 29.2%, 개인사업체(노점) 4.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4-6〉 무급가족종사자의 일자리의 종류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개인사업체(노점)	8.1	4.1	3.1	4.8	7.7	4.5
개인사업체(노점 제외)	30.6	28.2	27.5	26.4	25.5	29.2
개인사업체(농림어업)	58.8	66.1	68.9	67.9	65.1	64.6
비영리법인/회사이외의 법인	1.8	0.8	0.0	0.0	0.8	0.8
비법인단체	0.2	0.8	0.4	0.9	0.8	0.9
기타	0.4	0.0	0.0	0.0	0.0	0.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75,946	69,373	71,833	72,095	76,415	75,282

주: 2차년도부터 조사되었음

근무 중인 일자리의 규모를 살펴보면, 2명인 사업체 즉, 사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 본인으로 구성된 사업체가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으며, 본인 외에 다른 무급가족종사자와 같이 일하는 경우는 전체의 11.3%로 나타났다.

〈표 3-4-7〉 무급가족종사자의 사업체 종사자 수, 무급가족종사자 수 - 차수별
(단위: %, 명)

변 수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사업체 종사자 수	2명	75.7	83.4	86.1	87.5	89.6	86.6	84.2
	3명 이상	24.3	16.6	13.9	12.5	10.4	13.4	15.8
사업체 무급가족종사자 수	1명	80.2	84.2	91.3	92.1	93.2	90.5	88.7
	2명 이상	19.8	14.0	8.7	7.9	6.8	9.5	11.3
	모름/응답거절	0.0	1.8	0.0	0.0	0.0	0.0	0.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67,216	75,946	69,373	71,833	72,095	76,415	75,282

4. 근로조건 및 실태

전체 무급가족종사자의 82.5%는 전일제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8〉 무급가족종사자의 근무시간 형태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전일제	83.9	76.9	79.4	84.7	82.1	82.2	82.5
시간제	16.1	23.1	20.6	15.3	17.9	17.8	17.5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67,216	75,946	69,373	71,833	72,095	76,415	75,282

초과근로일이나 초과근로시간을 포함한 전체 무급가족종사의 월평균 근무일수는 23.3일, 일평균 근무시간은 6.5시간으로 나타났다.

〈표 3-4-9〉 무급가족종사자의 월평균 근무일수, 일평균 근무시간 - 차수별
(단위: 개별단위,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월평균 근무일수(일)	23.3	22.1	23.0	22.8	22.5	22.9	23.3
표준오차	0.022	0.022	0.021	0.019	0.020	0.021	0.018
응답 수	67,216	75,946	69,373	71,833	72,095	76,415	75,282
일평균 근무시간(시간)	7.0	6.5	6.6	6.6	6.3	6.5	6.5
표준오차	0.012	0.010	0.010	0.009	0.008	0.008	0.008
응답 수	67,216	75,946	69,373	71,833	72,095	76,415	75,282

5. 직장생활 및 이직

일자리 근무 시 애로사항에 대해 1, 2순위로 질문하였다. 1순위로 선택한 애로사항에 대해 전체 무급가족종사자의 35.2%가 '신체기능의 제한'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움(29.3%)', '의사소통의 제한(11.3%)' 순으로 응답하였다. 1순위로 선택한 애로사항이 장애로 인한 것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61.8%에 달하고 있다.

〈표 3-4-10〉 무급가족종사자의 근무 시 애로사항(1순위)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신체기능의 제한	45.4	37.3	33.3	45.2	34.9	34.3	35.2
이동능력의 제한	3.9	5.6	5.8	1.8	1.0	7.6	2.3
의사소통의 제한	6.5	6.0	9.0	9.8	7.8	7.8	11.3
심리적 불안감이나 초조함	0.9	1.7	1.8	1.8	1.3	2.4	2.1
장애 이외의 질병이나 사고	4.3	9.6	7.1	1.6	5.2	2.3	4.9
근로조건의 문제	0.3	0.6	0.6	1.3	3.7	3.0	3.1
근무환경의 문제	0.4	1.6	1.2	0.6	2.1	1.6	0.0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움	20.7	25.5	27.3	31.8	36.1	28.6	29.3
일자리가 너무 멀고, 출퇴근이 어려움	0.0	0.0	0.0	0.0	0.0	0.7	1.3
대인관계 문제	1.0	0.0	1.0	0.7	0.7	1.2	1.0
장애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	0.9	2.3	0.0	0.0	1.2	1.0	0.0
적성, 흥미, 전공에 부합하지 않음	3.6	0.9	0.0	0.8	0.7	1.5	0.0
사업체의 경영 악화	8.2	1.8	10.5	0.7	1.1	1.4	3.8
지속적 근무의 어려움	2.1	4.3	1.4	1.6	1.2	1.9	2.4
개인적 사유 발생	0.8	1.1	0.6	1.3	0.7	1.9	0.0
기타	1.0	1.8	0.4	1.0	2.4	2.8	3.3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67,216	75,946	69,373	71,833	72,095	76,415	75,282
장애로 인한	73.9	67.0	64.7	62.4	60.9	59.0	61.8
장애로 인한 것이 아님	26.1	33.0	35.3	37.6	39.1	41.0	38.2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67,216	75,946	69,373	71,833	72,095	76,415	75,282

주: 1순위에 대해서는 '없음'을 허용하지 않음

일자리에서 폐업이나 구조조정의 위기가 없다면 지속적으로 근무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무급가족종사자의 98.8%로 나타났다.

〈표 3-4-11〉 무급가족종사자의 일자리 이직의사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지속근무 의향 있음	90.1	98.5	99.5	97.6	98.7	100.0	98.8
지속근무 의향 없음	9.9	1.5	0.5	2.4	1.3	0.0	1.2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67,216	75,946	69,373	71,833	72,095	76,415	75,282

6. 근무환경 - 장애

일자리에서 직무조정과 관련하여 배려가 필요한지를 질문한 결과, 전체 무급가족종사자의 31.8%가 직무조정 관련 배려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 중 42.9%가 필요하지만 배려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12〉 무급가족종사자의 직무조정 관련 배려 필요 여부 및 배려 여부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필요함	50.3	41.2	39.2	38.4	37.3	32.9	31.8
배려 받음	54.4	66.7	69.2	68.6	69.8	61.5	55.0
필요하지만 배려 받지 못함	45.6	33.3	30.8	31.4	30.2	38.5	45.0
소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필요하지 않음	49.7	58.8	60.8	61.6	62.7	67.1	68.2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67,216	75,946	69,373	71,833	72,095	76,415	75,282

〈표 3-4-13〉 무급가족종사자의 필요한 직무조정 관련 배려 내용(중복응답)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업무내용의 조정	62.9	39.9	71.9	51.4	48.7	44.3	42.2
업무량의 조정	44.9	54.9	28.5	49.3	58.2	55.7	59.9
업무기한의 연장	0.0	12.9	0.0	0.0	0.0	0.0	0.0
작업순서 조정	0.0	4.8	0.7	0.7	0.0	0.0	0.0
작업장 위치 변경	2.9	1.4	0.0	1.5	0.0	0.0	0.0
기타	0.0	1.3	0.0	0.0	0.0	0.0	0.0
전 체	-	-	-	-	-	-	-
추정 수	33,814	31,314	27,225	27,566	26,859	25,134	23,951

주: 직무조정 관련 배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현재 일자리에서 직무조정과 관련하여 배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에게 필요한 배려 내용을 중복으로 응답받은 결과, 전체의 59.9%가 '업무량의 조정', 42.2%는 '업무내용의 조정'을 선택하였다.

일자리에서 근무시간 조정과 관련하여 배려가 필요한지를 질문한 결과, 전체 무급가족종사자의 28.8%가 근무시간 조정 관련 배려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 중 31.2%가 필요하지만 배려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14〉 무급가족종사자의 근무시간 조정 관련 배려 필요 여부 및 배려 여부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필요함	44.7	38.5	32.3	34.6	31.5	29.6	28.8
배려 받음	48.7	63.7	58.7	63.9	70.3	62.7	68.8
필요하지만 배려 받지 못함	51.3	36.3	41.3	36.1	29.7	37.3	31.2
소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필요하지 않음	55.3	61.5	67.7	65.4	68.5	70.4	71.2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67,216	75,946	69,373	71,833	72,095	76,415	75,282

현재 일자리에서 근무시간 조정과 관련하여 배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에게 필요한 배려내용을 중복으로 응답받은 결과, 전체의 53.5%가 '업무시간 중 별도의 휴식시간 제공', 32.3%는 '근무일수, 근무요일 조정', 18.2%는 '시간제 근로'를 선택하였다.

〈표 3-4-15〉 무급가족종사자의 필요한 근무시간 조정 관련 배려 내용(중복응답)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시간제 근로	19.2	4.7	21.5	22.3	19.1	11.2	18.2
출퇴근 시간의 조정	7.2	6.5	3.1	3.0	2.3	4.6	7.2
근무일수, 근무요일 조정	9.7	12.0	27.5	30.0	52.1	10.1	32.3
별도의 휴식시간 제공	57.8	67.8	59.3	55.1	63.9	74.1	53.5
기타	7.3	10.1	0.0	0.0	0.0	0.0	0.0
전 체	-	-	-	-	-	-	-
추정 수	30,068	29,225	22,438	24,857	22,715	22,642	21,665

주: 근무시간 조정 관련 배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일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 전체 무급가족종사자의 18.2%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3-4-16〉 무급가족종사자의 업무 수행 시 타인의 도움 필요 여부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타인의 도움 필요	28.4	30.3	23.6	21.9	15.8	16.8	18.2
타인의 도움 불필요	71.6	69.7	76.4	78.1	84.2	83.2	81.8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67,216	75,946	69,373	71,833	72,095	76,415	75,282
필요하나 도움 받지 못하는 비율(%)	13.4	8.4	5.6	9.0	0.0	0.0	0.0

주: 필요하나 도움 받지 못하는 비율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나 출퇴근 지원, 사무보조 지원, 작업지원, 의사소통 지원, 일자리 내 이동지원, 일자리 내 일상생활 지원 등의 분야 중 타인으로부터 어느 하나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인원으로 산정함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항목을 살펴보면, 작업지원 92.5%, 의사소통 지원 12.5%, 일자리 내 이동지원 34.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4-17〉 무급가족종사자의 항목별 타인의 도움 필요 여부 및 도움 비율 - 차수별

(단위: %, 명)

변 수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출퇴근 지원	필요비율	22.1	21.6	9.2	4.5	0.0	5.2	4.1
	추정 수	19,071	22,975	16,343	15,755	11,392	12,820	13,717
	필요하나 도움 받지 못하는 비율	28.4	16.2	25.9	0.0	-	0.0	0.0
사무보조 지원	필요비율	9.3	1.9	2.8	0.0	7.9	1.2	1.4
	추정 수	19,071	22,975	16,343	15,755	11,392	12,820	13,717
	필요하나 도움 받지 못하는 비율	13.0	0.0	67.8	-	34.8	0.0	0.0
작업지원	필요비율	72.0	85.6	87.8	82.2	85.1	84.0	92.5
	추정 수	19,071	22,975	16,343	15,755	11,392	12,820	13,717
	필요하나 도움 받지 못하는 비율	7.4	4.6	7.7	5.7	0.0	0.0	0.0
의사소통 지원	필요비율	5.0	7.6	8.6	8.7	12.1	9.1	12.5
	추정 수	19,071	22,975	16,343	15,755	11,392	12,820	13,717
	필요하나 도움 받지 못하는 비율	39.9	0.0	14.0	49.1	0.0	0.0	0.0
일자리 내 이동지원	필요비율	6.9	7.7	4.2	42.8	0.0	3.9	34.5
	추정 수	19,071	22,975	16,343	15,755	11,392	12,820	13,717
	필요하나 도움 받지 못하는 비율	23.7	0.0	57.5	0.0	-	0.0	0.0
일자리 내 일상생활 지원	필요비율	3.6	24.0	0.0	37.2	0.0	0.0	34.5
	추정 수	19,071	22,975	16,343	15,755	11,392	12,820	13,717
	필요하나 도움 받지 못하는 비율	0.0	0.0	-	0.0	-	-	0.0

주: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일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장애로 인한 기능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작업보조기기가 필요한지에 대해 전체 무급가족종사자의 4.8%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 중 95.2%가 필요하지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18〉 무급가족종사자의 작업보조기기 필요 여부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필요	2.3	2.5	2.1	7.1	6.9	6.0	4.8
불필요	97.7	97.5	97.9	92.9	93.1	94.0	95.2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67,216	75,946	69,373	71,833	72,095	76,415	75,282
필요하나 사용하지 못하는 비율(%)	69.7	57.7	58.1	87.3	94.9	94.3	100.0

일자리에 필요한 장애편의시설에 대해 전체 무급가족종사자의 8.3%가 필요한 것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장애편의시설이 하나 이상 설치되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무급가족종사자의 3.3%로 나타났다.

〈표 3-4-19〉 무급가족종사자의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되어 있는 편의시설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필요시설	필요한 것이 있음	1.7	8.8	4.2	6.9	8.6	7.3
	필요한 것이 없음	98.3	91.2	95.8	93.1	91.4	92.7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67,216	75,946	69,373	71,833	72,095	76,415
설치시설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음	0.7	2.7	1.0	1.1	0.5	3.1
	설치되어 있는 것이 없음	99.3	97.3	99.0	98.9	99.5	96.9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67,216	75,946	69,373	71,833	72,095	76,415

7. 근무환경 - 기타

근무하는 일자리의 안전정도에 대해 전체 무급가족종사자의 14.2%가 위험한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지난조사 이후 이 일자리에서 일로 인한 질병이나 사고 등을 경험한 비율은 1.6%로 나타났다.

〈표 3-4-20〉 무급가족종사자의 근무환경 안전정도 및 질병/사고 경험 여부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근무환경 안전정도	매우 위험한 편	0.0	0.5	0.0	0.0	0.8	0.0
	위험한 편	34.0	16.4	32.8	14.1	19.8	14.2
	안전한 편	59.8	77.8	52.5	82.8	73.7	80.8
	매우 안전한 편	6.2	5.3	14.7	3.1	5.6	7.6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67,216	75,946	69,373	71,833	72,095	76,415
질병사고 경험여부	경험 있음	16.3	0.7	0.5	2.0	3.0	4.9
	장해등급 부여받음	0.0	0.0	0.0	0.0	0.0	0.0
	장해등급 부여받지 않음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소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경험 없음	83.7	99.3	99.5	98.0	97.0	95.1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67,216	75,946	69,373	71,833	72,095	76,415

주: '질병, 사고 경험 여부'는 2차년도부터 지난조사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질문함

8. 주관적 만족도, 가치관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수준이 본인의 교육수준보다 낮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무급가족종사자의 4.8%였으며 본인의 교육수준보다 높다고 응답한 사람은 41.0%였다.

〈표 3-4-21〉 무급가족종사자가 생각하는 업무수준(교육수준 비교)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교육수준보다 낮음	14.2	12.6	6.6	6.7	3.7	4.1	4.8
교육수준 정도	60.2	57.6	62.9	48.8	55.2	52.9	54.2
교육수준보다 높음	25.6	29.8	30.5	44.5	41.1	43.0	41.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67,216	75,946	69,373	71,833	72,095	76,415	75,282

주: 5점 Likert 척도로 질문하였으며 하위 두 개, 상위 두 개의 범주를 합한 분석 결과임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수준이 본인의 기술수준보다 낮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무급가족종사자의 4.7%였으며, 본인의 기술수준보다 높다고 응답한 사람은 45.6%였다.

〈표 3-4-22〉 무급가족종사자가 생각하는 업무수준(기술수준 비교)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기술수준보다 낮음	10.9	7.9	5.0	5.7	6.4	5.0	4.7
기술수준 정도	62.2	62.0	60.2	47.6	50.9	50.0	49.7
기술수준보다 높음	26.9	30.1	34.8	46.7	42.8	45.1	45.6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67,216	75,946	69,373	71,833	72,095	76,415	75,282

주: 5점 Likert 척도로 질문하였으며 하위 두 개, 상위 두 개의 범주를 합한 분석 결과임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다른 일자리에서도 유용할지에 대해 무급가족종사자의 5.2%가 유용하다고 응답하였으며, 36.2%는 유용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담당하는 업무를 계속하고 싶다가 47.1%로 높게 나타났다.

〈표 3-4-23〉 무급가족종사자가 생각하는 업무의 유용성(다른 일자리에서도 유용)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유용하지 않음	38.4	36.6	46.0	28.0	34.8	35.0	36.2
보통	48.6	45.0	40.4	57.2	52.7	51.0	58.6
유용함	13.0	18.4	13.6	14.8	12.5	14.0	5.2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67,216	75,946	69,373	71,833	72,095	76,415	75,282

주: 5점 Likert 척도로 질문하였으며 하위 두 개, 상위 두 개의 범주를 합한 분석 결과임

〈표 3-4-24〉 무급가족종사자의 업무에 대한 생각(열정, 즐거움, 만족도 등) - 7차

(단위: %, 명)

구 분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	즐겁게 하고 있다	보람을 느낀다	이 업무를 계속하고 싶다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유용하지 않음	29.0	20.4	14.6	7.3	9.3
보통	53.0	63.6	70.6	45.7	76.4
유용함	18.0	16.0	14.8	47.1	14.3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75,282	75,282	75,282	75,282	75,282

무급가족종사자의 주관적 만족도를 응답받은 결과, 일자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불만족하는

비율은 6.5%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 불만족 비율을 살펴보면, '근로시간' 23.7%, '근로환경' 16.0%, '무급인 상황' 15.6%, '개인의 발전가능성' 14.2%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일자리의 안정성(8.3%)',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5.5%)'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3-4-25〉 무급가족종사자의 주관적 만족도 - 차수별

(단위: %, 5점 척도, 명)

변 수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무급인 상황	불만족 비율	26.4	24.0	14.9	19.4	18.0	20.2	15.6
	만족도 점수	2.92	2.96	3.08	3.05	3.01	2.88	3.00
	응답 수	67,216	75,946	69,373	71,833	72,095	76,415	75,282
일자리의 안정성	불만족 비율	19.1	16.9	10.0	2.6	2.1	4.9	8.3
	만족도 점수	2.99	3.07	3.23	3.31	3.32	3.25	3.18
	응답 수	67,216	75,946	69,373	71,833	72,095	76,415	75,282
일의 내용	불만족 비율	27.6	20.0	19.6	9.4	20.0	10.7	9.7
	만족도 점수	2.88	3.01	3.05	3.13	3.02	3.03	3.09
	응답 수	67,216	75,946	69,373	71,833	72,095	76,415	75,282
근로환경	불만족 비율	23.5	22.5	22.3	20.0	18.4	17.5	16.0
	만족도 점수	2.90	3.00	2.91	3.02	3.09	2.99	3.02
	응답 수	67,216	75,946	69,373	71,833	72,095	76,415	75,282
근로시간	불만족 비율	18.3	19.3	24.6	18.5	20.8	25.7	23.7
	만족도 점수	2.98	3.01	2.95	3.05	3.12	2.96	2.94
	응답 수	67,216	75,946	69,373	71,833	72,095	76,415	75,282
개인의 발전가능성	불만족 비율	43.0	40.9	29.6	21.9	25.9	35.1	14.2
	만족도 점수	2.59	2.64	2.73	2.85	2.79	2.66	2.92
	응답 수	67,216	75,946	69,373	71,833	72,095	76,415	75,282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불만족 비율	13.1	14.3	18.0	11.2	7.9	6.8	5.5
	만족도 점수	3.15	3.04	3.11	3.11	3.13	3.14	3.16
	응답 수	67,216	75,946	69,373	71,833	72,095	76,415	75,282
전반적 만족도	불만족 비율	27.3	14.7	21.4	10.7	17.4	8.4	6.5
	만족도 점수	2.88	2.97	2.94	3.10	2.98	3.04	3.07
	응답 수	67,216	75,946	69,373	71,833	72,095	76,415	75,282

주 1) 5점 Likert 척도로 질문하였으며 불만족 비율은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으로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임

2) 크론바흐 알파값(α)=0.868

9. 취업의사

무급가족종사자의 3.3%가 향후 다른 일자리에 취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26〉 무급가족종사자의 향후 취업 의향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향후 취업 의향 있음	9.6	10.4	6.5	0.6	5.4	1.1	3.3
향후 취업 의향 없음	90.4	89.6	93.5	99.4	94.6	98.9	96.7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67,216	75,946	69,373	71,833	72,095	76,415	75,282

10. 주요 변수별 무급가족종사자 특성 비교

〈표 3-4-27〉 무급가족종사자 주요 특성 비교 - 성별1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남성	여성	전 체
근무기간(개월)	120.7	361.2	269.1
응답 수(명)	28,841	46,441	75,282
월평균 근무일수(일)	23.1	23.4	23.3
응답 수(명)	28,841	46,441	75,282
일평균 근무시간(시간)	6.1	6.7	6.5
응답 수(명)	28,841	46,441	75,282
근무 시 애로사항이 장애로 인한 것인 비율(%)	58.4	64.0	61.8
응답 수(명)	28,841	46,441	75,282
지속 근무 의향 없는 비율(%)	3.1	0.0	1.2
응답 수(명)	28,841	46,441	75,282
직무조정 필요 비율(%)	22.8	37.4	31.8
응답 수(명)	28,841	46,441	75,282
직무조정 필요하지만 배려 받지 못한 비율(%)	20.6	54.3	45.0
응답 수(명)	28,841	46,441	75,282
근무시간 조정 필요 비율(%)	20.2	34.1	28.8
응답 수(명)	28,841	46,441	75,282
근무시간 조정 필요하나 배려 받지 못한 비율(%)	16.4	36.7	31.2
응답 수(명)	28,841	46,441	75,282
업무 수행 시 타인의 도움 필요 비율(%)	14.4	20.6	18.2
응답 수(명)	28,841	46,442	75,283
작업보조기기 사용 비율(%)	0.0	0.0	0.0
응답 수(명)	28,841	46,441	75,282
장애편의시설 필요 비율(%)	4.5	10.7	8.3
응답 수(명)	28,841	46,441	75,282
장애편의시설 설치 비율(%)	5.6	1.9	3.3
응답 수(명)	28,841	46,441	75,282

주 1) '근무기간'은 봄=4월, 여름=7월, 가을=10월, 겨울=12월로 처리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름/응답거절 제외한 분석임

2) '직무조정 필요하지만 배려 받지 못한 비율', '근무시간 조정 필요하지만 배려 받지 못한 비율'은 각각 직무조정과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표 3-4-28〉 무급가족종사자 주요 특성 비교 - 성별2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남성	여성	전 체
지난조사 이후 질병/사고 경험 비율(%)	11.0	1.8	1.6
응답 수(명)	28,841	46,441	75,282
업무에 대한 전반적 불만족 비율(%)	10.0	8.8	9.3
응답 수(명)	28,841	46,441	75,282
무급인 상황에 대한 불만족 비율(%)	23.1	10.9	15.6
응답 수(명)	28,841	46,441	75,282
일자리의 안정성에 대한 불만족 비율(%)	11.3	6.4	8.3
응답 수(명)	28,841	46,440	75,282
일의 내용에 대한 불만족 비율(%)	10.3	9.3	9.7
응답 수(명)	28,841	46,441	75,282
근로환경에 대한 불만족 비율(%)	17.2	15.3	16.0
응답 수(명)	28,841	46,441	75,282
근로시간에 대한 불만족 비율(%)	7.0	34.1	23.7
응답 수(명)	28,841	46,441	75,282
개인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불만족 비율(%)	19.8	10.7	14.2
응답 수(명)	28,841	46,441	75,282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에 대한 불만족 비율(%)	2.6	7.3	5.5
응답 수(명)	28,841	46,441	75,282
전반적 불만족 비율(%)	8.0	5.6	6.5
응답 수(명)	28,841	46,441	75,282
향후 다른 일자리를 가질 의향이 있는 비율(%)	8.7	0.0	3.3
응답 수(명)	28,841	46,441	75,282

주: 불만족 비율은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으로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임

〈표 3-4-29〉 무급가족종사자 주요 특성 비교 - 연령별¹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21~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81세	전 체
근무기간(개월)	34.3	97.0	178.3	225.4	357.3	269.1
응답 수(명)	2,913	5,221	11,941	16,686	38,521	75,282
월평균 근무일수(일)	24.7	21.7	24.0	22.1	23.7	23.3
응답 수(명)	2,913	5,221	11,941	16,686	38,521	75,282
일평균 근무시간(시간)	5.8	6.8	6.4	7.5	6.1	6.5
응답 수(명)	2,913	5,221	11,941	16,686	38,521	75,282
근무 시 애로사항이 장애로 인한 것인 비율(%)	61.0	38.8	56.1	52.2	71.0	61.8
응답 수(명)	2,913	5,222	11,941	16,686	38,521	75,282
지속 근무 의향 없는 비율(%)	0.0	17.0	0.0	0.0	0.0	1.2
응답 수(명)	2,913	5,221	11,941	16,686	38,521	75,282
직무조정 필요 비율(%)	17.1	7.0	15.9	36.8	39.1	31.8
응답 수(명)	2,913	5,221	11,941	16,686	38,521	75,282
직무조정 필요하지만 배려 받지 못한 비율(%)	100.0	0.0	52.7	60.9	36.9	45.0
응답 수(명)	2,913	5,221	11,941	16,686	38,521	75,282
근무시간 조정 필요 비율(%)	17.1	7.0	13.1	30.1	36.9	28.8
응답 수(명)	2,913	5,221	11,940	16,687	38,521	75,282
근무시간 조정 필요하나 배려 받지 못한 비율(%)	100.0	0.0	64.0	59.9	15.8	31.2
응답 수(명)	2,913	5,221	11,940	16,687	38,521	75,282
업무 수행 시 타인의 도움 필요 비율(%)	0.0	7.0	5.5	6.1	30.3	18.2
응답 수(명)	2,913	5,221	11,941	16,686	38,521	75,282
작업보조기기 사용 비율(%)	0.0	0.0	0.0	0.0	0.0	0.0
응답 수(명)	2,913	5,221	11,941	16,686	38,521	75,282
장애편의시설 필요 비율(%)	0.0	0.0	10.8	2.1	12.0	8.3
응답 수(명)	2,913	5,221	11,941	16,686	38,521	75,282
장애편의시설 설치 비율(%)	26.5	0.0	5.2	2.1	1.9	8.3
응답 수(명)	2,913	5,221	11,941	16,686	38,521	75,282

주 1) '근무기간'은 봄=4월, 여름=7월, 가을=10월, 겨울=12월로 처리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름/응답거절 제외한 분석임

2) '직무조정 필요하지만 배려 받지 못한 비율', '근무시간 조정 필요하지만 배려 받지 못한 비율'은 각각 직무조정과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표 3-4-30〉 무급가족종사자 주요 특성 비교 - 연령별2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21~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81세	전 체
지난조사 이후 질병/사고 경험 비율(%)	0.0	0.0	0.0	5.2	0.8	1.6
응답 수(명)	2,913	5,221	11,941	16,686	38,521	75,282
업무에 대한 전반적 불만족 비율(%)	0.0	7.0	13.2	4.7	11.1	9.3
응답 수(명)	2,913	5,221	11,941	16,686	38,521	75,282
무급인 상황에 대한 불만족 비율(%)	12.5	0.0	19.8	18.9	15.2	15.6
응답 수(명)	2,913	5,221	11,941	16,686	38,521	75,282
일자리의 안정성에 대한 불만족 비율(%)	0.0	0.0	8.9	7.2	10.3	8.3
응답 수(명)	2,913	5,221	11,941	16,686	38,521	75,282
일의 내용에 대한 불만족 비율(%)	0.0	12.3	8.4	4.7	12.6	9.7
응답 수(명)	2,913	5,221	11,941	16,686	38,521	75,282
근로환경에 대한 불만족 비율(%)	0.0	17.0	13.4	12.9	19.2	16.0
응답 수(명)	2,913	5,221	11,941	16,686	38,521	75,282
근로시간에 대한 불만족 비율(%)	12.5	17.0	4.5	22.3	32.0	23.7
응답 수(명)	2,913	5,221	11,940	16,686	38,521	75,282
개인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불만족 비율(%)	0.0	19.5	33.9	14.1	8.5	14.2
응답 수(명)	2,913	5,221	11,941	16,686	38,521	75,282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에 대한 불만족 비율(%)	0.0	0.0	19.7	4.4	2.7	5.5
응답 수(명)	2,913	5,221	11,941	16,687	38,521	75,282
전반적 불만족 비율(%)	0.0	0.0	8.4	4.7	8.1	6.5
응답 수(명)	2,913	5,221	11,941	16,686	38,521	75,282
향후 다른 일자리를 가질 의향이 있는 비율(%)	0.0	17.0	5.0	2.4	1.6	3.3
응답 수(명)	2,913	5,221	11,941	16,686	38,521	75,282

주: 불만족 비율은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으로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임

〈표 3-4-31〉 무급가족종사자 주요 특성 비교 - 장애정도별1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중증	경증	전 체
근무기간(개월)	159.4	334.0	269.1
응답 수(명)	27,974	47,308	75,282
월평균 근무일수(일)	23.2	23.3	23.3
응답 수(명)	27,974	47,308	75,282
일평균 근무시간(시간)	6.0	6.8	6.5
응답 수(명)	27,974	47,308	75,282
근무 시 애로사항이 장애로 인한 것인 비율(%)	64.3	60.4	61.8
응답 수(명)	27,974	47,308	75,282
지속 근무 의향 없는 비율(%)	3.2	0.0	1.2
응답 수(명)	27,974	47,308	75,282
직무조정 필요 비율(%)	29.7	33.0	31.8
응답 수(명)	27,974	47,308	75,282
직무조정 필요하지만 배려 받지 못한 비율(%)	33.4	51.2	45.0
응답 수(명)	27,974	47,308	75,282
근무시간 조정 필요 비율(%)	24.9	31.1	28.8
응답 수(명)	27,974	47,308	75,282
근무시간 조정 필요하나 배려 받지 못한 비율(%)	29.4	32.1	31.2
응답 수(명)	27,974	47,308	75,282
업무 수행 시 타인의 도움 필요 비율(%)	15.9	19.6	18.2
응답 수(명)	27,974	47,308	75,282
작업보조기기 사용 비율(%)	0.0	0.0	0.0
응답 수(명)	27,974	47,308	75,282
장애편의시설 필요 비율(%)	7.6	8.7	8.3
응답 수(명)	27,974	47,308	75,282
장애편의시설 설치 비율(%)	4.1	2.9	8.3
응답 수(명)	27,974	47,308	75,282

주 1) '근무기간'은 봄=4월, 여름=7월, 가을=10월, 겨울=12월로 처리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름/응답거절 제외한 분석임

2) '직무조정 필요하지만 배려 받지 못한 비율', '근무시간 조정 필요하지만 배려 받지 못한 비율'은 각각 직무조정과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표 3-4-32〉 무급가족종사자 주요 특성 비교 - 장애정도별2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중증	경증	전 체
지난조사 이후 질병/사고 경험 비율(%)	1.2	1.8	1.6
응답 수(명)	27,974	47,308	75,282
업무에 대한 전반적 불만족 비율(%)	11.6	7.9	9.3
응답 수(명)	27,974	47,308	75,282
무급인 상황에 대한 불만족 비율(%)	16.4	15.1	15.6
응답 수(명)	27,974	47,308	75,282
일자리의 안정성에 대한 불만족 비율(%)	8.4	8.2	8.3
응답 수(명)	27,974	47,308	75,282
일의 내용에 대한 불만족 비율(%)	11.6	8.5	9.7
응답 수(명)	27,974	47,308	75,282
근로환경에 대한 불만족 비율(%)	13.9	17.3	16.0
응답 수(명)	27,974	47,308	75,282
근로시간에 대한 불만족 비율(%)	13.5	29.8	23.7
응답 수(명)	27,974	47,308	75,282
개인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불만족 비율(%)	18.7	11.5	14.2
응답 수(명)	27,974	47,308	75,282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에 대한 불만족 비율(%)	9.5	3.1	5.5
응답 수(명)	27,973	47,308	75,282
전반적 불만족 비율(%)	10.3	4.3	6.5
응답 수(명)	27,974	47,308	75,282
향후 다른 일자리를 가질 의향이 있는 비율(%)	8.3	0.4	3.3
응답 수(명)	27,974	47,308	75,282

주: 불만족 비율은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으로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임

〈표 3-4-33〉 무급가족종사자 주요 특성 비교 - 장애유형별1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신체외부장애		감각장애		정신적	신체 내부	전 체
	지체	지체 제외	시각	시각 제외			
근무기간(개월)	298.9	78.2	219.4	359.2	164.1	8.8	269.1
응답 수(명)	42,110	2,808	5,602	12,662	10,091	2,009	75,282
월평균 근무일수(일)	24.26	25.87	19.52	20.93	23.33	24.29	23.28
응답 수(명)	42,110	2,808	5,602	12,662	10,091	2,009	75,282
일평균 근무시간(시간)	6.88	4.70	6.07	6.32	5.49	7.64	6.48
응답 수(명)	42,110	2,808	5,602	12,662	10,091	2,009	75,282
근무 시 애로사항이 장애로 인한 것인 비율(%)	73.6	47.5	49.9	36.2	66.2	8.9	61.8
응답 수(명)	42,110	2,808	5,602	12,661	10,091	2,009	75,282
지속 근무 의향 없는 비율(%)	0.0	0.0	0.0	0.0	8.8	0.0	1.2
응답 수(명)	42,110	2,808	5,602	12,662	10,091	2,009	75,282
직무조정 필요 비율(%)	47.7	25.4	14.8	12.9	5.0	8.9	31.8
응답 수(명)	42,110	2,808	5,602	12,662	10,091	2,009	75,282
직무조정 필요하지만 배려 받지 못한 비율(%)	48.0	0.0	100.0	18.8	0.0	0.0	45.0
응답 수(명)	42,110	2,808	5,602	12,662	10,091	2,009	75,282
근무시간 조정 필요 비율(%)	42.5	25.4	14.8	12.1	5.0	8.9	28.8
응답 수(명)	42,110	2,808	5,602	12,662	10,091	2,009	75,282
근무시간 조정 필요하나 배려 받지 못한 비율(%)	33.3	0.0	60.0	20.0	0.0	0.0	31.2
응답 수(명)	42,110	2,808	5,602	12,662	10,091	2,009	75,282
업무 수행 시 타인의 도움 필요 비율(%)	26.4	39.2	0.0	10.5	0.0	8.9	18.2
응답 수(명)	42,110	2,808	5,602	12,662	10,091	2,009	75,282
작업보조기기 사용 비율(%)	0.0	0.0	0.0	0.0	0.0	0.0	0.0
응답 수(명)	42,110	2,808	5,602	12,662	10,091	2,009	75,282
장애편의시설 필요 비율(%)	10.6	18.8	10.7	5.3	0.0	0.0	8.3
응답 수(명)	42,110	2,808	5,602	12,662	10,091	2,009	75,282
장애편의시설 설치 비율(%)	1.8	40.8	0.0	4.6	0.0	0.0	3.3
응답 수(명)	42,110	2,808	5,602	12,662	10,091	2,009	75,282

주 1) '근무기간'은 봄=4월, 여름=7월, 가을=10월, 겨울=12월로 처리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름/응답거절 제외
한 분석임

2) '직무조정 필요하지만 배려 받지 못한 비율', '근무시간 조정 필요하지만 배려 받지 못한 비율'은 각각
직무조정과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표 3-4-34〉 무급가족종사자 주요 특성 비교 - 장애유형별2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신체외부장애		감각장애		정신적	신체 내부	전 체
	지체	지체 제외	시각	시각 제외			
지난조사 이후 질병/사고 경험 비율(%)	2.8	0.0	0.0	0.0	0.0	0.0	1.6
응답 수(명)	42,110	2,808	5,602	12,662	10,091	2,009	75,282
업무에 대한 전반적 불만족 비율(%)	9.6	15.6	0.0	7.3	15.4	0.0	9.3
응답 수(명)	42,110	2,808	5,602	12,662	10,091	2,009	75,282
무급인 상황에 대한 불만족 비율(%)	17.3	0.0	18.6	14.6	15.4	0.0	15.6
응답 수(명)	42,110	2,808	5,602	12,662	10,091	2,009	75,282
일자리의 안정성에 대한 불만족 비율(%)	6.6	15.6	17.0	4.1	15.4	0.0	8.3
응답 수(명)	42,110	2,808	5,602	12,662	10,091	2,009	75,282
일의 내용에 대한 불만족 비율(%)	12.6	15.6	0.0	0.0	15.4	0.0	9.7
응답 수(명)	42,110	2,808	5,602	12,662	10,091	2,009	75,282
근로환경에 대한 불만족 비율(%)	23.9	9.0	10.7	2.1	8.8	0.0	16.0
응답 수(명)	42,110	2,808	5,602	12,662	10,091	2,009	75,282
근로시간에 대한 불만족 비율(%)	31.5	16.1	0.0	25.7	8.8	0.0	23.7
응답 수(명)	42,110	2,808	5,602	12,662	10,091	2,009	75,282
개인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불만족 비율(%)	11.7	15.6	10.5	12.0	31.8	0.0	14.2
응답 수(명)	42,110	2,808	5,602	12,662	10,091	2,009	75,282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에 대한 불만족 비율(%)	2.2	6.7	0.0	13.5	13.1	0.0	5.5
응답 수(명)	42,110	2,808	5,602	12,662	10,091	2,009	75,282
전반적 불만족 비율(%)	6.3	15.6	0.0	2.1	15.4	0.0	6.5
응답 수(명)	42,110	2,808	5,602	12,662	10,091	2,009	75,282
향후 다른 일자리를 가질 의향이 있는 비율(%)	0.9	16.1	13.7	0.0	8.8	0.0	3.3
응답 수(명)	42,110	2,808	5,602	12,662	10,090	2,009	75,282

주: 불만족 비율은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으로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임

제 4 장

조사결과 3: 미취업자 특성

제1절 공통 특성

1.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판별

만 21~81세 장애인 미취업자 1,319,737명 중 지난 4주 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장애인은 38,959명이었고 그 가운데 지난 주 직장(일)이 있었으면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응답한 장애인은 38,465명으로, 이들이 최종적으로 실업자로 판별⁶⁾된다. 미취업자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9%이며 1,281,272명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미취업자의 97.1%를 차지하고 있다.

〈표 4-1-1〉 실업자 정의에 따른 판별결과

(단위: 명, %)			
변 수	구 분	추정 수	비 율
지난 주 구직경험	있었음	33,060	2.5
	없었음	1,286,677	97.5
↓			
지난 4주 내 구직경험	있었음	5,900	0.5
	없었음	1,280,778	99.5
↓			
지난 주 일 가능 여부	있었음	38,465	2.9
	없었음	494	0.04
↓			
판별결과	실업자	38,465	2.9
	비경제활동인구	1,281,272	97.1
전 체		1,319,737	100.0

주 1) 비율은 만 21~81세 장애인 미취업자(1,319,737명) 대비 비율임

2) 각 차수별 횡단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하였음(이하 동일 적용)

- 6) PSED는 조사시점에 노동을 제공하고 있으면 취업자로 보며, 그렇지 않은 사람 중 조사시점의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실업자로 구분한다. 종단적으로 바뀌는 모든 일자리 변동 상황을 기록해야 하는 조사 특성상 미취업자와 구분되는 의미로서 취업자를 정의할 때 현재 일하고 있는 일자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의이기 때문이다.

2. 미취업자 인적구성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로 구성된 전체 미취업자의 인적구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 49.3%, 여성 50.7%, 연령별로는 21~29세 2.7%, 30~39세 5.9%, 40~49세 10.5%, 50~59세 18.5%, 60~81세 62.4%로 나타났다. 장애정도별로는 중증장애인 50.6%, 경증장애인 49.4%이며, 지체장애인이 49.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46.1%), 기타 시도(32.7%), 광역시권(21.3%) 순이며,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가 71.2%로 가장 많았다.

전체 장애인 인구분포와 비교해보면, 성별에서는 여성,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장애정도별로는 중증, 장애유형별로는 지체 제외 신체외부장애인, 정신적 장애인, 신체내부장애인, 지역별로는 수도권, 광역시권,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의 비중이 실제 인구에서의 비중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미취업자의 인적구성

(단위: %, 명)

변 수	구 분		비 율	장애인 인구분포
성별	남성		49.3	59.6
	여성		50.7	40.4
연령별	21~29세		2.7	2.9
	30~39세		5.9	7.0
	40~49세		10.5	14.3
	50~59세		18.5	23.8
	60~81세		62.4	52.0
장애정도별	중증		50.6	41.1
	경증		49.4	58.9
장애유형별	신체외부장애	지체장애	49.9	54.7
		지체 외	13.4	9.8
	감각장애	시각장애	9.9	10.2
		시각 외	7.8	9.7
	정신적 장애		13.0	10.5
	신체내부장애		6.0	5.1
지역	수도권		46.1	42.3
	광역시권		21.3	19.3
	기타 시도		32.7	38.3
학력	중졸 이하		71.2	64.2
	고졸		24.4	28.0
	대졸 이상		4.4	7.8
전 체			100.0	100.0
추정 수			1,319,737	2,208,315

3. 미취업자 주요특성

과거 1개월 이상 취업한 일자리가 있었는지 응답받은 결과, 전체 미취업자의 68.0%가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실업자의 취업경험 비율이 93.5%인데 비해 비경제활동인구는 67.3%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표 4-1-3〉 미취업자의 과거 취업경험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명)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있었음	68.0	93.5	67.3
없었음	32.0	6.5	32.7
전 체	100.0	100.0	100.0
추정 수	1,319,737	38,465	1,281,272

주: 1차년도 조사 시 과거 취업경험 + 1차년도 조사 이후 1개월 이상 취업한 일자리 유무로 산정함

실업자는 전원 취업을 희망한다고 했을 때 전체 미취업자 중 향후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는 12.6%로 나타났으며,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10.0%가 향후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 과거 취업경험별로 미취업자의 향후 취업 희망 여부를 살펴보면, 과거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에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은 16.6%로 경험이 없는 경우의 4.0% 보다 약 네 배 가까이 높았다.

〈표 4-1-4〉 미취업자의 향후 취업 희망 여부 - 경제활동상태별, 과거 취업경험별

(단위: %, 명)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과거 취업경험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있음	없음
취업 희망	12.6	100.0	10.0	16.6	4.0
취업을 희망하지 않음	87.4	0.0	90.0	83.4	96.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1,319,737	38,465	1,281,272	898,042	421,694

주 1)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1년 이내 취업 희망 + 1년은 아니더라도 향후 취업 희망

2) 실업자의 경우 모두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산정함

3) '과거 취업경험 유무'는 1차년도 조사 시 과거 취업경험 + 1차년도 조사 이후 1개월 이상 취업한 일자리 유무로 산정함

취업을 원하는 미취업자가 취업하고자 하는 종사상 지위를 보면 4.8%가 자영업, 95.2%가 임금근로를 희망하고 있으며, 실업자(3.5%)에 비해 비경제활동인구(5.6%)의 자영업 희망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과거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95.7%)에 없는 경우(87.7%)보다 임금근로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4-1-5〉 미취업자 취업 희망 시 원하는 종사상 지위 - 경제활동상태별, 과거 취업경험별
(단위: %, 명)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과거 취업경험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있음	없음
임금근로 희망	95.2	96.5	94.4	95.7	87.7
자영업 희망	4.8	3.5	5.6	4.3	12.3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105,590	38,465	67,125	98,631	6,959

주 1)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향후 1년 이내 취업 희망자만 질문함

2) '과거 취업경험 유무'는 1차년도 조사 시 과거 취업경험 + 1차년도 조사 이후 1개월 이상 취업한 일자리 유무로 산정함

미취업자 1,319,737명 중 지난 주 구직활동, 취업준비활동 등 취업과 관련된 활동 여부를 확인한 결과, 구직활동만 한 장애인이 2.2%, 취업준비활동만 한 사람이 0.5%, 구직활동과 취업준비활동 모두 한 사람이 0.2%인데 반해 취업과 관련된 활동을 하지 않은 장애인은 97.1%로 나타났다. 실업자의 경우 지난 주 구직활동이나 취업준비활동을 한 경우가 87.7%에 달하나 비경제활동인구는 0.4%로 많은 수의 비경제활동인구가 취업과 관련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거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에 구직 및 취업준비활동을 한 비율이 취업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4-1-6〉 미취업자 지난 주 취업 관련 활동 여부 - 경제활동상태별, 과거 취업경험별
(단위: %, 명)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과거 취업경험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있음	없음
구직활동	2.2	75.3	0.0	3.2	0.1
취업준비활동	0.5	5.3	0.4	0.5	0.5
구직활동과 취업준비활동 모두 했음	0.2	7.2	0.0	0.2	0.2
취업과 관련된 활동을 하지 않았음	97.1	12.3	99.6	96.1	99.1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1,319,737	38,465	1,281,272	898,042	421,694

주: '과거 취업경험 유무'는 1차년도 조사 시 과거 취업경험 + 1차년도 조사 이후 1개월 이상 취업한 일자리 유무로 산정함

지난 주 취업과 관련된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미취업자 1,319,737명 중 51.0%가 지난 주 주로 한 활동으로 '장애로 쉬었음'을 응답하였으며, '장애 이외의 건강문제로 쉬었음' 16.8%, '가사' 14.1%, '노령으로 쉬었음' 14.0%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지난 주 취업과 관련된 활동을 하지 않은 실업자의 경우 '장애 이외의 건강문제로 쉬었음' 65.0%, '가사' 15.2%순으로 응답한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장애로 쉬었음' 51.1%, '장애 이외의 건강문제로 쉬었음' 16.6%순으로 응답하였다. 과거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사', '장애 이외의 건강문제로 쉬었음', '노령으로 쉬었음' 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4-1-7〉 미취업자 지난 주 취업 관련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주로 한 활동 - 경제활동상태별, 과거 취업경험별

(단위: %, 명)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과거 취업경험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있음	없음
정규교육기관 통학	0.4	0.0	0.4	0.2	0.7
입시학원 통학	0.0	0.0	0.0	0.0	0.1
육아	0.4	0.0	0.4	0.6	0.2
가사	14.1	15.2	14.1	15.4	11.3
결혼준비	0.0	0.0	0.0	0.0	0.0
휴식 및 여행	1.6	5.9	1.6	2.1	0.6
장애로 쉬었음	51.0	13.9	51.1	47.1	59.0
장애 이외의 건강문제로 쉬었음	16.8	65.0	16.6	18.8	12.6
노령으로 쉬었음	14.0	0.0	14.1	14.0	14.2
기타	1.6	0.0	1.7	1.8	1.2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1,319,737	4,721	1,276,135	862,853	418,003

주 1) 지난 주 취업과 관련된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미취업자에게 질문함

2) '과거 취업경험 유무'는 1차년도 조사 시 과거 취업경험 + 1차년도 조사 이후 1개월 이상 취업한 일자리 유무로 산정함

제2절 실업자 특성

1. 실업자 인적구성

실업자의 인적구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 66.5%, 여성 33.5%, 연령별로는 21~29세 10.1%, 30~39세 12.2%, 40~49세 16.6%, 50~59세 30.6%, 60~81세 30.4%로 나타났다. 장애정도별로는 중증장애인 32.3%, 경증장애인 67.7%이며,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이 57.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지역별로는 수도권(49.4%), 기타 시도(28.6%), 광역시권(22.0%)의 순이며,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6.5%, 고졸 56.6%, 중졸 이하 36.9%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 인구분포와 비교해보면, 성별에서는 남성, 연령별로는 50대 이하, 장애정도별로는 경증,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외부장애인, 시각 제외 감각장애인, 지역별로는 수도권, 광역시권, 학력별로는 고졸 이상의 비중이 전체의 비중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1〉 실업자의 인적구성

변 수			구 분	비 율	장애인 인구분포
성별			남성	66.5	59.6
			여성	33.5	40.4
연령별			21~29세	10.1	2.9
			30~39세	12.2	7.0
			40~49세	16.6	14.3
			50~59세	30.6	23.8
			60~81세	30.4	52.0
장애정도별			중증	32.3	41.1
			경증	67.7	58.9
장애유형별	신체외부장애	지체장애	57.1	54.7	
		지체 외	9.3	9.8	
	감각장애	시각장애	13.6	10.2	
		시각 외	7.7	9.7	
	정신적 장애		12.3	10.5	
	신체내부장애		0.0	5.1	
지역	수도권		49.4	42.3	
	광역시권		22.0	19.3	
	기타 시도		28.6	38.3	
학력	중졸 이하		36.9	64.2	
	고졸		56.6	28.0	
	대졸 이상		6.5	7.8	
전 체			100.0	100.0	
추정 수			38,465	2,208,315	

2. 희망하는 일자리

실업자 68,465명 중 임금근로를 희망하여 구직하고 있는 사람은 96.5%이며, 자영업을 구직하고 있는 사람은 3.5%로 나타났다.

〈표 4-2-2〉 실업자의 희망하는 종사상 지위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임금근로	93.7	92.1	94.4	92.8	96.9	95.3	96.5
자영업	6.3	7.9	5.6	7.2	3.1	4.7	3.5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89,646	84,492	64,352	61,595	38,068	36,756	38,465

임금근로 희망 실업자에게 그 사유를 질문한 결과, '정기적이고 안정된 소득' 90.6%, '안정적, 규칙적인 직장생활' 5.7%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4-2-3〉 임금근로 실업자의 임금근로 희망 이유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정기적이고 안정된 소득	87.9	92.8	85.9	92.2	96.0	81.6	90.6
안정적, 규칙적인 직장생활	6.2	3.5	8.4	7.2	1.8	14.7	5.7
지식이나 기술, 전공 활용	0.5	0.0	0.8	0.0	0.9	0.0	2.7
자영업을 원하지만 창업할 능력 상황이 안됨	2.0	0.9	0.0	0.0	0.0	2.3	0.9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0.9	0.9	0.0	0.0	1.3	0.0	0.0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1.8	1.0	4.9	0.0	0.0	0.0	0.0
가족, 친지, 지인들의 권유로	0.0	0.2	0.0	0.0	0.0	1.3	0.0
기타	0.8	0.0	0.0	0.0	0.0	0.0	0.0
모름/응답거절	0.0	0.7	0.0	0.0	0.0	0.0	0.0
특별히 없음	0.0	0.0	0.0	0.6	0.0	0.0	0.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84,041	77,815	60,728	57,139	36,878	35,014	38,465

임금근로 희망 실업자의 16.0%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에 종사하고자 하며, 14.6%는 제조업, 10.0%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순노무종사자를 희망하는 비율은 49.8%이며, 다음으로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16.8%, 사무종사자 14.1%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4〉 임금근로 실업자의 취업을 희망하는 산업 및 직업 - 차수별

(단위: %, 명)

변 수	구 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희망하는 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0.0	0.0	0.0	0.0	0.0	1.1
	광업	0.5	0.0	0.0	0.0	0.0	0.0
	제조업	18.4	22.9	19.9	33.1	20.6	14.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3	0.5	0.0	1.0	3.1	9.7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0.4	0.0	1.8	8.2	0.0	0.7
	건설업	7.1	8.0	5.1	5.6	5.4	4.1
	도매 및 소매업	6.0	3.1	2.6	2.8	7.4	0.9
	운수업	7.9	3.5	3.5	6.7	3.4	9.3
	숙박 및 음식점업	1.9	1.7	2.2	0.7	2.6	8.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4	3.8	0.6	2.6	1.4	1.3
	부동산 및 임대업	3.4	0.7	2.2	0.0	1.0	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5	1.5	0.0	1.8	1.8	0.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6.6	22.2	16.4	14.4	19.0	10.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6.6	18.9	23.7	11.0	17.1	16.0
	교육 서비스업	1.7	2.9	2.1	0.8	7.2	9.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5.1	2.4	3.2	2.9	1.0	8.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2	2.3	0.5	2.2	0.0	2.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6.9	5.6	15.1	6.1	8.4	3.7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0.0	0.0	1.0	0.0	0.6	0.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77,383	60,728	57,139	36,878	35,014	37,129
희망하는 직업	관리자	0.0	0.5	0.6	0.0	1.6	0.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3	6.8	0.0	5.7	1.2	2.1
	사무종사자	11.3	9.6	8.6	15.0	13.7	6.9
	서비스종사자	12.1	3.3	3.1	3.5	8.8	14.1
	판매종사자	3.8	1.7	0.6	0.7	2.1	0.9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0.0	0.0	0.0	0.0	0.0	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8.8	7.0	9.5	6.0	12.8	9.4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9.0	5.6	5.7	9.0	1.6	16.8
	단순노무종사자	51.6	65.5	72.0	60.1	58.2	49.8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77,589	60,728	57,139	36,878	35,014	37,129

주 1) 2차년도부터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사용하였음

2) 모름/응답거절 제외한 분석임

임금근로 희망 실업자의 55.6%가 상용근로자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시근로자 31.3%, 일용근로자 1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5〉 임금근로 실업자의 희망하는 종사상 지위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상용근로자	74.9	74.3	62.7	72.6	72.2	64.9	55.6
임시근로자	14.1	11.2	27.1	14.8	12.0	24.3	31.3
일용근로자	11.0	12.9	8.3	12.6	13.0	7.4	13.1
기타	0.0	1.6	1.9	0.0	2.7	3.5	0.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83,693	77,815	60,728	57,139	36,878	35,014	37,129

주: 모름/응답거절 제외한 분석임

임금근로 희망 실업자가 희망하는 월평균 최소 희망임금은 114.5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4-2-6〉 임금근로 실업자의 월평균 최소 희망임금 - 차수별

(단위: 만원,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최소 희망임금	113.0	107.1	104.9	103.7	106.2	116.1	114.5
표준오차	0.167	0.171	0.219	0.150	0.218	0.274	0.313
응답 수	84,041	77,815	60,097	57,139	36,878	35,014	37,129

주: 모름/응답거절 제외한 분석임

자영업 희망 실업자에게 그 사유를 질문한 결과, '업무시간, 환경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서' 41.7%,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35.2%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4-2-7〉 자영업 실업자의 자영업 희망 이유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회사에 취업하기 어려워서	46.1	66.2	55.8	24.8	48.1	0.0	0.0
기술이나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서	13.5	6.3	0.0	9.9	51.9	50.5	23.1
업무시간, 환경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서	8.2	7.6	0.0	18.6	0.0	26.3	41.7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서	0.0	9.6	23.3	8.9	0.0	23.1	0.0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0.0	0.0	7.7	7.4	0.0	0.0	35.2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8.7	4.3	0.0	19.0	0.0	0.0	0.0
장애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이 없어서	6.5	0.0	0.0	11.4	0.0	0.0	0.0
기타	17.0	6.0	13.2	0.0	0.0	0.0	0.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5,605	6,677	3,624	4,456	1,190	1,742	1,336

자영업 희망 실업자가 창업하고자 하는 산업으로는 '부동산 및 임대업'이 41.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4-2-8〉 자영업 실업자의 창업 희망 산업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제조업	6.7	24.9	18.8	0.0	39.2	0.0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0.0	0.0	18.6	0.0	0.0	0.0
건설업	6.3	0.0	0.0	0.0	0.0	0.0
도매 및 소매업	64.3	44.1	51.2	28.3	0.0	35.2
운수업	0.0	0.0	51.2	0.0	26.3	0.0
숙박 및 음식점업	6.3	0.0	0.0	0.0	0.0	0.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3.1	13.1	0.0	0.0	0.0	0.0
부동산 및 임대업	3.3	10.2	0.0	47.0	23.1	41.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0.0	7.7	0.0	24.7	11.3	23.1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6,677	3,624	4,456	1,190	1,742	1,336

주: 2차년도부터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사용하였음

자영업 희망 실업자가 창업하고자 하는 사업장으로는 점포 58.3%, 사무실 4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9〉 자영업 실업자의 창업 희망 사업장 형태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노점(가판 포함)	13.6	6.0	30.9	19.0	0.0	0.0	0.0
차량	25.2	0.0	0.0	11.4	0.0	26.3	0.0
점포	40.7	61.5	45.7	8.6	0.0	50.5	58.3
사무실	4.6	10.9	10.2	16.2	47.0	23.1	41.7
공장	5.3	2.4	0.0	9.9	0.0	0.0	0.0
인터넷	0.0	0.0	0.0	0.0	28.3	0.0	0.0
무점포(방문사업)	6.5	11.8	13.1	18.6	0.0	0.0	0.0
기타	4.1	0.0	0.0	0.0	0.0	0.0	0.0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음	0.0	7.5	0.0	16.2	24.7	0.0	0.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5,605	6,677	3,624	4,456	1,190	1,742	1,336

자영업 희망 실업자가 희망하는 월평균 기대 순수익은 229.5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4-2-10〉 자영업 실업자의 월평균 기대 순수익 - 차수별

(단위: 만원,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기대 순수익	206.6	116.3	148.7	181.0	186.5	197.7	229.5
표준오차	1.567	0.787	1.989	1.178	2.245	0.152	2.615
응답 수	5,605	6,677	3,624	4,456	1,190	1,742	1,336

3. 구직활동

실업자의 평균 구직기간은 6.9개월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6.6개월, 여성 7.7개월이며, 연령별로는 20대 이하가 5.0개월로 가장 길었고, 장애정도별로는 중증장애인 6.0개월, 경증장애인 7.4개월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시각외장애인이 9.1개월로 가장 길었으며, 시각 제외 신체내부장애인이 0.0개월로 가장 짧았다. 지역별로는 기타 시도가 8.8개월로 가장 길었으며, 학력별로는 중졸이하에서 7.1개월로 가장 길게 나타났다. 여기서 1차년도 조사된 구직기간은 당시의 구직을 시작한 최초시기에 대해 제한이 없이 조사되었고, 2차년도 이후의 구직기간은 지난조사 이후 기간에 대해서 조사되었기 때문에 지난 조사차수가 연제인지에 따라 영향을 받으므로 차수 간 구직기간이 정확하게 비교될 순 없다.

〈표 4-2-11〉 실업자의 평균 구직기간 - 차수별, 인구통계학 변수별

(단위: 개월, 명)

변 수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성별	남성	구직기간	31.9	7.5	7.5	8.6	7.8	7.5	6.6
		표준오차	0.161	0.015	0.022	0.020	0.027	0.032	0.025
	여성	구직기간	30.9	7.5	7.1	9.6	7.9	7.1	7.7
		표준오차	0.419	0.029	0.035	0.033	0.041	0.046	0.04
연령 별	~29세	구직기간	39.7	8.3	9.6	10.6	9.3	11.3	5.0
		표준오차	0.340	0.040	0.050	0.052	0.078	0.070	0.06
	30~39세	구직기간	32.0	7.8	7.7	9.1	8.1	5.7	6.5
		표준오차	0.362	0.031	0.045	0.045	0.068	0.060	0.066
	40~49세	구직기간	36.4	7.7	7.4	6.4	8.6	6.2	6.9
		표준오차	0.357	0.031	0.040	0.031	0.055	0.048	0.055
	50~59세	구직기간	34.1	7.8	8.1	9.0	7.1	8.5	6.3
		표준오차	0.376	0.025	0.045	0.034	0.044	0.043	0.035
	60세~	구직기간	18.1	6.5	6.1	10.3	7.3	7.1	8.5
		표준오차	0.129	0.022	0.030	0.031	0.032	0.055	0.038

〈표 4-2-11〉 실업자의 평균 구직기간(계속) - 차수별, 인구통계학 변수별

(단위: 개월, 명)

변 수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장애 정도별	중증	구직기간	43.3	8.8	7.0	7.9	8.3	8.4	6.0	
		표준오차	0.293	0.020	0.029	0.030	0.042	0.050	0.037	
	경증	구직기간	24.1	6.7	7.7	9.4	7.7	7.1	7.4	
		표준오차	0.159	0.016	0.024	0.021	0.027	0.031	0.026	
장애 유형별	신체 외부 장애	지체	구직기간	28.1	7.7	8.4	8.7	8.1	8.1	7.9
		장애	표준오차	0.176	0.016	0.027	0.023	0.029	0.036	0.028
		지체	구직기간	30.5	8.8	7.7	8.6	6.1	6.3	7.4
		외	표준오차	0.282	0.038	0.047	0.051	0.061	0.070	0.079
	감각 장애	시각	구직기간	28.4	4.6	7.0	3.5	6.1	6.3	4.3
		장애	표준오차	0.408	0.037	0.040	0.055	0.063	0.069	0.034
		시각	구직기간	16.7	5.8	5.5	11.5	8.6	6.0	9.1
		외	표준오차	0.309	0.042	0.033	0.027	0.046	0.072	0.057
	정신적 장애	구직기간	73.4	8.3	5.2	10.1	12.5	7.9	3.6	
		표준오차	0.888	0.047	0.073	0.045	0.010	0.130	0.038	
	신체내부 장애	구직기간	31.2	9.7	5.3	3.9	5.3	10.8	0.0	
		표준오차	0.571	0.062	0.143	0.078	0.018	0.052	0.000	
지역	수도권	구직기간	29.0	7.1	8.5	9.2	8.3	7.4	5.6	
		표준오차	0.209	0.018	0.028	0.024	0.029	0.040	0.026	
	광역시권	구직기간	38.1	9.0	6.5	9.5	8.9	8.3	7.5	
		표준오차	0.289	0.026	0.031	0.030	0.046	0.055	0.049	
	기타 시도	구직기간	31.1	6.9	6.6	7.2	5.9	6.6	8.8	
		표준오차	0.328	0.027	0.036	0.042	0.046	0.044	0.041	
학력	중졸 이하	구직기간	26.1	7.3	7.6	9.3	7.6	6.7	7.1	
		표준오차	0.196	0.018	0.027	0.024	0.028	0.032	0.036	
	고졸	구직기간	36.1	7.1	7.3	8.2	8.8	8.7	7.0	
		표준오차	0.222	0.022	0.029	0.028	0.043	0.047	0.028	
	대졸 이상	구직기간	43.4	9.5	7.0	8.5	7.2	6.3	5.7	
		표준오차	0.610	0.031	0.049	0.055	0.068	0.093	0.085	
	전 체	구직기간	31.7	7.5	7.4	8.9	7.9	7.5	6.9	
		표준오차	0.154	0.013	0.018	0.018	0.023	0.027	0.022	
응답 수		88,409	84,143	64,352	61,595	38,068	36,756	38,465		

주: 구직기간의 경우 봄=4월, 여름=7월, 가을=10월, 겨울=12월로 처리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름/응답거절 제외 분석임

구직활동 시 일자리 정보를 수집한 경로에 대해 임금근로 실업자의 29.5%가 '가족, 친구, 선후배 등 주변 지인을 통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통해 (23.6%)', '인터넷 취업사이트(19.5%)'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4-2-12〉 임금근로 실업자의 구직활동 시 일자리 정보 수집 경로(1순위)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인터넷 취업사이트(공공, 민간)	13.9	20.9	18.8	13.3	19.4	19.5	19.5
인터넷 취업모임, 카페	0.4	1.7	0.0	0.0	0.0	0.0	0.0
TV, 라디오, 신문, 취업정보지 등	9.8	7.9	10.0	10.0	2.1	5.2	14.9
학교, 학원을 통해	1.4	2.0	1.7	0.4	0.7	0.8	1.2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통해	20.7	18.6	27.2	24.4	23.7	28.3	23.6
직접 사업체에 문의를 하여	5.2	1.1	9.3	1.0	6.0	2.6	5.7
민간 직업소개소를 통해	5.6	3.6	0.6	2.8	3.1	5.3	4.7
가족, 친구, 선후배 등 주변 지인을 통해	32.2	29.6	24.4	40.5	29.6	29.3	29.5
전 일자리에서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을 통해	7.7	9.3	4.3	6.6	14.1	8.9	0.8
기타	0.4	3.4	2.8	1.0	1.3	0.0	0.0
별다른 정보를 수집한 적 없음	2.5	1.9	0.9	-	-	-	-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84,041	77,815	60,728	57,139	36,878	35,014	37,129

주: 1순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정보를 수집한 적 없음'을 허용하지 않음(4차년도 적용)

어떠한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에 대해 임금근로 실업자의 42.7%가 '가족, 친척, 주변지인에게 일자리 의뢰', 28.2%가 '공공기관에 구직정보 등록'을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민간기관에 구직정보 등록(10.7%)'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4-2-13〉 임금근로 실업자의 구직활동내역(1순위)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공공기관에 구직정보 등록	24.5	36.1	36.6	30.2	24.2	46.1	28.2
민간기관에 구직정보 등록	8.0	3.7	4.3	2.5	7.0	7.1	10.7
학교나 훈련기관에 일자리 의뢰	2.3	1.3	1.0	0.0	0.9	0.8	1.2
이전 일자리에 구직 의뢰	6.2	4.4	3.5	8.2	22.3	9.2	8.6
가족, 친척, 주변지인에게 일자리 의뢰	43.6	39.6	33.6	43.9	32.8	27.4	42.7
사업체 직접 방문 또는 통화	10.0	11.2	21.0	12.0	11.5	9.4	8.4
취업박람회 등의 행사 참여	1.5	1.8	0.0	0.5	0.0	0.0	0.0
기타	3.7	2.0	0.0	2.6	1.3	0.0	0.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84,041	77,815	60,728	57,139	36,878	35,014	37,129

주: 1순위에 대해서는 '없음'을 허용하지 않음

구직정보 등록, 일자리 의뢰 등 구직활동을 한 후에 이력서 제출, 시험 응시 등의 활동을 하였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 임금근로 실업자의 47.7%가 '이력서 제출'을 응답하였다.

〈표 4-2-14〉 임금근로 실업자의 구직활동 이후 활동(중복응답)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이력서 제출	39.9	39.4	37.3	41.1	49.9	44.5	47.7
필기시험 응시	3.5	3.2	0.0	0.6	4.4	1.4	0.0
실기시험 응시	1.3	1.2	0.0	0.0	1.2	1.4	0.0
면접 참여	38.9	31.5	29.2	18.2	26.5	26.9	27.0
수습이나 연수생으로 참여	2.0	0.9	1.0	2.5	0.9	1.6	0.0
기타	2.2	4.4	1.0	0.4	7.3	0.0	0.5
아무것도 해본 것 없다	36.0	46.6	44.3	50.6	35.8	42.5	38.0
전 체	-	-	-	-	-	-	-
추정 수	84,041	77,815	60,728	57,139	36,878	35,014	37,129

공공기관에 구직정보를 등록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11,922명에게 공공 취업알선기관 이용 시 애로사항에 대해 응답받은 결과, '실제 알선이 이뤄지는 경우가 적음(41.3%)', '공공 취업알선기관에 대한 정보 부재(21.0%)'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4-2-15〉 임금근로 실업자의 공공 취업알선기관 이용 시 애로사항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공공 취업알선기관에 대한 정보 부재	5.8	7.4	5.6	8.1	10.4	12.8	21.0
취업알선기관 접근의 어려움	3.5	4.2	0.0	5.9	6.6	2.3	4.9
구직등록 절차가 복잡	7.3	4.6	4.6	10.6	12.2	13.3	4.9
실제 알선이 이뤄지는 경우가 적음	36.8	38.2	30.8	39.2	33.7	39.5	41.3
원하는 수준의 일자리를 알선 받지 못함	34.1	17.9	47.7	20.6	14.5	19.6	17.2
전문적인 직업상담 기회의 부족	3.3	2.1	0.0	1.5	3.2	0.0	0.0
기타	4.9	3.4	0.0	0.0	0.0	0.0	0.0
특별히 없음	4.4	22.2	11.3	14.0	19.5	12.6	10.7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3,685	31,616	26,298	20,584	11,514	17,043	11,922

주: 구직 시 공공기관을 이용해보는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자영업 실업자의 경우 실시하고 있는 창업활동으로 전체 1,336명 중에 76.9%가 '사업계획 수립'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4-2-16〉 자영업 실업자의 창업활동내역(중복응답)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20.9	8.8	57.2	30.2	27.2	23.1	76.9
자문 및 컨설팅	21.1	0.0	0.0	9.9	0.0	26.3	0.0
시장조사	29.6	3.3	0.0	19.0	19.7	0.0	23.1
자금마련 및 조달	24.3	12.6	7.7	42.1	27.2	11.3	0.0
동업자/프랜차이즈 등 탐색	0.0	7.6	0.0	9.9	0.0	0.0	0.0
창업장소 탐색	26.4	12.3	0.0	9.4	51.9	11.3	41.7
창업지원금 등 서비스 신청	3.9	67.0	24.9	9.9	0.0	0.0	0.0
기타	17.5	4.3	10.2	18.6	28.3	39.2	0.0
전 체	-	-	-	-	-	-	-
추정 수	5,605	6,677	3,624	4,456	1,190	1,742	1,336

구직활동 시 애로사항에 대해 전체 실업자의 25.9%가 '원하는 조건의 일자리가 없음'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아서(23.0%)'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1순위로 선택한 애로사항이 장애로 인한 것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22.5%이다.

〈표 4-2-17〉 실업자의 구직활동 시 애로사항(1순위)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신체기능의 제한	27.4	17.8	13.0	23.4	24.2	28.4	10.6
이동능력의 제한	1.1	3.0	1.5	2.7	3.5	0.0	0.0
의사소통의 제한	4.5	4.3	2.6	2.5	0.5	1.5	1.8
심리적 불안감이나 초조함	4.9	2.0	5.9	8.8	2.1	10.1	5.3
학력, 경력(경험), 기술부족	6.4	6.2	2.8	3.8	5.7	2.4	5.2
원하는 조건의 일자리가 없음	23.5	28.7	34.6	22.1	22.0	19.1	25.9
구직정보 접근의 어려움	2.8	8.0	9.6	5.9	2.8	9.4	8.0
구직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음	0.7	0.0	0.0	0.5	0.8	0.7	0.0
취업알선기관 및 서비스 부재 접근의 어려움	0.8	1.3	6.9	4.0	4.8	5.0	3.4
장애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	5.8	13.6	7.5	7.7	7.5	19.1	13.2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아서	16.0	11.8	15.7	16.7	22.5	3.1	23.0
장애 이외의 질병이나 사고	2.3	2.5	0.0	0.9	2.7	1.1	2.1
기타	3.8	0.9	0.0	0.9	0.9	0.0	1.4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89,646	84,492	64,352	61,595	38,068	36,756	38,465
장애로 인한 것임	55.8	56.0	47.8	48.8	41.5	41.7	22.5
장애로 인한 것이 아님	44.2	44.0	52.2	51.2	58.5	58.3	77.5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89,646	84,492	64,352	61,595	38,068	36,756	38,465

주: 1순위에 대해서는 '없음'을 허용하지 않음

지난 주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구직활동에 소요된 시간을 질문한 결과, 주 7시간 이상(1일 1시간 기준) 구직활동을 한 비율은 8.1%로 나타났다.

〈표 4-2-18〉 실업자의 지난 주 구직활동 시간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7시간 미만	60.0	65.4	70.0	77.9	75.2	78.4	77.0
7시간 이상	19.8	8.7	12.3	9.6	6.7	5.9	8.1
지난 주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음	20.2	25.9	17.7	12.5	18.1	15.7	14.9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89,646	84,492	64,352	61,595	37,719	36,756	38,465

주: 모름/응답거절 제외한 분석임

4. 취업준비 및 가치관

실업자의 23.1%가 취업 또는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준비활동으로 전체의 11.4%가 '공공기관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 4.6%가 '취업/창업을 위한 정보수집'을 응답하였다.

〈표 4-2-19〉 실업자의 취업/창업 준비활동(1순위)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공공기관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	9.0	7.7	2.5	5.0	9.4	8.2	11.4
민간기관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	0.0	0.3	0.0	2.9	0.0	1.0	2.5
학교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	0.6	1.8	1.0	0.6	0.0	0.0	0.0
사설학원 이용	2.2	0.8	1.1	0.5	0.0	0.8	0.9
부모 및 친지로부터 기술 전수	0.5	0.0	1.0	0.5	0.0	0.0	0.0
선배, 지인 등으로부터 기술 전수	2.3	0.7	1.3	2.0	4.0	8.1	1.8
회사로부터 직접 기술 전수	0.4	0.0	0.0	0.0	0.0	0.0	0.0
독학	2.0	2.6	0.7	0.7	0.9	3.6	0.8
취업/창업을 위한 정보수집	14.8	9.8	13.2	5.5	4.8	0.0	4.6
기타	1.2	0.0	0.0	0.0	3.4	0.0	1.0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것 없음	66.9	76.3	79.3	82.3	77.6	78.3	76.9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89,646	84,492	64,352	61,595	38,068	36,756	38,465

일자리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 1순위로 응답한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35.0%의 실업자가 '임금이나 소득수준'을 최우선적으로 선택하였다. 다음으로는 '능력에 맞는 일(19.8%)', '오래 일할 수 있는 정도(11.0%)'의 순으로 선택하였다.

〈표 4-2-20〉 실업자의 일자리를 선택하는 기준(가치관)(1순위)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임금이나 소득수준	47.2	42.8	26.7	36.2	21.2	22.0	35.0
일의 양(노동 강도)	3.5	4.7	6.8	5.4	9.5	12.1	8.9
일하는 시간(대)	2.3	2.6	0.0	1.6	7.5	1.2	5.7
능력에 맞는 일	33.3	36.6	34.4	40.3	41.6	37.2	19.8
정규직 여부	0.6	0.0	2.9	1.5	5.0	1.2	0.0
오래 일할 수 있는 정도	9.0	8.5	20.2	9.1	7.9	13.4	11.0
장애편의시설 설치 여부	0.0	0.5	0.0	0.6	0.0	0.9	0.0
장애인에 대한 이해 여부	0.7	1.8	2.0	0.8	1.6	5.8	9.2
대인관계	0.0	0.0	0.0	0.0	0.0	0.0	0.0
복리후생 지원 정도	0.0	0.9	0.0	0.0	0.6	0.0	0.0
이동거리(출퇴근 거리)	0.3	0.0	0.0	0.0	3.0	2.7	3.5
적성이나 흥미	1.1	0.8	4.1	3.4	1.2	3.4	6.8
시간적 여유	0.0	0.3	0.0	0.0	0.0	0.0	0.0
삶의 비전이나 꿈	1.2	0.0	2.9	0.0	0.9	0.0	0.0
일자리의 발전 가능성	0.4	0.5	0.0	0.8	0.0	0.0	0.0
일자리의 사회적 인지도	0.0	0.0	0.0	0.0	0.0	0.0	0.0
일자리의 규모	0.0	0.0	0.0	0.0	0.0	0.0	0.0
기타	0.5	0.0	0.0	0.3	0.0	0.0	0.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89,646	84,492	64,352	61,595	38,068	36,756	38,465

주: 1순위에 대해서는 '없음'을 허용하지 않음

5. 취업/창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취업이나 창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에 대해 전체 실업자의 42.8%가 '취업알선/창업지원', 14.4%는 '장애인 전문 직업훈련', 6.6%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임금근로 실업자의 경우 37.6%가 '구분모집/특별채용', 25.4%는 '채용과정 시 배려', 12.0%는 '일정기간 훈련 후 근무', 10.4%는 '장애인 별도 작업장 근무', 2.2%는 '근무일/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4-2-21〉 실업자의 취업/창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 차수별

(단위: %, 명)

변 수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취업알선/창업지원	필요비율	82.5	60.8	58.6	58.5	50.0	67.2	42.8
	추정 수	89,646	84,492	64,352	61,595	38,068	36,756	38,465
장애인 전문 직업훈련	필요비율	29.8	22.9	17.2	12.8	18.8	9.6	14.4
	추정 수	89,646	84,492	64,352	61,595	38,068	36,756	38,465
구분모집/특별채용	필요비율	62.9	63.6	62.4	59.4	54.4	51.8	37.6
	추정 수	84,041	77,618	60,728	57,139	36,878	36,756	38,465
채용과정 시 배려	필요비율	47.8	47.3	44.1	28.0	38.2	39.7	25.4
	추정 수	84,041	77,618	60,728	57,139	36,878	36,756	38,465
장애인 별도 작업장 근무	필요비율	26.0	14.0	11.1	6.0	13.7	4.1	10.4
	추정 수	84,041	77,618	60,728	57,139	36,878	36,756	38,465
일정기간 훈련 후 근무	필요비율	30.1	22.8	9.7	14.3	18.5	8.5	12.0
	추정 수	84,041	77,618	60,728	57,139	36,878	36,756	38,465
근무일/시간 조정	필요비율	42.4	27.4	23.3	14.5	14.3	9.2	2.2
	추정 수	84,041	77,618	60,728	57,139	36,878	36,756	38,465
타인의 도움	필요비율	15.1	9.3	11.9	9.6	7.3	6.0	6.6
	추정 수	89,646	84,492	64,352	61,595	38,068	36,756	38,465
편의시설	필요비율	12.8	14.8	10.3	8.1	11.2	5.7	4.6
	추정 수	89,646	84,492	64,352	61,595	38,068	36,756	38,465
작업보조기기	필요비율	7.3	6.4	5.6	2.3	10.0	6.2	2.0
	추정 수	89,646	84,492	64,352	61,595	38,068	36,756	38,465

주 1) '구분모집/특별채용', '채용과정 시 배려', '장애인 별도 작업장 근무', '일정기간 훈련 후 근무', '근무일/시간 조정'에 대해서는 임금근로 실업자에게만 질문함

2) 모름/응답거절 제외한 분석임

채용과정에서 배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7,666명은 배려사항으로 '장애인 가산점(97.9%)'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다음으로 '이동편의 제공(3.3%)' 등을 응답하였다.

〈표 4-2-22〉 임금근로 실업자의 필요한 채용과정 배려사항(중복응답)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모집공고의 음성지원 점자인쇄물 제공	1.5	0.0	1.9	0.0	0.0	0.0	0.0
장애인 가산점	72.6	82.5	84.8	84.5	93.2	93.8	97.9
이동편의 제공	26.0	17.1	32.9	18.3	40.4	8.6	3.3
시험시간 조정	6.9	4.9	1.3	2.2	6.6	0.0	0.0
보조공학기기 제공	4.9	3.7	1.3	0.0	6.8	0.0	0.0
시험문제 크기 조절	0.0	0.0	0.0	0.0	0.0	0.0	0.0
점자시험지 제공	1.3	0.0	0.0	0.0	0.0	0.0	0.0
대필지원	1.8	1.8	0.0	0.0	0.0	0.0	0.0
수화통역사 지원	2.8	2.2	1.3	0.0	0.0	0.0	0.0
활동보조인 지원	5.9	0.8	1.3	0.9	3.1	0.0	0.0
기타	5.3	0.5	0.0	0.0	0.0	0.0	0.0
전 체	-	-	-	-	-	-	-
추정 수	40,166	36,737	26,763	16,024	14,099	11,452	7,666

주: 채용과정에서 배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근무일/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835명은 가장 필요한 조정사항으로 '시간제 근로(100.0%)'를 선택하였다.

〈표 4-2-23〉 임금근로 실업자의 필요한 근무일/시간 조정사항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시간제 근로	39.1	42.7	40.4	23.4	30.9	78.8	100.0
출퇴근 시간의 조정	29.6	25.7	16.6	44.5	29.5	0.0	0.0
근무일수, 근무요일 조정	30.2	31.6	39.7	28.0	21.3	21.2	0.0
기타	1.1	0.0	3.3	4.1	18.3	0.0	0.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35,647	21,237	14,164	8,282	5,280	3,215	835

주: 근무일/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2,555명은 도움이 필요한 사항으로 '출퇴근 지원(70.5%)'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다음으로 '의사소통 지원(29.5%)'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4-2-24〉 실업자의 필요한 타인의 도움 항목(중복응답)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출퇴근 지원	55.9	37.8	27.3	39.9	66.0	32.2	70.5
사무보조 및 지원	5.0	20.4	20.7	7.9	84.2	18.3	0.0
작업지원	30.7	18.5	18.8	17.4	5.3	27.3	0.0
의사소통 지원	23.0	9.6	18.3	23.8	0.0	0.0	29.5
이동지원	6.7	44.6	19.3	11.1	50.2	17.6	0.0
일자리 내 일상생활지원	3.7	22.5	0.0	0.0	50.2	22.1	0.0
기타	3.5	0.0	0.0	0.0	0.0	0.0	0.0
전 체	-	-	-	-	-	-	-
추정 수	13,572	7,897	7,648	5,930	2,796	2,195	2,555

주: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장애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1,763명은 필요한 편의시설로 '주출입구 경사로 설치, 바닥 높이차이 제거(73.3%)'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다음으로 '계단이나 복도의 핸드레일 설치(52.6%)', '엘리베이터, 계단형 리프트 설치(52.6%)'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4-2-25〉 실업자의 필요한 장애편의시설(중복응답)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주출입구 경사로 설치, 바닥 높이차이 제거	52.2	60.1	79.1	80.6	77.1	9.3	73.3
계단이나 복도의 핸드레일 설치	34.0	26.5	36.3	63.9	58.9	43.4	52.6
엘리베이터, 계단형 리프트 설치	34.2	45.8	58.5	75.5	80.9	0.0	52.6
점자유도블럭이나 점자표지판 설치	7.8	0.0	0.0	0.0	6.9	0.0	0.0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32.7	44.7	9.6	30.0	47.0	0.0	26.7
장애인용 화장실	38.1	55.1	12.9	65.7	77.1	23.2	11.3
장애인용 작업대	36.1	41.2	5.4	20.8	70.2	33.5	0.0
기타	3.6	0.0	0.0	0.0	0.0	0.0	0.0
전 체	-	-	-	-	-	-	-
추정 수	11,482	12,467	6,615	4,992	4,270	2,106	1,763

주: 장애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업무수행 시 작업보조기기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754명은 필요한 기기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한 작업보조기기(100.0%)'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표 4-2-26〉 실업자의 필요한 작업보조기기(중복응답)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정보접근을 위한 작업보조기기	35.5	15.8	0.0	59.9	33.0	62.2	0.0
의사소통을 돕기 위한 작업보조기기	16.3	17.9	52.8	13.3	0.0	10.6	100.0
작업을 돕기 위한 작업보조기기	50.2	47.1	47.2	58.3	45.2	0.0	0.0
사무보조를 위한 작업보조기기	25.4	35.0	0.0	0.0	80.8	14.0	0.0
기타	2.2	0.0	0.0	0.0	0.0	13.2	0.0
전 체	-	-	-	-	-	-	-
추정 수	6,513	5,408	3,627	1,408	3,813	2,287	754.0

- 주 1) 작업보조기기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 2) 정보접근을 위한 작업보조기기: 서류읽기, 책읽기, 컴퓨터 사용 등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보조기기(예: 점자정보단말기, 특수키보드 및 마우스 등)
- 3) 의사소통을 돕기 위한 작업보조기기: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1:1 의사소통, 1:다 의사소통, 전화 등 다양한 의사소통을 돕는 보조공학기기(예: 수화를 할 수 있는 화상전화기, 버튼을 눌러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는 보완대체 의사소통장치 등)
- 4) 작업을 돕기 위한 작업보조기기: 직업생활에서 좀 더 쉽고 빠르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공학기기(예: 높낮이조절 작업테이블, 작업물 운송장치, 특수작업의자 등)
- 5) 사무보조를 위한 작업보조기기: 일반적인 사무작업을 할 때 도움이 되는 작업보조기기(예: 전화기를 고정시켜두는 수화기 홀더, 손의 힘이 약하거나 잘 잡지 못해도 필기를 할 수 있도록 필기구를 손에 고정시켜주는 필기보조도구 등)

6. 주요 변수별 실업자 특성 비교

〈표 4-2-27〉 실업자 주요 특성 비교 - 성별¹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남성	여성	전 체
임금근로 희망하는 비율(%)	94.8	100.0	96.5
응답 수(명)	25,577	12,888	38,465
[임금근로] 희망 산업 - 제조업 비율(%)	12.4	18.8	14.6
응답 수(명)	24,241	12,888	37,129
[임금근로] 희망 직업 - 단순노무종사자 비율(%)	49.0	51.2	49.8
응답 수(명)	24,241	12,888	37,129
[임금근로] 희망 종사상 지위 - 상용근로자 비율(%)	67.9	32.4	55.6
응답 수(명)	24,241	12,888	37,129
[임금근로] 월평균 최소 희망임금(만원)	131.50	82.64	114.54
응답 수(명)	24,241	12,888	37,129
장애인 취업알선/창업지원 필요 비율(%)	46.1	36.4	42.8
응답 수(명)	25,577	12,888	38,465
장애인 전문 직업훈련 필요 비율(%)	18.1	6.9	14.4
응답 수(명)	25,577	12,888	38,465
[임금근로] 장애인 구분모집/특별채용 필요 비율(%)	48.0	18.0	37.6
응답 수(명)	24,241	12,888	37,129
[임금근로] 채용 과정 시 배려 필요 비율(%)	33.6	9.9	25.4
응답 수(명)	24,241	12,888	37,129
[임금근로] 장애인 별도 작업장 근무 필요 비율(%)	12.5	6.5	10.4
응답 수(명)	24,241	12,888	37,129
[임금근로] 일정기간 훈련 후 근무 필요 비율(%)	15.0	6.5	12.0
응답 수(명)	24,241	12,888	37,129

주 1)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사용하였음

2)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사용하였음

3) '월평균 최소 희망임금'의 경우 모름/응답거절 제외한 분석임

〈표 4-2-28〉 실업자 주요 특성 비교 - 성별2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남성	여성	전 체
[임금근로] 근무일/시간 조정 필요 비율(%)	0.0	6.5	2.2
응답 수(명)	24,241	12,888	37,129
업무 수행 시 타인의 도움 필요 비율(%)	7.0	5.9	6.6
응답 수(명)	25,577	12,888	38,465
장애편의시설 필요 비율(%)	3.6	6.5	4.6
응답 수(명)	25,577	12,888	38,465
작업보조기기 필요 비율(%)	0.0	5.9	2.0
응답 수(명)	25,577	12,888	38,465
평균 구직기간(개월)	6.6	7.7	6.9
응답 수(명)	25,577	12,888	38,465
[임금근로] 공공기관에 구직정보 등록한 비율(%)	34.7	16.1	28.2
응답 수(명)	24,241	12,888	37,129
취업/창업 준비를 하고 있는 비율(%)	19.2	30.7	23.1
응답 수(명)	25,577	12,888	38,465
과거 취업경험 있는 비율(%)	95.7	89.2	93.5
응답 수(명)	25,577	12,888	38,465

주 1) '평균 구직기간'의 경우 지난조사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응답받았으며, 봄=4월, 여름=7월, 가을=10월, 겨울=12월로 처리하여 분석하였음

2) '과거 취업경험이 있는 비율'은 1차년도 조사 시 과거 취업경험 + 1차년도 조사 이후 1개월 이상 취업한 일자리 유무로 산정함

〈표 4-2-29〉 실업자 주요 특성 비교 - 연령별1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21~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81세	전 체
임금근로 희망하는 비율(%)	100.0	100.0	92.6	92.6	100.0	96.5
응답 수(명)	3,898	4,699	6,400	11,765	11,703	38,465
[임금근로] 희망 산업 - 제조업 비율(%)	10.1	22.0	19.5	22.9	3.0	14.6
응답 수(명)	3,898	4,699	5,928	10,900	11,704	37,129
[임금근로] 희망 직업 - 단순노무종사자 비율(%)	46.2	5.9	52.0	48.3	68.8	49.8
응답 수(명)	3,898	4,699	5,928	10,900	11,704	37,129
[임금근로] 희망 종사상 지위 - 상용근로자 비율(%)	53.8	65.9	66.7	56.5	45.5	55.6
응답 수(명)	3,898	4,699	5,928	10,900	11,704	37,129
[임금근로] 월평균 최소 희망임금(만원)	98.8	106.5	153.5	121.1	97.2	114.5
응답 수(명)	3,898	4,699	5,929	10,900	11,704	37,129
장애인 취업알선/창업지원 필요 비율(%)	56.3	71.7	39.7	36.4	34.9	42.8
응답 수(명)	3,898	4,699	6,400	11,765	11,703	38,465
장애인 전문 직업훈련 필요 비율(%)	56.3	0.0	12.7	8.2	13.3	14.4
응답 수(명)	3,898	4,699	6,400	11,765	11,703	38,465
[임금근로]장애인 구분모집/특별채용 필요 비율(%)	56.3	43.9	29.2	31.2	39.0	37.6
응답 수(명)	3,898	4,699	5,929	10,900	11,704	37,129
[임금근로] 채용 과정 시 배려 필요 비율(%)	56.3	21.5	16.6	25.9	20.6	25.4
응답 수(명)	3,898	4,699	5,928	10,900	11,704	37,129
[임금근로] 장애인 별도 작업장 근무 필요 비율(%)	46.2	0.0	0.0	18.9	0.0	10.4
응답 수(명)	3,898	4,699	5,928	10,900	11,704	37,129
[임금근로] 일정기간 훈련 후 근무 필요 비율(%)	56.3	0.0	4.9	14.0	3.9	12.0
응답 수(명)	3,898	4,699	5,928	10,900	11,704	37,129

- 주 1)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사용하였음
 2)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사용하였음
 3) '월평균 최소 희망임금'의 경우 모름/응답거절 제외한 분석임

〈표 4-2-30〉 실업자 주요 특성 비교 - 연령별2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21~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81세	전 체
[임금근로] 근무일/시간 조정 필요 비율(%)	0.0	0.0	0.0	7.7	0.0	2.2
응답 수(명)	3,898	4,699	5,929	10,899	11,704	37,129
업무 수행 시 타인의 도움 필요 비율(%)	46.2	16	0.0	0.0	0.0	6.6
응답 수(명)	3,898	4,699	6,399	11,765	11,704	38,465
장애편의시설 필요 비율(%)	0.0	0.0	7.4	7.1	3.9	4.6
응답 수(명)	3,898	4,699	6,400	11,765	11,703	38,465
작업보조기기 필요 비율(%)	0.0	16.0	0.0	0.0	0.0	2.0
응답 수(명)	3,898	4,699	6,399	11,765	11,704	38,465
평균 구직기간(개월)	5.0	6.5	6.9	6.3	8.5	6.9
응답 수(명)	3,898	4,699	6,399	11,765	11,704	38,465
[임금근로] 공공기관에 구직정보 등록한 비율(%)	44.1	22.4	29.2	27.7	25.4	28.2
응답 수(명)	3,898	4,699	5,929	10,899	11,704	37,129
취업/창업 준비를 하고 있는 비율(%)	9.7	43.9	10.4	23.2	26.0	23.1
응답 수(명)	3,898	4,699	6,399	11,765	11,704	38,465
과거 취업경험 있는 비율(%)	80.6	94.1	92.9	100.0	91.3	93.5
응답 수(명)	3,898	4,699	6,399	11,765	11,704	38,465

주 1) '평균 구직기간'의 경우 지난조사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응답받았으며, 봄=4월, 여름=7월, 가을=10월, 겨울=12월로 처리하여 분석하였음

2) '과거 취업경험이 있는 비율'은 1차년도 조사 시 과거 취업경험 + 1차년도 조사 이후 1개월 이상 취업한 일자리 유무로 산정함

〈표 4-2-31〉 실업자 주요 특성 비교 - 장애정도별1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중증	경증	전 체
임금근로 희망하는 비율(%)	97.5	96.0	96.5
응답 수(명)	12,443	26,022	38,465
[임금근로] 희망 산업 - 제조업 비율(%)	19.2	12.4	14.6
응답 수(명)	12,135	24,994	37,129
[임금근로] 희망 직업 - 단순노무종사자 비율(%)	42.7	53.2	49.8
응답 수(명)	12,135	24,994	37,129
[임금근로] 희망 종사상 지위 - 상용근로자 비율(%)	50.3	58.2	55.6
응답 수(명)	12,135	24,994	37,129
[임금근로] 월평균 최소 희망임금(만원)	94.6	124.2	114.5
응답 수(명)	12,135	24,994	37,129
장애인 취업알선/창업지원 필요 비율(%)	60.5	34.4	42.8
응답 수(명)	12,443	26,022	38,465
장애인 전문 직업훈련 필요 비율(%)	23.4	10.1	14.4
응답 수(명)	12,443	26,022	38,465
[임금근로] 장애인 구분모집/특별채용 필요 비율(%)	55.2	29.1	37.6
응답 수(명)	12,135	24,994	37,129
[임금근로] 채용 과정 시 배려 필요 비율(%)	37.6	19.5	25.4
응답 수(명)	12,135	24,994	37,129
[임금근로] 장애인 별도 작업장 근무 필요 비율(%)	20.6	5.4	10.4
응답 수(명)	12,135	24,994	37,129
[임금근로] 일정기간 훈련 후 근무 필요 비율(%)	26.7	4.9	12.0
응답 수(명)	12,135	24,994	37,129

- 주 1)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사용하였음
 2)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사용하였음
 3) '월평균 최소 희망임금'의 경우 모름/응답거절 제외한 분석임

〈표 4-2-32〉 실업자 주요 특성 비교 - 장애정도별2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중증	경증	전 체
[임금근로] 근무일/시간 조정 필요 비율(%)	0.0	3.3	2.2
응답 수(명)	12,135	24,994	37,129
업무 수행 시 타인의 도움 필요 비율(%)	20.5	0.0	6.6
응답 수(명)	12,443	26,022	38,465
장애편의시설 필요 비율(%)	0.0	6.8	4.6
응답 수(명)	12,443	26,022	38,465
작업보조기기 필요 비율(%)	6.1	0.0	2.0
응답 수(명)	12,443	26,022	38,465
평균 구직기간(개월)	6.0	7.4	6.9
응답 수(명)	12,443	26,022	38,465
[임금근로] 공공기관에 구직정보 등록한 비율(%)	37.7	23.7	28.2
응답 수(명)	12,135	24,994	37,129
취업/창업 준비를 하고 있는 비율(%)	20.5	24.3	23.1
응답 수(명)	12,443	26,022	38,465
과거 취업경험 있는 비율(%)	84.4	97.9	93.5
응답 수(명)	12,443	26,022	38,465

주 1) '평균 구직기간'의 경우 지난조사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응답받았으며, 봄=4월, 여름=7월, 가을=10월, 겨울=12월로 처리하여 분석하였음

2) '과거 취업경험이 있는 비율'은 1차년도 조사 시 과거 취업경험 + 1차년도 조사 이후 1개월 이상 취업한 일자리 유무로 산정함

〈표 4-2-33〉 실업자 주요 특성 비교 - 장애유형별1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신체외부장애		감각장애		정신적	신체 내부	전 체
	지체	지체 제외	시각	시각 제외			
임금근로 희망하는 비율(%)	95.3	100.0	94.1	100.0	100.0	0.0	96.5
응답 수(명)	21,967	3,586	5,234	2,964	4,714	0.0	38,465
[임금근로] 희망 산업 - 제조업 비율(%)	15.5	0.0	12.8	43.1	5.9	0.0	14.6
응답 수(명)	20,939	3,586	4,925	2,965	4,714	0.0	37,129
[임금근로] 희망 직업 - 단순노무종사자 비율(%)	48.1	20.6	61.7	51.5	66.0	0.0	49.8
응답 수(명)	20,940	3,586	4,925	2,964	4,714	0.0	37,129
[임금근로] 희망 종사상 지위 - 상용근로자 비율(%)	58.6	76.0	73.2	59.4	5.9	0.0	55.6
응답 수(명)	20,939	3,586	4,926	2,964	4,714	0.0	37,129
[임금근로] 월평균 최소 희망임금(만원)	118.8	121.5	148.4	131.1	44.5	0.0	114.5
응답 수(명)	20,939	3,586	4,926	2,964	4,714	0.0	37,129
장애인 취업알선/창업지원 필요 비율(%)	30.2	70.6	46.9	25.4	87.0	0.0	42.8
응답 수(명)	21,967	3,586	5,234	2,964	4,714	0.0	38,465
장애인 전문 직업훈련 필요 비율(%)	10.3	15.2	10.6	12.3	38.2	0.0	14.4
응답 수(명)	21,967	3,586	5,234	2,964	4,714	0.0	38,465
[임금근로]장애인 구분모집/특별채용 필요 비율(%)	28.5	91.6	21.3	27.9	60.1	0.0	37.6
응답 수(명)	20,939	3,586	4,925	2,965	4,714	0.0	37,129
[임금근로] 채용 과정 시 배려 필요 비율(%)	20.6	43.4	10.0	19.0	53.0	0.0	25.4
응답 수(명)	20,939	3,586	4,926	2,964	4,714	0.0	37,129
[임금근로] 장애인 별도 작업장 근무 필요 비율(%)	5.6	5.2	0.0	0.0	53.0	0.0	10.4
응답 수(명)	20,939	3,586	4,926	2,964	4,714	0.0	37,129
[임금근로] 일정기간 훈련 후 근무 필요 비율(%)	9.4	0.0	0.0	0.0	53.0	0.0	12.0
응답 수(명)	20,939	3,586	4,926	2,964	4,714	0.0	37,129

주 1)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사용하였음

2)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사용하였음

3) '월평균 최소 희망임금'의 경우 모름/응답거절 제외한 분석임

〈표 4-2-34〉 실업자 주요 특성 비교 - 장애유형별2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신체외부장애		감각장애		정신적	신체 내부	전 체
	지체	지체 제외	시각	시각 제외			
[임금근로] 근무일/시간 조정 필요 비율(%)	4.0	0.0	0.0	0.0	0.0	0.0	2.2
응답 수(명)	20,939	3,586	4,926	2,964	4,714	0.0	37,129
업무 수행 시 타인의 도움 필요 비율(%)	0.0	0.0	0.0	25.4	38.2	0.0	6.6
응답 수(명)	21,967	3,586	5,234	2,964	4,714	0.0	38,465
장애편의시설 필요 비율(%)	7.1	0.0	0.0	6.7	0.0	0.0	4.6
응답 수(명)	21,967	3,586	5,234	2,964	4,714	0.0	38,465
작업보조기기 필요 비율(%)	0.0	0.0	0.0	25.4	0.0	0.0	2.0
응답 수(명)	21,967	3,586	5,234	2,964	4,714	0.0	38,465
평균 구직기간(개월)	7.9	7.4	4.3	9.1	3.6	0.0	6.9
응답 수(명)	21,967	3,586	5,234	2,964	4,714	0.0	38,465
[임금근로] 공공기관에 구직정보 등록한 비율(%)	25.4	54.8	37.9	33.7	7.1	0.0	28.2
응답 수(명)	20,939	3,586	4,926	2,964	4,714	0.0	37,129
취업/창업 준비를 하고 있는 비율(%)	26.6	67.6	5.9	10.3	0.0	0.0	23.1
응답 수(명)	21,967	3,586	5,234	2,964	4,714	0.0	38,465
과거 취업경험 있는 비율(%)	91.6	100.0	100.0	87.2	94.1	0.0	93.5
응답 수(명)	21,967	3,586	5,234	2,964	4,714	0.0	38,465

- 주 1) '평균 구직기간'의 경우 지난조사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응답받았으며, 봄=4월, 여름=7월, 가을=10월, 겨울=12월로 처리하여 분석하였음
- 2) '과거 취업경험이 있는 비율'은 1차년도 조사 시 과거 취업경험 + 1차년도 조사 이후 1개월 이상 취업한 일자리 유무로 산정함

제3절 비경제활동인구 특성

1. 비경제활동인구 인적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인적구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 48.8%, 여성 51.2%, 연령별로는 21~29세 2.5%, 30~39세 5.7%, 40~49세 10.3%, 50~59세 18.1%, 60~81세 63.3%로 나타났다. 장애정도별로는 중증장애인 51.1%, 경증장애인 48.9%,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가 49.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지역별로는 수도권(46.0%), 기타 시도(32.8%), 광역시권(21.3%) 순이며,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4.3%, 고졸 23.4%, 중졸 이하 72.2%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 인구분포와 비교해보면, 성별에서는 여성,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장애정도별로는 중증, 장애유형별로는 지체 제외 신체외부장애인, 정신적 장애인, 신체내부장애인, 지역별로는 수도권, 광역시권,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의 비중이 전체의 비중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1〉 비경제활동인구의 인적구성

(단위: %, 명)

변 수	구 분	비 율	장애인 인구분포
성별	남성	48.8	59.6
	여성	51.2	40.4
연령별	21~29세	2.5	2.9
	30~39세	5.7	7.0
	40~49세	10.3	14.3
	50~59세	18.1	23.8
	60~81세	63.3	52.0
장애정도별	중증	51.1	41.1
	경증	48.9	58.9
장애유형별	신체외부장애	지체장애	54.7
		지체 외	9.8
	감각장애	시각장애	10.2
		시각 외	9.7
	정신적 장애		10.5
	신체내부장애		5.1
지역	수도권	46.0	42.3
	광역시권	21.3	19.3
	기타 시도	32.8	38.3
학력	중졸 이하	72.2	64.2
	고졸	23.4	28.0
	대졸 이상	4.3	7.8
전 체		100.0	100.0
추정 수		1,281,272	2,208,315

2. 지난 주 일자리 희망

지난 주 일자리를 희망하였는지 살펴본 결과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주 일자리를 희망한 사람은 총 4.7%를 차지하며, 지난 주 일자리를 희망한 경우 일이 주어지면 할 수 있었던 비경제활동인구는 77.4%로 나타났다.

〈표 4-3-2〉 비경제활동인구의 지난 주 일자리 희망 여부 - 차수별

(단위: %, 명)

변 수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지난 주 일자리 희망 여부	희망하였음	12.2	7.6	6.8	5.2	5.7	5.1	4.7
	가능하였음	67.8	72.5	71.1	66.5	62.1	85.5	77.4
	가능하지 않았음	32.2	27.5	28.9	33.5	37.9	14.5	22.6
	소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122,599	86,268	81,634	63,588	70,897	63,252	59,643
	희망하지 않았음	87.8	92.4	93.2	94.8	94.3	94.9	95.3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1,004,528	1,127,788	1,195,436	1,215,770	1,244,080	1,251,192	1,281,272

주: '지난 주 일 가능하지 않았음'에는 지난 주 또는 지난 4주 내 구직은 하였으나 지난 주 일하는 것은 불가능해서 비경제활동인구가 된 인원 포함

지난 주 일자리를 희망한다고 한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응답받은 결과, '생활비를 벌거나 가족부양을 위해' 81.4%, '용돈, 여가활동비를 벌기 위해' 9.6%,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 기 위해' 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3〉 비경제활동인구의 지난 주 일자리 희망 사유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생활비를 벌거나 가족부양을 위해	79.2	80.9	73.3	81.0	73.4	68.9	81.4
용돈, 여가활동비를 벌기 위해	10.1	9.0	13.9	8.2	19.3	21.7	9.6
지식이나 기술, 전공 등의 활용을 위해	1.6	1.5	1.0	0.1	0.0	0.6	0.0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3.1	6.0	1.4	1.9	3.6	3.0	1.5
국가나 사회에 보탬이 되려고	0.4	0.4	0.0	0.0	0.0	0.0	0.0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 기 위해	3.6	1.4	10.0	8.9	3.7	5.4	7.6
기타	1.9	0.7	0.4	0.0	0.0	0.5	0.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122,599	86,268	81,634	63,588	70,897	63,252	59,643

주: 지난 주 일자리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지난 주 일자리를 희망하였지만 지난 4주간 구직을 하지 않은 59,149명에게 그 이유를 응답받은 결과, 전체의 31.4%가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하였으며, '장애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아서(25.7%)',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21.5%)',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고용주가 채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8.1%)'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4〉 비경제활동인구의 지난 주 일자리를 희망하면서 구직하지 않은 이유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장애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아서	45.8	34.3	33.9	38.3	39.7	22.8	25.7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10.4	16.5	13.6	17.5	10.3	14.3	31.4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1.2	1.5	3.3	0.3	6.1	2.6	0.8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1.1	0.8	2.0	0.0	1.0	2.2	0.0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고용주가 채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	7.0	6.8	9.7	8.0	1.3	7.8	8.1
구직정보나 방법을 몰라서	0.5	1.0	1.1	0.9	0.0	0.4	0.4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16.9	20.9	14.9	18.7	25.5	37.7	21.5
현재 취업준비 중에 있음	2.2	2.9	3.9	1.9	1.0	4.4	1.6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생각해서	6.3	1.2	6.6	7.2	5.9	3.6	2.7
육아 또는 가사로 인해	2.1	2.9	1.2	0.9	2.4	0.0	1.7
장애 이외 질병이나 사고로	2.7	4.2	4.5	4.9	2.4	2.8	3.9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0.0	0.6	0.0	0.0	0.0	0.0	0.5
자영업을 하려고 하지만 창업할 능력, 상황이 안돼서	1.0	2.9	1.0	0.6	2.7	1.3	1.0
기타	2.8	3.6	4.2	0.8	1.6	0.0	0.7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114,854	82,421	77,979	60,844	65,106	62,136	59,149

주: 지난 주 또는 지난 4주 내 구직은 하였으나 지난 주 일하는 것은 불가능해서 비경제활동인구가 된 인원 제외

지난 주 일자리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1,221,629명에게 그 사유를 응답받은 결과, 전체의 69.0%가 '장애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아서'로 응답하였고,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생각해서(13.4%)', '장애 이외의 질병이나 사고로(8.6%)'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주 일자리를 희망하지 않은 이유가 장애로 인한 것인지를 확인한 결과, 그 비율이 71.8%로 나타났다.

〈표 4-3-5〉 비경제활동인구의 지난 주 일자리를 희망하지 않은 이유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장애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아서	75.3	71.7	74.7	73.3	72.4	69.0
그저 일하고 싶지 않아서 또는 일할 필요가 없어서	2.0	1.2	1.5	2.3	2.5	2.2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0.9	1.6	1.7	1.1	1.5	1.4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0.1	0.3	0.3	0.3	0.1	0.1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0.4	0.2	0.1	0.1	0.0	0.1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 때문에	0.4	0.3	0.2	0.4	0.3	0.1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1.1	2.3	1.6	1.4	1.6	1.6
일해 본 경험이 없어서	0.1	0.3	0.1	0.1	0.4	0.2
현재 취업준비 중에 있음	0.4	0.2	0.2	0.2	0.1	0.3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생각해서	7.4	11.0	10.5	11.1	12.3	13.4
육아 또는 가사로 인해	2.8	2.6	1.9	1.8	2.0	2.3
장애 이외 질병이나 사고로	6.6	6.4	6.0	6.8	5.9	8.6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1.5	0.9	0.7	0.5	0.3	0.2
취업 이외의 활동 때문에	0.2	0.2	0.1	0.2	0.1	0.1
자영업을 하려고 하지만 창업할 능력, 상황이 안돼서	0.0	0.1	0.0	0.0	0.0	0.1
기타	1.0	0.8	0.5	0.6	0.5	0.1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1,041,357	1,113,541	1,152,182	1,173,183	1,187,940	1,221,629
장애로 인한 것임	79.1	74.9	77.2	76.3	75.4	71.8
장애로 인한 것이 아님	20.9	25.1	22.8	23.7	24.6	28.2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1,041,357	1,113,541	1,152,182	1,173,183	1,187,940	1,221,629

주 1) 지난 주 일자리를 희망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2) 모름/응답거절 제외한 분석임

3. 지난조사 이후 구직활동 경험

지난조사 이후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1.6%만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4-3-6〉 비경제활동인구의 지난조사 이후 구직활동 경험 여부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구해보았음	3.0	3.2	1.8	2.4	2.6	1.6
구해보지 않았음	97.0	96.8	98.2	97.6	97.4	98.4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1,127,788	1,195,436	1,215,770	1,244,080	1,251,192	1,221,629

주: 2차년도부터 조사되었음(이하 동일)

지난조사 이후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 구직활동 기간을 응답받은 결과, '1개월 이하' 47.3%,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 35.0%,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 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7〉 비경제활동인구의 지난조사 이후 구직활동 기간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1개월 이하	42.0	50.4	40.3	37.0	61.6	47.3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	27.3	15.5	31.2	13.2	18.0	35.0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10.7	16.7	11.8	25.4	8.3	8.1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	20.0	17.4	16.6	24.4	12.1	9.6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34,370	38,658	22,313	29,975	30,468	20,141

주: 지난조사 이후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지난조사 이후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 구직활동 시 일자리 정보를 수집한 경로에 대해 1, 2순위로 질문하였다. 1순위로 선택한 경로에 대해 구직경험이 있는 비경제활동인구의 30.8%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통해'라고 응답하였으며, '가족, 친구, 선후배 등 주변 지인을 통해' 28.1%, '전 일자리에서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을 통해' 13.9%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4-3-8〉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직활동 시 일자리 정보 수집 경로(1순위)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인터넷 취업사이트(공공, 민간)	12.3	12.4	9.9	6.4	6.0	6.7
인터넷 취업모임, 카페	0.0	1.1	2.0	1.5	0.0	0.0
TV, 라디오, 신문, 취업정보지 등	7.6	7.5	9.8	4.7	5.0	11.2
학교, 학원을 통해	0.0	5.1	0.0	0.0	0.0	5.8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통해	29.4	36.1	32.0	31.1	34.0	30.8
직접 사업체에 문의를 하여	5.9	2.6	10.5	2.1	3.4	0.0
민간 직업소개소를 통해	3.6	0.0	1.8	1.1	0.0	3.4
가족, 친구, 선후배 등 주변 지인을 통해	31.7	27.6	30.0	44.6	41.5	28.1
전 일자리에서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을 통해	0.9	0.9	3.8	7.4	5.6	13.9
기타	2.8	2.6	0.0	1.1	4.5	0.0
별다른 정보를 수집한 적 없음	5.7	4.1	-	-	-	-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34,370	38,658	22,313	29,975	31,922	20,659

주 1) 지난조사 이후 구직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2) 1순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정보를 수집한 적 없음'을 허용하지 않음(4차년도 적용)

지난조사 이후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있을 때 실제 어떠한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에 대해 1, 2순위로 질문하였다. 1순위로 선택한 구직활동에 대해 구직경험이 있는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30.2%가 '공공기관에 구직정보 등록'을 응답하였으며, '사업체 직접 방문 또는 통화' 22.8%, '가족, 친척, 주변지인에게 일자리 의뢰' 2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9〉 비경제활동인구의 지난조사 이후 구직활동 내역(1순위)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공공기관에 구직정보 등록	34.8	42.2	34.4	30.1	24.0	30.2
민간기관에 구직정보 등록	2.5	3.6	8.6	3.7	4.6	3.7
학교나 훈련기관에 일자리 의뢰	0.0	4.8	0.0	0.0	0.0	5.8
이전 일자리에 구직 의뢰	3.4	2.4	6.7	6.2	16.5	17.2
가족, 친척, 주변지인에게 일자리 의뢰	36.3	23.0	34.6	36.5	30.8	20.4
사업체 직접 방문 또는 통화	10.3	16.0	4.6	20.0	14.0	22.8
취업박람회 등의 행사 참여	3.7	0.8	6.3	3.4	0.0	0.0
창업을 위한 활동	1.9	6.0	4.9	0.0	1.0	0.0
기타	7.1	1.2	0.0	0.0	9.1	0.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34,370	38,658	22,313	29,975	31,922	20,659

주 1) 지난조사 이후 구직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2) 1순위에 대해서는 '없음'을 허용하지 않음

지난조사 이후 구직활동을 한 후에 이력서 제출, 시험 응시 등의 활동을 하였는지에 대해 '면접 참여' 30.9%, '이력서 제출' 24.6%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4-3-10〉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직활동 이후 활동(중복응답)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이력서 제출	31.6	23.6	38.1	34.7	28.6	24.6
필기시험 응시	2.5	0.0	0.0	0.0	0.0	0.0
실기시험 응시	0.0	1.1	0.0	0.0	0.0	0.0
면접 참여	23.7	17.4	36.3	24.5	10.4	30.9
수습이나 연수생으로 참여	3.5	1.6	0.0	2.7	0.0	1.2
창업	1.3	3.2	2.0	0.7	0.0	0.0
기타	7.3	12.4	3.0	3.7	0.0	5.5
아무것도 해본 것 없다	43.1	49.0	38.6	42.9	62.8	50.2
전 체	-	-	-	-	-	-
추정 수	34,370	38,658	22,313	29,975	31,922	20,659

주: 지난조사 이후 구직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지난조사 이후 공공기관에 구직정보를 등록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7,975명에게 공공 취업 알선기관 이용 시 애로사항에 대해 응답받은 결과, 전체 이용자의 31.7%가 '원하는 수준의 일자리를 알선 받지 못함'이라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실제 알선이 이뤄지는 경우가 적음' 24.3%, '공공 취업알선기관에 대한 정보 부재' 1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11〉 비경제활동인구의 공공 취업알선기관 이용 시 애로사항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공공 취업알선기관에 대한 정보 부재	8.8	4.7	11.5	12.5	7.5	15.0
취업알선기관 접근의 어려움	2.6	4.7	21.4	0.0	6.0	0.0
구직등록 절차가 복잡	6.7	3.2	0.0	0.0	1.7	2.5
실제 알선이 이뤄지는 경우가 적음	37.4	24.4	28.1	45.9	23.7	24.3
원하는 수준의 일자리를 알선 받지 못함	15.8	27.1	33.6	33.9	31.1	31.7
전문적인 직업상담 기회의 부족	2.6	0.0	0.0	5.3	0.0	0.0
기타	0.0	0.0	0.0	0.0	0.0	0.0
특별히 없었음	26.1	35.8	5.3	2.3	30.0	26.4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14,177	16,857	7,671	12,027	7,973	7,975

주: 지난조사 이후 구직경험이 있고 구직 시 공공기관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표 4-3-12〉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직활동 시 애로사항(1순위)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신체기능의 제한	25.3	31.7	24.3	12.7	8.3	23.0
이동능력의 제한	1.7	0.9	3.9	0.7	0.0	13.7
의사소통의 제한	4.8	1.9	0.0	3.4	0.0	0.0
심리적 불안감이나 초조함	3.6	0.5	3.3	1.5	4.6	2.6
학력, 경력(경험), 기술부족	2.7	2.7	4.4	1.7	1.0	0.0
원하는 조건의 일자리가 없음	26.1	20.9	35.1	32.3	46.0	19.1
구직정보 접근의 어려움	4.3	9.3	4.0	8.9	0.6	1.8
구직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음	0.0	1.0	0.0	4.6	0.0	0.0
취업알선기관 및 서비스 부재, 접근의 어려움	7.1	1.9	4.1	0.5	5.9	7.2
장애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	4.7	9.4	9.9	12.8	23.1	20.8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아서	15.3	14.9	8.1	16.9	10.6	9.2
장애 이외의 질병이나 사고	3.6	4.2	1.8	3.9	0.0	1.5
기타	0.7	0.7	1.2	0.0	0.0	1.2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34,370	38,658	22,313	29,975	31,922	20,659
장애로 인한 것임	65.0	55.3	63.6	36.5	56.3	74.6
장애로 인한 것이 아님	35.0	44.7	36.4	63.5	43.7	25.4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34,370	38,658	22,313	29,975	31,922	20,659

주 1) 지난조사 이후 구직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2) 1순위에 대해서는 '없음'을 허용하지 않음

지난조사 이후 구직활동 시 애로사항에 1, 2순위로 질문하였다. 1순위로 선택한 애로사항에 대해 '신체기능의 제한(23.0%)', '장애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20.8%)', '원하는 조건의 일자리가 없음(19.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1순위로 선택한 애로사항이 장애로 인한 것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74.6%이다.

4. 향후 취업 희망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5.2%가 향후 1년 이내 취업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취업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 중 5.0%는 1년 내는 아니더라도 언젠가 취업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여, 최종적으로 향후 취업할 의사가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는 전체의 10.0%로 나타났다.

〈표 4-3-13〉 비경제활동인구의 향후 취업의사 - 차수별

(단위: %, 명)

변 수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1년 내 취업의사	취업의사 있음	14.3	9.5	9.8	6.1	5.8	6.8	5.2
	취업의사 없음	85.7	90.5	90.2	93.9	94.2	93.2	94.8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1,004,528	1,127,788	1,195,436	1,215,770	1,244,080	1,251,192	1,281,272
1년 내는 아니더라도 언젠가 취업의사	취업의사 있음	7.3	7.3	6.7	6.6	6.4	4.7	5.0
	취업의사 없음	92.7	92.7	93.3	93.4	93.6	95.3	95.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860,794	1,020,129	1,078,604	1,141,329	1,172,288	1,166,359	1,214,147
전체 취업의사	취업의사 있음	20.6	16.2	15.8	12.3	11.8	11.2	10.0
	취업의사 없음	79.4	83.8	84.2	87.7	88.2	88.8	90.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1,004,528	1,127,788	1,195,436	1,215,770	1,244,080	1,251,192	1,281,272

주 1) '전체 취업의사'는 1년 내 취업의사 있음과 1년 내는 아니더라도 언젠가 취업의사 있음의 합계임

2) 모름/응답거절 제외한 분석임

〈표 4-3-14〉 비경제활동인구의 희망하는 종사상 지위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임금근로	84.5	83.6	89.2	90.2	90.8	92.3	94.4
자영업	15.5	16.4	10.8	9.8	9.2	7.7	5.6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143,734	107,659	116,571	74,441	71,792	84,833	67,125

주: 1년 내 취업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1년 내 취업의사가 있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임금근로를 희망하는 비율은 94.4%, 자영업을 희망하는 비율은 5.6%로 나타났다.

임금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에 종사하고자 하는 비율이 20.9%로 가장 높으며, 제조업 18.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 1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15〉 비경제활동인구의 임금근로 희망 시 희망하는 산업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농업, 임업 및 어업	0.3	1.8	0.6	1.1	0.4	0.5
광업	0.3	0.0	0.0	0.0	0.0	0.0
제조업	21.1	19.3	20.8	18.7	23.1	18.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0.4	0.5	2.0	0.5	0.9	2.6
건설업	6.5	4.1	9.2	4.4	1.5	4.5
도매 및 소매업	8.6	4.0	3.4	3.9	8.3	1.9
운수업	7.4	4.9	6.4	6.9	5.3	8.0
숙박 및 음식점업	4.1	3.6	4.8	3.8	1.7	3.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3	2.4	3.1	1.8	4.2	1.5
금융 및 보험업	0.0	1.0	0.0	0.0	2.5	0.4
부동산 및 임대업	3.7	2.0	0.9	3.4	0.3	1.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1	0.3	1.3	0.2	0.3	0.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1.0	8.9	9.6	21.2	9.4	13.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7.5	28.9	20.5	18.2	22.2	20.9
교육 서비스업	1.2	1.5	3.4	2.4	2.1	1.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6.6	6.1	5.6	7.6	6.7	5.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8	1.5	1.5	0.0	1.4	0.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7.2	9.1	6.3	5.2	8.7	13.9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0.0	0.0	0.3	0.7	1.0	2.1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89,011	103,989	67,151	65,169	78,264	63,375

주 1) 1년 내 취업의사가 있고 임금근로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2) 2차년도부터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사용하였음

3) 모름/응답거절 제외한 분석임

임금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단순노무종사자를 희망하는 비율은 64.5%이며, 사무종사자 12.9%,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16〉 비경제활동인구의 임금근로 희망 시 희망하는 직업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관리자	0.4	5.2	0.0	1.4	0.0	0.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5	5.1	2.9	5.5	0.5	0.0
사무종사자	12.1	10.2	15.4	15.3	13.7	12.9
서비스종사자	9.7	6.5	7.8	7.0	8.4	4.2
판매종사자	6.4	1.9	3.1	2.5	2.1	2.4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0.3	0.2	0.0	0.9	0.0	0.5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10.0	4.9	6.7	3.8	11.0	6.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9.7	6.9	8.9	7.2	4.9	9.5
단순노무종사자	49.0	59.0	55.1	56.2	59.6	64.5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89,274	103,989	67,151	65,169	78,264	63,375

- 주 1) 1년 내 취업의사가 있고 임금근로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2) 2차년도부터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사용하였음 3) 모름/응답거절 제외한 분석임

임금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42.8%가 상용근로자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시근로자 38.1%, 일용근로자 18.7%로 나타났다.

〈표 4-3-17〉 비경제활동인구의 임금근로 희망 시 희망하는 일자리 종사상 지위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상용근로자	70.6	68.1	52.9	68.5	61.0	53.1	42.8
임시근로자	17.0	13.2	26.3	17.3	18.4	24.2	38.1
일용근로자	11.9	17.2	20.5	13.5	16.7	21.7	18.7
무급가족종사자	0.1	0.0	0.0	0.0	0.0	0.0	0.0
기타	0.4	1.6	0.3	0.7	3.9	1.0	0.4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121,481	89,983	103,989	67,151	65,169	78,264	63,375

- 주 1) 1년 내 취업의사가 있고 임금근로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2)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질문 상의 편의를 위해 임금근로 보기에 포함시켰음

임금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월평균 최소 희망임금은 100.1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4-3-18〉 비경제활동인구의 임금근로 희망 시 월평균 최소 희망임금 - 차수별

(단위: 만원,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최소 희망임금	104.7	101.2	91.8	100.3	108.1	104.8	100.1
표준오차	0.144	0.147	0.146	0.169	0.198	0.190	0.223
응답 수	120,763	89,983	103,989	67,151	65,169	78,264	63,375

- 주 1) 1년 내 취업의사가 있고 임금근로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2) 모름/응답거절 제외한 분석임

자영업을 희망하는 3,750명의 경우 창업하고자 하는 사업체의 산업으로 도매 및 소매업 39.6%, 농업, 임업 및 어업 21.3%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4-3-19〉 비경제활동인구의 자영업 희망 시 희망하는 일자리 산업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농업, 임업 및 어업	0.0	2.3	0.0	8.3	0.0	21.3
제조업	0.7	6.1	5.2	0.0	0.0	0.0
건설업	7.0	1.7	15.9	0.0	12.9	9.5
도매 및 소매업	37.3	32.1	46.7	0.0	16.0	39.6
운수업	0.0	4.2	0.0	16.3	9.7	0.0
숙박 및 음식점업	27.1	11.5	7.5	19.5	13.1	0.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0	1.2	0.0	3.3	10.6	0.0
부동산 및 임대업	10.8	17.4	0.0	28.3	30.9	8.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6	0.0	0.0	5.6	0.0	0.0
교육 서비스업	0.0	2.2	0.0	0.0	1.8	0.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0.0	0.0	3.0	0.0	0.0	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	0.0	17.5	3.6	0.0	0.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3.4	21.3	4.2	15.1	4.8	21.2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17,676	12,582	7,029	6,623	6,569	3,750

주 1) 1년 내 취업의사가 있고 자영업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2) 2차년도부터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사용하였음
 3) 모름/응답거절 제외한 분석임

〈표 4-3-20〉 비경제활동인구의 자영업 희망 시 희망하는 사업장 형태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노점(가판 포함)	20.8	8.4	14.1	0.0	0.0	0.0	13.4
차량	8.9	0.0	0.7	21.5	7.1	9.7	0.0
점포	45.4	57.6	25.9	31.6	48.6	34.2	35.5
사무실	6.4	9.4	32.1	23.0	28.0	41.3	9.5
공장	1.7	2.2	6.1	0.0	0.0	0.0	0.0
인터넷	1.1	2.3	0.0	0.0	3.3	0.0	9.6
방문사업(무점포)	1.4	5.4	11.7	17.5	0.0	12.9	10.7
농림어업	0.0	0.0	2.3	0.0	8.3	0.0	21.3
기타	3.1	9.4	0.0	2.8	0.0	1.8	0.0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음	11.2	5.4	7.2	3.6	4.7	0.0	0.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2,253	17,676	12,582	7,290	6,623	6,569	3,750

주: 1년 내 취업의사가 있고 자영업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자영업을 희망하는 경우 원하는 사업장의 형태는 점포가 35.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림어업 21.3%, 노점(가판 포함) 13.4% 순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을 희망하는 경우 월평균 기대 순수익은 178.2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4-3-21〉 비경제활동인구의 자영업 희망 시 월평균 기대 순수익 - 차수별
(단위: 만원,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기대 순수익	196.7	173.1	194.0	176.7	166.1	185.7	178.2
표준오차	1.139	1.161	1.011	0.468	1.049	1.106	2.064
응답 수	21,922	17,396	12,582	7,029	6,322	6,569	3,750

주 1) 1년 내 취업의사가 있고 자영업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2) 모름/응답거절 제외한 분석임

5. 취업준비 및 가치관

향후 취업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취업 또는 창업준비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전체의 6.6%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4-3-22〉 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창업 준비활동(1순위)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공공기관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	3.4	2.0	3.8	2.7	2.1	4.0	0.7
민간기관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	0.2	1.1	0.3	0.4	2.4	0.5	0.2
학교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	0.7	0.3	0.3	0.3	1.1	0.6	0.0
사설학원 이용	1.3	1.0	1.4	1.3	1.1	0.3	0.7
부모 및 친지로부터 기술 전수	0.3	0.1	0.5	0.0	0.0	1.1	0.2
선배, 지인 등으로부터 기술 전수	2.9	0.4	1.1	1.1	1.1	0.5	2.2
회사로부터 직접 기술 전수	0.0	0.0	0.0	0.0	0.0	0.0	0.0
독학	2.2	0.9	1.6	1.0	1.0	1.6	1.4
취업/창업을 위한 정보수집	3.1	2.4	2.0	1.3	2.0	0.7	0.7
기타	1.7	1.4	0.2	0.3	0.0	0.0	0.5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것 없음	84.1	90.4	88.9	91.6	89.3	90.8	93.4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06,632	182,371	188,593	149,692	146,419	139,967	127,734

주: 향후 취업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일자리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 1순위로 응답한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44.9%의 비경제활동인구가 '능력에 맞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선택하였다. 다음으로는 '임금이나 소득 수준(26.6%)', '일의 양(10.9%)'의 순으로 선택하였다.

〈표 4-3-23〉 비경제활동인구의 일자리를 선택하는 기준(가치관)(1순위)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임금이나 소득 수준	29.1	21.6	22.5	24.5	20.3	27.8	26.6
일의 양(노동 강도)	6.2	7.0	10.7	11.2	11.0	10.9	10.9
일하는 시간(대)	4.4	5.1	2.9	4.1	2.2	2.8	3.7
능력에 맞는 일	36.7	42.6	47.3	40.0	51.6	45.8	44.9
정규직 여부	0.8	1.6	1.2	1.0	1.4	2.2	1.4
오래 일할 수 있는 정도	6.8	5.4	6.4	7.6	5.2	3.6	4.4
장애편의시설 설치 여부	1.8	1.3	0.8	1.1	0.4	0.3	0.6
장애인에 대한 이해 여부	4.0	6.1	2.2	3.2	4.3	2.8	4.2
대인관계	1.0	0.0	0.2	0.4	0.0	0.5	0.0
복리후생 지원 정도	0.3	0.7	0.0	0.6	0.0	0.0	0.8
이동거리(출퇴근 거리)	1.6	1.8	1.3	1.9	1.1	0.4	1.3
적성이나 흥미	4.4	3.9	2.9	2.0	0.6	1.6	0.0
시간적 여유	0.8	0.6	0.3	1.1	0.2	0.1	0.0
삶의 비전이나 꿈	1.1	1.4	0.8	0.1	1.4	0.8	0.3
일자리의 발전 가능성	0.5	0.3	0.5	0.5	0.2	0.3	0.6
일자리의 사회적 인지도	0.2	0.0	0.0	0.7	0.0	0.2	0.0
일자리의 규모	0.1	0.0	0.0	0.0	0.2	0.0	0.0
기타	0.3	0.7	0.0	0.2	0.0	0.0	0.4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06,632	182,371	188,593	149,692	146,419	139,967	127,734

주 1) 향후 취업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2) 1순위에 대해서는 '없음'을 허용하지 않음

6. 취업/창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취업/창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으로 향후 취업의사가 있는 비경제활동인구의 40.2%가 '취업알선/창업지원', 19.3%는 '장애인 전문 직업훈련', 17.8%는 '타인의 도움', 11.5%는 '편의시설', 5.9%는 '작업보조기기'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그 중 임금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50.3%가 '구분모집/특별채용', 40.1%는 '채용과정 시 배려', 31.5%는 '근무일/시간 조정', 26.3%는 '일정기간 훈련 후 근무', 17.4%는 '장애인 별도 작업장 근무'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4-3-24〉 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창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 차수별

(단위: %, 명)

변 수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취업알선/창업 지원	필요비율	63.2	53.2	40.5	39.9	39.7	42.5	40.2
	추정 수	206,632	182,371	188,593	149,692	146,419	139,967	127,734
장애인 전문 직업훈련	필요비율	34.9	25.0	20.7	16.9	19.6	13.1	19.3
	추정 수	206,632	182,371	188,593	149,692	146,419	139,967	127,734
구분모집/특별 채용	필요비율	63.2	50.6	42.1	47.6	47.5	43.2	50.3
	추정 수	121,481	163,136	176,011	142,402	139,796	133,398	123,984
채용과정 시 배려	필요비율	55.9	42.0	34.3	35.1	33.2	29.8	40.1
	추정 수	121,481	163,136	176,011	142,402	139,796	133,398	123,984
장애인 별도 작업장 근무	필요비율	32.6	21.3	19.8	14.5	16.2	15.3	17.4
	추정 수	121,481	163,136	176,011	142,402	139,796	133,398	123,984
일정기간 훈련 후 근무	필요비율	37.5	28.0	24.6	18.4	23.4	22.1	25.5
	추정 수	121,481	163,136	176,011	142,402	139,796	133,398	123,984
근무일/시간 조정	필요비율	45.7	40.7	32.9	27.6	26.7	26.3	31.5
	추정 수	121,481	163,136	176,011	142,402	139,796	133,398	123,984
타인의 도움	필요비율	28.9	24.7	19.0	14.9	19.9	13.7	17.8
	추정 수	206,632	182,371	188,593	149,692	146,419	139,967	123,984
편의시설	필요비율	23.3	22.2	17.2	13.4	14.1	11.3	11.5
	추정 수	206,632	182,371	188,593	149,692	146,419	139,967	123,984
작업보조기기	필요비율	16.3	10.9	8.3	7.1	5.6	5.4	5.9
	추정 수	206,632	182,371	188,593	149,692	146,419	139,967	123,984

주 1) 향후 취업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2) '구분모집/특별채용', '채용과정 배려', '장애인 별도 작업장 근무', '일정기간 훈련 후 근무', '근무일/시간 조정'에 대해서는 임금근로 희망자에게만 질문함(언젠가 취업 희망자 포함, 단 1차년도 제외)

〈표 4-3-25〉 비경제활동인구의 필요한 채용과정 배려사항(중복응답)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모집공고의 음성지원 참여배출 제공	2.2	1.0	1.3	0.0	1.2	2.4	1.0
장애인 가산점	77.9	77.9	80.3	77.4	77.9	82.5	86.6
이동편의 제공	23.4	22.6	26.1	28.5	20.9	21.6	23.9
시험시간 조정	3.9	2.8	4.3	4.2	6.6	7.8	0.8
보조공학기기 제공	3.0	3.6	3.8	1.6	4.2	6.2	2.0
시험문제 크기 조절	1.9	0.2	0.0	0.8	0.0	0.0	0.5
점자시험지 제공	0.9	1.1	0.9	0.0	0.0	0.0	0.0
대필지원	3.7	4.3	2.3	1.9	0.9	0.9	3.7
수화통역사 지원	0.3	2.2	0.3	0.3	2.4	0.7	0.4
활동보조인 지원	5.7	6.3	10.6	7.1	15.9	7.3	17.1
기타	4.1	3.4	0.8	0.7	2.1	0.0	0.0
전 체	-	-	-	-	-	-	-
추정 수	67,955	68,561	60,380	49,976	46,393	39,814	49,658

주: 채용과정에서 배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채용과정에서 배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49,658명은 가장 필요한 배려사항으로 '장애인 가산점(86.6%)'을 선택하였으며, 다음으로 '이동편의 제공(23.9%)', '활동보조인 지원(17.1%)'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근무일,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38,994명은 가장 필요한 조정사항으로 '시간제 근로(62.5%)'를 선택하였으며, 다음으로 '근무일수, 근무요일 조정(18.3%)', '출퇴근 시간의 조정(16.7%)'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4-3-26〉 비경제활동인구의 필요한 근무일/시간 조정사항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시간제 근로	47.8	53.3	45.4	53.8	69.2	60.7	62.5
출퇴근 시간의 조정	26.5	18.1	18.1	17.2	16.3	17.7	16.7
근무일수, 근무요일 조정	25.4	27.6	36.5	29.0	13.4	21.6	18.3
기타	0.3	1.0	0.0	0.0	1.1	0.0	2.5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55,501	66,354	57,965	39,292	37,385	35,046	38,994

주: 근무일/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22,703명은 가장 필요한 도움 항목으로 '출퇴근 지원(50.0%)'을 선택하였으며, 다음으로 '작업지원(37.0%)', '이동지원(31.8%)', '사무보조 및 지원(28.4%)'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4-3-27〉 비경제활동인구의 필요한 타인의 도움 항목(중복응답)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출퇴근 지원	41.0	48.2	44.2	52.8	55.9	52.5	50.0
사무보조 및 지원	18.1	18.6	22.2	31.5	16.9	28.2	28.4
작업지원	41.4	34.9	34.3	29.9	15.9	35.1	37.0
의사소통 지원	16.2	12.2	10.5	12.0	18.0	14.4	2.9
이동지원	21.0	26.8	27.4	14.7	20.4	22.7	31.8
일자리 내 일상생활지원	8.7	12.8	11.1	12.8	17.3	2.1	14.3
기타	2.1	1.1	0.0	0.0	0.0	0.0	0.0
전 체	-	-	-	-	-	-	-
추정 수	59,787	44,977	35,838	22,344	29,182	19,154	22,703

주: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장애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14,674명은 가장 필요한 시설로 '주출입구 경사로 설치, 바닥 높이차이 제거(87.5%)'를 선택하였으며, 다음으로 '엘리베이터, 계단형 리프트 설치(54.9%)', '계단이나 복도의 핸드레일 설치(53.0%)'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4-3-28〉 비경제활동인구의 필요한 장애편의시설(중복응답)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주출입구 경사로 설치, 바닥 높이차이 제거	73.6	63.0	65.3	66.6	72.7	90.0	87.5
계단이나 복도의 핸드레일 설치	39.4	54.8	46.6	55.0	44.8	47.4	53.0
엘리베이터, 계단형 리프트 설치	42.1	44.1	49.6	49.8	52.0	44.2	54.9
점자유도블럭이나 점자표지판 설치	5.0	2.9	3.5	4.5	3.4	1.6	5.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21.0	22.0	19.2	14.5	14.8	13.8	35.5
장애인용 화장실	35.6	43.9	33.9	39.2	40.4	38.9	49.9
장애인용 작업대	38.5	27.8	35.4	26.9	38.2	34.5	35.0
전 체	-	-	-	-	-	-	-
추정 수	48,190	40,543	32,465	20,006	20,684	15,758	14,674

주: 장애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업무수행 시 작업보조기기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7,509명은 가장 필요한 기기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한 작업보조기기(93.0%)'를 선택하였다.

〈표 4-3-29〉 비경제활동인구의 필요한 작업보조기기(중복응답)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정보접근을 위한 작업보조기기	19.7	26.2	30.3	10.3	11.0	4.9	27.0
의사소통을 돕기 위한 작업보조기기	11.9	21.1	2.0	25.1	8.3	21.1	93.0
작업을 돕기 위한 작업보조기기	64.0	58.8	63.8	68.2	80.7	69.1	71.2
사무보조를 위한 작업보조기기	23.6	22.2	24.0	23.8	0.0	36.9	18.6
기타	0.4	1.0	0.0	0.0	0.0	0.0	0.0
전 체	-	-	-	-	-	-	-
추정 수	33,617	19,967	15,635	10,698	8,154	7,600	7,509

주 1) 작업보조기기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 2) 정보접근을 위한 작업보조기기: 서류읽기, 책읽기, 컴퓨터 사용 등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보조기기(예: 점자정보단말기, 특수키보드 및 마우스 등)
- 3) 의사소통을 돕기 위한 작업보조기기: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1:1 의사소통, 1:다 의사소통, 전화 등 다양한 의사소통을 돕는 보조공학기기(예: 수화를 할 수 있는 화상전화기, 버튼을 눌러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는 보완대체 의사소통장치 등)
- 4) 작업을 돕기 위한 작업보조기기: 직업생활에서 좀 더 쉽고 빠르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공학기기(예: 낮낮이조절 작업테이블, 작업물 운송장치, 특수작업의자 등)
- 5) 사무보조를 위한 작업보조기기: 일반적인 사무작업을 할 때 도움이 되는 작업보조기기(예: 전화기를 고정시켜주는 수화기 홀더, 손의 힘이 약하거나 잘 잡지 못해도 필기를 할 수 있도록 필기구를 손에 고정시켜주는 필기보조도구 등)

7. 주요 변수별 비경제활동인구 특성 비교

〈표 4-3-30〉 비경제활동인구 주요 특성 비교 - 성별1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남성	여성	전 체
과거 취업경험 있는 비율(%)	75.6	59.4	67.3
응답 수(명)	625,541	655,731	1,281,272
지난조사 이후 구직활동 경험 비율(%)	2.2	1.1	1.6
응답 수(명)	625,541	655,731	1,281,272
공공기관에 구직정보 등록한 비율(%)	32.2	26.4	30.2
응답 수(명)	13,618	7,042	20,660
향후 취업희망 비율(%)	11.3	8.7	10.0
응답 수(명)	625,541	655,731	1,281,272
임금근로를 희망하는 비율(%)	91.7	97.6	94.4
응답 수(명)	35,928	31,197	67,125
취업 및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비율(%)	0.4	1.1	0.7
응답 수(명)	70,792	56,942	127,734

- 주 1) '과거 취업경험이 있는 비율'은 1차년도 조사 시 과거 취업경험 + 1차년도 조사 이후 1개월 이상 취업한 일자리 유무로 산정함
 2) '공공기관에 구직정보 등록한 비율'은 지난조사 이후 구직경험이 있는 응답자에게 질문함
 3) '향후 취업희망 비율'은 1년 내 취업의사 있음과 1년 내는 아니더라도 언젠가 취업의사 있음의 합계임
 4) '임금근로를 희망하는 비율'은 1년 이내 취업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5) '취업준비활동 비율'은 향후 취업을 희망하는 응답자에게 질문함

〈표 4-3-31〉 비경제활동인구 주요 특성 비교 - 성별2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남성	여성	전 체
장애인 취업알선/창업지원 필요 비율(%)	42.9	36.9	40.2
응답 수(명)	70,792	56,942	127,734
장애인 전문 직업훈련 필요 비율(%)	22.5	15.4	19.3
응답 수(명)	70,792	56,942	127,734
장애인 구분모집/특별채용 필요 비율(%)	50.7	49.7	50.3
응답 수(명)	67,803	56,181	123,984
채용 과정 시 배려 필요 비율(%)	38.9	41.4	40.1
응답 수(명)	67,803	56,181	123,984
장애인 별도 작업장 근무 필요 비율(%)	15.6	19.5	17.4
응답 수(명)	67,803	56,181	123,984
일정기간 훈련 후 근무 필요 비율(%)	27.3	23.2	25.5
응답 수(명)	67,803	56,181	123,984
근무일/시간 조정 필요 비율(%)	32.1	30.7	31.5
응답 수(명)	67,803	56,181	123,984
업무 수행 시 타인의 도움 필요 비율(%)	15.6	20.5	17.8
응답 수(명)	70,792	56,942	127,734
장애편의시설 필요 비율(%)	11.2	11.8	11.5
응답 수(명)	70,792	56,942	127,734
작업보조기기 필요 비율(%)	6.2	5.4	5.9
응답 수(명)	70,792	56,942	127,734

주 1) 향후 취업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2) '장애인 구분모집/특별채용 필요 비율', '채용과정 시 배려 필요 비율', '장애인 별도 작업장 근무 필요 비율', '일정기간 훈련 후 근무 필요 비율', '근무일/시간 조정 필요 비율'에 대해서는 임금근로 희망자에게만 질문함

〈표 4-3-32〉 비경제활동인구 주요 특성 비교 - 연령별1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21~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81세	전 체
과거 취업경험 있는 비율(%)	26.7	51.9	59.2	69.2	71.0	67.3
응답 수(명)	31,944	72,678	132,606	232,392	811,652	1,281,272
지난조사 이후 구직활동 경험 비율(%)	3.8	3.1	4.8	2.3	0.7	1.6
응답 수(명)	31,944	72,678	132,606	232,392	811,652	1,281,272
공공기관에 구직정보 등록한 비율(%)	0.0	16.9	27.1	21.7	54.6	30.2
응답 수(명)	1,200	2,239	6,423	5,390	5,407	20,659
향후 취업희망 비율(%)	23.2	25.9	19.5	13.3	5.5	10.0
응답 수(명)	31,944	72,678	132,606	232,392	811,652	1,281,272
임금근로를 희망하는 비율(%)	100.0	96.0	89.8	94.1	95.7	94.4
응답 수(명)	3,283	9,049	13,909	14,020	26,864	67,125
취업 및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비율(%)	0.0	0.0	0.0	1.9	0.6	0.7
응답 수(명)	7,396	18,848	25,826	30,931	44,732	127,733

주 1) '과거 취업경험이 있는 비율'은 1차년도 조사 시 과거 취업경험 + 1차년도 조사 이후 1개월 이상 취업한 일자리 유무로 산정함

2) '공공기관에 구직정보 등록한 비율'은 지난조사 이후 구직경험이 있는 응답자에게 질문함

3) '향후 취업희망 비율'은 1년 내 취업의사 있음과 1년 내는 아니더라도 언젠가 취업의사 있음의 합계임

4) '임금근로를 희망하는 비율'은 1년 이내 취업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5) '취업준비활동 비율'은 향후 취업을 희망하는 응답자에게 질문함

〈표 4-3-33〉 비경제활동인구 주요 특성 비교 - 연령별2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21~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81세	전 체
장애인 취업알선/창업지원 필요 비율(%)	30.9	47.7	50.3	38.5	34.0	40.2
응답 수(명)	7,397	18,847	25,826	30,931	44,732	127,733
장애인 전문 직업훈련 필요 비율(%)	19.7	32.9	28.8	13.9	11.8	19.3
응답 수(명)	7,398	18,847	25,826	30,931	44,731	127,733
장애인 구분모집/특별채용 필요 비율(%)	77.5	79.3	53.7	46.8	33.8	50.3
응답 수(명)	7,397	18,488	24,411	30,108	43,580	123,984
채용 과정 시 배려 필요 비율(%)	82.4	60.9	44.0	28.2	30.0	40.1
응답 수(명)	7,397	18,488	24,411	30,108	43,580	123,984
장애인 별도 작업장 근무 필요 비율(%)	10.5	39.3	24.8	11.2	9.4	17.4
응답 수(명)	7,397	18,488	24,411	30,108	43,580	123,984
일정기간 훈련 후 근무 필요 비율(%)	54.7	52.6	39.4	12.8	10.0	25.5
응답 수(명)	7,397	18,488	24,411	30,108	43,580	123,984
근무일/시간 조정 필요 비율(%)	32.5	54.6	34.1	26.2	23.6	31.5
응답 수(명)	7,397	18,488	24,411	30,108	43,580	123,984
업무 수행 시 타인의 도움 필요 비율(%)	24.6	34.8	24.9	16.5	6.2	17.8
응답 수(명)	7,397	18,488	24,411	30,108	43,579	123,984
장애편의시설 필요 비율(%)	16.4	13.8	22.6	9.3	4.8	11.5
응답 수(명)	7,397	18,847	25,826	30,932	44,732	127,734
작업보조기기 필요 비율(%)	18.1	9.9	12.3	3.6	0.0	5.9
응답 수(명)	7,397	18,847	25,826	30,932	44,731	127,734

주 1) 향후 취업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2) '장애인 구분모집/특별채용 필요 비율', '채용과정 시 배려 필요 비율', '장애인 별도 작업장 근무 필요 비율', '일정기간 훈련 후 근무 필요 비율', '근무일/시간 조정 필요 비율'에 대해서는 임금근로 희망자에게만 질문함

〈표 4-3-34〉 비경제활동인구 주요 특성 비교 - 장애정도별¹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중증	경증	전 체
과거 취업경험 있는 비율(%)	58.7	76.3	67.3
응답 수(명)	654,719	626,553	1,281,272
지난조사 이후 구직활동 경험 비율(%)	1.5	1.7	1.6
응답 수(명)	654,719	626,553	1,281,272
공공기관에 구직정보 등록한 비율(%)	29.0	31.4	30.2
응답 수(명)	10,019	10,641	20,660
향후 취업희망 비율(%)	8.6	11.4	10.0
응답 수(명)	654,719	626,553	1,281,272
임금근로를 희망하는 비율(%)	95.2	93.7	94.4
응답 수(명)	33,083	34,042	67,125
취업 및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비율(%)	0.5	0.8	0.7
응답 수(명)	56,022	71,712	127,734

주 1) '과거 취업경험이 있는 비율'은 1차년도 조사 시 과거 취업경험 + 1차년도 조사 이후 1개월 이상 취업한 일자리 유무로 산정함

2) '공공기관에 구직정보 등록한 비율'은 지난조사 이후 구직경험이 있는 응답자에게 질문함

3) '향후 취업희망 비율'은 1년 내 취업의사 있음과 1년 내는 아니더라도 언젠가 취업의사 있음의 합계임

4) '임금근로를 희망하는 비율'은 1년 이내 취업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5) '취업준비활동 비율'은 향후 취업을 희망하는 응답자에게 질문함

〈표 4-3-35〉 비경제활동인구 주요 특성 비교 - 장애정도별2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중증	경증	전 체
장애인 취업알선/창업지원 필요 비율(%)	42.2	38.7	40.2
응답 수(명)	56,022	71,712	127,734
장애인 전문 직업훈련 필요 비율(%)	24.3	15.4	19.3
응답 수(명)	56,022	71,712	127,734
장애인 구분모집/특별채용 필요 비율(%)	59.4	43.1	50.3
응답 수(명)	54,423	69,561	123,984
채용 과정 시 배려 필요 비율(%)	50.7	31.7	40.1
응답 수(명)	54,423	69,561	123,984
장애인 별도 작업장 근무 필요 비율(%)	24.8	11.7	17.4
응답 수(명)	54,423	69,561	123,984
일정기간 훈련 후 근무 필요 비율(%)	35.2	17.9	25.5
응답 수(명)	54,423	69,561	123,984
근무일/시간 조정 필요 비율(%)	34.5	29.1	31.5
응답 수(명)	54,423	69,561	123,984
업무 수행 시 타인의 도움 필요 비율(%)	33.7	5.3	17.8
응답 수(명)	56,022	71,712	127,734
장애편의시설 필요 비율(%)	19.4	5.3	11.5
응답 수(명)	56,022	71,712	127,734
작업보조기기 필요 비율(%)	11.4	1.6	5.9
응답 수(명)	56,022	71,712	127,734

주 1) 향후 취업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2) '장애인 구분모집/특별채용 필요 비율', '채용과정 시 배려 필요 비율', '장애인 별도 작업장 근무 필요 비율', '일정기간 훈련 후 근무 필요 비율', '근무일/시간 조정 필요 비율'에 대해서는 임금근로 희망자에게만 질문함

〈표 4-3-36〉 비경제활동인구 주요 특성 비교 - 장애유형별1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신체외부장애		감각장애		정신적	신체 내부	전 체
	지체	지체 제외	시각	시각 제외			
과거 취업경험 있는 비율(%)	70.9	64.0	71.4	78.2	44.1	74.0	67.3
응답 수(명)	636,438	172,935	124,822	100,461	167,135	79,481	1,281,272
지난조사 이후 구직활동 경험 비율(%)	1.8	1.4	0.4	1.4	2.6	0.6	1.6
응답 수(명)	636,438	172,935	124,822	100,461	167,135	79,481	1,281,272
공공기관에 구직정보 등록한 비율(%)	26.5	32.6	41.3	43.0	25.6	100.0	30.2
응답 수(명)	11,576	2,422	559	1,362	4,268	474	20,661
향후 취업희망 비율(%)	10.6	9.3	8.4	10.0	10.9	7.2	10.0
응답 수(명)	636,437	172,934	124,823	100,462	167,136	79,480	1,281,272
임금근로를 희망하는 비율(%)	92.9	89.5	94.6	97.7	98.2	100.0	94.4
응답 수(명)	34,625	5,681	5,813	5,051	14,821	1,133	67,124
취업 및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비율(%)	1.3	0.0	0.0	0.0	0.0	0.0	0.7
응답 수(명)	67,196	16,000	10,517	10,030	18,266	5,722	127,731

주 1) '과거 취업경험이 있는 비율'은 1차년도 조사 시 과거 취업경험 + 1차년도 조사 이후 1개월 이상 취업한 일자리 유무로 산정함

2) '공공기관에 구직정보 등록한 비율'은 지난조사 이후 구직경험이 있는 응답자에게 질문함

3) '향후 취업희망 비율'은 1년 내 취업의사 있음과 1년 내는 아니더라도 언젠가 취업의사 있음의 합계임

4) '임금근로를 희망하는 비율'은 1년 이내 취업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5) '취업준비활동 비율'은 향후 취업을 희망하는 응답자에게 질문함

〈표 4-3-37〉 비경제활동인구 주요 특성 비교 - 장애유형별2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신체외부장애		감각장애		정신적	신체 내부	전 체
	지체	지체 제외	시각	시각 제외			
장애인 취업알선/창업지원 필요 비율(%)	39.4	52.8	34.0	25.4	48.9	25.0	40.2
응답 수(명)	67,197	16,000	10,517	10,030	18,266	5,722	127,732
장애인 전문 직업훈련 필요 비율(%)	17.7	17.8	21.5	6.3	38.3	1.4	19.3
응답 수(명)	67,197	16,000	10,517	10,030	18,266	5,722	127,732
장애인 구분모집/특별채용 필요 비율(%)	47.5	68.7	56.3	35.7	52.7	39.0	50.3
응답 수(명)	64,740	15,402	10,205	9,916	17,999	5,722	123,984
채용 과정 시 배려 필요 비율(%)	37.6	61.3	42.0	17.1	43.0	37.6	40.1
응답 수(명)	64,740	15,402	10,205	9,916	17,999	5,722	123,984
장애인 별도 작업장 근무 필요 비율(%)	19.3	19.3	4.7	0.0	27.0	13.3	17.4
응답 수(명)	64,740	15,402	10,205	9,916	17,999	5,722	123,984
일정기간 훈련 후 근무 필요 비율(%)	20.5	31.5	20.8	17.6	44.6	27.4	25.5
응답 수(명)	64,740	15,402	10,205	9,916	17,999	5,722	123,984
근무일/시간 조정 필요 비율(%)	29.8	42.6	33.7	12.8	36.3	33.2	31.5
응답 수(명)	64,740	15,402	10,205	9,916	17,999	5,722	123,984
업무 수행 시 타인의 도움 필요 비율(%)	12.8	28.6	20.6	6.4	32.8	13.3	17.8
응답 수(명)	67,197	16,000	10,517	10,030	18,266	5,722	127,732
장애편의시설 필요 비율(%)	14.8	11.2	10.7	4.4	3.3	13.3	11.5
응답 수(명)	67,197	16,000	10,517	10,030	18,266	5,722	127,732
작업보조기기 필요 비율(%)	9.1	0.0	6.5	7.0	0.0	0.0	5.9
응답 수(명)	67,197	16,000	10,517	10,030	18,266	5,722	127,732

주 1) 향후 취업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2) '장애인 구분모집/특별채용 필요 비율', '채용과정 시 배려 필요 비율', '장애인 별도 작업장 근무 필요 비율', '일정기간 훈련 후 근무 필요 비율', '근무일/시간 조정 필요 비율'에 대해서는 임금근로 희망자에게만 질문함

제 5 장

조사결과 4: 개인 특성⁷⁾

제1절 인적 특성 및 장애 특성

1. 인적 특성

인구학적 특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59.6%)이 여성(40.4%)에 비해 많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64.2%),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56.8%), 지역별로는 수도권(42.3%)의 비중이 높다.

〈표 5-1-1〉 주요 인적 특성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명)

변 수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성별	남성	59.6	74.8	66.5	48.8
	여성	40.4	25.2	33.5	51.2
연령별	21~29세	2.9	3.1	10.1	2.5
	30~39세	7.0	8.7	12.2	5.7
	40~49세	14.3	20.0	16.6	10.3
	50~59세	23.8	31.6	30.6	18.1
	60~81세	52.0	36.6	30.4	63.3
	미혼	16.0	14.1	23.4	17.1
혼인상태	유배우(결혼/동거)	56.8	68.9	59.1	48.4
	이혼	10.4	7.3	10.3	12.5
	사별	15.6	8.4	4.1	20.9
	별거	1.2	1.3	3.2	1.1
지역	수도권	42.3	36.9	49.4	46.0
	광역시권	19.3	16.5	22.0	21.3
	기타 시도	38.3	46.7	28.6	32.8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208,315	888,578	38,465	1,281,272

7) PSED는 2008년 1월 1일 기준 만 15~75세의 패널을 구축하였으므로 7차년도(2014년) 현재 패널의 연령은 만 21~81세이며 제주 지역은 제외되어 있다.

2. 장애 특성

장애 특성을 살펴보면, 장애정도별로는 중증장애인 40.9%, 경증장애인 59.1%,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54.7%), 정신적 장애인(10.6%), 시각장애인(10.1%), 시각 제외 감각장애인(9.7%), 지체 제외 신체외부장애인(9.8%), 신체내부장애인(5.1%) 순으로 나타났다. 중복장애가 있는 비율은 4.9%이며, 질환이나 사고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가 85.4%로 높게 나타났다.

〈표 5-1-2〉 주요 장애 특성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명)

변 수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장애정도	중증	40.9	26.7	27.1	51.5
	경증	59.1	73.3	72.9	48.5
장애유형	신체외부장애	지체장애	54.7	62.2	53.9
		지체 외	9.8	4.7	11.1
	감각장애	시각장애	10.1	10.6	8.2
		시각 외	9.7	12.5	19.9
	정신적 장애		10.6	6.6	2.3
	신체내부장애		5.1	3.4	4.6
중복장애 유무	있음	4.9	2.7	5.7	6.5
	없음	95.1	97.3	94.3	93.5
장애발생 원인	선천적 원인		6.6	7.3	5.6
	출생 시 원인		1.6	1.8	0.0
	질환		47.5	36.2	50.4
	사고		37.9	48.9	40.9
	미상		6.4	5.9	3.2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178,339	892,836	33,630	1,251,873

주: '장애발생 원인'에서 선천적 질환, 출생 시 사고 등 응답 범주가 겹칠 경우 '선천적 원인'과 '출생 시 원인'을 우선으로 응답받았음

질환이나 사고가 일자리에서 발생한 비율은 20.2%로 나타났고, 이로 인해 일자리를 자의 또는 타의로 퇴사(폐업)한 비율은 73.7%에 달하였다. 특히, 실업자의 경우 질환 및 사고로 인해 일자리를 그만둔 비율(91.2%)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표 5-1-3〉 주된 장애의 일자리 발생 여부, 장애발생으로 인한 퇴사(폐업) 여부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명)

변 수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질환 및 사고의 일자리 발생 여부	일자리에서 발생	20.2	27.3	27.6	14.9
	일자리에서 발생하지 않음	79.8	72.7	72.4	85.1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1,886,704	760,972	32,567	1,093,165
질환 및 사고로 인한 퇴사(폐업) 여부	변화 없음	26.3	34.5	8.7	16.8
	자의로 그만둠	59.3	51.1	74.8	68.8
	타의로 그만둠	14.4	14.4	16.4	14.4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380,209	207,989	8,997	163,223

현재 장애상태를 보면 지난조사 당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고착상태인 경우가 69.3%, 악화 또는 진행 중인 경우가 29.8%로 나타났다.

〈표 5-1-4〉 현재 장애상태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명)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호전(개선)되고 있음	0.9	1.0	6.2	0.7
고착상태임	69.3	80.6	82.0	61.1
악화 또는 진행 중임	29.8	18.5	11.8	38.1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208,315	888,578	38,465	1,281,272

현재 정보접근수단이나 의사소통수단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2.5%에 불과하나, 보장구를 사용하고 있는 비율은 27.7%로 나타났다.

〈표 5-1-5〉 사용하고 있는 정보접근/의사소통수단, 보장구(중복응답)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명)

변 수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정보접근 /의사소통수단	점자	0.5	0.5	0.8	0.6
	수화	0.8	1.0	2.0	0.6
	구화	1.3	1.8	3.3	0.8
	필담	0.8	0.6	2.0	0.9
	없음	97.5	97.1	95.9	97.8
전 체		-	-	-	-
추정 수		2,152,922	862,750	36,878	1,253,295
사용하는 보장구	의지(의수, 의족)	1.0	1.2	4.4	0.8
	보조기	1.0	0.9	0.9	1.0
	저시력 보조안경	1.8	2.0	1.3	1.7
	보청기	5.8	6.6	5.3	5.3
	인공후두	0.1	0.1	0.0	0.1
	휠체어	11.4	4.1	0.5	16.8
	지팡이	11.1	4.6	3.5	15.8
	기타	1.6	0.9	0.0	2.1
	없음	72.3	81.2	86.5	65.7
전 체		-	-	-	-
추정 수		2,152,922	862,750	36,878	1,253,295

3. 주요 변수별 장애 특성 비교

〈표 5-1-6〉 변수별 장애 특성 비교 - 성별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남성	여성	전 체
중복장애 보유 비율(%)	5.5	4.9	5.2
응답 수(명)	1,315,335	892,980	2,208,315
장애발생 원인이 질환 및 사고인 비율(%)	86.3	84.1	85.4
응답 수(명)	1,315,335	892,980	2,208,315
질환 및 사고의 일자리 발생 비율(%)	27.7	8.7	20.2
응답 수(명)	1,135,221	751,484	1,886,705
질환 및 사고로 일자리에서 그만둔 비율(%)	72.2	80.7	73.7
응답 수(명)	314,919	65,290	380,209
정보접근/의사소통수단 사용 비율(%)	2.3	2.8	2.5
응답 수(명)	1,315,335	892,980	2,208,315
보장구 사용 비율(%)	25.3	31.2	27.7
응답 수(명)	1,315,335	892,980	2,208,315

- 주 1) '질환 및 사고가 일자리에서 발생한 비율'은 장애발생 원인이 '질환 및 사고'인 응답자에게 질문함
 2) '질환 및 사고로 일자리에서 그만둔 비율'은 일자리에서 장애가 발생했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표 5-1-7〉 변수별 장애 특성 비교 - 연령별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21~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81세	전 체
중복장애 보유 비율(%)	5.3	5.2	3.8	4.7	5.8	5.2
응답 수(명)	63,378	155,057	316,582	525,006	1,148,292	2,208,315
장애발생 원인이 질환 및 사고인 비율(%)	42.3	67.9	77.5	87.0	91.7	85.4
응답 수(명)	63,378	155,057	316,582	525,006	1,148,292	2,208,315
질환 및 사고의 일자리 발생 비율(%)	0.0	11.7	20.1	25.8	19.1	20.2
응답 수(명)	26,790	105,299	245,201	456,614	1,052,801	1,886,705
질환 및 사고로 일자리에서 그만둔 비율(%)	0.0	76.6	78.9	77.2	70.1	73.7
응답 수(명)	0	12,343	49,267	117,700	200,899	380,209
정보접근/의사소통수단 사용 비율(%)	4.1	3.6	4.1	2.5	1.8	2.5
응답 수(명)	63,378	155,057	316,582	525,006	1,148,292	2,208,315
보장구 사용 비율(%)	19.1	14.0	17.9	22.7	35.0	27.7
응답 수(명)	63,378	155,057	316,582	525,006	1,148,292	2,208,315

- 주 1) '질환 및 사고가 일자리에서 발생한 비율'은 장애발생 원인이 '질환 및 사고'인 응답자에게 질문함
 2) '질환 및 사고로 일자리에서 그만둔 비율'은 일자리에서 장애가 발생했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표 5-1-8〉 변수별 장애 특성 비교 - 장애정도별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중증	경증	전 체
중복장애 보유 비율(%)	8.3	3.1	5.2
응답 수(명)	906,595	1,301,720	2,208,315
장애발생 원인이 질환 및 사고인 비율(%)	77.8	90.8	85.4
응답 수(명)	906,595	1,301,720	2,208,315
질환 및 사고의 일자리 발생 비율(%)	16.3	22.5	20.2
응답 수(명)	704,888	1,181,817	1,886,705
질환 및 사고로 일자리에서 그만둔 비율(%)	83.9	69.2	73.7
응답 수(명)	114,853	265,356	380,209
정보접근/의사소통수단 사용 비율(%)	4.4	1.2	2.5
응답 수(명)	906,595	1,301,720	2,208,315
보장구 사용 비율(%)	34.7	22.9	27.7
응답 수(명)	906,595	1,301,720	2,208,315

주 1) '질환 및 사고가 일자리에서 발생한 비율'은 장애발생 원인이 '질환 및 사고'인 응답자에게 질문함
 2) '질환 및 사고로 일자리에서 그만둔 비율'은 일자리에서 장애가 발생했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표 5-1-9〉 변수별 장애 특성 비교 - 장애유형별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신체외부장애		감각장애		정신적	신체 내부	전 체
	지체	지체 제외	시각	시각 제외			
중복장애 보유 비율(%)	2.9	11.7	8.5	7.9	3.9	8.4	5.2
응답 수(명)	1,207,366	216,704	225,509	213,696	232,940	112,100	2,208,315
장애발생 원인이 질환 및 사고인 비율(%)	91.6	91.8	83.1	75.6	55.5	92.0	85.4
응답 수(명)	1,207,366	216,704	225,509	213,696	232,940	112,100	2,208,315
질환 및 사고의 일자리 발생 비율(%)	25.9	16.8	15.6	9.7	7.7	5.2	20.2
응답 수(명)	1,106,285	198,900	187,468	161,538	129,397	103,117	1,886,705
질환 및 사고로 일자리에서 그만둔 비율(%)	72.1	84.5	70.0	65.1	100.0	85.2	73.6
응답 수(명)	286,701	33,349	29,161	15,644	10,012	5,342	380,209
정보접근/의사소통수단 사용 비율(%)	0.0	0.3	5.2	19.8	0.0	0.0	2.5
응답 수(명)	1,207,366	216,704	225,509	213,696	232,940	112,100	2,208,315
보장구 사용 비율(%)	26.3	40.0	30.9	55.8	3.3	10.5	27.7
응답 수(명)	1,207,366	216,704	225,509	213,696	232,940	112,100	2,208,315

주 1) '질환 및 사고가 일자리에서 발생한 비율'은 장애발생 원인이 '질환 및 사고'인 응답자에게 질문함
 2) '질환 및 사고로 일자리에서 그만둔 비율'은 일자리에서 장애가 발생했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제2절 직업적 능력

1. 자격증

지난조사 이후 신규로 자격증을 취득한 장애인은 만 21~81세 장애인의 2.0%이며, 실업자의 신규 자격증 취득 비율은 10.3%로 취업자(3.3%), 비경제활동인구(0.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5-2-1〉 지난조사 이후 자격증 신규 취득 여부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명)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신규 자격증 취득 여부	자격증 있음	2.0	3.3	10.3
	1개	100.0	83.9	82.6
	2개 이상	0.0	16.1	17.4
	소 계	100.0	100.0	100.0
	추정 수	29,587	3,962	10,760
	자격증 없음	98.0	96.7	89.7
	전 체	100.0	100.0	100.0
추정 수		2,208,315	888,578	38,465
		1,281,272		

주: 지난조사 시 보유하고 있었지만 응답하지 않은 자격증은 신규 자격증으로 간주함

1차 조사 시 조사된 자격증과 지난조사 이후 취득한 신규 자격증을 모두 고려하여 현재 자격증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자격증을 1종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은 전체의 18.3%이며, 미취업자의 보유 비율(9.7%)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5-2-2〉 현재 자격증 보유 여부(누적)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명)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현재 자격증 보유 여부	자격증 있음	18.3	29.9	36.8
	1개	69.0	63.9	68.1
	2개	16.8	19.3	25.0
	3개 이상	14.3	16.8	6.8
	소 계	100.0	100.0	100.0
	추정 수	403,438	265,473	14,141
	자격증 없음	81.7	70.1	63.2
전 체		100.0	100.0	100.0
추정 수		2,208,315	888,578	38,465
		1,281,272		

주: '현재 자격증 보유 여부'는 1차 조사 시 파악한 자격증과 지난조사 이후 취득한 신규 자격증을 모두 고려하여 6차 조사 시 장애인 개인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의미함

현재 보유하고 있는 633,910종의 자격증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타 국가자격증'이 전체의 53.9%이며, 다음으로 '기능사(국가기술자격 2급)' 23.9%, '민간자격증' 14.0%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조사 이후 신규로 취득한 자격증은 '기타 국가자격증'의 비율이 79.2%, '민간자격증' 15.8%, '기능사' 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2-3〉 보유 자격증의 유형

(단위: %, 중)

구 분	신규 취득 자격증	현재 보유 자격증
기술사	0.4	0.8
기사	0.0	4.4
국가 자격증	4.6	1.0
기능장	0.0	1.6
산업기사	0.0	23.9
기능사	79.2	53.9
기타 국가자격증	15.8	14.0
민간자격증	0.0	0.2
국제(외국)자격증	0.0	0.0
모름/응답거절	100.0	100.0
전 체	48,090	633,910
전체 자격증 추정 수		

주 1) 응답자가 갖고 있는 복수개의 자격증 각각에 대해 질문함

2) 지난조사 시 보유하고 있었지만 응답하지 않은 자격증은 신규 자격증으로 간주함

자격증 보유자가 갖고 있는 자격증 633,910종 중 29.4%의 자격증은 취업(또는 취업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득한 자격증이 취업(또는 취업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자격증의 비율은 전체 자격증의 57.6%로 나타났다. 지난조사 이후 신규 취득 자격증의 경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율은 22.8%, 도움이 된다는 비율은 60.3%로 나타났다.

〈표 5-2-4〉 보유 자격증이 취업(또는 취업유지)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단위: %, 중)

구 분	신규 취득 자격증	현재 보유 자격증
전혀 도움 안됨	6.1	10.7
별로 도움 안됨	16.7	18.7
보통	16.7	12.9
다소 도움 됨	27.7	29.8
매우 도움 됨	32.6	27.8
모름/응답거절	0.0	0.0
전 체	100.0	100.0
전체 자격증 추정 수	48,090	633,910

주 1) 응답자가 갖고 있는 복수개의 자격증 각각에 대해 질문함

2) 지난조사 시 보유하고 있었지만 응답하지 않은 자격증은 신규 자격증으로 간주함

2. 컴퓨터/영어 활용능력

평소 컴퓨터, 영어 등의 활용능력에 대한 본인의 수준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 전체의 6.7%가 컴퓨터 활용을 '잘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영어능력은 0.9%, 대인관계/조직적응 능력은 28.5%로 나타났다. 모든 항목에서 비경제활동인구의 '못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취업자, 실업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5-2-5〉 컴퓨터, 영어 등의 활용능력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명)

변 수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컴퓨터 활용능력	못하는 편임	78.8	65.9	59.1	88.2
	보통	14.5	21.7	32.4	9.0
	잘하는 편임	6.7	12.3	8.5	2.8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208,315	888,578	38,465	1,281,272
영어 독해/ 회화 능력	못하는 편임	93.2	88.8	91.3	96.3
	보통	5.9	9.3	8.7	3.4
	잘하는 편임	0.9	1.9	0.0	0.3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208,315	888,578	38,465	1,281,272
대인관계/ 조직적응 능력	못하는 편임	35.3	16.2	16.3	49.1
	보통	36.2	40.0	48.3	33.2
	잘하는 편임	28.5	43.8	35.4	17.7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208,315	888,578	38,465	1,281,272

3. 진로/진학

고등학교/대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휴학 중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졸업 후 예상 진로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임금근로 취업 및 기존 임금근로 일자리 유지'가 47.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상급학교 진학(편입, 대학원 포함)' 26.0%, '휴식 및 치료' 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진로/진학 계획 수립에 대해 상담을 하는 비율은 '진로지도 담당자'가 35.5%로 가장 높고, '부모 및 형제'가 30.8% '선후배 및 동기' 26.5%, '친척' 7.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2-6〉 학교 졸업 후 예상 진로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상급학교 진학(편입, 대학원 포함)	27.8	13.0	26.6	15.4	10.8	28.4	26.0
임금근로 취업 및 기존 임금근로 일자리 유지	43.3	40.3	34.5	49.2	55.0	42.8	47.5
창업 또는 기존 사업 유지(농림어업 포함)	1.3	0.6	1.9	9.9	6.5	4.2	0.0
취업과 진학을 동시에(방송통신대, 야간대학 등)	4.5	4.6	6.8	4.1	0.0	2.8	2.9
직업훈련(학원포함) 참여	4.0	4.6	2.8	0.0	3.9	0.0	0.0
특수학교 전공과 입학	3.5	9.3	8.0	5.8	2.9	4.7	0.0
장애인보호시설 입소	3.8	1.3	0.8	5.2	0.9	1.4	6.6
휴식 및 치료	2.2	4.5	16.8	7.2	14.9	7.9	7.4
가사 및 육아	0.0	1.3	0.0	0.0	1.2	0.0	0.0
기타	9.7	20.4	1.8	3.1	4.0	7.8	9.5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2,672	24,158	19,964	16,972	16,606	10,673	7,247

- 주 1) 고등학교/대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휴학 중인 경우에 질문함(이하 동일 적용)
 2) 각 차수별 횡단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하였음(이하 동일 적용)
 3) 모름/응답거절은 분석에서 제외함

〈표 5-2-7〉 진로/진학 계획 수립 시 대화정도 여부 - 차수별

(단위: %, 명)

변 수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부모 및 형제	상담하지 않음	27.6	29.6	15.2	30.4	30.1	46.6	28.2
	보통	25.4	25.2	41.3	21.8	25.3	18.3	41.0
	상담함	47.0	45.2	43.5	47.8	44.5	35.1	30.8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2,738	24,158	19,964	16,208	16,606	10,234	6,926
친척	상담하지 않음	65.8	65.3	37.0	46.0	49.7	80.6	79.1
	보통	9.6	28.3	35.9	27.3	28.7	9.9	13.0
	상담함	24.7	6.4	27.0	26.7	21.6	9.5	7.9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1,779	24,158	19,321	16,208	16,131	9,780	5,697
선후배 및 동기	상담하지 않음	45.0	42.6	39.4	24.4	22.9	49.0	35.6
	보통	13.0	26.9	32.8	44.4	39.7	21.6	37.9
	상담함	42.1	30.5	27.8	31.2	37.4	29.4	26.5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3,298	24,158	19,964	16,972	16,606	10,673	7,247
진로상담 담당자	상담하지 않음	38.9	35.5	44.0	38.0	54.3	43.0	21.8
	보통	26.1	27.8	36.4	36.7	19.0	19.6	42.6
	상담함	35.0	36.7	19.6	25.3	26.7	37.4	35.5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3,298	24,158	19,964	16,972	16,606	10,673	7,247

- 주 1) 부모 및 형제, 친척이 부재한 경우 '해당 없음' 처리하였음
 2) 모름/응답거절/해당 없음은 분석에서 제외함

4. 주요 변수별 직업적 능력 특성 비교

〈표 5-2-8〉 변수별 직업적 능력 특성 비교 - 성별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남성	여성	전 체
지난조사 이후 신규 자격증 취득 비율(%)	2.6	1.2	2.0
응답 수(명)	1,315,335	892,980	2,208,315
현재 자격증 보유 비율(%)	24.8	8.7	18.3
응답 수(명)	1,315,335	892,980	2,208,315
현재 보유 자격증이 취업에 도움 되는 비율(%)	58.4	55.2	57.7
응답 수(명)	488,236	145,672	633,908
컴퓨터 활용 잘하는 편인 비율(%)	9.4	2.7	6.7
응답 수(명)	1,315,335	892,980	2,208,315
영어 잘하는 편인 비율(%)	1.2	0.5	0.9
응답 수(명)	1,315,335	892,980	2,208,315
대인관계/조직적응 잘하는 편인 비율(%)	30.2	26.1	28.5
응답 수(명)	1,315,335	892,980	2,208,315

- 주 1) 지난조사 시 보유하고 있었지만 응답하지 않은 자격증은 신규 자격증으로 간주함
 2) '현재 자격증 보유 비율'은 1차 조사 시 파악한 자격증과 지난조사 이후 취득한 신규 자격증을 모두 고려하여 7차년도 조사 시 장애인 개인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을 의미함
 3) 응답자가 갖고 있는 복수개의 자격증 각각에 대해 질문함

〈표 5-2-9〉 변수별 직업적 능력 특성 비교 - 연령별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21~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81세	전 체
지난조사 이후 신규 자격증 취득 비율(%)	3.3	1.5	2.4	3.7	1.1	2.0
응답 수(명)	63,378	155,057	316,582	525,006	1,148,293	2,208,315
현재 자격증 보유 비율(%)	24.6	32.2	30.8	22.0	10.9	18.3
응답 수(명)	63,378	155,057	316,582	525,006	1,148,293	2,208,315
현재 보유 자격증이 취업에 도움 되는 비율(%)	54.2	53.1	54.6	62.9	58.3	57.7
응답 수(명)	30,001	93,179	168,547	181,523	160,659	633,908
컴퓨터 활용 잘하는 편인 비율(%)	22.7	26.7	14.6	6.8	0.9	6.7
응답 수(명)	63,378	155,057	316,582	525,006	1,148,293	2,208,315
영어 잘하는 편인 비율(%)	1.9	1.5	2.1	1.3	0.3	0.9
응답 수(명)	63,378	155,057	316,582	525,006	1,148,293	2,208,315
대인관계/조직적응 잘하는 편인 비율(%)	12.4	20.3	35.5	33.2	26.4	28.5
응답 수(명)	63,378	155,057	316,582	525,005	1,148,293	2,208,315

- 주 1) 지난조사 시 보유하고 있었지만 응답하지 않은 자격증은 신규 자격증으로 간주함
 2) '현재 자격증 보유 비율'은 1차 조사 시 파악한 자격증과 지난조사 이후 취득한 신규 자격증을 모두 고려하여 7차년도 조사 시 장애인 개인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을 의미함
 3) 응답자가 갖고 있는 복수개의 자격증 각각에 대해 질문함

〈표 5-2-10〉 변수별 직업적 능력 특성 비교 - 장애정도별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중증	경증	전 체
지난조사 이후 신규 자격증 취득 비율(%)	1.4	2.4	2.0
응답 수(명)	906,596	1,301,719	2,208,315
현재 자격증 보유 비율(%)	14.8	20.7	18.3
응답 수(명)	906,596	1,301,719	2,208,315
현재 보유 자격증이 취업에 도움 되는 비율(%)	53.5	59.6	57.7
응답 수(명)	199,985	433,923	633,908
컴퓨터 활용 잘하는 편인 비율(%)	5.8	7.4	6.7
응답 수(명)	906,596	1,301,719	2,208,315
영어 잘하는 편인 비율(%)	0.3	13.0	0.9
응답 수(명)	906,596	1,301,719	2,208,315
대인관계/조직적응 잘하는 편인 비율(%)	15.9	37.3	28.5
응답 수(명)	906,596	1,301,719	2,208,315

- 주 1) 지난조사 시 보유하고 있었지만 응답하지 않은 자격증은 신규 자격증으로 간주함
 2) '현재 자격증 보유 비율'은 1차 조사 시 파악한 자격증과 지난조사 이후 취득한 신규 자격증을 모두 고려하여 7차년도 조사 시 장애인 개인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을 의미함
 3) 응답자가 갖고 있는 복수개의 자격증 각각에 대해 질문함

〈표 5-2-11〉 변수별 직업적 능력 특성 비교 - 장애유형별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신체외부장애		감각장애		정신적	신체 내부	전 체
	지체	지체 제외	시각	시각 제외			
지난조사 이후 신규 자격증 취득 비율(%)	2.8	1.1	0.6	1.4	0.3	2.8	2.0
응답 수(명)	1,207,366	216,704	225,509	213,696	232,940	112,100	2,208,315
현재 자격증 보유 비율(%)	21.3	12.3	15.9	14.5	9.2	27.5	18.3
응답 수(명)	1,207,366	216,704	225,509	213,696	232,940	112,100	2,208,315
현재 보유 자격증이 취업에 도움 되는 비율(%)	59.5	47.1	63.2	60.0	30.5	59.6	57.7
응답 수(중)	408,602	51,109	51,435	50,614	24,930	47,218	633,908
컴퓨터 활용 잘하는 편인 비율(%)	7.6	5.2	7.4	5.3	2.9	9.4	6.7
응답 수(명)	1,207,366	216,704	225,509	213,696	232,940	112,100	2,208,315
영어 잘하는 편인 비율(%)	1.2	0.2	2.1	0.0	0.1	0.9	0.9
응답 수(명)	1,207,366	216,704	225,509	213,696	232,940	112,100	2,208,315
대인관계/조직적응 잘하는 편인 비율(%)	36.3	16.1	31.1	21.7	2.2	31.4	28.5
응답 수(명)	1,207,366	216,704	225,509	213,696	232,940	112,100	2,208,315

- 주 1) 지난조사 시 보유하고 있었지만 응답하지 않은 자격증은 신규 자격증으로 간주함
 2) '현재 자격증 보유 비율'은 1차 조사 시 파악한 자격증과 지난조사 이후 취득한 신규 자격증을 모두 고려하여 7차년도 조사 시 장애인 개인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을 의미함
 3) 응답자가 갖고 있는 복수개의 자격증 각각에 대해 질문함

제3절 고용서비스

1. 지난조사 이후 고용서비스 경험

지난조사 이후 고용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장애인은 전체의 1.5%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상태별로는 취업자 2.1%, 실업자 17.9%, 비경제활동인구 0.6%로 실업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3-1〉 지난조사 이후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명)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경험 있음	1.5	2.1	17.9	0.6
경험 없음	98.5	97.9	82.1	99.4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208,315	888,578	38,465	1,281,272

〈표 5-3-2〉 지난조사 이후 고용서비스 종류(이용자 수 기준, 중복응답)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명)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구직(직업)상담	32.7	31.4	65.9	5.5
취업정보 제공	14.1	13.6	15.9	13.9
직업능력 평가	4.4	0.0	4.9	14.9
직업탐색	3.7	2.9	4.9	4.5
진로지도	2.7	0.0	0.0	12.1
취업알선	42.1	58.3	33.9	8.8
직업생활안정자금 융자	0.7	0.0	0.0	3.3
운영자금 융자	0.9	1.7	0.0	0.0
직업능력개발(직업훈련)	6.5	2.2	4.9	18.8
직업재활훈련(직업교육)	3.3	0.0	9.3	6.4
정보화 교육	5.8	4.0	7.6	8.6
근로지원인(활동보조인) 지원	0.6	0.0	0.0	2.6
취업지원프로그램	1.8	3.1	0.0	0.0
보조공학기기 지원	1.6	1.7	0.0	2.6
기타	2.1	1.9	0.0	4.5
전 체	-	-	-	-
전체 이용자 추정 수	33,265	18,937	6,867	7,461

주 1) 지난조사 이후 고용서비스 이용자에게 질문함

2) 제공받은 기관이 다르면 다른 서비스로 분석함(이하 동일 적용)

서비스 이용자를 기준으로 지난조사 이후 이용한 고용서비스 종류를 살펴보면, 이용자의 42.1%가 취업알선, 32.7%가 구직(직업)상담, 14.1%가 취업정보 제공을 이용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실업자의 경우에는 65.9%가 구직(직업)상담을 이용하였다고 응답한 반면에 취업자는 경우 58.3%가 취업알선을 이용했다고 하여 대조를 보이고 있다.

서비스 이용자 기준으로 지난조사 이후 이용한 고용서비스 기관을 살펴보면, 서비스 이용자의 29.0%가 고용노동부(고용센터)를 이용하였으며, 다음으로 기타 25.4%, 지방자치단체 2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업자의 경우 51.5%가 고용노동부(고용센터)를 이용했다고 한 반면에 취업자는 25.0%가 고용노동부(고용센터)를, 비경제활동인구는 44.8%가 기타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3〉 지난조사 이후 고용서비스 기관(이용자 수 기준, 중복응답)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명)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고용노동부(고용센터)	29.0	25.0	51.5	18.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6.8	21.3	15.9	6.1
장애인복지관	9.3	7.7	4.9	17.3
지방자치단체	20.8	20.8	37.2	5.9
장애인단체	3.0	5.3	0.0	0.0
기타	25.4	21.2	16.2	44.8
모름	2.6	1.7	0.0	7.4
전 체	-	-	-	-
전체 이용자 추정 수	33,265	18,937	6,867	7,461

주: 지난조사 이후 고용서비스 이용자에게 질문함

서비스 총수를 기준으로 지난조사 이후 이용한 고용서비스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전체 서비스 33,265건 중 취업알선 42.1%, 구직(직업)상담 32.7%, 취업정보 제공 14.1%의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자가 이용한 서비스는 총 18,937건이며, 취업알선이 58.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실업자는 총 6,867건으로 65.9%는 구직(직업)상담, 33.9%는 취업알선이며, 비경제활동인구는 총 7,461건으로 18.8%는 직업능력개발(직업훈련), 14.9%는 직업능력 평가, 13.9%는 취업정보 제공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4〉 지난조사 이후 고용서비스 종류(서비스 총수 기준)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건)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구직(직업)상담	32.7	31.4	65.9	5.5
취업정보 제공	14.1	13.6	15.9	13.9
직업능력 평가	4.4	0.0	4.9	14.9
직업탐색	3.7	2.9	4.9	4.5
진로지도	2.7	0.0	0.0	12.1
취업알선	42.1	58.3	33.9	8.8
직업생활안정자금 융자	0.7	0.0	0.0	3.3
운영자금 융자	0.9	1.7	0.0	0.0
직업능력개발(직업훈련)	6.5	2.2	4.9	18.8
직업재활훈련(직업교육)	3.3	0.0	9.3	6.4
정보화 교육	5.8	4.0	7.6	8.6
근로지원인(활동보조인) 지원	0.6	0.0	0.0	2.6
취업지원프로그램	1.8	3.1	0.0	0.0
보조공학기기 지원	1.6	1.7	0.0	2.6
기타	2.1	1.9	0.0	4.5
전 체	-	-	-	-
전체 이용자 추정 수	33,265	18,937	6,867	7,461

주: 지난조사 이후 고용서비스 이용자에게 질문함

서비스 총수를 기준으로 지난조사 이후 이용한 고용서비스를 기관별로 살펴보면, 전체 서비스 40,910건 중 고용노동부(고용센터) 29.6%, 기타 22.3%, 지방자치단체 18.7%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자가 이용한 서비스는 고용노동부(고용센터)가 2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실업자는 47.0%가 고용노동부(고용센터), 비경제활동인구는 42.1%가 기타로부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5〉 지난조사 이후 고용서비스 기관(서비스 총수 기준)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건)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고용노동부(고용센터)	29.6	24.0	47.0	23.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3.4	17.6	10.0	5.7
장애인복지관	11.2	12.9	3.3	16.3
지방자치단체	18.7	21.8	21.9	5.5
장애인단체	1.1	2.0	0.0	0.0
기타	22.3	17.6	17.7	42.1
모름	3.7	4.2	0.0	7.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전체 서비스 추정 수	40,910	22,851	10,121	7,938

주: 지난조사 이후 고용서비스 이용자에게 질문함

서비스 총수를 기준으로 지난조사 이후 이용한 고용서비스의 정보접근방법을 살펴보면, 전체 서비스 40,910건에 대해 36.9%는 '해당기관으로부터 직접(연락 또는 문의)'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였으며, 22.8%는 '지자체, 공공기관을 통해', 21.9%는 '장애인 단체, 모임 등을 통해', 11.1%는 '주변 지인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의 경우 실업자(30.1%)나 비경제활동인구(29.1%)에 비해 '해당기관으로부터 직접(연락 또는 문의)' 정보를 확보한 비율(42.7%)이 높게 나타났다.

〈표 5-3-6〉 지난조사 이후 고용서비스 정보접근방법(서비스 총수 기준)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건)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해당 기관으로부터 직접(연락 또는 문의)	36.9	42.7	30.1	29.1
장애인 단체, 모임 등을 통해	21.9	25.8	19.2	14.0
지자체, 공공기관을 통해	22.8	15.9	36.8	25.0
TV,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해	3.4	3.5	5.7	0.0
학교, 학원을 통해	1.9	3.3	0.0	0.0
주변 지인을 통해	11.1	8.8	8.1	21.7
기타	2.0	0.0	0.0	10.3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전체 서비스 추정 수	40,910	22,851	10,121	7,938

주: 지난조사 이후 고용서비스 이용자에게 질문함

서비스 총수를 기준으로 지난조사 이후 이용한 고용서비스의 본인 참여정도를 살펴보면, 전체 서비스 40,910건 중 66.1%의 서비스에 대해 제대로 참여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해당 비율은 실업자 60.2%, 취업자 66.8%, 비경제활동인구 71.3%로 나타났다.

〈표 5-3-7〉 지난조사 이후 이용한 고용서비스 참여정도(서비스 총수 기준)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건)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참여하지 않음	7.3	8.7	7.8	2.5
보통	26.7	24.4	32.1	26.2
참여함	66.1	66.8	60.2	71.3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전체 서비스 추정 수	40,910	22,851	10,121	7,938

주: 지난조사 이후 고용서비스 이용자에게 질문함

서비스 총수를 기준으로 지난조사 이후 이용한 고용서비스의 취업(또는 취업유지) 도움정도를 살펴보면, 전체 서비스 40,910건 중 43.2%의 서비스에 대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도움이 된다는 비율은 취업자 59.1%, 실업자 24.9%, 비경제활동인구 20.7%로 나타났다. 해당 고용서비스가 취업(또는 취업유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비율은 73.3%이며, 취업자 88.5%, 실업자 30.9%, 비경제활동인구 35.4%로 나타났다.

〈표 5-3-8〉 지난조사 이후 이용한 고용서비스 도움정도(서비스 총수 기준)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건)

변 수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도움정도	도움되지 않음	38.5	20.1	67.5	54.5
	보통	18.4	20.8	7.7	24.9
	도움됨	43.2	59.1	24.9	20.7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전체 서비스 추정 수		40,910	22,851	10,121	7,938
직접 도움여부	직접 도움됨	73.3	88.5	30.9	35.4
	직접 도움되지 않음	26.7	11.5	69.1	64.6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전체 서비스 추정 수	25,173	18,266	3,293	3,614

주 1) 지난조사 이후 고용서비스 이용자에게 질문함

2) '직접 도움여부'는 '도움정도'가 보통 이상인 이용자에게 질문함

〈표 5-3-9〉 지난조사 이후 이용한 고용서비스 애로사항(서비스 총수 기준)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건)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서비스에 대한 정보접근의 어려움	7.1	10.0	1.8	5.5
까다로운 서비스 자격기준	6.2	3.5	15.5	2.1
서비스 처리기간이 길게 소요됨	3.3	5.9	0.0	0.0
서비스의 현실 미반영(서비스의 질적인 부분 미흡)	20.8	20.8	33.7	4.3
서비스의 양적인 부분 미흡	20.9	18.5	27.5	19.3
제공기관의 접근성과 서비스 미흡	2.0	0.0	0.0	10.5
제공기관의 장애에 대한 배려(편의시설 등) 미흡	5.3	4.7	0.0	14.0
기타	0.0	0.0	0.0	0.0
특별히 없음	34.4	36.7	21.5	44.3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전체 서비스 추정 수	40,910	22,851	10,121	7,938

주: 지난조사 이후 고용서비스 이용자에게 질문함

서비스 충수를 기준으로 지난조사 이후 이용한 고용서비스의 애로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전체 서비스 40,910건 중 65.6%가 이용하는 데 있어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9%는 '서비스의 양적인 부분 미흡', 20.8%는 '서비스의 현실 미반영' 순으로 응답하였다.

지난조사 이후 고용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 '고용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아서'가 36.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장애로 인해 제대로 이용하기 힘들 것 같아서(15.7%)', '어떤 고용서비스가 있는지 알지 못해서(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취업자의 47.4%가 '고용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아서'를 선택하였으며, 실업자의 31.6%는 '필요하나 서비스의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하였다.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고용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아서'가 29.1%, '장애로 인해 제대로 이용하기 힘들 것 같아서' 24.6%로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것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5-3-10〉 지난조사 이후 고용서비스 이용하지 않은 이유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명)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어떤 고용서비스가 있는지 알지 못해서	4.2	4.4	23.4	3.6
고용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아서	36.0	47.4	1.7	29.1
필요하나 서비스의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3.7	2.7	31.6	3.6
받고 싶은 서비스가 없어서	0.6	0.8	1.0	0.5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해서	0.1	0.1	0.0	0.1
신청자격이 안되어서	0.2	0.1	0.9	0.2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0.0	0.0	0.0	0.1
장애로 인해 제대로 이용하기 힘들 것 같아서	15.7	3.1	5.4	24.6
개인적 사유로 인해	0.9	0.2	0.0	1.4
신청을 하고 서비스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중임	0.1	0.2	0.0	0.0
기타	0.2	0.1	0.0	0.3
특별히 없음	38.2	41.0	36.0	36.4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175,049	869,641	31,599	1,273,809

주: 지난조사 이후 고용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응답자에게 질문함

2. 최근 8년간 고용서비스 경험

1차년도 조사 시 직전 3년간의 고용서비스 이용경험을 질문하였으므로 지난조사 이후의 경험을 합산하여 최근 8년간 고용서비스 이용경험을 확인해 보면, 경험이 있는 비율은 전체의 19.5%이며, 그 비율은 실업자가 57.6%로 취업자(21.5%)나 비경제활동인구(17.0%)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3-11〉 최근 8년간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명)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경험 있음	19.5	21.5	57.6	17.0
경험 없음	80.5	78.5	42.4	83.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208,315	888,578	38,465	1,281,272

주: '최근 8년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은 1차 조사 시 파악한 과거 3년간의 고용서비스 경험과 지난조사 이후 새로 경험한 고용서비스를 모두 고려하여 최근 8년간 고용서비스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의미함

〈표 5-3-12〉 최근 8년간 고용서비스 종류(서비스 총수 기준, 중복응답)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건)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구직(직업)상담	35.8	30.7	32.1	41.7
취업알선	25.9	32.6	25.7	18.8
취업정보 제공	14.0	15.8	10.7	12.5
기타	4.0	4.6	0.9	3.8
직업능력개발(직업훈련)	6.1	6.8	8.9	4.9
근로지원인(활동보조인)지원	2.1	0.1	0.0	4.5
정보화 교육	2.4	2.0	4.0	2.6
직업탐색	2.3	1.8	10.1	1.7
직업재활훈련	1.4	1.1	1.2	1.8
직업능력 평가	1.4	1.0	0.6	1.9
보조공학기기 지원	1.1	0.5	0.0	1.9
창업자금 융자	1.0	0.8	1.2	1.1
자립생활훈련	1.1	0.5	3.4	1.3
취업지원프로그램	0.8	1.3	1.0	0.2
직업적응훈련	0.6	0.3	0.0	1.1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전체 서비스 추정 수	770,382	368,424	53,082	348,877

- 주 1) 최근 8년간 고용서비스 이용자에게 질문함
 2) 제공받은 기관이 다르면 다른 서비스로 분석함(1차 제외)
 3) 보기들 중 일부는 생략되었음

최근 8년간 국가 및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고용서비스의 종류를 살펴보면, 구직(직업)상담 35.8%, 취업알선 25.9%, 취업정보 제공 14.0%, 직업능력개발(직업훈련) 6.1% 순이며, 취업자,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모두 구직(직업)상담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서비스 기관으로는 고용노동부(고용센터) 23.9%, 지방자치단체 23.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2.5% 순으로 나타나 기관별로 서비스 총수 비중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취업자의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26.9%)을 가장 많이 이용한 반면, 실업자는 고용노동부(고용센터)(29.4%), 비경제활동인구는 지방자치단체(25.8%)의 서비스를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13〉 최근 8년간 고용서비스 기관(서비스 총수 기준, 중복응답)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명)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고용노동부(고용센터)	23.9	24.5	29.4	22.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2.5	26.9	19.6	18.3
장애인복지관	13.1	11.7	2.3	16.3
지방자치단체	23.3	20.9	24.1	25.8
장애인단체	2.7	2.0	1.7	3.6
기타	12.8	12.8	19.9	11.7
모름/응답거절	1.6	1.2	3.0	1.8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전체 서비스 추정 수	770,382	368,424	53,082	348,877

주: 최근 8년간 고용서비스 이용자에게 질문함

〈표 5-3-14〉 최근 8년간 고용서비스 기관(서비스 총수 기준, 중복응답) -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명)

구 분	연령별					장애정도별	
	21~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81세	중증	경증
고용노동부(고용센터)	11.7	20.7	25.6	32.0	22.3	18.9	28.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2.0	32.6	25.4	21.3	15.4	26.0	19.6
장애인복지관	28.3	18.5	12.4	10.3	9.4	19.6	7.7
지방자치단체	2.2	13.0	18.0	20.0	37.5	16.6	29.1
장애인단체	5.9	0.0	3.5	3.2	2.3	3.9	1.7
기타	16.0	11.9	12.9	12.6	12.4	11.9	13.5
모름/응답거절	3.9	3.3	2.2	0.6	0.6	3.1	0.3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서비스 추정 수	68,354	105,033	154,117	166,691	276,187	354,056	416,325

주: 최근 8년간 고용서비스 이용자에게 질문함

연령별로 살펴보면, 21~39세의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지방자치단체를 이용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장애인의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고용서비스 이용 비율(26.0%)이 가장 높았으며, 경증장애인은 지방자치단체(29.1%)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서비스의 본인 참여정도 및 도움정도를 살펴보면, 전체 서비스 770,382건 중 57.8%의 서비스에 대해 제대로 참여하였으며, 37.7%의 서비스가 취업 또는 취업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표 5-3-15〉 최근 7년간 고용서비스 도움정도(서비스 총수 기준)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건)

변 수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참여정도	참여하지 않음	27.2	22.0	15.8	34.5
	보통	15.0	15.9	19.6	13.4
	참여함	57.8	62.2	64.6	52.1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전체 서비스 추정 수	770,382	368,424	53,082	348,877
도움정도	도움되지 않음	51.3	39.8	51.4	63.4
	보통	11.0	11.3	18.2	9.6
	도움됨	37.7	48.9	30.4	27.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전체 서비스 추정 수	770,382	368,424	53,082	348,877

주: 최근 8년간 고용서비스 이용자에게 질문함

3. 고용서비스 이용의향

향후 1년 이내 고용서비스를 희망한다는 장애인은 전체의 6.0%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상태별로는 취업자 49.4%, 실업자 4.8%, 비경제활동인구 6.1%로 실업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3-16〉 향후 1년 내 고용서비스 이용 희망 여부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명)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향후 1년 이내 서비스 희망	6.0	49.4	4.8	6.1
향후 1년 이내 서비스 희망하지 않음	94.0	50.6	95.2	93.9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888,578	38,465	1,281,272	2,208,315

향후 1년 이내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고용서비스 1순위로 '취업알선'이 33.4%로 가장 많았으며, '구직(직업)상담' 19.1%, '취업정보제공' 1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3-17〉 향후 1년 내 이용을 희망하는 고용서비스 내용(1순위)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명)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구직(직업)상담	19.1	20.0	13.0	20.3
취업정보 제공	10.9	9.9	13.4	11.1
직업능력 평가	4.4	6.5	0.0	3.9
직업탐색	3.4	1.0	2.9	5.7
진로지도	0.3	0.8	0.0	0.0
취업알선	33.4	31.3	56.6	28.0
취업 후 적응지도	1.4	0.0	0.0	3.1
창업자금 융자	1.7	2.5	0.0	1.5
자동차구입자금 융자	1.7	3.2	0.0	1.0
직업생활안정자금 융자	1.8	2.8	2.5	0.6
고용시설자금 융자	0.5	0.4	0.0	0.7
고용시설 무상지원	1.6	0.0	0.0	3.4
운영자금 융자	1.2	3.0	0.0	0.0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	0.6	0.8	0.0	0.6
장애인고용장려금	0.3	0.7	0.0	0.0
고용촉진지원금	0.2	0.0	0.0	0.5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	0.5	1.1	0.0	0.1
재택근무 지원	1.7	0.6	3.1	2.2
직업능력개발(직업훈련)	5.0	6.8	8.4	2.4
직업재활훈련	0.5	1.3	0.0	0.0
자립생활훈련	1.0	0.5	0.0	1.7
정보화 교육	3.0	3.6	0.0	3.5
근로지원인(활동보조인) 지원	3.5	0.0	0.0	7.5
취업지원프로그램	1.1	1.0	0.0	1.6
보조공학기기 지원	0.4	0.6	0.0	0.3
기타	0.6	1.6	0.0	0.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133,966	53,415	18,987	61,564

주 1) 향후 1년 이내 고용서비스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2) 1순위에 대해서는 '없음'을 허용하지 않음

4. 주요 변수별 고용서비스 특성 비교

〈표 5-3-18〉 변수별 고용서비스 특성 비교 - 성별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남성	여성	전 체
지난조사 이후 고용서비스 경험 비율(%)	1.7	1.3	1.5
응답 수(명)	1,315,335	892,980	2,208,315
서비스 총수 기준 구직상담 이용 비율(%)	29.3	20.1	26.6
응답 수(명)	28,788	12,122	40,910
서비스 총수 기준 취업알선 이용 비율(%)	34.0	35.0	34.3
응답 수(명)	28,788	12,122	40,910
서비스 총수 기준 고용센터 이용 비율(%)	31.4	25.2	29.6
서비스 총수(건)	28,788	12,122	40,910
서비스 총수 기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용 비율(%)	13.1	14.3	13.4
서비스 총수(건)	28,788	12,122	40,910
서비스 총수 기준 장애인복지관 이용 비율(%)	10.5	12.7	11.2
서비스 총수(건)	28,788	12,122	40,910
서비스 총수 기준 지방자치단체 이용 비율(%)	22.6	9.4	18.7
서비스 총수(건)	28,788	12,122	40,910
서비스 총수 기준 도움이 된 서비스 비율(%)	39.6	51.6	43.2
서비스 총수(건)	28,788	12,122	40,910
서비스 총수 기준 애로사항이 있는 비율(%)	63.3	71.0	65.6
서비스 총수(건)	28,788	12,122	40,910
최근 8년간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	19.8	19.1	19.5
응답 수(명)	1,315,335	892,980	2,208,315
향후 1년 내 고용서비스 희망 비율(%)	6.8	4.9	6.1
응답 수(명)	1,315,335	892,980	2,208,315

- 주 1) '서비스 이용 비율', '기관 이용 비율'은 응답자가 받은 서비스 각각에 대해 복수 개의 이용기관을 파악하여, 한 종류의 서비스를 여러 개의 기관에서 받은 경우를 별도로 산정함
- 2) '도움이 된 서비스 비율'은 응답자가 받은 복수개의 서비스 각각에 대해 취업(또는 취업유지)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파악하였으며, 한 종류의 서비스를 여러 개의 기관에서 받은 경우를 별도로 산정함
- 3) '애로사항이 있는 서비스 비율'은 응답자가 받은 복수개의 서비스 각각에 대해 애로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였으며, 한 종류의 서비스를 여러 개의 기관에서 받은 경우를 별도로 산정함
- 4) '최근 8년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은 1차 조사 시 파악한 과거 3년간의 고용서비스 경험과 지난조사 이후 새로 경험한 고용서비스를 모두 고려하여 최근 8년간 고용서비스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의미함

〈표 5-3-19〉 변수별 고용서비스 특성 비교 - 연령별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21~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81세	전 체
지난조사 이후 고용서비스 경험 비율(%)	7.2	3.3	1.6	1.3	1.0	1.5
응답 수(명)	63,378	155,057	316,582	525,005	1,148,293	2,208,315
서비스 총수 기준 구직상담 이용 비율(%)	0.0	25.1	25.6	25.1	38.5	26.6
응답 수(명)	4,591	6,255	6,160	11,067	12,838	40,910
서비스 총수 기준 취업알선 이용 비율(%)	45.0	32.1	25.7	28.8	40.4	34.3
응답 수(명)	4,591	6,255	6,160	11,067	12,838	40,910
서비스 총수 기준 고용센터 이용 비율(%)	56.7	41.3	14.2	30.6	20.6	29.6
서비스 총수(건)	4,591	6,255	6,160	11,067	12,838	40,910
서비스 총수 기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용 비율(%)	0.0	18.4	34.0	9.2	9.6	13.4
서비스 총수(건)	4,591	6,255	6,160	11,067	12,838	40,910
서비스 총수 기준 장애인복지관 이용 비율(%)	0.0	8.4	19.3	20.0	5.0	11.2
서비스 총수(건)	4,591	6,255	6,160	11,067	12,838	40,910
서비스 총수 기준 지방자치단체 이용 비율(%)	0.0	8.3	11.5	23.1	30.0	18.7
서비스 총수(건)	4,591	6,255	6,160	11,067	12,838	40,910
서비스 총수 기준 도움이 된 서비스 비율(%)	18.7	32.9	52.9	44.2	51.3	43.2
서비스 총수(건)	4,591	6,255	6,160	11,067	12,838	40,910
서비스 총수 기준 애로사항이 있는 비율(%)	45.0	80.4	48.4	51.9	85.7	65.6
서비스 총수(건)	4,591	6,255	6,160	11,067	12,838	40,910
최근 8년간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	45.1	31.3	23.8	18.6	15.8	19.5
응답 수(명)	63,378	155,057	316,582	525,005	1,148,293	2,208,315
향후 1년 내 고용서비스 희망 비율(%)	12.4	15.3	7.7	6.5	3.8	6.1
응답 수(명)	63,378	155,057	316,582	525,005	1,148,293	2,208,315

- 주 1) '서비스 이용 비율', '기관 이용 비율'은 응답자가 받은 서비스 각각에 대해 복수 개의 이용기관을 파악하여, 한 종류의 서비스를 여러 개의 기관에서 받은 경우를 별도로 산정함
- 2) '도움이 된 서비스 비율'은 응답자가 받은 복수개의 서비스 각각에 대해 취업(또는 취업유지)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파악하였으며, 한 종류의 서비스를 여러 개의 기관에서 받은 경우를 별도로 산정함
- 3) '애로사항이 있는 서비스 비율'은 응답자가 받은 복수개의 서비스 각각에 대해 애로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였으며, 한 종류의 서비스를 여러 개의 기관에서 받은 경우를 별도로 산정함
- 4) '최근 8년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은 1차 조사 시 파악한 과거 3년간의 고용서비스 경험과 지난조사 이후 새로 경험한 고용서비스를 모두 고려하여 최근 8년간 고용서비스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의미함

〈표 5-3-20〉 변수별 고용서비스 특성 비교 - 장애정도별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중증	경증	전 체
지난조사 이후 고용서비스 경험 비율(%)	1.7	1.4	1.5
응답 수(명)	906,595	1,301,720	2,208,315
서비스 총수 기준 구직상담 이용 비율(%)	19.6	32.2	26.6
응답 수(명)	18,241	22,669	40,910
서비스 총수 기준 취업알선 이용 비율(%)	40.1	29.6	34.3
응답 수(명)	18,241	22,669	40,910
서비스 총수 기준 고용센터 이용 비율(%)	33.6	26.3	29.6
서비스 총수(건)	18,241	22,669	40,910
서비스 총수 기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용 비율(%)	21.4	7.0	13.4
서비스 총수(건)	18,241	22,669	40,910
서비스 총수 기준 장애인복지관 이용 비율(%)	14.1	8.8	11.2
서비스 총수(건)	18,241	22,669	40,910
서비스 총수 기준 지방자치단체 이용 비율(%)	8.7	26.7	18.7
서비스 총수(건)	18,241	22,669	40,910
서비스 총수 기준 도움이 된 서비스 비율(%)	32.7	51.6	43.2
서비스 총수(건)	18,241	22,669	40,910
서비스 총수 기준 애로사항이 있는 비율(%)	60.5	69.6	65.6
서비스 총수(건)	18,241	22,669	40,910
최근 8년간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	20.0	19.2	19.5
응답 수(명)	906,595	1,301,720	2,208,315
향후 1년 내 고용서비스 희망 비율(%)	6.0	6.1	6.1
응답 수(명)	906,595	1,301,720	2,208,315

- 주 1) '서비스 이용 비율', '기관 이용 비율'은 응답자가 받은 서비스 각각에 대해 복수 개의 이용기관을 파악하여, 한 종류의 서비스를 여러 개의 기관에서 받은 경우를 별도로 산정함
- 2) '도움이 된 서비스 비율'은 응답자가 받은 복수개의 서비스 각각에 대해 취업(또는 취업유지)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파악하였으며, 한 종류의 서비스를 여러 개의 기관에서 받은 경우를 별도로 산정함
- 3) '애로사항이 있는 서비스 비율'은 응답자가 받은 복수개의 서비스 각각에 대해 애로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였으며, 한 종류의 서비스를 여러 개의 기관에서 받은 경우를 별도로 산정함
- 4) '최근 8년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은 1차 조사 시 파악한 과거 3년간의 고용서비스 경험과 지난조사 이후 새로 경험한 고용서비스를 모두 고려하여 최근 8년간 고용서비스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의미함

〈표 5-3-21〉 변수별 고용서비스 특성 비교 - 장애유형별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신체외부장애		감각장애		정신적	신체 내부	전 체
	지체	지체 제외	시각	시각 제외			
지난조사 이후 고용서비스 경험 비율(%)	1.5	1.2	1.6	1.2	2.0	1.6	1.5
응답 수(명)	1,207,366	216,704	225,509	213,696	232,940	112,100	2,208,315
서비스 총수 기준 구직상담 이용 비율(%)	26.0	37.5	32.4	33.9	0.0	39.8	26.6
응답 수(명)	20,911	4,557	4,622	4,511	4,551	1,758	40,910
서비스 총수 기준 취업알선 이용 비율(%)	34.9	33.0	21.7	37.2	45.4	26.2	34.3
응답 수(명)	20,911	4,557	4,622	4,511	4,551	1,758	40,910
서비스 총수 기준 고용센터 이용 비율(%)	27.7	31.0	20.3	41.8	45.4	0.0	29.6
서비스 총수(건)	20,911	4,557	4,622	4,511	4,551	1,758	40,910
서비스 총수 기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용 비율(%)	15.7	7.0	12.6	0.0	13.4	39.8	13.4
서비스 총수(건)	20,911	4,557	4,622	4,511	4,551	1,758	40,910
서비스 총수 기준 장애인복지관 이용 비율(%)	8.6	20.7	4.1	36.4	0.0	0.0	11.2
서비스 총수(건)	20,911	4,557	4,622	4,511	4,551	1,758	40,910
서비스 총수 기준 지방자치단체 이용 비율(%)	18.1	5.4	33.9	21.8	0.0	60.2	18.7
서비스 총수(건)	20,911	4,557	4,622	4,511	4,551	1,758	40,910
서비스 총수 기준 도움이 된 서비스 비율(%)	57.4	26.9	34.4	20.5	13.4	75.0	43.2
서비스 총수(건)	20,911	4,557	4,622	4,511	4,551	1,758	40,910
서비스 총수 기준 애로사항이 있는 비율(%)	63.6	79.3	80.1	63.6	69.8	9.0	65.6
서비스 총수(건)	20,911	4,557	4,622	4,511	4,551	1,758	40,910
최근 8년간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	19.9	21.5	15.5	17.4	23.6	15.3	19.5
응답 수(명)	1,207,366	216,704	225,509	213,696	232,940	112,100	2,208,315
향후 1년 내 고용서비스 희망 비율(%)	6.5	6.4	4.5	5.1	7.5	2.2	6.1
응답 수(명)	1,207,366	216,704	225,509	213,696	232,940	112,100	2,208,315

- 주 1) '서비스 이용 비율', '기관 이용 비율'은 응답자가 받은 서비스 각각에 대해 복수 개의 이용기관을 파악하여, 한 종류의 서비스를 여러 개의 기관에서 받은 경우를 별도로 산정함
- 2) '도움이 된 서비스 비율'은 응답자가 받은 복수개의 서비스 각각에 대해 취업(또는 취업유지)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파악하였으며, 한 종류의 서비스를 여러 개의 기관에서 받은 경우를 별도로 산정함
- 3) '애로사항이 있는 서비스 비율'은 응답자가 받은 복수개의 서비스 각각에 대해 애로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였으며, 한 종류의 서비스를 여러 개의 기관에서 받은 경우를 별도로 산정함
- 4) '최근 8년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은 1차 조사 시 파악한 과거 3년간의 고용서비스 경험과 지난조사 이후 새로 경험한 고용서비스를 모두 고려하여 최근 8년간 고용서비스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의미함

제4절 직업능력개발

1. 학교 직업능력개발 경험

학창시절 학교에서 제공한 직업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경험한 비율은 9.4%, 현장실습이나 인턴십 프로그램을 경험한 비율은 7.3%,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비율은 7.9%로 나타났다. 직업교육훈련이나 아르바이트의 경험비율은 실업자가 취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현장실습/인턴십의 경우에는 취업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5-4-1〉 학창시절 직업능력개발 경험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명)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학교 제공 직업교육훈련 경험 있음	9.4	9.8	5.1	9.0
학교 제공 현장실습/인턴십 경험 있음	7.3	9.0	1.7	5.3
아르바이트 경험 있음	7.9	9.6	13.7	5.4
전 체	-	-	-	-
추정 수	846,858	468,195	22,000	356,663

주: '학창시절 직업능력개발 경험'은 1차 조사 시 무학이 아닌 1958년 이후 출생자를 대상으로 파악한 과거 학창시절 직업능력개발 경험과 이후 고등학교 이상 재학/휴학 유경험자가 새로 경험한 학창시절 직업능력개발 경험을 모두 고려하여 장애인 개인이 학창시절 직업능력개발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의미함

2. 현장실습/인턴십 경험

현장실습이나 인턴십 프로그램(학교 제공 제외)에 참여한 비율은 3.1%로 나타났으며, 실업자(5.4%)가 취업자(7.3%)나 비경제활동인구(1.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4-2〉 현장실습이나 인턴십 경험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명)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현장실습/인턴십 경험 있음	3.1	5.4	7.3	1.3
현장실습/인턴십 경험 없음	96.9	94.6	92.7	98.7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208,315	888,578	38,465	1,281,272

주: '현장실습/인턴십 경험'은 1차 조사 시 파악한 과거 현장실습/인턴십 경험과 이후 새로 경험한 현장실습/인턴십을 모두 고려하여 장애인 개인이 현장실습/인턴십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의미함

3. 공공/민간기관 직업능력개발 경험

1차 조사 시 응답받은 과거 직업교육훈련 경험과 지난조사 이후의 경험을 합산하여 공공기관이나 학원 등의 사설 기관에서 직업기술이나 자격증 획득, 시험 준비, 어학 등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장애인은 전체의 8.2%이며, 그 비율은 실업자가 13.7%로 취업자(12.0%)나 비경제활동인구(5.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5-4-3〉 공공/민간기관 직업능력개발 경험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명)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경험 있음	8.2	12.0	13.7	5.5
경험 없음	91.8	88.0	86.3	94.5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208,315	888,578	38,465	1,281,272

주: '직업능력개발 경험'은 1차 조사 시 파악한 과거 직업교육훈련 경험과 이후 새로 경험한 직업교육훈련을 모두 고려하여 장애인 개인이 직업교육훈련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의미함

현재까지 경험한 직업교육훈련 중 가장 기간이 길었던(또는 최근) 직업교육훈련에 대해 질문하였다. 직업교육훈련기간을 살펴보면 전체의 29.8%가 3개월 미만으로 실업자(44.9%), 비경제활동인구(31.8%), 취업자(27.8%)순이며, 6개월 미만은 58.2%, 1년 이상인 경우는 17.7%로 나타났다.

〈표 5-4-4〉 직업교육훈련 기간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명)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1개월 미만	7.5	9.2	15.1	4.3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22.3	18.6	29.8	27.5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8.4	25.6	39.0	31.8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24.1	27.0	9.7	20.7
12개월 이상	17.7	19.6	6.3	15.7
모름/응답거절	0.0	0.0	0.0	0.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181,253	106,316	5,268	69,669

주 1) 공공기관/민간기관 직업교육훈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2) 1차 조사 시에는 가장 최근 경험한 직업교육훈련의 세부 내용에 대해 질문하였고 이후에는 교육훈련 기간이 가장 길었던 직업교육훈련에 대해 질문함

훈련분야로는 '컴퓨터·정보·통신(20.4%)', '서비스(19.5%)', '기계·장비(13.4%)'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취업자의 경우 '서비스(20.1%)', '컴퓨터·정보·통신(17.4%)', '기계·장비(13.4%)' 등의 순이며, 실업자는 '예술 및 체육 분야(30.4%)', '기계/장비 분야(24.5%)', '공무원, 고시 준비(11.9%)', 비경제활동인구는 '컴퓨터·정보·통신(25.7%)', '서비스(19.6%)', '기계·장비(12.5%)' 순으로 나타났다.

〈표 5-4-5〉 직업교육훈련 분야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명)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농림어업, 광업 분야	4.5	6.5	0.0	1.9
섬유 분야	2.1	2.0	0.0	2.6
화학제품 및 요업 분야	0.3	0.2	0.0	0.4
금속 분야	0.8	0.5	0.0	1.2
기계/장비 분야	13.4	13.4	24.5	12.5
건설 분야	4.3	6.8	0.0	0.9
전기/전자 분야	5.4	6.5	6.3	3.5
컴퓨터/정보/통신 분야	20.4	17.4	10.0	25.7
서비스 분야	19.5	20.1	8.3	19.6
업무관리 분야	3.0	3.6	0.0	2.3
의료 분야	6.4	6.9	8.6	5.4
운송장비 제조 분야	4.6	4.2	0.0	5.4
산업응용 분야	2.0	1.9	0.0	2.2
공예 분야	2.4	1.3	0.0	4.3
금융/보험 및 환경 분야	0.4	0.0	0.0	1.1
공무원, 고시 준비	2.8	2.7	11.9	2.2
예술 및 체육 분야	2.1	0.7	30.4	2.1
어학 분야	1.9	2.3	0.0	1.5
기타	3.5	3.0	0.0	4.5
모름/응답거절	0.3	0.0	0.0	0.7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181,710	106,315	5,268	70,126

주 1) 공공기관/민간기관 직업교육훈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2) 1차 조사 시에는 가장 최근 경험한 직업교육훈련의 세부 내용에 대해 질문하였고 이후에는 교육훈련 기간이 가장 길었던 직업교육훈련에 대해 질문함

직업교육훈련의 지원주체는 '정부지원훈련' 49.1%, '개인 선택의 교육훈련' 42.9%로 나타났으며, 실업자의 경우 '개인 선택의 교육훈련' 비율(51.3%)이 취업자(41.5%)나 비경제활동인구(44.4%)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5-4-6〉 직업교육훈련 지원주체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명)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회사가 시행하는 업무능력 향상 훈련	4.5	5.2	0.0	3.9
정부지원훈련	49.1	50.0	40.4	48.4
개인 선택의 교육훈련	42.9	41.5	51.3	44.4
기타	3.5	3.3	8.3	3.3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181,710	106,315	5,268	70,126

주 1) 공공기관/민간기관 직업교육훈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2) 1차 조사 시에는 가장 최근 경험한 직업교육훈련의 세부 내용에 대해 질문하였고 이후에는 교육훈련 기간이 가장 길었던 직업교육훈련에 대해 질문함

직업교육훈련 실시기관은 '사설학원'이 35.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공공직업훈련기관' 26.6%, '직업훈련법인' 17.3% 등의 순이며, 실업자의 경우 취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에 적게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7〉 직업교육훈련 실시기관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명)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공공직업훈련기관	26.6	28.9	0.0	25.2
사설학원	35.5	32.6	38.2	39.9
직업훈련법인	17.3	17.6	43.1	14.8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의 훈련기관	2.2	3.2	0.0	0.9
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기관	2.1	3.0	0.0	1.0
협회나 단체, 연구소 등	1.6	1.6	6.8	1.2
복지관, 읍면동사무소, 구청 등	9.1	7.3	0.0	12.4
통신교육기관	0.5	0.4	0.0	0.6
기타	5.1	5.5	11.8	3.9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181,710	106,315	5,268	70,126

주 1) 공공기관/민간기관 직업교육훈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2) 1차 조사 시에는 가장 최근 경험한 직업교육훈련의 세부 내용에 대해 질문하였고 이후에는 교육훈련 기간이 가장 길었던 직업교육훈련에 대해 질문함

훈련목적은 '(재)취업을 위해'가 47.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자격증 취득을 위

해'가 20.5%, '미래를 위한 준비' 12.3%로 나타났다.

〈표 5-4-8〉 직업교육훈련 참여목적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명)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창업을 위해	6.9	6.7	20.5	6.1
(재)취업을 위해	47.9	47.7	37.2	49.2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10.7	13.5	0.0	7.3
자격증 취득을 위해	20.5	21.2	3.5	20.7
직장의 요구로 인해	0.5	0.5	0.0	0.5
미래를 위한 준비	12.3	9.8	38.8	14.0
기타	1.2	0.7	0.0	2.1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181,710	106,315	5,268	70,126

주 1) 공공기관/민간기관 직업교육훈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2) 1차 조사 시에는 가장 최근 경험한 직업교육훈련의 세부 내용에 대해 질문하였고 이후에는 교육훈련 기간이 가장 길었던 직업교육훈련에 대해 질문함

훈련 참여 시 본인부담액이 없는 경우가 51.4%였으며, 50만원 이상인 비율은 11.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9〉 직업교육훈련 본인부담액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명)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없음	51.4	52.2	12.7	53.2
10만원 미만	16.3	13.0	40.8	19.4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13.8	12.9	14.5	15.1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6.9	7.6	11.5	5.3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8.1	10.3	8.6	4.7
100만원 이상	3.4	3.9	11.9	1.9
모름/응답거절	0.1	0.0	0.0	0.3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181,710	106,315	5,268	70,126

주 1) 공공기관/민간기관 직업교육훈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2) 1차 조사 시에는 가장 최근 경험한 직업교육훈련의 세부 내용에 대해 질문하였고 이후에는 교육훈련 기간이 가장 길었던 직업교육훈련에 대해 질문함

직업교육훈련에 대해 어느 정도 참여한 비율은 89.0%인 반면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62.5%로 나타났다. 실업자는 직업교육훈련에 참가한 비율이 취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훈련 도움 비율도 높았다.

〈표 5-4-10〉 직업교육훈련 참여정도, 도움정도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명)

변 수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참여정도	참여하지 않음	6.0	6.5	0.0	5.8
	보통	5.0	5.0	11.9	4.4
	참여함	89.0	88.5	88.1	89.8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181,710	106,315	5,268	70,126
도움정도	도움되지 않음	27.3	22.5	27.7	34.5
	보통	10.2	10.1	15.1	10.1
	도움됨	62.5	67.4	57.2	55.4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181,710	106,315	5,268	70,126

주 1) 공공기관/민간기관 직업교육훈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2) 1차 조사 시에는 가장 최근 경험한 직업교육훈련의 세부 내용에 대해 질문하였고 이후에는 교육훈련 기간이 가장 길었던 직업교육훈련에 대해 질문함

교육훈련의 부족한 점(1순위)으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부족(14.2%)', '기타(18.5%)',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특별히 없음'은 41.0%로 나타났다.

〈표 5-4-11〉 첫 번째 직업교육 부족했던 점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명)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제공 부족	4.4	0.0	21.0	0.0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부족	19.7	24.2	0.0	25.5
비용지원 미흡	16.5	0.0	79.0	0.0
기타	18.5	19.3	0.0	27.8
특별히 없음	41.0	56.5	0.0	46.7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4,247	1,728	885	1,634

〈표 5-4-12〉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명)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잘 알지 못해서(기관, 내용 등)	4.5	5.5	12.2	3.6
필요하지 않아서	44.7	53.9	21.3	39.3
필요하나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3.3	3.9	30.3	2.1
받고 싶은 교육이나 훈련프로그램이 없어서	0.8	0.9	1.8	0.6
교육이나 훈련내용이 어려울 것 같아서	0.3	0.2	1.8	0.3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0.1	0.1	2.9	0.0
장애로 인해 제대로 받기 어려워서	16.6	4.8	12.1	24.4
개인적 사유로 인해	1.6	0.5	0.0	2.3
기타	0.1	0.1	0.0	0.1
특별히 없음	28.1	30.1	17.7	27.1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026,604	782,261	33,197	1,211,146
장애로 인함	43.7	13.5	16.8	63.2
장애로 인한 것이 아님	56.3	86.5	83.2	36.8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1,456,810	546,570	27,332	882,908

주 1) 공공기관/민간기관 직업교육훈련 경험이 전혀 없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2) 장애 기인 여부는 '특별히 없음' 응답자를 제외하고 질문함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필요하지 않아서' 44.7%, '장애로 인해 제대로 받기 어려워서' 16.6% 순이며, '특별히 없음'은 28.1%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유가 장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43.7%가 장애로 인한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4. 향후 직업능력개발 희망

향후 1년 이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전체의 2.1%이며, 취업자 2.5%, 실업자 13.2%, 비경제활동인구 1.5%로 실업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5-4-13〉 향후 1년 이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 희망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명)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향후 1년 이내 참여 희망	2.1	2.5	13.2	1.5
향후 1년 이내 참여 희망하지 않음	97.9	97.5	86.8	98.5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208,315	888,578	38,465	1,281,272

향후 1년 이내에 직업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이유로는 '(재)취업을 위해'가 42.0%로 가장 많았고, '미래를 위한 준비' 23.4%,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20.0% 순이며, 취업자는 '업무능력향상을 위해'가 39.0%로 가장 높은 반면, 실업자는 '미래를 위한 준비'가 52.5% 비경제활동인구는 '(재)취업을 위해'가 6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5-4-14〉 향후 1년 이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 희망 이유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명)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창업을 위해	12.4	20.8	0.0	5.8
(재)취업을 위해	42.0	18.7	47.5	67.7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20.0	39.0	0.0	3.1
자격증 취득을 위해	2.2	1.9	0.0	3.3
승진을 위해	0.0	0.0	0.0	0.0
미래를 위한 준비	23.4	19.6	52.5	20.1
기타	0.0	0.0	0.0	0.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46,964	22,563	5,061	19,340

주: '참여 희망 이유'는 참여 희망자에게 질문함

향후 1년 이내 희망하는 직업교육훈련 1순위 분야로 '컴퓨터·정보·통신'이 33.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비스(14.8%)', '농림어업, 광업분야(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4-15〉 향후 1년 내 희망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종류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명)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농림어업, 광업분야	9.3	13.9	0.0	6.4
섬유분야	1.1	2.3	0.0	0.0
화학제품 및 요업분야	1.8	3.8	0.0	0.0
금속분야	5.6	0.0	38.9	3.3
기계/장비 분야	6.3	2.7	7.8	10.1
건설분야	2.5	5.1	0.0	0.0
전기/전자 분야	2.4	2.8	0.0	2.5
컴퓨터/정보/통신분야	33.1	34.4	33.3	31.6
서비스 분야	14.8	7.3	7.5	25.4
업무관리분야	2.9	4.7	0.0	1.4
의료분야	2.9	3.3	12.6	0.0
공예분야	2.0	1.9	0.0	2.5
금융/보험 및 환경 분야	4.0	0.0	0.0	9.6
예술 및 체육분야	2.2	3.7	0.0	1.0
기타	9.2	14	0.0	6.1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46,964	22,563	5,062	19,341

주: '참여 희망 분야'는 참여 희망자에게 질문함

5. 주요 변수별 직업능력개발 특성 비교

〈표 5-4-16〉 변수별 직업능력개발 특성 비교 - 성별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남성	여성	전 체
학창시절 학교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	10.2	7.6	9.4
응답 수(명)	583,367	263,491	846,858
학창시절 학교 현장실습/인턴십 경험 비율(%)	7.6	6.6	7.3
응답 수(명)	583,367	263,491	846,858
학창시절 아르바이트 경험 비율(%)	9.5	4.5	7.9
응답 수(명)	583,367	263,491	846,858
공공/민간기관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	9.6	6.2	8.2
응답 수(명)	1,315,335	892,980	2,208,315
직업교육훈련이 도움 된 비율(%)	60.9	66.0	62.5
응답 수(명)	126,782	54,928	181,710
향후 1년 내 직업교육훈련 참여 희망 비율(%)	2.4	1.7	2.1
응답 수(명)	1,315,335	892,980	2,208,315

- 주 1) '학창시절 직업능력개발 경험' 관련은 1차 조사 시 무학이 아닌 1958년 이후 출생자를 대상으로 파악한 과거 경험과 이후 고등학교 이상 재학/휴학 유경험자가 새로 경험한 학창시절 직업능력개발 경험을 모두 고려하여 학창시절 직업능력개발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의미함
- 2) '공공/민간기관 직업능력개발 경험'은 1차 조사 시 파악한 과거 경험과 이후 새로 경험한 직업교육훈련을 모두 고려하여 장애인 개인이 직업교육훈련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의미함
- 3) '도움 된 비율'은 1차 조사 시에는 가장 최근 경험한 훈련을, 이후에는 훈련기간이 가장 길었던 교육훈련에 대해 공공기관/민간기관 직업교육훈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표 5-4-17〉 변수별 직업능력개발 특성 비교 - 연령별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21~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81세	전 체
학창시절 학교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	29.0	13.0	8.6	4.8	9.8	9.4
응답 수(명)	62,869	148,013	300,440	333,698	1,838	846,858
학창시절 학교 현장실습/인턴십 경험 비율(%)	20.7	8.7	5.9	5.3	9.8	7.3
응답 수(명)	62,869	148,013	300,440	333,698	1,838	846,858
학창시절 아르바이트 경험 비율(%)	11.9	13.1	9.7	3.3	0.0	7.9
응답 수(명)	62,869	148,013	300,440	333,698	1,838	846,858
공공/민간기관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	25.1	16.4	15.3	8.5	4.1	8.2
응답 수(명)	63,378	155,057	316,582	525,005	1,148,293	2,208,315
직업교육훈련이 도움 된 비율(%)	48.0	66.4	61.8	63.4	65.0	62.5
응답 수(명)	15,913	25,431	48,355	44,516	47,495	181,710
향후 1년 내 직업교육훈련 참여 희망 비율(%)	5.2	5.4	3.9	2.5	0.8	2.1
응답 수(명)	63,378	155,057	316,582	525,005	1,148,293	2,208,315

- 주 1) '학창시절 직업능력개발 경험' 관련은 1차 조사 시 무학이 아닌 1958년 이후 출생자를 대상으로 파악한 과거 경험과 이후 고등학교 이상 재학/휴학 유경험자가 새로 경험한 학창시절 직업능력개발 경험을 모두 고려하여 학창시절 직업능력개발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의미함
- 2) '공공/민간기관 직업능력개발 경험'은 1차 조사 시 파악한 과거 경험과 이후 새로 경험한 직업교육훈련을 모두 고려하여 장애인 개인이 직업교육훈련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의미함
- 3) '도움 된 비율'은 1차 조사 시에는 가장 최근 경험한 훈련을, 이후에는 훈련기간이 가장 길었던 교육훈련에 대해 공공기관/민간기관 직업교육훈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표 5-4-18〉 변수별 직업능력개발 특성 비교 - 장애정도별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중증	경증	전 체
학창시절 학교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	11.4	7.4	9.4
응답 수(명)	412,897	433,961	846,858
학창시절 학교 현장실습/인턴십 경험 비율(%)	6.3	8.2	7.3
응답 수(명)	412,897	433,961	846,858
학창시절 아르바이트 경험 비율(%)	5.6	10.2	7.9
응답 수(명)	412,897	433,961	846,858
공공/민간기관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	8.9	7.8	8.2
응답 수(명)	906,596	1,301,719	2,208,315
직업교육훈련이 도움 된 비율(%)	60.5	64.0	62.5
응답 수(명)	80,432	101,278	181,710
향후 1년 내 직업교육훈련 참여 희망 비율(%)	2.7	1.7	2.1
응답 수(명)	906,596	1,301,719	2,208,315

- 주 1) '학창시절 직업능력개발 경험' 관련은 1차 조사 시 무학이 아닌 1958년 이후 출생자를 대상으로 파악한 과거 경험과 이후 고등학교 이상 재학/휴학 유경험자가 새로 경험한 학창시절 직업능력개발 경험을 모두 고려하여 학창시절 직업능력개발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의미함
- 2) '공공/민간기관 직업능력개발 경험'은 1차 조사 시 파악한 과거 경험과 이후 새로 경험한 직업교육훈련을 모두 고려하여 장애인 개인이 직업교육훈련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의미함
- 3) '도움 된 비율'은 1차 조사 시에는 가장 최근 경험한 훈련을, 이후에는 훈련기간이 가장 길었던 교육훈련에 대해 공공기관/민간기관 직업교육훈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표 5-4-19〉 변수별 직업능력개발 특성 비교 - 장애유형별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신체외부장애		감각장애		정신적	신체 내부	전 체
	지체	지체 제외	시각	시각 제외			
학창시절 학교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	8.0	8.4	10.4	10.7	14.7	2.6	9.4
응답 수(명)	433,353	65,394	74,069	70,470	156,164	47,408	846,858
학창시절 학교 현장실습/인턴십 경험 비율(%)	7.5	3.2	6.3	8.1	8.7	6.6	7.3
응답 수(명)	433,353	65,394	74,069	70,470	156,164	47,408	846,858
학창시절 아르바이트 경험 비율(%)	9.6	9.2	14.5	4.3	2.7	3.6	7.9
응답 수(명)	433,353	65,394	74,069	70,470	156,165	47,408	846,858
공공/민간기관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	8.4	7.2	8.8	7.7	9.2	6.7	8.2
응답 수(명)	1,207,366	216,704	225,509	213,696	232,940	112,100	2,208,315
직업교육훈련이 도움 된 비율(%)	64.1	62.0	68.3	67.6	48.5	54.3	62.5
응답 수(명)	101,098	15,496	19,784	16,465	21,315	7,552	181,710
향후 1년 내 직업교육훈련 참여 희망 비율(%)	2.0	3.5	1.4	1.9	3.1	0.5	2.1
응답 수(명)	1,207,366	216,704	225,509	213,696	232,940	112,100	2,208,315

- 주 1) '학창시절 직업능력개발 경험' 관련은 1차 조사 시 무학이 아닌 1958년 이후 출생자를 대상으로 파악한 과거 경험과 이후 고등학교 이상 재학/휴학 유경험자가 새로 경험한 학창시절 직업능력개발 경험을 모두 고려하여 학창시절 직업능력개발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의미함
- 2) '공공/민간기관 직업능력개발 경험'은 1차 조사 시 파악한 과거 경험과 이후 새로 경험한 직업교육훈련을 모두 고려하여 장애인 개인이 직업교육훈련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의미함
- 3) '도움 된 비율'은 1차 조사 시에는 가장 최근 경험한 훈련을, 이후에는 훈련기간이 가장 길었던 교육훈련에 대해 공공기관/민간기관 직업교육훈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제5절 일상생활과 삶의 질

1. 건강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66.2%로 나타났다.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 일을 하는데 있어 지장을 주는지에 대해 확인한 결과, '지장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85.1%에 이르고 있다. 지난조사 대비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좋아진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3%에 그치고 '나빠진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3.4%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상태별로 살펴 보면, 취업자의 49.5%, 실업자의 47.0%, 비경제활동인구의 78.4%가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 일을 하는 데 지장을 준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64.3%, 50.9%, 94.9%로 나타났다. 특히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지난조사 대비 건강상태가 더 나빠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43.3%에 이르고 있다.

〈표 5-5-1〉 건강상태 및 일 지장 여부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명)

변 수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현재 건강상태	건강 좋지 않음	66.2	49.5	47.0	78.4
	지장 없음	14.9	35.7	49.1	5.1
	일 지장 여부	지장 있음	64.3	50.9	94.9
	소 계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1,462,430	439,930	18,074	1,004,426
	건강 좋음	33.8	50.5	53.0	21.6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지난조사 대비 건강상태	추정 수	2,208,315	888,578	38,465	1,281,272
	더 좋아진 편임	2.3	2.6	8.2	1.9
	달라진 것이 없음	64.3	77.5	76.6	54.8
	더 나빠진 편임	33.4	19.9	15.2	43.3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208,315	888,578	38,465	1,281,272

현재 장애 이외의 만성적인 질병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65.8%이며 경제활동상태별로는 취업자와 실업자가 각각 50.8%, 53.0%인데 반해 비경제활동인구는 76.7%가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2〉 만성질환보유 여부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명)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만성질환 보유	65.8	50.8	53.0	76.7
만성질환 미보유	34.2	49.2	47.0	23.3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208,315	888,578	38,465	1,281,272

재활을 위해 하는 운동을 포함하여 평소 운동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5.3%이며, 이들의 하루 평균 운동시간은 69.9분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상태별 운동비율을 살펴보면, 취업자 39.7%, 실업자 70.3%, 비경제활동인구 48.3%로 실업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들의 일평균 운동시간은 각각 71.4분, 80.7분, 68.6분으로 나타났다.

〈표 5-5-3〉 운동여부 및 하루 평균 운동시간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명, 분)

변 수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운동여부	운동함	45.3	39.7	70.3	48.3
	1시간 미만	23.5	18.3	9.3	27.1
	1~2시간 미만	58.2	65.1	69.1	53.8
	2시간 이상	18.3	16.6	21.7	19.1
	하루 평균 운동시간 소 계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999,271	352,909	27,038	619,324
	평 균	69.9	71.4	80.7	68.6
	표준오차	0.042	0.072	0.318	0.052
	운동하지 않음	54.7	60.3	29.7	51.7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208,315	888,578	38,465	1,281,272

하루 평균 수면시간이 6시간 미만인 경우는 전체의 16.5%로, 경제활동상태별로는 취업자 9.8%, 실업자 10.7%, 비경제활동인구 21.2%로 나타났다. 전체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6.8시간이며, 취업자 6.8시간, 실업자 6.9시간, 비경제활동인구 6.8시간으로 경제활동상태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4〉 하루 평균 수면시간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명, 시간)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6시간 미만	16.5	9.8	10.7	21.2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51.5	62.1	56.3	43.9
8시간 이상	32.1	28.0	33.1	34.8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208,315	888,578	38,465	1,281,272
평 균	6.8	6.8	6.9	6.8
표준오차	0.001	0.001	0.006	0.001

주: 모름/응답거절은 분석에서 제외함

2. 일상생활 도움 및 외출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42.6%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실제 도움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 있는 비율은 69.5%이다. 경제활동상태별로 살펴보면, 취업자 19.0%, 실업자 21.3%, 비경제활동인구 59.7%가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각각 63.6%, 80.3%, 70.7%가 도움제공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5〉 일상생활 도움 필요 여부 및 도움제공자 유무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명)

변 수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도움필요 여부	필요함	42.6	19.0	21.3	59.7
	도움 제공자	있음	63.6	80.3	70.7
		없음	36.4	19.7	29.3
	유무	소 계	100.0	100.0	100.0
	추정 수	941,778	168,910	8,193	764,675
	필요하지 않음	57.4	81.0	78.7	40.3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208,315	888,578	38,465	1,281,272

일상생활에서 도움 필요 여부와는 상관없이 도움제공자가 있는 경우 주 도움제공자는 배우자가 46.0%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 17.8%, 부모 이외의 가족 1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료로 가정봉사원이나 간병인, 활동보조인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는 12.0%로 나타났다.

〈표 5-5-6〉 일상생활 도움 주 제공자(1순위)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명)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배우자	46.0	65.1	42.3	41.3
부모	17.8	20.9	47.4	16.7
부모 이외의 가족	14.4	10.8	6.1	15.4
친척	1.0	0.7	0.0	1.1
친구 및 이웃	0.5	0.6	0.0	0.5
유료 가정봉사원	5.8	0.0	0.0	7.3
유료 간병인	0.7	0.0	0.0	0.8
유료 활동보조인	5.5	1.4	4.2	6.6
무료 가정봉사원	2.6	0.5	0.0	3.1
무료 간병인	1.1	0.0	0.0	1.4
무료 활동보조인	3.2	0.0	0.0	4.0
기타	1.4	0.0	0.0	1.7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724,003	143,498	7,384	573,121

주: 일상생활 도움제공자가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하루 평균 도움 받는 시간은 166.3분으로 약 2시간 46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상태별로 일평균 도움시간을 살펴보면, 비경제활동인구(181.1분), 취업자(111.5분), 실업자(84.9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5-7〉 하루 평균 도움 받는 시간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명, 분)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1시간 미만	10.2	18.0	40.3	7.9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9.9	33.2	11.7	29.3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36.7	38.5	43.9	36.1
4시간 이상	23.3	10.3	4.2	26.7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724,003	143,498	7,384	573,121
평 균	166.3	111.5	84.9	181.1
표준오차	0.196	0.281	0.903	0.234

주: 일상생활 도움제공자가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일상생활에서 주로 도움 받는 분야는 '가사 및 육아' 41.6%, '이동 및 외출' 19.6%, '일상생활 동작' 1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5-8〉 주로 도움 받는 분야(1순위)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명)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일상생활 동작	15.7	7.3	0.0	18.1
의사소통	8.4	13.5	31.9	6.9
이동 및 외출	19.6	13.9	24.4	20.9
건강관리	11.2	8.2	12.7	11.9
학습활동	0.2	0.0	0.0	0.3
금전관리	2.5	8.3	0.0	1.1
사회참여	0.5	1.8	0.0	0.2
가사 및 육아	41.6	47.0	31	40.4
기타	0.2	0.0	0.0	0.3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724,003	143,498	7,384	573,121

주: 일상생활 도움제공자가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외출 시 이동수단은 주로 '일반버스' 34.7%, '자가용(일반)' 21.3%, '지하철/전철' 9.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5-9〉 외출 시 이동수단(1순위)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명)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일반버스	34.7	31.7	54.5	36.2
일반택시	7.8	2.3	0.0	11.9
지하철/전철	9.8	9.1	13.0	10.2
장애인 콜택시	2.8	0.4	0.0	4.6
공공기관버스, 셔틀형 복지버스	0.8	0.5	0.0	1.1
이륜차	5.1	8.2	1.6	3.1
자가용(일반)	21.3	33.1	21.4	13.0
자가용(장애인용 개조)	1.7	2.6	0.0	1.2
전동스쿠터	2.3	1.1	0.0	3.2
전동휠체어	3.2	1.4	0.0	4.6
수동휠체어	1.2	0.1	0.0	2.0
도보	6.4	4.1	7.9	7.9
작업용 차량	2.2	5.2	0.8	0.2
기타	0.6	0.3	0.9	0.8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208,315	888,578	38,465	1,281,272

주: 1순위에 대해서는 '없음'을 허용하지 않음

외출 시 장애로 인해 겪는 주된 어려움으로 '오르고, 내리기, 걷기의 어려움'을 47.7%의 장애인이 선택하여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장애인에 대한 배려부족 및 차별' 3.9%, '장애인 편의시설 부재' 3.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별히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은 38.9%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활동상태별로 살펴보면, 취업자(57.9%)나 실업자(60.7%)에 비해 비경제활동인구(25.1%)의 경우 외출 시 장애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10〉 외출 시 장애로 인해 겪는 어려움(1순위)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명)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오르고, 내리기, 걷기의 어려움	47.7	33.8	24.6	58.0
장애인 편의시설 부재	3.4	2.7	4.0	3.8
장애인에 대한 배려부족 및 차별	3.9	3.4	3.5	4.2
장애인 전용 교통수단의 부족	1.9	0.8	0.7	2.7
장애인 교통수단 보유의 어려움	0.6	0.3	0.0	0.8
외출도우미의 부재	3.5	0.9	6.5	5.2
기타	0.2	0.2	0.0	0.1
특별히 없음	38.9	57.9	60.7	25.1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208,315	888,578	38,465	1,281,272

3. 하루일과 및 여가

하루일과 중 수면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응답한 활동은 '근로(39.0%)'이며 그 다음으로 '휴식(18.6%)', '취미여가활동(16.4%)', '가사(1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자의 경우 '근로'가 96.9%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구직 및 취업준비'의 경우 취업자 0.1%, 실업자 26.6%, 비경제활동인구 0.2%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여가시간 활용방법으로 절반이 넘는 62.5%가 'TV 시청'을 1순위로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여가활동의 폭이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활동상태별로 살펴보면, 실업자의 경우 '컴퓨터 또는 인터넷 활용'이 10.3%로 취업자(5.2%)나 비경제활동인구(2.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5-11〉 하루일과 중 주로 하는 활동(1순위)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명)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근로	39.0	96.9	0.0	0.0
구직 및 취업준비	0.6	0.1	26.6	0.2
건강관리(운동, 치료, 목욕 등)	5.9	0.0	4.5	10.0
취미여가활동(TV시청, 여행, 독서 등)	16.4	0.7	20	27.1
사회참여(만남, 모임참석 등)	2.2	0.3	5.5	3.4
가사	15.2	1.2	20.4	24.8
육아	0.3	0.1	1.4	0.5
휴식	18.6	0.6	18.8	31.1
학교, 학원 등 통학(취업 관련은 제외)	0.3	0.1	1.7	0.4
독학(취업 관련은 제외)	0.1	0.0	0.0	0.2
가족 관련 일(쇼핑, 돌봄 등)	0.6	0.0	0.0	1.0
기타	0.7	0.0	1.0	1.2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208,315	888,578	38,465	1,281,272

주: 1순위에 대해서는 '없음'을 허용하지 않음

〈표 5-5-12〉 여가시간 활용(1순위)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명)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감상, 관람	0.4	0.6	0.0	0.3
TV 시청	62.5	59.8	38.4	65.2
라디오 청취	0.9	0.5	0.7	1.2
컴퓨터 또는 인터넷 활용	3.8	5.2	10.3	2.6
승부놀이	0.2	0.2	0.0	0.3
창작적 취미	0.4	0.2	2.2	0.5
독서, 신문이나 잡지 보기	1.1	1.6	4.6	0.7
스포츠	0.6	1.1	0.0	0.2
산책, 산보	3.2	2.6	3.6	3.6
학습활동	0.1	0.3	0.0	0.0
사회(자원)봉사 활동	0.1	0.1	0.0	0.1
여행	1.0	2.3	0.0	0.1
사교 일	4.3	5.8	7.7	3.2
가족관련 일	1.4	1.6	10.8	0.9
휴식	12.0	10.7	12.7	12.9
종교 활동	7.8	7.2	9.0	8.2
기타	0.1	0.1	0.0	0.1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208,315	888,578	38,465	1,281,272

주: 1순위에 대해서는 '없음'을 허용하지 않음

현재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비율은 전체의 41.8%이며, 취업자의 37.4%, 실업자의 45.3%, 비경제활동인구의 44.8%가 현재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취업자의 종교 보유 비율이 취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5-5-13〉 종교 유무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명)

변 수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종교 유무	종교 있음	41.8	37.4	45.3	44.8
	종교 없음	58.2	62.6	54.7	55.2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178,340	892,837	33,629	1,251,874

4. 흡연과 음주

평소에 담배를 피우는지를 살펴본 결과, 전체의 23.0%가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취업자의 경우 32.8%가 현재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업자는 36.9%, 비경제활동인구는 15.7%로 나타났다.

〈표 5-5-14〉 흡연 여부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명)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피우고 있음	23.0	32.8	36.9	15.7
피우지 않음	77.0	67.2	63.1	84.3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208,315	888,578	38,465	1,281,272

주: 모름/응답거절은 분석에서 제외함

전체의 63.7%가 평소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취업자 중에서 '평소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45.2%, 실업자는 53.7%, 비경제활동인구는 76.8%로 나타났다.

〈표 5-5-15〉 음주 여부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명)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마시고 있음	36.3	54.8	46.3	23.2
마시지 않음	63.7	45.2	53.7	76.8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208,315	888,578	38,465	1,281,272

주: 모름/응답거절은 분석에서 제외함

평소 술을 마시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얼마나 음주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38.3%가 '주 1~2회'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의 41.5%는 '주 1~2회', 실업자의 40.6%는 '월 2~3회', 비경제활동인구의 33.3%는 '주 1~2회' 평소 술을 마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16〉 평균 음주 횟수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명)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월 1회 이하	16.5	12.1	13.1	24.0
월 2~3회	26.4	25.1	40.6	27.7
주 1~2회	38.3	41.5	30.9	33.3
주 3~4회	13.0	15.0	9.8	9.9
거의 매일	5.8	6.3	5.6	5.1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802,377	486,893	17,799	297,685

주: 평소 음주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5. 양육 및 노후준비

가구에 양육이 필요한 만 7세 이하의 아이가 있는지에 대해 전체의 3.4%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가운데 71.5%가 본인이 양육을 담당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경제활동상태별로 살펴보면, 취업자의 5.1%가 양육이 필요한 아이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실업자는 9.7%, 비경제활동인구는 2.1%로 나타났으며, 아이의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비율은 각각 71.7%, 100.0%, 67.0%로 나타났다.

〈표 5-5-17〉 양육이 필요한 아이 유무 및 양육 담당 여부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명)

변 수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양육이 필요한 아이 유무	있음	3.4	5.1	9.7	2.1
	양육 담당 여부	담당하고 있음	71.5	71.7	100.0
		담당하지 않음	28.5	28.3	0.0
		소 계	100.0	100.0	100.0
	추정 수	75,753	45,435	3,723	26,595
	없음	96.6	94.9	90.3	97.9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208,315	888,578	38,465	1,281,272

가구에 양육이 필요한 아이가 있고 본인이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 양육이 취업에(또는 취업을 한다면) 지장을 주는지에 대해 전체의 28.0%가 지장을 준다고 응답하였다. 경제활동상태별로는 취업자의 9.1%, 비경제활동인구의 65.4%가 아이 양육이 취업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18〉 양육의 취업 지장 여부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명)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전혀 지장을 주지 않음	34.9	36.5	85.1	21.4
그다지 지장을 주지 않음	37.0	54.4	0.0	13.1
다소 지장을 줌	11.5	7.6	14.9	18.0
많은 지장을 줌	16.5	1.5	0.0	47.4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54,153	32,600	3,722	17,831

주: 가구에 양육이 필요한 아이가 있으며 본인이 양육을 담당하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만 30세 이상 장애인이 60세 이후의 노후를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의 19.3%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상태별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비율을 살펴보면, 취업자는 35.5%, 실업자는 19.1%, 비경제활동인구는 8.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19〉 노후 준비 여부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명)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준비하고 있음	19.3	35.5	19.1	8.2
준비하고 있지 않음	80.7	64.5	80.9	91.8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150,585	864,294	34,567	1,251,724

주: 만 30세 이상의 응답자에게 질문함

만 30세 이상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의 59.8%가 '국가운영 공적연금 가입 및 수령'의 방법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저축, 적금 등' 22.5%, '부동산 이용' 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5-20〉 노후 준비 방법(1순위) - 차수별

(단위: %, 명)

구 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저축, 적금 등	26.6	23.5	20.1	21.3	22.9	22.5
국가운영 공적연금 가입 및 수령	47.0	56.0	59.0	58.2	58.9	59.8
민간금융 개인연금 가입 및 수령	6.4	4.4	4.7	6.1	3.7	4.6
퇴직연금, 퇴직보험 가입 및 수령	6.3	4.5	3.8	3.0	2.0	2.2
주식, 펀드, 채권 등 운용	0.6	0.2	0.8	0.7	0.0	0.0
부동산 이용	5.4	5.9	5.0	5.2	9.0	6.3
저축성 보험 등 민간보험 가입 및 수령	7.3	5.5	6.4	5.6	3.4	4.3
기타	0.3	0.0	0.1	0.0	0.2	0.2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07,506	262,526	304,917	333,460	395,007	415,627

주 1) 조사 당시 만 30세 이상이며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2) 2차년도부터 조사되었음

현재 하고 있는 노후 준비가 충분한지에 대해 전체의 20.7%만이 충분하다고 응답하였다.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노후 준비가 충분하다는 비율이 36.9%로, 취업자(15.3%), 실업자(23.8%)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5-5-21〉 노후 준비 충분 정도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명)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전혀 충분하지 않음	14.1	16.0	0.0	9.2
충분하지 않음	65.2	68.8	76.2	53.9
충분함	20.3	15.0	23.8	36.0
매우 충분함	0.4	0.3	0.0	0.9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415,627	306,708	6,619	102,300

주: 조사 당시 만 30세 이상이며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6. 차별경험 및 만족도

본인의 장애로 인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응답받은 결과, 차별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일상생활'에서는 12.6%, '구직활동 및 취업준비'는 19.1%, '일자리'는 2.4%로 나타났다. 모든 세부항목에서 취업자의 차별경험 비율이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경제활동인구는 '일상생활'과 '구직활동 및 취업준비'에서 비율이 각각 18.3%, 33.9%로 높게 나타났다.

〈표 5-5-22〉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명)

변 수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일상생활	차별경험 없음	87.4	95.4	93.7	81.7
	차별경험 있음	12.6	4.6	63.0	18.3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208,083	888,578	38,465	1,281,040
구직활동 및 취업준비	차별경험 없음	80.9	89.9	77.9	66.1
	차별경험 있음	19.1	10.1	22.1	33.9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640,289	378,642	38,465	223,182
일자리	차별경험 없음	97.6	97.6	-	-
	차별경험 있음	2.4	2.4	-	-
	전 체	100.0	100.0	-	-
	추정 수	888,578	888,578	-	-

주: 모름/응답거절/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함

일상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불만족하는 비율이 전체의 20.2%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별 불만족 비율을 보면, ‘한달 수입(용돈)’ 56.4%, ‘건강상태’ 50.7%인 반면, 가족관계(7.4%)나 결혼생활(5.0%)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취업자(6.8%)에 비해 실업자(21.7%), 비경제활동인구(29.4%)의 불만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질문한 각 항목의 평균 점수를 구한 결과, 전반적인 일상생활 만족도는 2.94점으로 나타났다.

〈표 5-5-23〉 일상생활 만족도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5점 척도, 명)

변 수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가족관계	불만족 비율	7.4	3.2	6.3	10.6
	만족도 점수	3.42	3.59	3.38	3.29
	응답 수	2,048,956	856,994	36,306	1,155,656
친구관계	불만족 비율	12.8	2.8	2.3	20.5
	만족도 점수	3.25	3.53	3.34	3.03
	응답 수	2,075,176	872,436	36,266	1,166,474
살고 있는 곳	불만족 비율	9.0	5.4	4.8	11.6
	만족도 점수	3.32	3.45	3.34	3.23
	응답 수	2,208,084	888,578	38,465	1,281,041
건강상태	불만족 비율	50.7	30.1	21.3	65.8
	만족도 점수	2.53	2.96	3.17	2.21
	응답 수	2,208,083	888,578	38,465	1,281,040
한달 수입 (용돈)	불만족 비율	56.4	43.2	76.1	65.0
	만족도 점수	2.38	2.63	2.11	2.22
	응답 수	2,208,083	888,578	38,465	1,281,040
여가활동	불만족 비율	34.0	21.6	33.8	42.6
	만족도 점수	2.74	2.95	2.72	2.59
	응답 수	2,208,083	888,578	38,465	1,281,040
하고 있는 일	불만족 비율	10.8	10.8	-	-
	만족도 점수	3.18	3.18	-	-
	응답 수	888,578	888,578	-	-
결혼생활	불만족 비율	5.0	2.8	3.7	7.2
	만족도 점수	3.32	3.43	3.35	3.2
	응답 수	1,254,690	612,293	22,717	619,680
전반적 만족도	불만족 비율	20.2	6.8	21.7	29.4
	만족도 점수	2.94	3.20	2.95	2.76
	응답 수	2,208,083	888,578	38,465	1,281,040

- 주 1) 5점 Likert 척도로 질문하였으며 불만족 비율은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으로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임
 2) ‘가족관계’, ‘친구관계’에 대해 가족과 친구가 부재한 경우 ‘해당없음’ 처리하였으며, ‘결혼생활’은 유배우인 경우, ‘하고 있는 일’은 취업자인 경우에만 질문함
 3) 모름/응답거절/해당없음은 분석에서 제외함
 4) 크론바흐 알파값(α)=0.871

소득이나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할 때 주관적으로 느끼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해서 전체 장애인의 58.3%가 하층이라고 응답하였다.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취업자가 39.9%인데 반해 실업자 52.6%, 비경제활동인구 71.2%로 미취업상태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 5-5-24〉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명)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하층	58.3	39.9	52.6	71.2
중하층	36.3	52.1	43.9	25.0
중상층	5.3	7.8	3.4	3.6
상층	0.2	0.2	0.0	0.2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208,315	888,578	38,465	1,281,272

주: 모름/응답거절은 분석에서 제외함

7. 자아존중감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8개 문항(Rosenberg Self-Esteem Scales)으로 조사하여 자아존중감을 측정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전병제(1974)가 번역한 Rosenberg Self-Esteem Scales(RSES)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문항이며 신뢰도와 타당도가 매우 높고 총체적인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데 권장할만한 도구로 알려져 있다.

5차 조사에서는 10개 문항을 모두 사용하여 조사하였으나 7차 조사에서는 장애인의 응답 거부감을 완화하고자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3개 문항을 긍정적인 내용으로 변경하고, 2개 문항은 삭제하여 최종 8개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척도와 관련해서 RSES는 5점 척도지만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와 같이 4점 척도로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각 항목의 응답을 1~4점으로 점수화하여 평균 점수를 구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평균점수를 구한 결과, 전체 평균은 4점 만점에 2.28점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상태별로는 취업자 2.55점, 실업자 2.48점, 비경제활동인구 2.10점으로 취업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25〉 자아존중감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점)

변 수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중위수	2.00	3.00	3.00	2.00
	평 균	2.37	2.68	2.55	2.16
	표준오차	0.001	0.001	0.003	0.001
㉡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중위수	3.00	3.00	3.00	2.00
	평 균	2.52	2.67	2.53	2.41
	표준오차	0.000	0.001	0.003	0.001
㉢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할 수가 있다.	중위수	2.00	3.00	3.00	1.00
	평 균	2.07	2.61	2.62	1.68
	표준오차	0.001	0.001	0.004	0.001
㉣ 나는 자랑할 것이 있다.	중위수	2.00	2.00	2.00	2.00
	평 균	2.04	2.32	2.28	1.85
	표준오차	0.001	0.001	0.004	0.001
㉤ 나는 내 자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중위수	2.00	2.00	2.00	2.00
	평 균	2.13	2.43	2.34	1.91
	표준오차	0.001	0.001	0.004	0.001
㉥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중위수	2.00	3.00	3.00	2.00
	평 균	2.39	2.52	2.52	2.29
	표준오차	0.000	0.001	0.003	0.001
㉦ 나는 내 자신이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중위수	2.00	3.00	2.00	2.002
	평 균	2.29	2.51	2.36	2.13
	표준오차	0.001	0.001	0.005	0.001
㉧ 나는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중위수	2.00	3.00	3.00	2.00
	평 균	2.47	2.65	2.60	2.34
	표준오차	0.000	0.001	0.003	0.001
자아존중감(4점 척도)	중위수	2.25	2.63	2.5	2.00
	평 균	2.28	2.55	2.48	2.10
	표준오차	0.000	0.000	0.003	0.000

- 주 1)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질문하였음
 2)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 것임
 3) 모름/응답거절은 분석에서 제외함
 4) 크론바흐 알파값(α)=0.874

7. 주요 변수별 일상생활과 삶의 질 특성 비교

〈표 5-5-26〉 변수별 일상생활과 삶의 질 특성 비교 - 성별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남성	여성	전 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비율(%)	60.6	74.5	66.2
응답 수(명)	1,315,335	892,980	2,208,315
장애 이외 만성적 질병 있는 비율(%)	59.7	74.9	65.8
응답 수(명)	1,315,335	892,980	2,208,315
일상생활 도움 필요 비율(%)	35.9	52.6	42.6
응답 수(명)	1,315,335	892,980	2,208,315
도움제공자 있는 비율(%)	30.9	35.6	32.8
응답 수(명)	1,315,335	892,980	2,208,315
가족과의 관계 불만족 비율(%)	7.1	8.0	7.4
응답 수(명)	1,243,114	805,844	2,048,958
친구들과의 관계 불만족 비율(%)	11.8	14.2	12.8
응답 수(명)	1,248,710	826,466	2,075,176
살고 있는 곳 불만족 비율(%)	8.8	9.3	9.0
응답 수(명)	1,315,103	892,980	2,208,083
건강상태 불만족 비율(%)	43.9	60.7	50.7
응답 수(명)	1,315,103	892,980	2,208,083
한달 수입 불만족 비율(%)	53.7	60.4	56.4
응답 수(명)	1,315,103	892,980	2,208,083
여가활동 불만족 비율(%)	32.1	36.9	34.0
응답 수(명)	1,315,103	892,980	2,208,083
하고 있는 일 불만족 비율(%)	10.2	12.4	10.8
응답 수(명)	664,216	224,361	888,577
결혼생활 불만족 비율(%)	3.2	8.7	5.0
응답 수(명)	857,211	397,479	1,254,690
전반적 불만족 비율(%)	18.1	23.3	20.2
응답 수(명)	1,315,103	892,980	2,208,083
지위가 하층이라 생각하는 비율(%)	55.1	63.0	58.3
응답 수(명)	1,315,335	892,980	2,208,315

주: 불만족 비율의 경우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으로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이며, '가족관계', '친구관계'에 대해 가족과 친구가 부재한 경우 '해당 없음' 처리하였고, '결혼생활'은 유배우인 경우, '하고 있는 일'은 취업자인 경우에만 질문함

〈표 5-5-27〉 변수별 일상생활과 삶의 질 특성 비교 - 연령별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21~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81세	전 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비율(%)	21.2	37.4	42.5	62.5	80.8	66.2
응답 수(명)	63,378	155,057	316,582	525,005	1,148,293	2,208,315
장애 이외 만성적 질병 있는 비율(%)	17.0	23.1	40.3	61.3	83.4	65.8
응답 수(명)	63,378	155,057	316,582	525,005	1,148,293	2,208,315
일상생활 도움 필요 비율(%)	56.5	42.9	32.1	32.7	49.3	42.6
응답 수(명)	63,378	155,057	316,582	525,005	1,148,293	2,208,315
도움제공자 있는 비율(%)	53.4	39.0	27.4	24.9	35.9	32.8
응답 수(명)	63,378	155,057	316,582	525,005	1,148,293	2,208,315
가족과의 관계 불만족 비율(%)	3.9	4.2	6.5	6.9	8.6	7.4
응답 수(명)	63,378	154,712	300,878	483,232	1,046,757	2,048,957
친구들과의 관계 불만족 비율(%)	17.0	17.5	12.6	8.7	13.9	12.8
응답 수(명)	54,236	143,236	293,870	504,275	1,079,558	2,075,175
살고 있는 곳 불만족 비율(%)	9.8	7.3	10.2	8.6	9.0	9.0
응답 수(명)	63,378	155,057	316,582	525,006	1,148,060	2,208,083
건강상태 불만족 비율(%)	18.3	26.0	31.0	42.5	65.0	50.7
응답 수(명)	63,378	155,057	316,582	525,006	1,148,060	2,208,083
한달 수입 불만족 비율(%)	34.7	47.0	48.1	55.4	61.6	56.4
응답 수(명)	63,377	155,058	316,582	525,005	1,148,061	2,208,083
여가활동 불만족 비율(%)	19.8	31.3	26.7	29.0	39.5	34.0
응답 수(명)	63,377	155,058	316,582	525,005	1,148,061	2,208,083
하고 있는 일 불만족 비율(%)	1.8	3.5	10.6	9.9	14.2	10.8
응답 수(명)	27,536	77,679	177,577	280,848	324,937	888,577
결혼생활 불만족 비율(%)	100.0	1.4	4.3	5.3	5.0	5.0
응답 수(명)	851	38,571	164,436	322,436	728,395	1,254,689
전반적 불만족 비율(%)	16.0	12.9	17.1	17.8	23.4	20.2
응답 수(명)	63,377	155,058	316,582	525,005	1,148,061	2,208,083
지위가 하층이라 생각하는 비율(%)	44.7	50.0	56.4	58.3	60.6	58.3
응답 수(명)	63,378	155,057	316,582	525,005	1,148,293	2,208,315

주: 불만족 비율의 경우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으로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이며, '가족관계', '친구관계'에 대해 가족과 친구가 부재한 경우 '해당 없음' 처리하였고, '결혼생활'은 유배우인 경우, '하고 있는 일'은 취업자인 경우에만 질문함

〈표 5-5-28〉 변수별 일상생활과 삶의 질 특성 비교 - 장애정도별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중증	경증	전 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비율(%)	65.7	66.6	66.2
응답 수(명)	906,596	1,301,719	2,208,315
장애 이외 만성적 질병 있는 비율(%)	63.0	67.8	65.8
응답 수(명)	906,596	1,301,719	2,208,315
일상생활 도움 필요 비율(%)	64.5	27.4	42.6
응답 수(명)	906,596	1,301,719	2,208,315
도움제공자 있는 비율(%)	53.9	18.0	32.8
응답 수(명)	906,596	1,301,719	2,208,315
가족과의 관계 불만족 비율(%)	9.3	6.1	7.4
응답 수(명)	830,153	1,218,805	2,048,958
친구들과의 관계 불만족 비율(%)	22.5	6.5	12.8
응답 수(명)	810,067	1,265,108	2,075,175
살고 있는 곳 불만족 비율(%)	9.8	8.4	9.0
응답 수(명)	906,363	1,301,720	2,208,083
건강상태 불만족 비율(%)	54.0	48.4	50.7
응답 수(명)	906,363	1,301,720	2,208,083
한달 수입 불만족 비율(%)	58.2	55.2	56.4
응답 수(명)	906,363	1,301,720	2,208,083
여가활동 불만족 비율(%)	39.6	30.2	34.0
응답 수(명)	906,363	1,301,720	2,208,083
하고 있는 일 불만족 비율(%)	12.2	10.3	10.8
응답 수(명)	239,434	649,144	888,578
결혼생활 불만족 비율(%)	6.8	4.1	5.0
응답 수(명)	404,682	850,007	1,254,689
전반적 불만족 비율(%)	26.8	15.6	20.2
응답 수(명)	906,363	1,301,720	2,208,083
지위가 하층이라 생각하는 비율(%)	68.7	51.0	58.3
응답 수(명)	906,596	1,301,719	2,208,315

주: 불만족 비율의 경우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으로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이며, '가족관계', '친구관계'에 대해 가족과 친구가 부재한 경우 '해당 없음' 처리하였고, '결혼생활'은 유배우인 경우, '하고 있는 일'은 취업자인 경우에만 질문함

〈표 5-5-29〉 변수별 일상생활과 삶의 질 특성 비교 - 장애유형별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신체의부장애		감각장애		정신적	신체 내부	전 체
	지체	지체 제외	시각	시각 제외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비율(%)	66.4	81.2	67.0	61.3	47.6	81.8	66.2
응답 수(명)	1,207,366	216,704	225,509	213,696	232,940	112,100	2,208,315
장애 이외 만성적 질병 있는 비율(%)	67.5	79.6	67.8	61.9	38.8	80.9	65.8
응답 수(명)	1,207,366	216,704	225,509	213,696	232,940	112,100	2,208,315
일상생활 도움 필요 비율(%)	36.1	67.2	40.7	35.5	61.2	45.0	42.6
응답 수(명)	1,207,366	216,704	225,509	213,696	232,940	112,100	2,208,315
도움제공자 있는 비율(%)	25.7	52.5	32.2	27.4	53.9	38.4	32.8
응답 수(명)	1,207,366	216,704	225,509	213,696	232,940	112,100	2,208,315
가족과의 관계 불만족 비율(%)	6.8	10.2	7.4	6.3	10.0	6.0	7.4
응답 수(명)	1,125,131	200,273	209,962	199,888	212,740	100,962	2,048,956
친구들과의 관계 불만족 비율(%)	8.9	19.8	12.2	7.5	36.7	10.5	12.8
응답 수(명)	1,170,598	201,628	211,122	200,410	188,919	102,500	2,075,177
살고 있는 곳 불만족 비율(%)	9.1	7.8	8.9	6.4	14.1	4.6	9.0
응답 수(명)	1,207,366	216,704	225,277	213,696	232,940	112,100	2,208,083
건강상태 불만족 비율(%)	51.1	65.8	45.3	40.8	39.9	69.7	50.7
응답 수(명)	1,207,366	216,704	225,277	213,696	232,940	112,100	2,208,083
한달 수입 불만족 비율(%)	57.4	59.2	50.3	53.1	56.8	58.0	56.4
응답 수(명)	1,207,366	216,704	225,277	213,696	232,940	112,100	2,208,083
여가활동 불만족 비율(%)	33.4	41.1	32.8	26.8	34.9	41.9	34.0
응답 수(명)	1,207,366	216,704	225,277	213,696	232,940	112,100	2,208,083
하고 있는 일 불만족 비율(%)	11.5	9.2	8.6	13.5	8.7	2.3	10.8
응답 수(명)	548,961	40,184	95,453	110,270	61,091	32,620	888,579
결혼생활 불만족 비율(%)	5.7	4.2	5.2	1.6	5.9	3.0	5.0
응답 수(명)	762,500	119,016	134,781	133,389	43,741	61,264	1,254,691
전반적 불만족 비율(%)	16.5	27.2	22.5	14.8	29.9	31.9	20.2
응답 수(명)	1,207,366	216,704	225,277	213,696	232,940	112,100	2,208,083
지위가 하층이라 생각하는 비율(%)	54.9	62.1	58.3	54.2	75.0	60.5	58.3
응답 수(명)	1,207,366	216,703	225,509	213,696	232,941	112,100	2,208,315

주: 불만족 비율의 경우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으로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이며, '가족관계', '친구관계'에 대해 가족과 친구가 부재한 경우 '해당 없음' 처리하였고, '결혼생활'은 유배우인 경우, '하고 있는 일'은 취업자인 경우에만 질문함

제6절 고령장애인

1953년 이전 출생한 고령장애인의 경우 이미 은퇴⁸⁾를 한 장애인은 전체의 66.6%로 나타나고 있으며, 아직 은퇴를 하지 않은 장애인은 33.4%이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은퇴할 계획이 없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31.9%를 차지하고 있다.

〈표 5-6-1〉 고령장애인의 은퇴 여부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은퇴(66.6%)	과거 일을 한 적이 있으며 이미 은퇴를 했음	266,086	22.7
	일을 한 적도 없으며 앞으로도 일할 생각이 없음	513,509	43.8
미은퇴(33.4%)	조만간 은퇴할 예정임	17,812	1.5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은퇴할 계획이 없음	373,861	31.9
전 체		1,171,268	100.0

주: 1953년 이전 출생자에게 질문함(이하 동일)

〈표 5-6-2〉 은퇴자의 은퇴나이, 은퇴이유 및 은퇴 후 생활만족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은퇴나이	39세 이하	9,140	3.4
	40~49세	17,367	6.5
	50~59세	58,406	22.0
	60~69세	123,271	46.3
	70세 이상	54,210	20.4
	모름/응답거절	3,692	1.4
전 체		266,086	100.0
은퇴이유 (1순위)	장애가 발생해서	52,985	19.9
	장애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92,676	34.8
	장애와 상관없이 육체적으로 일을 하기 힘들어져서	70,718	26.6
	퇴직연령이 되어서	9,537	3.6
	일자리에서 은퇴를 강요해서	780	0.3
	일하기가 싫어져서	2,173	0.8
	일하던 곳의 사업이 안되고 운영이 어려워져서	9,504	3.6
	더 많은 여가시간을 보내기 위해	2,657	1.0
	가족적 이유	10,128	3.8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어서 포기함	13,092	4.9
	기타	1,835	0.7
전 체		266,086	100.0

주: 은퇴 여부에서 '과거 일을 한 적이 있으며 이미 은퇴를 했음'이라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8) 은퇴란 향후 소일거리 등을 제외하고는 일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을 말하며,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 향후 일할 의사가 있다면 은퇴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음

〈표 5-6-2〉 은퇴자의 은퇴나이, 은퇴이유 및 은퇴 후 생활만족도 (계속)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은퇴 후 생활만족도	매우 불만족	64,053	24.1
	대체로 불만족	148,458	55.8
	대체로 만족	51,633	19.4
	매우 만족	1,941	0.7
전 체		266,086	100.0

주: 은퇴 여부에서 '과거 일을 한 적이 있으며 이미 은퇴를 했음'이라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과거 일을 한 적이 있으며 이미 은퇴를 한 경우 은퇴한 나이를 질문한 결과, 50대 22.0%, 60세 이상 66.7%로 나타났다. 은퇴한 이유로는 장애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34.8%, '장애와 상관없이 육체적으로 일을 하기 힘들어져서' 26.6%, '장애가 발생해서' 19.9%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은퇴 후 생활만족도는 불만족인 경우가 79.9%로 대다수가 은퇴 후 생활에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만간 은퇴할 예정이라고 응답한 경우 은퇴예상 나이는 60대 36.9%, 70대 초반 40.9%, 75세 이후 22.1%로 나타났다.

〈표 5-6-3〉 은퇴예정자의 은퇴예상 나이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60~64세	516	2.9
65~69세	6,065	34.0
70~74세	7,289	40.9
75세 이후	3,941	22.1
전 체	17,812	100.0

주: 은퇴 여부에서 '조만간 은퇴할 예정임'이라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아직 은퇴를 하지 않은 경우 일자리를 얻거나 유지하려는 1순위 이유는 '생활비를 벌거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가 77.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용돈이나 여가 활동비를 벌기 위해'는 7.6%로 나타났다.

〈표 5-6-4〉 미은퇴자의 일자리를 얻거나 유지하려는 이유(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생활비를 벌거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304,802	77.8
노후자금을 마련하고	23,376	6.0
용돈이나 여가 활동비를 벌기 위해	29,887	7.6
그동안 쌓은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	2,962	0.8
사회나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1,273	0.3
건강을 위해	8,579	2.2
집에 있으면 무료해서	20,028	5.1
기타	766	0.2
전 체	391,673	100.0

주: 은퇴 여부에서 '조만간 은퇴할 예정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은퇴할 계획이 없음'이라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고령장애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 '건강문제'이 44.5%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적인 어려움' 43.4%로 나타났다. '소일거리가 없음' 응답 비율은 실업자(42.0%)가 취업자(1.2%)나 비경제활동인구(5.7%)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표 5-6-5〉 고령장애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1순위)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경제적인 어려움	508,280	43.4	42.7	40.2	43.7
직업이 없거나 고용이 불안정	16,604	1.4	1.8	12.4	1.1
소일거리가 없음	55,663	4.8	1.2	42.0	5.7
건강문제	520,939	44.5	45.3	5.4	44.7
외로움, 소외감	45,232	3.9	4.9	0.0	3.5
가족으로부터 푸대접	440	0.0	0.0	0.0	0.1
사회에서의 경로의식 약화	4,383	0.4	1.0	0.0	0.1
일상생활 도움 서비스(밥해주기, 청소하기 등) 부족	5,773	0.5	0.7	0.0	0.4
노인복지시설 부족	5,999	0.5	0.7	0.0	0.4
기타	7,955	0.7	1.7	0.0	0.3
전 체	1,171,268	100.0	100.0	100.0	100.0

3. 주요 변수별 고령장애인 특성 비교

〈표 5-6-6〉 변수별 고령장애인 특성 비교 - 성별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남성	여성	전 체
은퇴 비율(%)	56.0	78.3	66.6
응답 수(명)	618,765	552,503	1,171,268
은퇴 후 생활 불만족 비율(%)	77.1	83.0	79.9
응답 수(명)	143,202	122,883	266,085

주 1) 1953년 이전 출생자에게 질문함(이하 동일)

주 2) 생활 불만족 비율은 일을 한 적이 있고 은퇴를 한 응답자에게 질문함(이하 동일)

〈표 5-6-7〉 변수별 고령장애인 특성 비교 - 연령별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50~59세	60~81세	전 체
은퇴 비율(%)	44.7	67.0	66.6
응답 수(명)	22,975	1,148,293	1,171,268
은퇴 후 생활 불만족 비율(%)	80.0	79.9	79.9
응답 수(명)	3,132	262,953	266,085

〈표 5-6-8〉 변수별 고령장애인 특성 비교 - 장애정도별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중증	경증	전 체
은퇴 비율(%)	81.7	58.7	66.6
응답 수(명)	401,262	770,006	1,171,268
은퇴 후 생활 불만족 비율(%)	82.0	79.0	79.9
응답 수(명)	77,507	188,578	266,085

〈표 5-6-9〉 변수별 고령장애인 특성 비교 - 장애유형별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신체외부장애		감각장애		정신적	신체 내부	전 체
	지체	지체 제외	시각	시각 제외			
은퇴 비율(%)	62.0	87.5	63.1	56.5	90.2	81.5	66.6
응답 수(명)	675,067	137,926	137,708	119,951	46,764	53,854	1,171,270
은퇴 후 생활 불만족 비율(%)	79.5	73.3	75.5	83.0	91.6	88.9	79.9
응답 수(명)	152,453	23,971	28,990	38,071	9,330	13,270	266,085

제 6 장

조사결과 5: 개인 소득 및 가구 특성

제1절 개인 소득

1. 개인 근로소득

2013년 한 해 개인의 임금소득, 사업소득 등 근로소득이 있었던 장애인은 39.0%이며, 평균 개인 근로소득액은 1,559.5만원이다(세후 기준).

〈표 6-1-1〉 개인 근로소득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만원, 명)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개인 근로소득 있음	39.0	88.4	47.6	4.5
평균 개인 근로소득	1,559.5	1,622.1	927.5	910.2
표준오차	1.458	1.554	5.583	3.543
응답 수	861,962	785,717	18,300	57,945
개인 근로소득 없음	61.0	11.6	52.4	95.5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208,315	888,578	38,465	1,281,272

주: 근로소득은 소득이 발생한 경우만으로 평균을 산정하였으며,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2. 개인 근로 외 소득

개인 근로 외 소득에는 사회보험급여,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기타소득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3년 한 해 개인의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71.3%이며 평균 소득액은 249.2만원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사회보험급여 101.8만원, 재산소득 31.6만원, 사적이전소득 85.6만원, 공적이전소득 70.2만원, 기타소득 5.1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6-1-2〉 개인 근로 외 소득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만원, 명)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사회보험급여	소득있음	18.7	19.6	14.6	18.2
	소득없음	81.3	80.4	85.4	81.8
	전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수	2,207,976	888,578	38,465	1,280,933
	평균소득	101.8	90.5	134.1	108.6
재산소득	소득있음	4.4	5.4	2.1	3.8
	소득없음	95.6	94.6	97.9	96.2
	전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수	2,206,926	887,189	38,465	1,281,272
	평균소득	31.6	23.7	12.3	37.5
사적이전소득	소득있음	27.3	18.7	33.6	33.1
	소득없음	72.7	81.3	66.4	66.9
	전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수	2,208,315	888,578	38,465	1,281,272
	평균소득	85.6	48.1	92.1	111.4
공적이전소득	소득있음	50.8	28.0	26.3	67.3
	소득없음	49.2	72.0	73.7	32.7
	전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수	2,207,953	888,578	38,465	1,280,910
	평균소득	70.2	33.0	18.1	97.5
기타소득	소득있음	2.7	3.8	6.4	1.8
	소득없음	97.3	96.2	93.6	98.2
	모름/응답거절	0.0	0.0	0.0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수	2,208,315	888,578	38,465	1,281,272
평균소득	5.1	4.8	20.0	4.9	
개인 근로 외 소득	소득있음	71.3	50.6	58.8	86.1
	소득없음	28.7	49.4	41.2	13.9
	전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수	2,208,315	888,578	38,465	1,281,272
	평균소득	294.2	200.2	276.7	359.9

주: 근로 외 소득평균은 모든 장애인에 대해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3. 개인 총소득

2013년 한 해 근로소득과 사회보험 급여,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근로 이외의 소득을 합친 개인 평균 총소득액은 902.9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6-1-3〉 개인 총소득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만원, 명)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평균 개인 총소득	902.9	1,634.6	718.0	401.1
표준오차	0.802	1.516	4.264	0.550
응답 수	2,208,315	888,578	38,465	1,281,272

주: 총소득은 모든 장애인에 대해 평균을 산정하였으며,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4. 주요 변수별 개인소득 특성 비교

〈표 6-1-4〉 변수별 개인소득 특성 비교 - 성별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남성	여성	전 체
2013년 근로소득 발생 비율(%)	50.2	22.6	39.0
응답 수(명)	1,315,335	892,980	2,208,315
2013년 평균 근로소득(만원)	1,740.5	966.8	1,559.5
응답 수(명)	660,375	201,587	861,962
2013년 근로 외 소득 발생 비율(%)	68.6	75.3	71.3
응답 수(명)	1,315,335	892,980	2,208,315
2013년 평균 근로 외 소득(만원)	328.4	243.7	294.2
응답 수(명)	1,314,996	891,229	2,206,225
2013년 평균 개인 총소득(만원)	1,202.3	462.0	902.9
응답 수(명)	1,315,335	892,980	2,208,315

- 주 1) 근로소득은 소득이 발생한 경우만으로 평균을 산정하였으며,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2) 근로 외 소득, 총소득은 모든 장애인에 대해 평균을 산정하였으며,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표 6-1-5〉 변수별 개인소득 특성 비교 - 연령별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21~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81세	전 체
2013년 근로소득 발생 비율(%)	42.5	50.1	54.2	52.6	27.0	39.0
응답 수(명)	63,378	155,057	316,582	525,006	1,148,292	2,208,315
2013년 평균 근로소득(만원)	942.7	1,820.3	1,967.7	1,793.4	1,112.9	1,559.5
응답 수(명)	26,963	77,658	171,696	276,090	309,555	861,962
2013년 근로 외 소득 발생 비율(%)	54.1	47.5	51.7	56.6	87.7	71.3
응답 수(명)	63,378	155,057	316,582	525,006	1,148,292	2,208,315
2013년 평균 근로 외 소득(만원)	103.6	109.5	177.6	192.3	408.5	294.2
응답 수(명)	63,378	155,057	316,582	524,305	1,146,904	2,206,225
2013년 평균 개인 총소득(만원)	504.7	1,021.2	1,244.8	1,135.5	708.4	902.9
응답 수(명)	63,378	155,057	316,582	525,005	1,148,293	2,208,315

- 주 1) 근로소득은 소득이 발생한 경우만으로 평균을 산정하였으며,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2) 근로 외 소득, 총소득은 모든 장애인에 대해 평균을 산정하였으며,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표 6-1-6〉 변수별 개인소득 특성 비교 - 장애정도별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중증	경증	전 체
2013년 근로소득 발생 비율(%)	24.7	49.0	39.0
응답 수(명)	906,596	1,301,719	2,208,315
2013년 평균 근로소득(만원)	1,228.5	1,675.8	1,559.5
응답 수(명)	224,087	637,875	861,962
2013년 근로 외 소득 발생 비율(%)	78.1	66.6	71.3
응답 수(명)	906,596	1,301,719	2,208,315
2013년 평균 근로 외 소득(만원)	287.0	299.3	294.2
응답 수(명)	905,895	1,300,330	2,206,225
2013년 평균 개인 총소득(만원)	590.6	1,120.5	902.9
응답 수(명)	906,596	1,301,719	2,208,315

주 1) 근로소득은 소득이 발생한 경우만으로 평균을 산정하였으며,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2) 근로 외 소득, 총소득은 모든 장애인에 대해 평균을 산정하였으며,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표 6-1-7〉 변수별 개인소득 특성 비교 - 장애유형별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신체외부장애		감각장애		정신적	신체 내부	전 체
	지체	지체 제외	시각	시각 제외			
2013년 근로소득 발생 비율(%)	44.1	19.1	42.7	48.5	24.0	29.1	39.0
응답 수(명)	1,207,366	216,704	225,509	213,696	232,940	112,100	2,208,315
2013년 평균 근로소득(만원)	1675.0	1374.0	1685.0	1271.2	719.6	1897.2	1559.5
응답 수(명)	531,942	41,454	96,348	103,731	55,885	32,602	861,962
2013년 근로 외 소득 발생 비율(%)	69.0	79.8	68.7	70.1	76.5	77.3	71.3
응답 수(명)	1,207,366	216,704	225,509	213,696	232,940	112,100	2,208,315
2013년 평균 근로 외 소득(만원)	297	421.6	275.6	316.1	134.7	345.2	294.2
응답 수(명)	1,207,366	216,704	225,170	212,307	232,578	112,100	2,206,225
2013년 평균 개인 총소득(만원)	1,035	684.4	995.8	933.2	307.1	897.0	902.9
응답 수(명)	1,207,366	216,704	225,509	213,696	232,940	112,100	2,208,315

주 1) 근로소득은 소득이 발생한 경우만으로 평균을 산정하였으며,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2) 근로 외 소득, 총소득은 모든 장애인에 대해 평균을 산정하였으며,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제2절 가구 특성

1. 가구원 정보

지난조사 시 거주하던 가구에 지속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비율은 0.6%이며, 미거주 사유는 '경제적 독립(학업, 취업 등)' 40.2%, '장기입원, 요양, 시설입소' 30.5%, '가구 형편이 어려워져서' 10.9% 순으로 나타났다.

〈표 6-2-1〉 지난조사 시 가구 현재 지속 거주 여부 및 미거주 사유

(단위: %, 명)

변 수	구 분	비 율
지난조사 시 가구 현재 지속 거주 여부	거주	99.4
	미거주	0.6
	전 체	100.0
	추정 수	2,208,315
미거주 사유	결혼	7.2
	이혼/별거/가출	2.7
	경제적 독립(학업, 취업 등)	40.2
	가구 형편이 어려워져서	10.9
	장기입원, 요양, 시설입소	30.5
	기타	8.4
	전 체	100.0
	추정 수	13,373

주: '미거주 사유'는 지난조사 시 가구에 더 이상 거주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표 6-2-2〉 가구 규모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명)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가구 규모	1인 가구	11.6	10.0	25.5
	2인 가구	34.0	33.9	43.3
	3인 가구	23.7	28.6	17.9
	4인 가구	22.1	20.2	9.2
	5인 이상 가구	8.7	7.2	4.0
	전 체	100.0	100.0	100.0
	추정 수	2,208,316	888,578	38,466
				1,281,272
평균 가구원 수	2.50	2.84	2.84	2.25
평균 장애가구원 수	1.16	1.15	1.13	1.18

가구 규모를 보면, 1인 가구는 전체의 19.6%, 2인 가구는 39.4%, 3인 가구는 20.4%, 4인 가구는 14.6%를 차지하고 있다. 평균 가구원 수는 2.50명이며, 취업자 2.84명, 실업자 2.84명, 비경제활동인구 2.25명으로 취업자의 평균 가구원 수가 미취업자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평균 장애인 가구원 수는 1.16명이다.

전체의 65.0%가 장애인 당사자가 가구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상태별로 살펴보면, 취업자의 71.4%, 실업자의 50.3%, 비경제활동인구의 61.0%가 가구주로서, 미취업자인 경우에도 절반 이상이 가구를 대표하고 있다.

〈표 6-2-3〉 장애인의 가구주 여부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명)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가구주임	65.0	71.4	50.3	61.0
가구주가 아님	35.0	28.6	49.7	39.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208,315	888,578	38,465	1,281,272

2. 가구 소득 및 소비

2013년 한 해 임금소득, 사업소득 등 가구 근로소득(세후 기준)이 있었던 비율은 전체의 63.9%이며, 평균 가구 근로소득액은 2,265.3만원이다.

〈표 6-2-4〉 가구 근로소득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만원, 명)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가구 근로소득 있음	63.9	97.9	79.0	39.8
평균 가구 근로소득	2,265.30	2,489.50	2,514.00	1,867.60
표준오차	1.511	2.063	10.482	2.050
응답 수	1,410,118	870,166	30,391	509,561
가구 근로소득 없음	36.1	2.1	21.0	60.2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208,315	888,578	38,465	1,281,272

주: 근로소득은 소득이 발생한 경우만으로 평균을 산정하였으며,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2013년 한 해 가구의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79.7%이며, 평균 소득액은 553.3만원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사회보험급여 146.9만원, 재산소득 51.7만원, 사적이전소득 120.5만원, 공적이전소득 218.5만원, 기타소득 15.8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6-2-5〉 가구 근로 외 소득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만원, 명)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사회보험급여	소득있음	26.9	26.4	24.5
	소득없음	73.1	73.6	75.5
	전체	100.0	100.0	100.0
	추정수	2,207,976	888,578	38,465
	평균소득	146.9	120.3	177.3
재산소득	소득있음	7.2	7.4	2.1
	소득없음	92.8	92.6	97.9
	전체	100.0	100.0	100.0
	추정수	2,206,926	887,189	38,465
	평균소득	51.7	36.6	12.3
사적이전소득	소득있음	34.0	24.6	40.6
	소득없음	66.0	75.4	59.4
	전체	100.0	100.0	100.0
	추정수	2,208,315	888,578	38,465
	평균소득	120.5	78.8	210.3
공적이전소득	소득있음	59.0	39.0	27.3
	소득없음	41.0	61.0	72.7
	전체	100.0	100.0	100.0
	추정수	2,207,645	888,578	38,157
	평균소득	218.5	115.2	161.2
기타소득	소득있음	3.8	5.3	7.8
	소득없음	96.2	94.7	92.2
	모름/응답거절	100.0	100.0	100.0
	전체	0.0	0.0	0.0
	추정수	2,208,315	888,578	38,465
개인 근로 외 소득	평균소득	15.8	19.1	20.8
	소득있음	79.7	61.6	68.3
	소득없음	20.3	38.4	31.7
	전체	100.0	100.0	100.0
	추정수	2,208,315	888,578	38,465
	평균소득	553.3	370.0	582.0

주: 근로 외 소득평균은 모든 장애인에 대해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2013년 한 해 근로소득과 사회보험 급여, 재산 소득, 사적·공적이전소득 등 근로 이외의 소득을 합친 가구 평균 총소득액은 1,999.8만원이며, 취업자 2,807.9만원, 실업자 2,568.3만원, 비경제활동인구 1,422.3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표 6-2-6〉 가구 총소득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만원, 명)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평균 가구 총소득	1,999.8	2,807.9	2,568.3	1,422.3
표준오차	1.185	2.033	8.890	1.221
응답 수	2,208,315	888,578	38,465	1,281,272

주: 총소득은 모든 장애인에 대해 평균을 산정하였으며,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2013년 한 해 식비, 교육비, 주거비, 경조사비, 생필품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한 월평균 가구 소비액은 150.4만원으로, 취업자(203.2만원)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2-7〉 가구 소비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만원, 명)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월평균 가구 소비	150.4	203.2	205.4	112.2
표준오차	0.078	0.138	0.621	0.078
응답 수	2,208,315	888,578	38,465	1,281,272

주 1) 가구소비는 모든 장애인에 대해 평균을 산정하였으며,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2) 가구소비가 없었던 가구의 경우에는 0원으로 산정하여 평균을 산출하였음

전년도 대비 2013년 가구 총소득이 조금이라도 늘어난 가구는 46.2%, 줄어든 가구는 41.0%이며, 가구 소비가 늘어난 가구는 51.3%, 줄어든 가구는 44.4%로 나타났다.

〈표 6-2-8〉 지난조사 대비 가구 총소득, 가구 소비 변화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명)

변 수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가구 총소득	지난조사 대비 늘어남	46.2	51.1	51.6	43.1
	지난조사와 동일함	12.7	13.9	10.2	12.0
	지난조사 대비 줄어듦	41.0	35.0	38.2	44.9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1,847,339	703,759	25,420	1,118,160
가구 소비	지난조사 대비 늘어남	51.3	53.0	64.4	49.9
	지난조사와 동일함	4.3	3.4	3.0	4.9
	지난조사 대비 줄어듦	44.4	43.6	32.6	45.2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1,845,122	703,758	25,420	1,115,944

- 주 1) 가구 총소득, 가구 소비는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2) 가구소득, 가구소비가 없었던 가구의 경우에는 0원으로 산정하여 평균을 산출하였으며, 가구 총소득은 연평균, 가구 소비는 월평균을 기준으로 하였음
 3) 평균 금액이 정확히 일치할 경우에 '동일함' 처리하였음
 4) 중단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함

3.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가구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전체의 28.4%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장애인 당사자가 가구주인 경우에 수급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6-2-9〉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 가구원 수별, 장애인 가구주 여부별
(단위: %, 명)

구 분	비율	가구원 수					장애인 가구주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가구주	가구주 아님
수급가구	28.4	51.3	25.6	23.5	17.0	15.2	31.3	23.0
미수급가구	71.6	48.7	74.4	76.5	83.0	84.8	68.7	77.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208,315	433,291	870,314	450,829	322,315	131,566	1,435,024	773,290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수급 시작시기는 '1999년 이전' 27.6%, '2000년~2004년' 34.1%, '2005년 이후' 70.4%로 나타났으며, 지원 분야는 생계비 지원 98.5%, 의료비 지원 90.5%, 주거비 지원 6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수급을 받고 있는 장애인에게 어느 정도의 소득이 보장되면 기초수급을 탈피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79.0%가 어떠한 수준의 일자리가 제공되어도 기초수급을 탈피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6-2-10〉 기초생활보장 수급 시작 시기, 지원 분야, 탈피의향

(단위: %, 명)

구 분		비 율
	1999년 이전	27.6
	2000년~2004년	34.1
	2005년 이후	36.3
	모름/응답거절	2.0
	전 체	100.0
추정 수		626,084
지원 분야 (중복응답)	생계비 지원	98.5
	의료비 지원	90.5
	교육비 지원	15.0
	주거비 지원	69.6
	자활 관련 지원	3.3
	기타	1.2
	전 체	-
추정 수		626,084
탈피 의향	현재 수급액의 70% 수준	1.2
	현재 수급액 수준(100%)	2.5
	현재 수급액의 150% 수준	5.2
	현재 수급액의 200% 수준 이상	12.0
	어떤 수준의 일자리가 제공되어도 받지 않을 의향 없음	79.0
	모름/응답거절	0.0
	전 체	100.0
추정 수		626,084

주: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라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4. 자산/부채

가구의 자산을 응답받은 결과, 500만원 미만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24.4%이며, 1억원 이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33.9%로 나타났다.

〈표 6-2-11〉 가구자산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명)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500만원 미만	24.4	9.6	13.3	35.0
500만원~ 1천만원	5.8	5.7	4.3	5.9
1천만원~ 3천만원	12.7	11.4	22.2	13.2
3천만원~ 5천만원	7.3	7.2	5.1	7.4
5천만원~ 1억원	16	21.1	19.3	12.3
1억원~ 3억원	25.5	35.0	28.9	18.8
3억원~ 5억원	5.7	6.6	6.9	5.0
5억원~ 10억원	1.9	2.4	0.0	1.6
10억원 이상	0.8	1.0	0.0	0.7
모름/응답거절	-	-	-	-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208,157	888,579	38,465	1,281,113

가구의 부채를 응답받은 결과, 500만원 미만의 부채를 지니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66.0%이며, 1억원 이상 부채를 지니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3.9%로 나타났다.

〈표 6-2-12〉 가구부채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명)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500만원 미만	66.0	53.1	53.6	75.4
500만원~ 1천만원	5.2	5.4	13.3	4.9
1천만원~ 3천만원	12.5	16.4	16.4	9.7
3천만원~ 5천만원	5.9	7.7	7.0	4.6
5천만원~ 1억원	6.4	10.6	3.4	3.5
1억원~ 3억원	3.4	5.7	6.3	1.8
3억원~ 5억원	0.3	0.7	0.0	0.1
5억원~ 10억원	0.1	0.2	0.0	0.0
10억원 이상	0.1	0.2	0.0	0.1
모름/응답거절	-	-	-	-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207,577	888,578	38,465	1,280,534

5. 주거형태 및 이사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의 형태로는, '아파트' 57.9%, '일반단독주택' 23.4%, '연립주택(빌라)' 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2-13〉 주거형태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명)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일반단독주택	23.4	29.8	15.8	19.2
다가구용 단독주택	5.3	4.6	5.2	5.8
다세대주택	1.1	1.0	0.0	1.3
연립주택(빌라)	9.4	9.7	20.1	8.9
아파트	57.9	50.4	57.2	63.2
기타	2.8	4.6	1.7	1.7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208,315	888,578	38,464	1,281,273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의 소유형태는 '자가' 50.0%, '월세(보증금 있음)' 34.3%, '전세' 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2-14〉 소유형태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명)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자가	50.0	62.9	52.0	40.9
전세	9.0	8.6	10.8	9.3
월세(보증금 있음)	34.3	21.5	32.7	43.3
월세(보증금 없음)	0.8	0.9	0.7	0.7
사글세	0.3	0.6	0.0	0.2
무상	5.2	5.2	3.8	5.2
기타	0.4	0.2	0.0	0.5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208,314	888,577	38,465	1,281,272

지난조사 이후 이사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6.0%이며, 이사 사유로 31.5%가 '집값이 올라서 차익을 남기기 위해', 16.3%는 '계약기간 만료'를 응답하였다.

〈표 6-2-15〉 지난조사 이후 이사 경험 및 사유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명)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지난조사 이후	이사 경험 있음	6.0	7.0	13.7	5.0
	이사 경험 없음	94.0	93.0	86.3	95.0
이사 경험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208,315	888,578	38,465	1,281,272
이사 이유	가구주 또는 가구원의 직장이동	5.5	7.2	34.1	1.5
	집을 늘리기 위해서	6.8	6.9	0.0	7.2
	가구원 수 변동	1.5	2.5	0.0	0.6
	집세가 올라서	9.4	9.4	0.0	10.2
	주거비용을 줄이기 위해	10.9	6.8	10.6	14.9
	자녀교육 때문에	1.8	2.9	0.0	0.9
	집값이 올라서 차익을 남기기 위해	0.6	1.3	0.0	0.0
	보다 좋은 주거환경을 위해	31.5	30.2	20.0	33.7
	분가	3.0	4.4	0.0	2.0
	합가	1.8	2.4	0.0	1.4
	계약기간 만료	10.9	12.6	35.3	7.2
	기타	16.3	13.4	0.0	20.4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131,637	61,883	5,277	64,477

주: '이사 사유'는 지난조사 이후 이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질문함

6. 주요 변수별 가구 특성 비교

〈표 6-2-16〉 변수별 가구 특성 비교 - 성별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남성	여성	전 체
가구원 수(명)	2.7	2.3	2.5
응답 수(명)	1,315,335	892,980	2,208,315
장애가구원 수(명)	1.2	1.1	1.2
응답 수(명)	1,315,335	892,980	2,208,315
가구주인 비율(%)	80.2	42.6	65.0
응답 수(명)	1,315,335	892,980	2,208,315
2013년 가구 총소득(만원)	2,197.4	1,708.8	1,999.8
응답 수(명)	1,315,335	892,980	2,208,315
2013년 월평균 가구소비(만원)	163.4	131.3	150.4
응답 수(명)	1,315,335	892,980	2,208,315
기초생활보장 수급 비율(%)	27.0	30.3	28.4
응답 수(명)	1,315,335	892,980	2,208,315
자산 - 500만원 미만 비율(%)	22.6	27.1	24.4
응답 수(명)	1,315,335	892,820	2,208,155
부채 - 1억원 이상 비율(%)	62.4	71.4	66.0
응답 수(명)	1,314,883	892,693	2,207,576
주거형태 - 아파트 비율(%)	58.0	57.8	57.9
응답 수(명)	1,315,335	892,980	2,208,315
소유형태 - 자가 비율(%)	51.1	48.3	50.0
응답 수(명)	1,315,335	892,980	2,208,315
지난조사 이후 이사 경험 비율(%)	5.6	6.6	6.0
응답 수(명)	1,315,335	892,980	2,208,315

주: '가구 총소득', '월평균 가구소비'는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한 분석임

〈표 6-2-17〉 변수별 가구 특성 비교 - 연령별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21~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81세	전 체
가구원 수(명)	3.52	2.98	3.10	2.64	2.15	2.50
응답 수(명)	63,378	155,057	316,582	525,005	1,148,293	2,208,315
장애가구원 수(명)	1.17	1.13	1.17	1.17	1.16	1.16
응답 수(명)	63,378	155,057	316,582	525,005	1,148,293	2,208,315
가구주인 비율(%)	2.2	28.3	60.8	75.2	69.9	65.0
응답 수(명)	63,378	155,057	316,582	525,005	1,148,293	2,208,315
2013년 가구 총소득(만원)	2,906.9	2,510.4	2,451.1	2,339.1	1,601.2	1,999.8
응답 수(명)	63,378	155,057	316,582	525,005	1,148,293	2,208,315
2013년 월평균 가구소비(만원)	221.05	177.68	190.36	176.13	120.1	150.43
응답 수(명)	63,378	155,057	316,582	525,005	1,148,293	2,208,315
기초생활보장 수급 비율(%)	33.0	31.5	33.5	32.1	24.5	28.4
응답 수(명)	63,378	155,057	316,582	525,005	1,148,293	2,208,315
자산 - 500만원 미만 비율(%)	24.5	21.3	22.2	27.9	23.9	24.4
응답 수(명)	63,380	155,058	316,581	525,005	1,148,133	2,208,155
부채 - 1억원 이상 비율(%)	67.6	64.8	55.2	56.1	73.6	66.0
응답 수(명)	63,378	155,057	316,582	524,266	1,148,293	2,207,576
주거형태 - 아파트 비율(%)	67.8	65.2	66.3	62.3	52.1	57.9
응답 수(명)	63,378	155,057	316,582	525,005	1,148,293	2,208,315
소유형태 - 자가 비율(%)	47.5	46.9	45.0	43.7	54.8	50.0
응답 수(명)	63,378	155,057	316,582	525,005	1,148,293	2,208,315
지난조사 이후 이사 경험 비율(%)	8.9	12.2	10.4	5.3	4.1	6.0
응답 수(명)	63,378	155,057	316,582	525,005	1,148,293	2,208,315

주: '가구 총소득', '월평균 가구소비'는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한 분석임

〈표 6-2-18〉 변수별 가구 특성 비교 - 장애정도별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중증	경증	전 체
가구원 수(명)	2.5	2.5	2.5
응답 수(명)	906,596	1,301,719	2,208,315
장애가구원 수(명)	1.2	1.1	1.2
응답 수(명)	906,596	1,301,719	2,208,315
가구주인 비율(%)	57.9	69.9	65.0
응답 수(명)	906,596	1,301,719	2,208,315
2013년 가구 총소득(만원)	1,688.5	2,216.6	1,999.8
응답 수(명)	906,596	1,301,719	2,208,315
2013년 월평균 가구소비(만원)	129.32	165.13	150.43
응답 수(명)	906,596	1,301,719	2,208,315
기초생활보장 수급 비율(%)	42.6	18.4	28.4
응답 수(명)	906,596	1,301,719	2,208,315
자산 - 500만원 미만 비율(%)	33.7	18.0	24.4
응답 수(명)	906,595	1,301,561	2,208,156
부채 - 1억원 이상 비율(%)	72.3	61.7	66.0
응답 수(명)	906,596	1,300,979	2,207,575
주거형태 - 아파트 비율(%)	63.1	54.3	57.9
응답 수(명)	906,595	1,301,720	2,208,315
소유형태 - 자가 비율(%)	38.8	57.8	50.0
응답 수(명)	906,595	1,301,720	2,208,315
지난조사 이후 이사 경험 비율(%)	5.6	6.2	6.0
응답 수(명)	906,595	1,301,720	2,208,315

주: '가구 총소득', '월평균 가구소비'는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한 분석임

〈표 6-2-19〉 변수별 가구 특성 비교 - 장애유형별

(단위: 개별 단위)

변 수	신체외부장애		감각장애		정신적	신체 내부	전 체
	지체	지체 제외	시각	시각 제외			
가구원 수(명)	2.49	2.39	2.43	2.60	2.65	2.42	2.50
응답 수(명)	1,207,366	216,704	225,509	213,696	232,940	112,100	2,208,315
장애가구원 수(명)	1.15	1.12	1.14	1.23	1.28	1.07	1.16
응답 수(명)	1,207,366	216,704	225,509	213,696	232,940	112,100	2,208,315
가구주인 비율(%)	70.7	63.1	70.3	62.1	31.3	72.3	65.0
응답 수(명)	1,207,366	216,704	225,509	213,696	232,940	112,100	2,208,315
2013년 가구 총소득(만원)	2,092.5	1,758.6	2,009.9	2,139.7	1,618.3	1,973.6	1,999.8
응답 수(명)	1,207,366	216,704	225,509	213,696	232,940	112,100	2,208,315
2013년 월평균 가구소비(만원)	156.48	138.41	151.81	157.62	121.79	151.64	150.43
응답 수(명)	1,207,366	216,704	225,509	213,696	232,940	112,100	2,208,315
기초생활보장 수급 비율(%)	24.2	29.5	26.2	21.3	54.3	34.7	28.4
응답 수(명)	1,207,366	216,704	225,509	213,696	232,940	112,100	2,208,315
자산 - 500만원 미만 비율(%)	21.8	22.3	25.7	18.9	40.8	30.1	24.4
응답 수(명)	1,207,368	216,704	225,349	213,697	232,940	112,100	2,208,158
부채 - 1억원 이상 비율(%)	62.1	73.9	65.2	68.0	81.0	60.5	66.0
응답 수(명)	1,207,076	216,252	225,509	213,696	232,940	112,099	2,207,572
주거형태 - 아파트 비율(%)	58.5	61.1	55.7	47.3	67.1	50.8	57.9
응답 수(명)	1,207,366	216,704	225,509	213,696	232,940	112,100	2,208,315
소유형태 - 자가 비율(%)	53.6	49.9	46.2	56.9	33.3	40.2	50.0
응답 수(명)	1,207,366	216,704	225,509	213,696	232,940	112,100	2,208,315
지난조사 이후 이사 경험 비율(%)	6.0	8.2	5.5	5.2	5.2	4.5	6.0
응답 수(명)	1,207,366	216,704	225,509	213,696	232,940	112,100	2,208,315

주: '가구 총소득', '월평균 가구소비'는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한 분석임

참고문헌

- 남재량, 이상호, 최효미, 신선옥, 배기준 (2009). 제10차[2007년도] 한국 가구의 개인의 경제
활동: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 신현구, 이혜정 (2006). 컴퓨터를 이용한 대인면접이 조사 자료의 질 개선에 미치는 영향: 고
령화연구패널조사의 Blaise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연구**, 7(2), 71-95.
- 이상은, 신기일, 한근식 (2006). 장애인 패널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수탁연구.
- 이현우 (2009). 패널조사의 유용성과 문제점: 17대 대선자료를 대상으로. **조사연구**, 10(2).
23-43.
- 천영민, 최형아, 권순범, 이상희 (2012).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3차년도 기초분석보고
서. 한국고용정보원.
- 최현수, 이현주, 손창균, 전지현, 신재동, 정희선, 이경진, 박나영, 이봉주, 김태성, 구인회, 강
상경, 이상록, 정원오, 오욱찬, 변금선, 조영조 (2012). 2012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통계청 (2000).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대한 ILO 매뉴얼.
- 통계청 (2012). 2012년 자체통계품질진단 매뉴얼(ver 2.0).

- 부 록 -

제7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4년) 조사표	311
--------------------------------	-----



[부록] 제7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4년) 조사표

조사통계 2015-02

제7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4년)

발행일 2015년 12월
발행인 이 순 홍
발행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주 소 (463-93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59 (구미동)
전 화 (031) 728-7151
팩 스 (031) 728-7143
홈페이지 <http://edi.kead.or.kr>
전자우편 survey@kead.or.kr
I S B N 978-89-5813-980-5
인 쇄 빛크리에이션 ☎ (02) 2266-6208

*비매품